



시험장에서도 흔들려지 않는 바로그 큰 실력



송운정 先生

E-mail: danke1204@naver.com
<http://cafe.naver.com/songsongedu>

☎ 010-3743-1204

contents

실전 모의고사	쪽
1회	3
2회	9
3회	15
4회	21
5회	28
6회	34
7회	40
8회	47
9회	54
10회	61
11회	68
12회	75
13회	81
14회	87
15회	93
16회	99
정답 및 해설	105

화법, 작문, 문법

양치기 실전모의고사 [1~16회]는

[1~6회] 2015학년도 EBS 수능완성 B형

[7~11회] 2016학년도 EBS 수능완성 B형

[12~16회] 2017학년도 EBS 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를 편집한 자료입니다.

출처는 www.ebsi.co.kr입니다.

매주 2회씩 시간을 재고 연습하기 바랍니다.

파이팅!!

실전 모의고사

1회

[1~3]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대체 휴일제는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이어지는 평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해 쉬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대체 휴일제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 측: 노동 생산성은 OECD 국가 평균의 고작 62%에 불과한 우리가 법정 공휴일, 토·일요일, 연·월차 휴가 일수까지 합치면 연간 휴일 수가 135일에서 145일로 웬만한 선진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미 휴일은 충분한데 더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찬성 측: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 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749시간보다 무려 400시간 이상 길다. 대체 휴일제는 긴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회자: 반대 측은 우리나라 연간 휴일 수가 이미 충분하다, 찬성 측은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을 근거로 대체 휴일제에 대한 각자의 기본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반대 측 의견 계속 들어 보겠습니다.

반대 측: 공휴일을 무급으로 쉬게 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급으로 근로자들을 쉬게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체 휴일제까지 도입되면 생산 감소액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이 32조 4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찬성 측: 아까 반대 측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노동 시간은 긴데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휴식을 통한 재충전 효과를 위해 대체 휴일제가 필요합니다.

사회자: 네, 양측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근로자와 기업의 입장에서만 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국가 경제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보면 어떨습니까? 이번엔 찬성 측부터 말씀해 주시죠.

찬성 측: 대체 휴일제 시행으로 휴일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여가를 더 즐기게 되면 서비스 산업 창출 및 국내 소비 증대 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가까운 나라 일본의 골든 위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죄송합니다만, 일본의 골든 위크가 뭔가요?

찬성 측: 골든 위크란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공휴일이 모여 있는 일주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 황금 주간을 이용하여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 측 말씀해 주시죠.

반대 측: 대체 휴일제로 인한 기업의 손실이 결국 국가 경제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아까 찬성 측이 대체 휴일제의 파급 효과를 언급하셨는데, 주 5일제가 도입될 당시 국내 소비가 증대되고 관광 산업이 부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제도가 본격화된 2004년 이후 실제 크게 활황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대체 휴일제의 파급 효과라고 주장되는 내용들 역시 이와 비슷할 거라고 ...

찬성 측: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며)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더니 반대 측의 논리가 딱 그 꼴이네요. 반대 측은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도 않은 대체 휴일제의 파급 효과에 대해 미리부터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자: 잠깐만요, 토론이 과열되었습니다. 찬성 측은 발언 순서를 지켜 주시고 특히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토론에서 사회자가 수행한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어의 개념과 토론의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
- ② 토론자의 발언 내용을 요약·정리해 주고 있다.
- ③ 토론자 발언 내용의 일관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 ④ 질문을 통해 용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⑤ 토론 규칙을 상기시키며 발언 순서를 지키게 하고 있다.

2. 위 토론에 참여한 이들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 측과 반대 측은 모두 구체적 수치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찬성 측은 상대방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지 않고 상대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 ③ 찬성 측은 반대 측과 달리 외국의 성공 사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④ 반대 측은 찬성 측과 달리 상대 발언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 ⑤ 반대 측은 논의 대상과 기대 효과가 유사할 것이라 예상되었던 사례를 들어 상대의 논거를 반박하고 있다.

3. (보기 2)는 (보기 1)의 자료를 위 토론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3점)

(보기 1)

(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는 생산 측면이 아닌 국내 소비의 감소 추세로 인해 촉발된 것이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생산량만 늘린다면, 결국 기업 재고만 증가해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 부담만을 안겨 줄 뿐이다.

(나)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월차 유급 휴가 사용률이 40%대에 불과하다. 휴가를 적게 사용하는 이유는 과중한 업무 부담, 연·월차 휴가를 잘 사용하지 않는 직장의 관행, 대체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조사되었다.

(보기 2)

- ㉠ (가): 찬성 측이 활용하여,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 증대보다 국민들의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유효하므로 국내 소비 증대 효과가 있는 대체 휴일의 시행이 필요함을 주장할 수 있다.
- ㉡ (가): 반대 측이 활용하여, 대체 휴일제 시행이 가져올 국내 소비 효과보다는 대체 휴일제 시행이 초래할 기업의 생산력 손실이 더 커서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 ㉢ (나): 찬성 측이 활용하여, 연·월차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는 대체 휴일제 시행이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 (나): 반대 측이 활용하여, 현재 연·월차 휴가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굳이 대체 휴일제까지 시행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4~5]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현수: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휴 ...

소희: ㉠ 표정을 보니까 너 무슨 고민거리가 있구나.

현수: 저 ..., (한숨을 쉬며) 아무것도 아니야.

소희: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고 네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나한테 말해 봐. ㉡ 혹시 아니? 내가 네 고민을 해결해 줄지.

현수: 사실은 진로 때문에.

소희: ㉢ 맞아, 너 몇 달 전부터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지. 표정이 어두운 것 보니까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모양이구나.

현수: ㉣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니까 공부가 손에 안 잡혀.

소희: ㉤ 많이 답답한 모양이구나. 나 같아도 네 입장이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래 진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현수: 그동안 진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며칠만 더 혼자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면 어느 정도 진로에 대한 윤곽이 잡히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나 혼자서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소희: (㉥)

현수: 맞아, 네 말대로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겠구나. 조

언 고마워.

4. 위 대화를 고려할 때, ㉠~㉥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의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추리하고 있다.
- ② ㉡: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여 상대방의 발언을 유도하고 있다.
- ③ ㉢: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데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 ④ ㉣: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화제 선택에 제약을 주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5. 대화 내용과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대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조언을 할 때는 상대방 행동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표현한 후에, 상대방이 하려는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예상하여 보여주고, 그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① 네가 혼자서 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아. 네가 며칠 더 고민한다고 해도 진로를 결정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넌 아직 인생 경험이 짧기 때문이야.
- ②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으니 정말로 답답할 거야. 그런데 진로 문제라는 게 혼자서 고민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네가 혼자서 고민했지만 결국 해결이 안 되었잖니?
- ③ 자신의 문제를 혼자서 힘으로 헤쳐 나가려는 정신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해. 인생은 결국 자신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니?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인생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 ④ 너는 항상 모든 것을 혼자서만 결정하려는 게 문제야. 특히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고민을 해도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우리 지역에 있는 진로 지도 센터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좀 더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
- ⑤ 나 같아도 진로가 결정이 안 되면 참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인생 경험이 많지 않은데다가 전문적 지식도 없기 때문에 혼자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 학교에서 진로 지도를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

[6~7] 다음은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 문제’에 대한 논설문을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개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주제문: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의 문제점㉠
I. 서론 ㉡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음용 빈도

II. 본론

1. 문제의 원인 분석

가.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의 위험성에 대한 무지
나. 일부 허위·과장 광고에 의해 고카페인 음료를
‘에너지 음료’로 오인

다. 고카페인 음료 판매 관리 정책 미비로 인한 손쉬운
고카페인 음료 구매

라. 국내에 유통 중인 고카페인 음료의 종류 및 가격
파악 ㉢

2. 문제의 해결 방안

가. 카페인에 대한 교육 필요 ㉣

나. 고카페인 음료의 허위·과장 광고 규제 방안 마련
..... ㉤

다. 고카페인 음료 판매 관리 정책의 보완 필요

III. 결론: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 문제의 개선
추구

6. 글을 작성하기 전 개요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글의 유형과 내용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로 바꾼다.
- ② ㉡은 하위 항목의 내용과 ‘III’의 제시 방법을 고려하여 ‘I. 서론: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 실태’로 바꾼다.
- ③ ㉢은 상위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④ ㉣은 ‘II-1-가’의 내용을 고려하여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필요’로 구체화한다.
- ⑤ ㉤은 ‘II-1-나’의 내용을 고려하여 ‘고카페인 음료 광고의 청소년 구매 유도 효과 분석’으로 수정한다.

7. (보기)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개요의 ‘II-2-다’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자료 1: 전문가 의견)

카페인 일일 섭취 제한 권고량이 성인의 경우 400mg이지만, 체중 50kg 정도의 청소년인 경우 125mg으로, 청소년의 경우는 고카페인 음료 1.3캔 정도만으로도 권고량을 넘길 수 있습니다.

(자료 2: 학생 대상 설문 조사)

고카페인 음료는 주로 어디서 구매하나요?

1. 일반 편의점 72%
2. 자판기 26%
3. 기타 2%

(자료 3: 국내외 고카페인 음료 판매 관리 현황)

나라	고카페인 음료 판매 관리 방법
대한민국	학교 매점에서 판매 금지
노르웨이, 호주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에서만 판매
스웨덴, 미국	15세 이하(스웨덴), 18세 이하(미국) 판매 금지

- ① 외국처럼 고카페인 음료를 의약품으로 분류하거나 청소년들에게 판매 금지하는 것보다는 자판기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②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 문제는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막기 어려우므로 고카페인 음료 자체의 생산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③ 카페인 과다 섭취 문제는 어른들의 경우보다 청소년들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④ 일반 편의점이나 자판기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 한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구매를 막을 수 없으므로 청소년 스스로가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⑤ 청소년의 경우 고카페인 음료 구매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데, 현재의 관리 방법으로는 편의점이나 자판기에서의 구매를 막을 수 없으므로 판매 장소 및 연령 제한 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8. 다음은 기사문을 쓰기 위한 구상과 기사문의 초고이다. 구상한 내용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구상한 내용)

- * 간결한 표제를 통해 기사 내용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
- * 부제를 통해 표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 전문에서 기사문 내용을 요약적으로 소개해 준다. ㉢
- * 본문 첫 문단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제시한다. ㉣
- * 본문에서 설문 조사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기사 내용의 신뢰도를 높인다. ㉤

↓

(초고)

표제: 정부의 아이돌보미 확대에 워킹맘 속앓이

부제: 아이돌보미 시급 5,098원, 2014년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처우에 지원자 ‘뚝’

전문: 워킹맘들의 아이돌보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가 형편없어 아이돌보미 지원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본문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 주는 것으로,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일정 정도의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워킹맘들이 아이돌보미를 구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는 아이돌보미를 ‘나쁜 일자리’로 보는 인식 탓에 아이돌보미에 지원하려는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성 가족부가 지난해 아이돌보미 9,44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임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10% 에 불과했다.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는 61.6% 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라고 응답했다.

정부는 앞으로 아이돌보미를 7천~8천 명 더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적절한 처우 보장 없이는 아이를 맡기거나 돌보려는 여성 모두에게 외면당할 공산이 크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작문 상황

‘학교 폭력’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나)와 같이 썼다.

(나) 학교 게시판에 올린 글

모범생이었던 중학생 K군은 갑자기 우울해지고 성적이 떨어졌으며, 학교에 가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고 엄마를 밀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K군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의 실상입니다.

학교 폭력이 과거에는 단순히 신체 혹은 재산상의 피해만을 의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는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학교 폭력이 점차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발하게 되는 요인은 다양한데,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면, 반사회적 경향성이 높고 신체 공격성이 강하고 스스로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정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애정과 관심이 부족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거나 자녀가 공

격 행동을 했을 때 방임한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들이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의 대중 매체를 통해 폭력물을 접한 후에 이를 모방하려는 성향이 높을 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에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에서 조사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의 학생은 학교 폭력을 당한 후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도움을 요청해 봤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주고자 합니다. 지금 혹시 학교 폭력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스톱불링을 누르세요. 그러면 학교 폭력 예방 종합 포털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덧글

9.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 (보기)의 방법을 고려했다고 할 때, (나)에 적용되지 않은 것은?

(보기)

- * 친구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사례를 서두에 제시해야겠어. ㉠
- * 학교 폭력이 변화된 과정을 공간적인 순서에 따라 설명해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부각해야겠어. ㉡
- *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해야겠어. ㉢
- *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 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야겠어. ㉣
- *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폭력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결 링크를 걸어 주어야겠어. ㉤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장의 접속 관계를 고려하여 ‘그렇다면’으로 고친다.
- ② ㉡: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확대되고’로 수정한다.
- ③ ㉢: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발생’으로 고친다.
- ④ ㉣: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바로 앞 문단의 맨 뒤로 옮긴다.
- ⑤ ㉤: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같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로 수정한다.

11.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의문	왜 ‘단언하건대’의 준말은 ‘단언컨대’인데, ‘생각하건대’의 준말은 ‘생각컨대’일까?
↓	
자료조사	한글 맞춤법 제4장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보충 설명] [붙임 2]의 경우는 어간의 끝음절 ‘하’가 줄어진 형태로 관용되고 있는 형식을 말하는데, 안울림소리 받침 뒤에서 나타난다.
↓	
문제탐구	자료를 통해 보면 ‘단언컨대’는 ‘단언하건대’의 ‘하’에서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축약된 경우(제40항)이고, ‘생각컨대’는 ‘생각하건대’의 ‘하’가 아주 준 경우(제40항의 [붙임 2])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이유는 [보충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단언하건대’의 경우 어간 끝음절 ‘하’ 앞의 받침이 울림소리인 반면, ‘생각하건대’의 경우는 안울림소리이기 때문이다.
↓	
적용	따라서 위의 규정을 적용해 본다면, ‘만만하지’의 준말은 (㉠), ‘섬섬하지’의 준말은 (㉡)임을 알 수 있다.

	㉠	㉡
①	만만치	섬섬치
②	만만치	섬섬지
③	만만지	섬섬치
④	만만지	섬섬지
⑤	만만히	섬섬지

12. (보기)와 같이 조사를 수정했을 때 생기는 의미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철수가 운동을 잘한다. → 철수가 운동은 잘한다.
㉡	나는 사과를 먹었다. → 나는 사과만 먹었다.
㉢	그가 나를 사랑한다. → 그도 나를 사랑한다.
㉣	너도 나를 배신했다. → 너조차 나를 배신했다.
㉤	라면을 먹자. → 라면이나 먹자.

① ㉠의 ‘을’을 ‘은’으로 바꿈으로써 철수가 다른 건 몰라

도 운동만큼은 잘한다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 ② ㉡의 ‘를’을 ‘만’으로 바꿈으로써 내가 먹은 과일이 오직 사과뿐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 ③ ㉢의 ‘가’를 ‘도’로 바꿈으로써 그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다.
- ④ ㉣의 ‘도’를 ‘조차’로 바꿈으로써 너의 배신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음을 더해서 표현할 수 있다.
- ⑤ ㉤의 ‘을’을 ‘이나’로 바꿈으로써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라면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임을 표현할 수 있다.

13.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표준 발음법 제4장	
제9항	받침 ‘ㄱ, ㅋ, ‘ㄴ, ㄷ,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ㅍ]으로 발음한다.
제10항	겹받침 ‘ㄲ, ‘ㄴ, ‘ㄷ, ‘ㄹ, ‘ㄴ, ‘ㄷ,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ㄷ, ㅍ]으로 발음한다.
	다만, ‘ㄲ-’은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하고, ‘ㄴ-’은 ‘ㄴ죽하다, ㄴ둥글다’와 같은 경우에 [ㄴ]으로 발음한다.
제11항	겹받침 ‘ㄷ, ㄷ,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ㄷ, ㅍ]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ㄷ’은 ‘ㄱ’ 앞에서 [ㄷ]으로 발음한다.
제13항	출발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보기 2)	
㉠	네가 <u>읽고</u> 있는 시는 어제 내가 <u>읽은</u> 시다.
㉡	책을 <u>읽고</u> 난 뒤 네 표정이 <u>밝지</u> 않구나.
㉢	앞쪽 책상에 <u>무릎</u> 을 부딪쳤다.
㉣	<u>드넓은</u> 우리 국토를 <u>밝지</u> 않을 수 없다.
㉤	짐은 <u>잠깐</u> 에 엎고 어서 자리에 <u>앉아라</u> .

- ① ㉠에서 ‘읽’은 [읍]으로, ‘읽은’은 [을픈]으로 발음해야 한다.
- ② ㉡의 ‘읽’은 [일]로, ‘밝’은 [발]로 발음해야 한다.
- ③ ㉢의 ‘앞쪽’은 [압쪽]으로, ‘무릎’은 [무르플]로 발음해야 한다.
- ④ ㉣의 ‘드넓은’은 [드널븐]으로, ‘밝’은 [ㅂ:]으로 발음해야 한다.
- ⑤ ㉤의 ‘엎’은 [언]으로, ‘앉아라’는 [안자라]로 발음해야 한다.

14. 다음은 ‘걸다’의 의미 학습을 위해 활용한 사전의 일부분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걸다1 「형용사」

- ㉠ 액체 따위가 내용물이 많고 진하다.
 ㉡ 국물이 걸다/풀을 너무 걸게 섞어서 풀질하기가 어렵다.
 ㉢ 음식 따위가 가짓수가 많고 푸짐하다.
 ㉣ 술상이 걸다/이 식당은 반찬이 걸게 나온다.

걸다2 「동사」

[… 에 … 을]

- ㉠ 자물쇠, 문고리를 채우거나 빗장을 지르다.
 ㉡ 정문에 자물쇠를 걸다/방문에 문고리를 걸다.
 ㉢ 기계 따위가 작동하도록 준비하여 놓다.
 ㉣ 전축에 음반을 걸다/원고를 운전기에 걸다.

- ① ‘걸다1’과 ‘걸다2’가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걸로 보아 동음이의어겠군.
 ② ‘걸다1’ ㉠의 용례로 ‘잔치가 걸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③ ‘걸다2’ ㉠ 뜻의 반의어로는 ‘풀다’가 가능하겠군.
 ④ ‘걸다2’ ㉢으로 보아 ‘베틀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삼베를 준비하여 놓다.’의 의미로 ‘베틀에 삼베를 걸다’를 쓸 수 있겠군.
 ⑤ ‘걸다2’는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겠군.

1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보기)

국어에서 높임 표현은 화자와 청자와 말하는 대상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실현된다. 그래서 화자 입장에서는 높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지만,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높여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부모에게 “댁의 아드님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합니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화자	청자	표현
①	누나	동생	할머니께서 오늘 집으로 오신다고 하네.
②	장인	사위	김 서방이 내 딸과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나?
③	상사	부하	자네가 회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다녀오면 어때?
④	아버지	딸	시골에 계신 네 막냇삼촌을 찾아 뵈거라.
⑤	가게 주인	손님	떨이로 싸게 팔 테니 사 가세요.

16.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참의 고경명은광주사름이니임진왜란의의병을슈창하야금산도적글티다가패하여아들인후와막하사름뉴핑노안영으로흔가지로죽다당중종휘원수갑파려군을닐와다진쥐가죽다

-1617년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현대어 풀이)

참의 고경명은 광주 사람이니 임진왜란에 의병을 앞장서 일으켜서 금산의 도적을 치다가 패하여 아들 인후와 막하 사람 유평로, 안영과 함께 죽었다. 장자인 종후가 원수를 갚으려 군을 일으켜 (싸우다) 진주에 가서 죽었다.

- ① ‘사름이니’에서는 끊어 적기가, ‘도적글’에서는 거듭 적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티다가’를 통해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뉴노’, ‘닐와다’를 통해 ‘ㄴ’나 ‘ㄷ’ 앞에서 ‘ㄴ’이 탈락되는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안영으로’에서는 ‘으로’가 현대 국어의 공동 부사격 조사 ‘와/과’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종휘’에서는 ‘ㅣ’가 앞 체언의 끝모음과 축약된 형태로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전 모의고사

2회

[1~3] 다음은 동아리 신입생 선발을 위한 면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은표: 또래 상담 동아리 ‘우리 사이’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2학년 김은표라고 합니다. 지원자가 많아 두 명이 한 조를 이루어 면접이 진행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 드렸지요?

[A][우선 우리 동아리에 지원한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슬기: 저는 중학교 때 또래 상담 동아리에서 활동했었는데요, 고등학교에서도 활동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차에 선배들로부터 우리 학교에도 또래 상담 동아리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민성: 저는 또래 상담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친구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저도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은표: 그렇군요. 민성님께 묻겠습니다. 또래 상담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성: 네, 저는 고민이 있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보다는 친구들과 상담하는 편입니다. 친구들이 성적, 이성 관계 등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또래 상담 동아리 친구에게 받았던 것 같은 도움을 주는 상담자가 되고 싶어요.

은표: 이번에는 슬기님께 묻겠습니다. 선배들로부터 ‘우리 사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우리 동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더 있는지요?

슬기: (당황한 표정으로 들고 있던 수첩을 넘겨 보면서) 그게 ..., 저

은표: (웃으며) 괜찮으니 당황하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슬기: 어 ..., 그러니까

민성: (슬기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지 10년이나 된 역사 깊은 동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내용을 모아 분기별로 책자를 내고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은표: 네, 시간이 없으니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아리의 구성원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

슬기: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고민을 들어 주는 따뜻한 상담자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상담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겠지요.

[B][은표: 민성님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민성: 동아리에서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공부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서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쑥스러워서 또래 상담을 요청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은표: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면접 결과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은 위 면접을 준비하면서 나타난 ‘은표’의 사고 과정 중 일부이다. 면접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반영되지 않은 것은?

우선, 지원자들에게 면접의 방법, 장소, 시기 등을 알려야겠다. ㉠이번에는 단독 면접이 아니라 집단 면접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야 지원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면접을 준비할 수 있을 거야. 신입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새로운 동아리원을 선발하는 면접이니까 면접의 목적에 맞게 지원 동기, 동아리 활동 계획 등을 질문하는 것이 좋겠지.

대답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짧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질문을 던져 구체적인 답을 유도해야겠다.

그러다 보면 지원자가 당황할 수도 있겠네. ㉣지원자가 면접 중에 당황하게 되면 답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 ㉤지원자가 답을 잘하지 못할 경우 정확한 답변을 할 때까지 여러 번의 기회를 제공해야겠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은표는 슬기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질문을 동시에 하고 있다.
- ② [A]에서 슬기는 은표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 ③ [A]에서 은표는 슬기에게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 ④ [B]에서 은표는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답변이 가능한 질문을 민성에게 던지고 있다.
- ⑤ [B]에서 민성은 은표의 질문이 사실을 묻는 것인지, 의견을 묻는 것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3. 다음은 ‘우리 사이’ 선배들이 위 면접을 보고 평가한 면접 평가지이다. 면접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태도나 진솔이 적절했는가?

슬기 → 면접 중에는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첩을 넘겨 보며 당황하는 태도를 보였다. 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했는가?

슬기 → ‘우리 사이’에 대해 어떠한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인데도, 이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 ②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했는가?

민성 → 또래 상담 동아리의 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면접자의 질문 의도에서 벗어난 답변을 했다. ③

다른 지원자의 답변을 잘 듣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녔는가?

민성 → 다른 지원자가 대답을 마치지 못했는데도 이를 답변하여 다른 지원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④

정해진 시간 내에 적절한 길이로 핵심만을 답변했는가?

슬기 →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유사한 말을 반복하며 장황한 답변을 하여 다른 지원자가 답변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⑤

[4~5]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윤서: 지우야, 왜 자습 시간인데 공부는 안 하고 멍하게 있니?

지우: 음 ...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별일 아니야. 그냥 집중이 잘 안 돼서.

윤서: ㉠네 표정을 보니 무슨 일이 있는데 뭘.

지우: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써 줘서 고마워.

윤서: 원데? 우리 사이에 못 할 말이 뭐가 있니?

지우: ㉡너니까 하는 말인데, 자습에 집중할 수가 없어. 학급 회의 시간에 우리 반 아이들이 함께 성적을 향상시키자는 목표를 세우고 점심시간에 자습을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아이들이 많이 떠드는 것 같아.

윤서: ㉢하긴, 우리 반 아이들이 자습 시간에 떠들긴 하지. 네가 반 아이들에게 자습 시간에 조용히 하자고 말하면 어떨겠니?

지우: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 자칫 내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윤서: ㉣그래,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나도 네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도 필요하다면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니? 정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상의 학급 게시판에 올려 봐.

지우: 그래, 그게 좋겠다.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면 껄끄러운 것도 학급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이용하면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학급 게시판에 어떻게 표현하지?

윤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말하기를 하려면 말하는 사람이 청중과 공유하는 점을 밝히래. 그러면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가 한결 쉽대. 그러니까 자습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에게 (㉠)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의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짐작하고 있다.
- ② ㉡: 대화 참여자 간의 친밀한 관계가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고 있다.
- ③ ㉢: 상대방의 말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옳은지 확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④ ㉣: 상대방의 입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매체의 적절한 활용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5. 대화를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네가 자습 시간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 줘 봐.
- ② 자습 시간에 집중하는 정도와 성적이 향상되는 정도가 비례한다는 점을 강조해 봐.
- ③ 너 말고도 시끄러워서 자습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드러내 봐.
- ④ 자습 시간에 반 아이들이 떠들어서 네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감정에 호소해 봐.
- ⑤ 우리가 시간을 아껴 가며 이렇게 점심시간에 자습을 하는 것은 성적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해 봐.

[6~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제: 석탄 화력 발전과 관련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 I. 서론: 에너지 생산의 방향 ㉠
 1. 석탄 화력 발전의 전력 생산 비중
 2. 석탄 화력 발전 시설의 수와 설치된 지역
 - II. 본론
 1. 석탄 화력 발전과 관련한 문제점
 - 가. 대기 오염을 유발함. ㉡
 - 나. 이산화탄소를 과도하게 발생시켜 공기가 오염됨.
 - 다. 관련 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함.
 2. 석탄 화력 발전과 관련한 문제점 해결 방안 ㉢
 - 가. CCS* 설비 설치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함.
 - 나. 에너지 생산의 비용이 적게 됨. ㉣
 - III. 결론: 에너지 생산의 한계 극복 ㉤
- *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모은 후 땅속 또는 해저에 저장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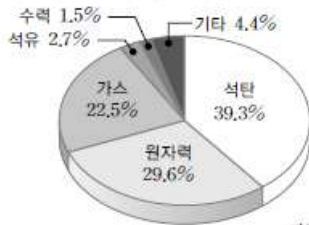
6. 위 개요를 수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하위 항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석탄 화력 발전의 전력 생산 실태'로 바꾼다.
 ② ㉡은 'II-1-나'와 유사한 내용이므로 통합하여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대기 오염을 유발함.'으로 고친다.
 ③ ㉢에는 'II-1-다'와 연계하여 '시설과 관련된 지역의 주민을 설득하고 보상책을 마련함.'을 추가한다.
 ④ ㉣은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II-1'로 옮긴다.
 ⑤ ㉤은 개요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석탄 화력 발전과 관련한 문제점 해결을 촉구함.'으로 고친다.

7. (보기)는 개요를 작성한 후, 수집한 자료의 일부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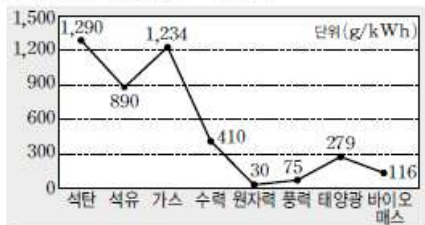
(가) 통계 자료

1. 우리나라 전력 생산 비중



자료: 한국전력(2012년 기준)

2.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 IAEA

(나) 신문 기사

원전(原電)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최근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석탄 화력 발전소는 발전 용량이 50~100만 kW 수준으로 크고, 다른 발전 시설에 비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 신문

(다) 전문가 인터뷰

IEA(국제 에너지 기구)는 CCS 설비가 2020년엔 100개, 2030년엔 85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일본은 2015년, 미국은 2017년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연구 센터를 설립해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

- ① '(가)-1'을 활용하여, 'I. 서론'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 비중이 높음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가)-2'를 활용하여, 'II. 본론'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활용하려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③ '(가)-1'과 (나)를 활용하여, 'II. 본론'에서 주민들이 관련 시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것임을 제시한다.
 ④ '(가)-2'와 (다)를 활용하여, 'II. 본론'에서 CCS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⑤ (다)를 활용하여, 'III. 결론'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CCS 관련 연구에 매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촉구한다.

8. (조건)에 따라 (건의문)을 작성했다. ㉠~㉤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조건)

- ㉠ 건의문을 작성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한다.
 ㉡ 건의할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힌다.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 문제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한다.
 ㉤ 문제가 해결되면 얻게 될 효과를 언급한다.

(건의문)

안녕하세요?

저는 교지 편집부의 회장 김은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아리 방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밴드부와 교지 편집부의 동아리 방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동아리 모두 방과 후에 모임을 갖다 보니 밴드부가 연습할 시간에 교지 편집부도 편집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 방에 방음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밴드부가 연습하는 소리가 교지 편집부에까지 들려 회의를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연습하는 밴드부에 연습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서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이는 날을 조정하면 어떨지 밴드부 회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교지 편집부는 화·목요일, 밴드부는 월·수·금요일에 모임을 한다면 밴드부에서도 마음놓고 큰 소리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동아리도 회의를 원활히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과제)

‘역경’에 대한 글을 써 보자.

(작문의 초고)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안데르센의 동화를 ㉠읽어 보았다. 안데르센의 동화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낭만적이고 극적이면서 이따금 배를 잡고 웃게 만드는 유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데르센의 동화를 읽은 사람들은 대부분 안데르센의 삶이 동화만큼이나 아름답고 평화로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안데르센만큼 ㉢굴절진 삶을 산 사람도 없다. 그는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데다가 아버지는 집안 대대로 유전되는 정신병으로 죽고, 어머니 역시 거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정신 병원에서 사망했다. 그리고 안데르센 자신은 못생겼다는 이유로 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런 안데르센에게 어느 날 기자가 어떻게 ‘성냥팔이 소녀’와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주옥같은 동화를 쓸 수 있었냐고 물었다. ㉣안데르센이 창작한 동화는 무려 163편에 이른다. 그러자 안데르센은 웃으면서 자신이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어려서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고 대답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다윈, 실러, 헨델, 모차르트, 슈베르트 등 수많은 사람이 안데르센처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이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역경이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나도 내가 처한 역경을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공의 원동력으로 삼아야겠다.

9. ‘작문의 초고’에서 글쓴이가 활용한 글쓰기 방법만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ㄱ. 친숙한 대상을 제시하면서 글을 시작한다.
- ㄴ.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을 제시하여 글에 신뢰감을 준다.
- ㄷ. 정의의 방식을 사용하여 역경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제시한다.
- ㄹ. 역경에 대한 자신의 인식 변화를 제시한 후에 다짐으로 마무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장 성분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읽었다’로 고친다.
- ② ㉡: 문단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지 못하므로 ‘그러나’로 고친다.
- ③ ㉢: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굴곡진’으로 고친다.
- ④ ㉤: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⑤ ㉤: 어문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작용했던’으로 고친다.

11.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국어는 높임 표현이 발달해 있는데, 높임 표현을 잘못 쓰는 경우도 많다. 상대방이 아닌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사람을 높여야 하는데 사물을 높이기도 한다. 또한 관계에 적합하지 않게 잘못된 호칭어를 쓰거나 높이는 대상이 아예 드러나지 않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와 종결 어미를 잘못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보기 2)

- 잘못된 높임 표현의 예
- ㄱ. 저는 고객을 위해 항상 노력 중이십니다.
- ㄴ. 주문한 음식 나오셨습니다.
- ㄷ. (옷걸이에 걸려 있는 옷을 가리키며) 요즘에는 이런 옷이 유행이세요.
- ㄹ. (식당에서 자신보다 어린 종업원에게) 이모! 여기 계산 좀 해 주세요.
- ㅁ. 손님, 여기에 앉으실게요.

- ① ㄱ은 상대방인 고객 대신에 자신을 높인 것이군.
- ② ㄴ은 사람을 높이진 않고 사물인 음식을 높인 것이군.
- ③ ㄷ은 높이는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것이군.
- ④ ㄹ은 관계에 적합하지 않게 잘못된 호칭어를 쓴 것이군.
- ⑤ ㅁ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와 종결 어미를 잘못 결합한 것이군.

12. (보기)는 중의성을 갖는 문장이다. 수정 방안에 따라 문장을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a. 민수는 나보다 영화를 더 보고 싶어 한다.
- b. 나는 이모와 이모부를 만났다.
- c. 친구가 연필과 지우개 두 개를 주었다.
- d. 그는 어떤 사람이든지 좋아한다.
- e. 아름다운 그녀의 동생이 웃고 있다.

	수정 전	수정 방안	수정 후
①	a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 ‘영화’를 더 보고 싶어 한다는 것으로	민수는 나를 보고 싶어 하기보다 영화를 더 보고 싶어 한다.
②	b	‘이모’와 ‘이모부’를 순차적으로 만난 것으로	나는 이모를 만난 뒤 이모부를 만났다.
③	c	‘연필’과 ‘지우개’를 하나씩 준 것으로	친구가 연필 한 개와 지우개 한 개를 주었다.
④	d	‘좋아하다’의 주체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그는 어떤 사람이든 좋아한다.
⑤	e	그녀의 동생이 아름답다는 뜻으로	그녀의 아름다운 동생이 웃고 있다.

13. (보기)를 참고하여 표준 발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

3. **【불임】** ‘ㄴᄃ, ㄹᄃ’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 【불임】** 첫소리 ‘ㄴ’이 ‘ㄹᄃ, ㄹᄂ’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① ‘않는’은 ‘ㄴᄃ’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안는]으로 발음해야겠군.
- ② ‘똥는’은 ‘ㄹᄃ’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똥른]으로 발음해야겠군.
- ③ ‘할네’는 ‘ㄴ’이 ‘ㄹᄂ’ 뒤에 연결되는 경우이므로 [할레]로 발음해야겠군.
- ④ ‘물난리’는 ‘ㄴ’이 각각 ‘ㄹ’의 뒤와 앞에 있으므로 [물날리]로 발음해야겠군.
- ⑤ ‘천리’는 ‘ㄹ’의 앞에 ‘ㄴ’이 있으므로 [첼리]로 발음해야겠군.

14. 다음의 ㉠~㉣에서 높임을 받고 있는 인물로 적절한 것은?

- ㉠ 아버지, 동생이 학교에 가고 있대요.
- ㉡ 할머니께서 나에게 용돈을 주시었다.
- ㉢ 경호는 선생님께 수학 문제를 여쭙어 보았다.

	㉠	㉡	㉢
①	객체	듣는 이	주체
②	객체	주체	듣는 이
③	주체	듣는 이	객체, 듣는 이
④	듣는 이	주체	객체
⑤	듣는 이	객체	객체, 듣는 이

1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어말 어미 ‘-았-/어-’은 일반적으로 발화시 이전에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사용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낼 때에 사용할 수 있고,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낼 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하여진 사실인 양 말할 때도 사용될 수 있다.

- ① 물건 값이 많이 올랐다.
- ② 선희는 이미 밥을 먹었다.
- ③ 간밤의 비로 강물이 많이 불었다.
- ④ 동생은 어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았다.
- ⑤ 날이 이렇게 가무니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

16. (보기)를 통해 ‘훈민정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a. 바·는 입시·울쏘·리·니 𐄂·뵘字·쫘·처섬 ·퍼·아 ·나는 소·리 ·ᄃᆞᆫ·니
 굴·바·쓰·면步뵘字쫘 ·처섬 ·퍼·아 ·나는 소·리·ᄃᆞᆫ·니·라
 (바은 입술소리니 ‘𐄂(뵘)’자(字)의 처음 퍼서 나는 소리 같으니 나란히 쓰면 ‘步(뵘)’자(字)의 처음 퍼서 나는 소리 같다.)
- b. 一·는 ·郎·즉字·쫘 가·온·딛소·리·ᄃᆞᆫ·니·라
 (一은 ‘郎(즉)’자(字)의 가운데 소리 같다.)
- c. 乃·뵘·終·중ᄃᆞᆫ소·리·논다·시 ·첫소·리·를 ·뵘·늑니·라
 (나중의 소리(중성)는 다시 첫소리를 쓴다.)

－ ‘훈민정음 언해*’

* 훈민정음 언해: 훈민정음 해례본의 어제 서문과 예의 부분을 우리말로 옮겨 놓은 책.

- ① a의 ‘입술소리’라는 말로 보아 글자가 만들어질 때 발음 기관을 고려한 글자임을 알 수 있다.
- ② a의 ‘뵘’의 용례를 통해 글자를 나란히 쓰는 병서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b의 ‘즉’의 용례에서 자음자와 모음자를 만들 때 기본자를 만들고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c에서 ‘소리’의 첫소리에 쓰인 ‘ㅅ’이 ‘첫’의 받침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a의 ‘처음 퍼서 나는 소리’, b의 ‘가운데 소리’, c의 ‘나중의 소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초성, 중성, 종성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전 모의고사

3회

[1~3] 다음은 ‘봉사 활동 점수화’라는 주제로 실시한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최근 들어 학생들의 봉사 활동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 시설 등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봉사 활동을 입시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봉사’의 진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하는 의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학생들의 봉사 활동을 점수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해 찬반 양쪽의 의견을 들어 봄으로써 좀 더 나은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찬성 측 입론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봉사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시간을 내어 봉사 활동을 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별도의 여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이 자기 시간을 쪼개어 스스로 봉사 활동을 한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봉사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봉사 활동을 점수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이번에는 반대 측의 입론을 들어 보겠습니다.

반대 1: 반대 측 입론하겠습니다. 저희는 봉사의 참뜻을 알려 주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 이러한 말의 의미에서 볼 때, 자신이 봉사한 것을 수치로 매겨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봉사 점수라는 ‘눈앞의 결과’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선한 동기’를 중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봉사가 될 것입니다.

사회자: 네, 이러한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해 찬성 측의 반론을 들어 보겠습니다.

찬성 2: 물론 봉사 활동을 하는 동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동기가 없는 경우라도 봉사 활동을 하는 중에 봉사의 참뜻을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다큐 프로그램에서 취업에 도움을 받고자 복지 시설에서 봉사 활동을 시작한 젊은이가, 봉사 활동을 하면서 봉사 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진로를 바꿔 사회 복지학과에 진학하게 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즉 봉사 활동의 체험이 봉사 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로 작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많은 학생들이 봉사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봉사 활동의 점수화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찬성 측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그럼 이번엔 반대 측의 반론을 들어 볼까요?

반대 2: 찬성 측의 그러한 주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에 저희가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봉사 활동이 점수화되지는 않았지만, 대학에서 입학 전형에 따라 그 내용을 참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학생들이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는 봉사 활동을 대학 입학에서 일부 참고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90%의 학생이 정해진 시간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70%의 학생이 허위로 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봉사 활동을 점수화한다면, 학생들이 봉사의 참된 의미는 잊은 채로 점수 따기식의 봉사만 하게 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만 생길 것이 분명합니다.

사회자: 네, 반대 측에서는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해 주셨네요. 그럼 여기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2분간의 ㉠속의 시간을 가진 후에 토론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다음은 위 토론에 대한 청중의 평가지이다. 평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할과 태도	그렇다	아니다	
사회자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과 토론의 논제를 소개한다.	✓		…㉠
	토론자의 토론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	…㉡
	논제에서 벗어난 내용에 주의를 준다.		✓	…㉢
찬성 측	상대의 발언 중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한다.	✓		…㉣
반대 측	상대의 주장을 예상하고 근거를 들어 논박한다.		✓	…㉤

2. 위 토론에서 토론자들이 제시한 논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찬성 1은 자신의 주장과 연관성이 없는 근거를 제시하여 논거의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군.
- 찬성 2가 제시한 논거는 특정한 하나의 사례를 일반화하고 있으므로 좀 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면 타당성을 높일 수 있겠군.
- 반대 1은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반대 2는 사실 논거를 사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군.
- 반대 2가 제시한 설문 조사의 조사 대상이나 표본 수를 명확히 제시한다면 논거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겠군.

3.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에 제시할 수 있는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토론에서 ‘숙의 시간’은 상대방이 제시한 주장과 논거의 논리적 허점을 분석하면서 그에 대해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를 상의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한 근거 중에서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검토해 볼 수도 있다.

- ① 찬성 측: 봉사 활동 이외에 여러 가지 체험 활동들도 학생들의 대학 입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지적해야겠어.
- ② 찬성 측: 봉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별도의 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반대 측의 주장을 반박해야겠어.
- ③ 찬성 측: 복지 시설 운영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봉사 활동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지적해야겠어.
- ④ 반대 측: 봉사 활동 점수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찬성 측이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해야겠어.
- ⑤ 반대 측: 봉사 활동이 삶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의무적 봉사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야겠어.

[4~5] 다음은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어, 영호야, 일요일인데 학교에 웬일이니? 아침에 나왔는데, 이제야 보게 되네?

영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도 아침에 나왔는데 ... 교무실과 교실이 멀어서 이제야 뵈게 됐나 봐요. ㉠내일이 시험인데, 미처 못 한 공부가 많아서요. 마음잡고 공부하려고 학교에 나왔어요.

선생님: 공부는 많이 했니?

영호: 네.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집보다는 학교에서 공부가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오늘 일요일인데, 선생님께서도 요즘 하실 일이 많으신가 봐요?

선생님: 그래. 교재 연구를 해야 해서 학교에 나왔지. ㉡나도 집보다는 학교에서 일이 잘되는 것 같더라고.

영호: 그렇군요. 참, 선생님, 저 고민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그럼. 고민이 뭐니?

영호: ㉢전 좋아하는 과목은 열심히 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과목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인지 제가 좋아하는 국어, 영어 성적은 제가 원하는 만큼 나오는데, 제가 싫어하는 수학, 과학 성적은 늘 불만족스러운 수준이죠. 담임 선생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담 때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이 갈리고 성적

편차가 심해서 걱정이 된다는 말로구나. 선생님도 고등학생 시절에 비슷한 문제로 고생했던 적이 있어서, 네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어. 혹시 공부할 때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무작정 공부하지는 않니?

영호: 맞아요.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특정 과목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부하려면 계획이 중요해. ㉤우선 어느 과목 공부를 몇 시간 정도 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데, 좋아하는 과목에만 공부가 치우치지 않게 계획을 세우는 거지. 어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니?

영호: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부터 당장 실천해야겠어요.

[A][선생님: 벌써 1시네. 난 지금 식사하려고 하는데, 밥 먹으러 같이 가는 건 어떠니?

영호: 집에서 친척 모임이 있는데요, 곧 시작할 시간이예요.]

선생님: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영호: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4. (보기)는 [A]와 관련된 설명이다. 이러한 설명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은?

(보기)

[A]에서 영호는 선생님께 식사하러 함께 가지 못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대신 선생님의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했다. 이처럼 실제 대화 상황에서 거절의 의미를 전달할 때 화자는 청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 그 표현에 담긴 함축적 의미는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해연: 준석아,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학교 축제 보러 오지 않을래?

준석: 그날은 어렵겠네. 미안해.

- ② 해연: 준석아, 시험도 끝났는데 영화 보러 가는 거 어때?

준석: 가기 힘들어. 선약이 있어.

- ③ 해연: 준석아, 요즘 안 좋은 일 있니?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준석: 큰일 아니야. 감기에 걸려서 그래.

- ④ 해연: 준석아, 내일이 내 생일이야. 날 위해 뭘 해 줄래?

준석: 그래? 오늘 근사한 선물 준비해 둘게.

- ⑤ 해연: 준석아, 오늘 날씨도 좋은데 공원에 놀러 가지 않을래?

준석: 내일이 수행 평가 보고서 제출일인데 수행 평가 보고서를 아직 다 못 썼어.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② ㉡: 상대방과 생각이 유사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③ ㉢: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 ④ ㉣: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면서 반응하고 있다.
- ⑤ ㉤: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있다.

[6~7] (보기)는 ‘학교 도서관의 교육적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가) 신문 보도 내용

학교 도서관 시설 현대화 사업이 실시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만든 상당수의 학교 도서관이 현재 단순한 ‘도서 대여점’ 역할에 그치고 있다. 학교 도서관이 교육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과 도서관을 연계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학생들이 언제라도 쉽게 도서관에 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을 관리·운영하는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나) 통계 자료

1. 학교 도서관 설치 현황



2. 학교 도서관 사서 또는 사서 교사 배치 현황



(다) 인터뷰 자료

1. 학생

“저희 학교는 사서 선생님이 안 계셔서 도서관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작 필요할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 교사

“학교 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좀 더 교육적인 공간이 되려면 도서관의 특색을 살려 도서관과 학교 수업을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사 개인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3. 정부 관계자

“모든 학교에 사서 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그 임금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6.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생성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를 활용하여, 학교 도서관이 현대화되고 있음에도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을 지적하여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야겠어.
- ② (가)와 ‘(나)-2’를 활용하여, 학교 도서관이 도서 대여점 역할에 그치는 원인으로 학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부재를 제시해야겠어.
- ③ (가)와 ‘(다)-2’를 활용하여, 학교 도서관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서는 학교 수업과 연계된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해야겠어.
- ④ ‘(나)-1’과 ‘(다)-1’을 활용하여, 학교 도서관을 학생은 물론 외부인에게도 개방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해결 방안 중의 하나로 제시해야겠어.
- ⑤ ‘(나)-2’와 ‘(다)-3’을 활용하여, 전체 학교 도서관에 사서 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을 제시해야겠어.

7.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글의 제목을 작성한다고 할 때,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조건)

- * 문제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속담을 활용할 것.
- *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구체적 해결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할 것.

- ① 개발에 편자로 전락한 학교 도서관
-도서 대여점 역할에서 벗어나 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나야
- ② 정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 실시
-학교 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수행이 더 중요
- ③ 학교 도서관, 학생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
-전문 인력의 확충과 독서 프로그램 개발 시급
- ④ 찬물에 기름 돌듯 하는 학교 도서관 현대화 사업
-학교 수업과 도서관을 연계할 전문 인력 부족
- 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꼴이 된 학교 도서관 현대화 사업
-독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시급

8. (보기)에서 계획한 내용 중, 학생의 기행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기)

- ㉠ 여행지를 정하는 과정을 밝히자.
- ㉡ 여행지의 특성을 언급하며 여행의 의의를 밝히자.
- ㉢ 여행지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 ㉣ 여행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을 제시하자.
- ㉤ 여행을 통해 얻은 유익한 점에 대해 언급하자.

(제주도에 다녀와서)

작성자: ○○ 고등학교 김○○

얼마 전 친구와 다투어서 많이 속상해 있었다. 그래서 친구와 화해하기 위해 같이 여행을 가 볼까 생각했는데, 마땅한 장소를 찾기 어려웠다. 평소에도 섬에 가 보고 싶었지만 거리도 멀고 갈 만한 섬을 찾지 못해 그동안 가 보지 못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배를 타고 가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바로 제주도! 하루에 두 번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면서 바닷길이 열리는 곳이라고 했다. 그곳을 여행하면 친구와 나의 마음속에도 화해의 길을 열어 줄 것만 같아서, 그리고 그 과정을 글로 남기면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계획을 잡고 출발했다.

제주도로 가는 버스 안에서 본 바다는 말 그대로 평화로웠다. 잔잔한 파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갈매기가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느낌이었다. 버스에서 만난 제주도 주민께서 섬 안에 산책로가 있다며 꼭 가 보라고 알려주셔서 직접 가 보았는데, 좀 짧은 했지만 전망대도 있고 사진을 찍기에도 좋아서 나름 만족스러웠다. 오는 길에 조개구이도 먹으면서 친구와 나는 어느새 예전의 단짝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니, 오히려 싸우기 전보다 더 친해진 느낌이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우리는 이번 화해 여행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 ① ㉠ ② ㉡ ③ ㉢
- ④ ㉣ ⑤ ㉤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과제)

다음 공익 광고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써 보자.

B.C. 8000	 주먹도끼
B.C. 2000	 돌칼
14C	 철제 무기
21C	 커서
사람을 위한 도구가 사람을 향한 흥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과제의 초고)

문명의 발전 뒤에는 도구의 발전이 있었다. 이 광고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명의 도구 역시 진화를 ㉠거듭해왔다. 이는 주로 인터넷에서 사용된다는 점으로 보아 이 광고에서는 가장 진화된 도구로 인터넷을 들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 광고에서 가장 진화된 도구는 커서이다.

문명의 도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기가 될 수도 있고 무기가 될 수도 있다. 만약 문명의 도구를 사람을 해치는 무기로만 사용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우리는 사람을 해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인터넷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문명의 이기가 오히려 흥기로 변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은 인류가 낳은 가장 진화된 도구로서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존재 가치가 ㉤틀려질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구로 인터넷을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09. '과제의 초고'에서 글쓴이가 활용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광고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광고의 의미 해석을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자

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광고와 관련된 일화를 언급하면서 주의를 환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 ④ 광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밝히면서 광고가 다루는 화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통념을 반박하고 있다.
- ⑤ 광고의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광고에서 다루는 화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0.㉠~㉣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고려하여 ‘거듭해 왔음을 보여 준다’로 고치는 게 좋겠어.
- ② ㉡: 내용상 흐름을 고려하여 앞 문장과 위치를 바꾸는 게 좋겠어.
- ③ ㉢: 중복된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전개되었을까’로 고치는 게 좋겠어.
- ④ ㉣: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하는 게 좋겠어.
- ⑤ ㉤: 어휘의 쓰임을 고려하여 ‘달라질’로 고치는 게 좋겠어.

11. (보기)를 바탕으로 표준어와 표준 발음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표준어 규정 제2장 제9항

‘ㄹ’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내기	-나기	서울-, 시골-, 풋-
냄비	남비	
동댕이-치다	동당이-치다	

[붙임 1] 다음 단어는 ‘ㄹ’ 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아지랑이	아지랑이	

[붙임 2]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유기장이	유기쟁이	
담쟁이	담장이	

- ① ‘아기’를 [애기]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

지 않겠군.

- ② ‘어떤 일에 처음 나서서 일이 서투른 사람’을 뜻하는 말은 ‘신출내기’로 표기해야 표준어 규정에 맞겠군.
- ③ ‘아지랑이’는 ‘ㄹ’ 역행 동화가 일어난 형태에 해당하겠군.
- ④ ‘가구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뜻하는 말을 ‘가구쟁이’라고 쓰면 안 되겠군.
- ⑤ ‘개구장이’는 ‘ㄹ’ 역행 동화가 일어난 형태인 ‘개구쟁이’라고 쓰면 표준어 규정에 어긋나겠군.

12.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설명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

문장에서 서술어는 그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들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하며, 주어 이외에 목적어나 보어, 또는 부사어 중 하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그리고 어떤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와 같은 문장 성분 세 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를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보기 2)

- ㄱ.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ㄴ. 마당에 핀 꽃들이 정말 예쁘다.
- ㄷ. 오늘 날씨는 운동하기에 적합하다.
- ㄹ. 그는 소중한 것을 잠시 친구에게 주었다.
- ㅁ. 우주 왕복선이 정해진 궤도를 이탈했다.

	대상	설명
①	ㄱ의 ‘아니다’	‘문제가’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므로 ‘아니다’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②	ㄴ의 ‘예쁘다’	‘정말’은 문장의 의미를 강조하는 필수적 부사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예쁘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③	ㄷ의 ‘적합하다’	‘적합하다’는 ‘날씨는’이라는 주어와 ‘운동하기에’라는 부사어가 있어야 문장이 성립하기 때문에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④	ㄹ의 ‘주었다’	‘주었다’는 주어 ‘그는’과 목적어인 ‘것을’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⑤	ㅁ의 ‘이탈했다’	‘이탈했다’는 주어 이외에도 ‘정해진’이라는 관형어와 ‘궤도를’이라는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13.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단어가 다양한 문맥이나 상황에 사용되면서 의미 확장이 일어나 다의 관계가 형성된다. 다의어의 의미 확장은 원형 의미의 용법을 다른 국면에 적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확장 양상 중 하나는 ‘공간 → 시간 → 추상’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 ① 토끼는 앞발이 짧다. → 그는 외국어 실력이 짧다. → 우리 집 양반은 입이 짧다.
- ② 아이가 밥을 먹었다. → 사과에 벌레가 많이 먹었다. → 종이기가 기름을 먹어서 가볍지 않다.
- ③ 시냇물이 흘러간다. → 자료가 어떤 경로로 그에게 흘러갔는지 꼭 밝혀야 한다. → 세월이 참 빨리도 흘러간다.
- ④ 계곡이 깊은 곳에 있어서 찾기 쉽지 않다. → 밤이 깊어서 앞이 잘 안 보인다. → 여기서 또 만나다니 우리는 참 인연이 깊구나.
- ⑤ 그는 아무도 없는 달한 방 안에 있다. → 그는 ‘부장’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 그의 나직한 목소리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다.

14. (보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쓰- + -고 → 쓰고, 쓰- + -어 → 써
 굿- + -고 → 굿고, 굿- + -어 → 그어
 하- + -고 → 하고, 하- + -아 → 하여
 하얏- + -고 → 하얏고, 하얏- + -아 → 하애
 잡- + -고 → 잡고, 잡- + -아 → 잡아

- ① ‘쓰-’는 어미 ‘-어’와 결합하면 어간의 모음이 탈락하는군.
- ② ‘굿-’이 어미 ‘-어’와 결합하면 어간이 변하는군.
- ③ ‘하-’가 어미 ‘-아’와 결합하면 어간은 변하지 않는 반면 어미가 변하는군.
- ④ ‘하얏-’이 어미 ‘-아’와 결합하면 어미는 변하지 않는 반면 어간이 변하는군.
- ⑤ ‘잡-’이 어미 ‘-아’와 결합하면 어간과 어미 모두 변하지 않는군.

15. (보기)를 바탕으로 명령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너 저기 가서 내 가방 좀 가져와.
 ㄴ. 내가 잘 들을 수 있게 목소리 좀 커라.(*)
 ㄷ.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겠어라.(*)

ㄹ. 학교에 좀 더 일찍 왔어라.(*)
 ㅁ.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골고루 먹으라고 했다.
 ㅂ.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는 비문법적인 문장임.

- ① ㄱ으로 보아, 명령문의 주어는 3인칭으로 나타나는군.
- ② ㄴ으로 보아, 형용사는 명령형으로 만들 수 없군.
- ③ ㄷ과 ㄹ로 보아, 명령형에 ‘-겠-’, ‘-았/었-’을 결합시킬 수 없군.
- ④ ㅁ으로 보아, 인용절의 명령형 어미로는 ‘-(으)라’가 쓰일 수 있군.
- ⑤ ㅂ으로 보아, 부정 명령을 나타낼 때에는 ‘말다’의 활용형이 쓰이는군.

16. (보기 1)의 ㉠와 ㉡ 각각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의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1)

한글을 표기하는 방식 중 ㉠이어 적기는 형태소를 소리나는 대로 이어 적는 방식이고, ㉡끌어 적기는 각 형태소들을 분리하여 적는 방식이다.

(보기 2)

ㄱ. :유·익훈 ·이 :세 가·짓 ㉠:벌·이오
 (유익한 것이 세 가지 벗이요) -‘소학언해’
 ㄴ. 불·취 가·픈 남·군 ㉡:보·록매 아니 :월·씩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릴새) -‘용비어천가’
 ㄷ. 내 漢人사름의손되 글 비호니 이런 전초로 저기 ㉢:漢人말을 아노라
 (나는 중국인한테 글을 배웠으니 이런 까닭으로 조금이나마 중국어를 안다.) -‘노걸대언해’
 ㄹ. 너·는 ㉣:高麗人:사·락·미어시·니 ·또 :엇·디 漢語닐·오·미 잘·하·느·뇨
 (너는 고려 사람인데 어떻게 중국어를 잘하는가?) -‘번역노걸대’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실전 모의고사

4회

[1~3]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휴대 전화를 교내에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이 휴대 전화를 교내에서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휴대 전화를 교내에서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 자체를 강제적으로 규제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 1: 휴대 전화를 교내에서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휴대 전화기의 벨소리와 진동음은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성 2: 휴대 전화기는 긴급한 일이 있을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휴대 전화기가 없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대 2: 학생들의 휴대 전화기 대부분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통화 외에 인터넷 검색,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 전화를 소지한 본인의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찬성 측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이나 긴급한 연락을 위해서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 전화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다른 사람의 수업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본인의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먼저 반론해 주십시오.

반대 1: 학생들의 의사소통 권리를 제한받는 것이 무조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휴대 전화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할 수 있다면 이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자제력이 없는 탓에 휴대 전화기가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찬성 1: 학생들의 자제력이 부족하고 휴대 전화 사용이 학업에 방해가 된다면, 학교에서 조회 시간에 휴대 전화를 수거하고 종례 후에 돌려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 2: 휴대 전화를 학교에서 수거했을 경우, 불의의 사고로 수거한 휴대 전화기가 분실되거나 파손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부득이 휴대 전화를 수거하는 것인데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런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성 2: 우리 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은 2003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규정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휴대 전화기 소지 규정도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학생 생활 규정 전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잠깐만요. 휴대 전화기 소지 규정에 대해서만 언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 생활 규정 전체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현재의 논제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하락)

1. 위 토론에서 사회자가 수행한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론자들의 발언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 ②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과 토론의 논제를 소개하고 있다.
- ③ 토론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발언 순서도 지정하고 있다.
- ④ 상대측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에 주의를 주고 있다.
- ⑤ 논제에서 벗어난 발언에 대해 논제를 환기하며 주의를 주고 있다.

2. 위 토론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입론에서 반대 1은 휴대 전화기가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논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② 입론에서 찬성 2는 휴대 전화기가 없으면 긴급한 연락을 신속하게 주고받을 수 없음을 들어 찬성 1의 입론을 보강하고 있다.
- ③ 반론에서 반대 1은 학생들이 대부분 자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내세워 찬성 1의 입론을 반박하고 있다.
- ④ 반론에서 찬성 1은 휴대 전화기로 인한 수업 방해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을 들어 반대 1의 반론을 반박하고 있다.
- ⑤ 반론에서 반대 2는 학생이 휴대 전화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의 폐지는 학교에서 받아 주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며 찬성 1의 반론을 반박하고 있다.

3. 다음은 위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입장과 방안을 짚지은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전자 기기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한 휴대 전화기 및 인터넷 중독이 심한 학생들을 선별하여 이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도 별도로 시행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현격하게 줄어 들었다.

	입장	활용 방안
①	찬성	학생들이 상황을 고려하여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자제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②	찬성	교내에서의 휴대 전화기 소지를 금지하지 않더라도 휴대 전화기로 인한 수업 방해 막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는 점을 부각할 때 활용할 수 있겠군.
③	찬성	학생들이 긴급한 연락을 받거나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휴대 전화기이므로 교내에서의 휴대 전화기 소지를 허락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④	반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휴대 전화를 소지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면 학교생활과 관련된 다른 규정도 폐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할 때 활용할 수 있겠군.
⑤	반대	휴대 전화기 소지 금지 규정과 같은 엄격한 규정이 없다면 휴대 전화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4~5] 다음은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기철아, 안녕? 일요일 아침부터 공원에 웬일이니?
기철: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침 날씨가 인라인스케이트 타기에 좋아서 나왔어요. 제 인라인스케이트 멋지죠?
선생님: ㉠그렇구나. 참 멋지네. 그런데 기철아, 헬멧, 무릎 보호대 같은 보호 장구를 하나도 안 했네? 그래도 괜찮을까?
기철: ㉡전 여태까지 한 번도 사고 난 적 없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헬멧, 무릎 보호대 같은 보호 장구는 거추장스럽게 느껴져요.
[가][선생님: 네 말 들으니까 갑자기 재현이 일이 생각나네. 예전에 재현이도 보호 장구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길래 내가 충고를 좀 했었지. 그런데 최근에 혹시 재현이가 보호대를 안 하고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서 팔꿈치에 큰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 들었니?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대.]

기철: (놀란 표정으로) 그래요?
선생님: ㉢레저 안전사고 중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사고는 자전거 사고 다음으로 많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인라인스케이트 사고는 몸에 큰 부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구나.
기철: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나][선생님: 문제는 설마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은 점이야. 너처럼 ‘난 아무 일 없겠지.’ 하는 마음이 사고를 불러오는 게 아닐까? 하지만 인라인스케이트 사고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너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지.]
기철: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보니 저도 지난주 뉴스에선가 요즘 인라인스케이트 사고가 부쩍 늘었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그 뉴스였네요. 인라인스케이트 사고가 심각하단 말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선생님: 인라인스케이트 탈 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먼저 조심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단다.]
기철: 그렇군요.
[라][선생님: 인라인스케이트 타기는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안전에 유의하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단다. 잘못하면 크게 부딪치거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
기철: 그럼 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선생님: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때는 유의 사항을 숙지한 다음 헬멧, 무릎 보호대 같은 보호 장구를 갖추고 항상 사방을 살피는 자세가 필요해. 다음부터는 헬멧, 무릎 보호대 같은 보호 장구를 꼭 할 거지?]
기철: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헬멧, 무릎 보호대 같은 보호 장구를 꼭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조심하겠습니다.

4. 대화문의 [가]~[마]와 (보기)의 ㉠~㉤를 적절히 대응시키지 못한 것은?

(보기)
설득적 화법은 궁극적으로 청자의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자신이 설득하고자 하는 사안과 관련된 특정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특정 문제가 청자와도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그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다음,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언급하고,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설득적 화법의 한 예에 해당한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시간과 공간의 공유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 자신의 경험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 ③ ㉢: 기존의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상대방과의 경험의 공유를 드러내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말에 대한 동의를 드러내면서 다짐을 나타내고 있다.

[6~7] 다음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논설문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주제문: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
- I. 서론 ㉡
- II. 본론
- 1. 문제 현황 분석
 - 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
 - 나. 최근 10년 동안의 출산율 감소 추이
 - 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연금 재정의 부족 ㉢
 - 2. 문제 원인 분석
 - 가. 선진국의 자녀 양육비 지원 제도의 문제점... ㉣
 - 나. 자녀 양육 시설의 부족
 - 다. 자녀 양육 지원 제도 이용에 대한 그릇된 인식
 - 3. 문제 해결 방안
 - 가. 자녀 양육비 지원 및 세제 혜택
 - 나. 국가의 지원 확대 ㉤
 - 다. 자녀 양육 지원 제도 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 III. 결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촉구

6. 글을 작성하기 전 개요를 수정·보완할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주제문임을 고려하여 ‘저출산 문제의 원인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와 같은 문장 형식으로 수정한다.
- ② ㉡은 ‘III’의 제시 방법을 고려하여 ‘I. 서론: 저출산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으로 수정한다.
- ③ ㉢은 상위 항목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 ④ ㉣은 ‘II-3-가’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녀 양육 관련 교육 프로그램 부재’로 수정한다.
- ⑤ ㉤은 ‘II-2-나’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자녀 양육 시설의 확충’으로 수정한다.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요의 ‘II-3-다’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자료: 전문가 의견)

스웨덴이 하락한 출산율을 회복하고 일정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여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기업의 상사들은 이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대하거나, 심지어는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자녀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자녀 양육 지원 제도를 문화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 ① 일과 양육을 병행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직장 여성들에게 어떤 제도가 가장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여 이러한 제도를 중점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②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어야 한다. 자녀 양육 지원 제도를 다양화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었던 스웨덴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우리나라도 현실에 맞는 자녀 양육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③ 여성들이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직업을 통해 자아를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올바른 직업 윤리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④ 직장을 가진 여성이 자녀 양육에 대해 부담을 갖고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취업 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산 휴가, 육아 휴직과 같은 제도들을 여성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 ⑤ 스웨덴이 하락한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녀 양육 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노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녀 양육 지원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으로 우선적으로 자녀 양육 지원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8.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기사문이다. (보기)에서 계획한 내용 중 기사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기)

‘기사문’을 어떻게 구성할까?

- ㉠ 전문을 넣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 ㉡ 관련 사진이나 화보를 실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 ㉢ 인터뷰 자료를 사용하여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 ㉔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구나 문장으로 표제를 만든다.
- ㉕ 주요 내용과 관련된 논평이나 전망, 평가 등을 담은 해설을 쓴다.

암 센터에 올려 퍼진 ‘사랑의 선율’

지난 3일 서울시 △△구 ○○ 병원 소아암 센터. 평소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 어린이 암 환자와 부모님들을 위한 ‘희망 연주’가 가득 올려 퍼졌다. 4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시립 오케스트라가 소아암 센터를 찾아 ‘희망과 사랑의 선율’을 선율한 것이다.



슈베르트의 교향곡이 연주되고, 특별 출연한 조○○ 씨가 서울 시립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자신의 대표곡을 열창하자 청중은 이내 흥겨워했다. 얼마 전 힘겹게 암을 이겨 낸 유명인 김○○ 씨의 영상 메시지도 전달되었다. 김 씨는 어린이 암 환자와 그들의 부모님에게 결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희망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공연에는 소아암 환자들과 그들의 부모님, 그리고 병원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암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 씨는 “유명 관현악단이 찾기는 병원이 개소한 지 52년 만에 처음”이라며 “환자들 대부분이 미취학 아동들이라 외국의 음률에 대해 전문 지식은 없지만 오케스트라의 사랑의 선율에 흠뻑 취하여 깊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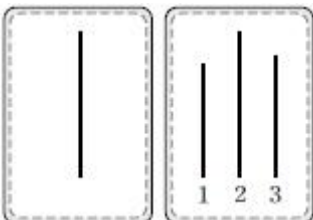
- ① ㉑ ② ㉒ ③ ㉓
- ④ ㉔ ⑤ ㉕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과제)

다음 심리 실험을 제재로 글을 써 보자.

애쉬의 심리 실험에서는 하나의 선분이 그려져 있는 왼쪽 카드를 보여 준 후, 길이가 다른 선분 세 개가 그려진 오른쪽 카드를 참여자들에게 제시했다. 오른쪽 카드의 세 개의 선분 중 하나를 처음에 제시한 카드의 선분



과 길이가 동일하다. 애쉬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처음 보여준 카드와 동일한 길이인 선분을 오른쪽 카드에서 선택하게끔 했다. 구체적으로 총 일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선분의 짝을 맞추게 되는데, 참여자 한 명 이외의 다른 여섯 명은 실험 도우미로 고의적으로 오답을 말하게 했다. 이렇게 실험한 결과, 혼자 있는 상황에서 정답률은 99%인 반면, 실험 도우미들과 함께 있는 집단 상황에서 정답률은 6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의 초고)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거나 동조하면서 생활한다. ㉑ 내 기억을 떠올려 보면 나 역시 공연을 관람할 때 어느 순간에 박수를 쳐야 할지 모를 때 주변 사람들을 따라서 한 적이 있었던 것이 생각한다.

한 사회 심리학자는 사람들에게는 대화 상대의 몸짓이나 표정, 행동들을 자신도 모르게 모방하려는 경향성이 ㉒ 존재한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이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㉓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 종종 상대방을 따라 하는데, 친구들은 나의 이러한 태도가 호감을 준다는 말을 하곤 한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은 이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㉔ 낳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과 행동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별없이 동조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㉕ 몇일 전에 부모님과 함께 집 근처의 산에 올랐다. 산에 오르는 길에 다른 많은 등산객들이 오르는 길이 정상적인 등산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생각에 주저 없이 그들을 따라갔다가 후회한 일이 있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내 자신이 어리석게 여겨진다. 위 실험은 분별없는 동조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9. 학생이 초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작문 과제에서 제시된 제재를 일상적인 경험과 연관 짓는다.
- ② 작문 과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념을 반박하여 바로잡는다.
- ③ 유추의 방식을 바탕으로 심리 실험에 등장하는 낯선 개념을 소개한다.
- ④ 자문자답의 방법을 동원하여 작문 과제에 관한 글의 내용을 전개한다.
- ⑤ 작문 과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비판하고 절충하는 식으로 기술한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앞 문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례로 고친다.
- ② ㉡: 문장 성분 사이의 호응을 고려하여 '존재한다고 설명한다'로 고친다.
- ③ ㉢: 띄어쓰기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높이는 데'로 고친다.
- ④ ㉣: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날기도 하지만'으로 고친다.
- ⑤ ㉤: 맞춤법을 고려하여 '며칠'로 고친다.

11. (보기 1)과 (보기 2)를 고려하여 '음의 길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음의 길이

- *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처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 *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거나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보기 2)

다음의 각 단어는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쉬다[쉬 : 다]	꼬다[꼬 : 다]	밤나무[밤 : 나무]
눈보라[눈 : 보라]	보다[보 : 다]	송이[송이]

- ① '쉬어'를 [쉬어]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 ② '꼬이다'를 [꼬 : 이다]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 ③ '밤송이'를 [밤 : 송이]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 ④ '보아'가 한 음절로 축약된 '봐'를 [봐 :]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 ⑤ '진눈깨비'에서 '눈'을 발음할 때에는 [눈 :]이 아닌 [눈]으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12. 부정확한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을 때 사용한 수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정확한 문장		수정된 문장
㉠	그중 하나가 나서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고 소리쳤다.	→	그중 하나가 나서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소리쳤다.
㉡	국세청은 사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사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이번 추석에 고향에 내려 오시라고 말씀하셨다.	→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이번 추석에 고향에 내려 오라고 말씀하셨다.
㉣	겨우내 썰매와 팽이가 돌던 눈에는 어느새 물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	겨우내 썰매가 달리고 팽이가 돌던 눈에는 어느새 물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	내가 오랫동안 품어 왔던 생각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할 때 나 또한 행복할 수 있다.	→	내가 오랫동안 품어 왔던 생각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할 때 나 또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① ㉠: 조사가 잘못 쓰인 부분을 찾아 수정했다.
- ② ㉡: 이중 피동이 쓰인 부분을 찾아 수정했다.
- ③ ㉢: 높임 표현이 잘못 쓰인 부분을 찾아 수정했다.
- ④ ㉣: 중의적 표현을 찾아 올바르게 수정했다.
- ⑤ ㉤: 문장 성분 사이의 호응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찾아 수정했다.

13. (보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여 잘못 표기된 로마자를 수정했을 때, 수정 근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사람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단,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어	수정 전	수정 후	수정 근거
①	벚꽃[벚곤]	beo-d-kko -d	beo-t-kko -t	㉢
②	홍빛나[홍빈나]	Hong Bi-n-na	Hong Bi-t-na	㉣
③	대관령[대 : 팔령]	Dae-k-wa -l-yeong	Dae-g-w a-ll-yeon g	㉠, ㉡
④	낙동강[낙동강]	Nak-dd-o ng-k-ang	Nak-d-on g-g-ang	㉠, ㉢
⑤	셋별[셋 : 뽕]	saet-bb-y eo-r	saet-b-ye o-l	㉡, ㉣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밝다[박따]

-활용 정보: [밝아, 밝으니, 밝고[발꼬], 밝는[방-], 밝지[박찌]

[I] 「동사」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

☞ 날이 차차로 밝아 오다가 삼시간에 아주 흰하니 밝는다.

[II] 「형용사」

[1] 「1」 불빛 따위가 환하다.

☞ 햇살이 밝다.

「2」 빛깔의 느낌이 환하고 산뜻하다.

☞ 밝은 색깔의 옷

...

[2] [… 에]

어떤 일에 대하여 잘 알아 막히는 데가 없다.

☞ 세상 물정에 -밝다.

- ① ‘벌써 새벽이 밝아 온다.’에서 ‘밝다’는 형용사에 해당하겠군.
- ② ‘밝다’ [I]와 ‘밝다’ [II]로 보아, ‘밝다’는 두 품사로 쓰일 수 있는 말로군.
- ③ 활용 정보로 보아, 음운 환경에 따라 발음상으로 ‘밝-’의 받침에서 탈락되는 자음이 달라지는군.
- ④ ‘조명탄이 사방을 밝히다.’에서 ‘밝히다’는 ‘밝다’ [II]-[1]-‘1’의 사동사에 해당하겠군.
- ⑤ ‘벽지가 밝아서 집 안이 아주 환해 보인다.’는 ‘밝다’ [II]-[1]-‘2’의 용례로 추가할 수 있겠군.

15. (보기)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만들어 보기에 관한 수업의 일부이다. ㉠~㉣ 중, 선생님이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보기)

다음 조건을 지켜 외래어에 대해 새로운 우리말을 만들어 보세요.

[조건]

*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을 활용할 것.

* ‘용언의 어간 + 명사’, ‘용언의 어간 + 용언’, ‘부사 + 명사’와 같은 구성은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서 벗어나.

명희: ‘팝업 스토어’ 대신에 ‘반짝매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반짝매장’은 ‘반짝’과 ‘매장’의 합성어입니다.

주현: ‘코르사주’ 대신에 ‘맵시꽃’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맵시꽃’은 ‘맵시’와 ‘꽃’의 합성어입니다.

미숙: ‘선루프’ 대신에 ‘지붕창’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지붕창’은 ‘지붕’과 ‘창’의 합성어입니다.

기철: ‘캘리그래피’ 대신에 ‘멋글씨’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멋글씨’는 ‘멋’과 ‘글씨’의 합성어입니다.

은지: ‘복마스터’ 대신에 ‘책길잡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책길잡이’는 ‘책’과 ‘길잡이’의 합성어입니다.

- ① ㉠ ② ㉡ ③ ㉢
- ④ ㉣ ⑤ ㉤

16. (보기 1)의 밑줄 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어의 변화 양상을 (보기 2)에서 적절하게 선택한 것은?

(보기 1)

(가) 時節을 感嘆호니 고지 눅므를 쓰리게코
여희여슈을 슬후니 새 므으물 놀래느다
-초간본 “두시언해” 권 10에서 성종 12년(1481)

(나) 時節을 感嘆호니 고지 눅을를 쓰리게코
여희여슈을 슬호니 새 므으물 놀래노다
-중간본 “두시언해” 권 10에서 인조 10년(1632)

(보기 2)

- ㉠ ‘·’가 소실됨.
- ㉡ ‘△’이 소실됨.
- ㉢ 거듭 적기가 나타남.
- ㉣ 모음 조화의 동요가 나타남.
- ㉤ 주격 조사 ‘-가’가 출현함.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실전 모의고사

5회

[1~3]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엇그제 우리 고장의 축제인 ‘밤고을 축제’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관람한 인원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해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큼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고장 축제’라는 주제로 축제 위원장이신 이○○ 위원장님, 축제 전문가이신 한국 대학교 배○○ 교수님, 주민 대표인 지역 발전 협의회 김○○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토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교수: ‘밤고을 축제’의 방문객 중 가족 단위의 비율이 36.9%로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축제 만족도 조사 23가지 항목 중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20위였습니다. 이는 축제에서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장 축제의 성격을 특색 없는 지역 특산물 중심의 먹을거리 축제가 아니라 우리 고장의 읍성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역사 축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 사무국장: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축제 방문객의 1인당 소비 지출 효과가 큰 축제는 먹을거리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밤고을 축제’도 먹을거리 축제로 운영되면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제적 효과가 불확실한 역사 체험 축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배 교수: 이번 축제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재방문 의사를 물어봤을 때, 거주지가 우리 고장인 방문객의 50.2%, 거주지가 타 지역인 방문객의 38.0%만이 재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음을 말해 줍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험형 지역 축제는 지역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주고 지역 축제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보면 역사 체험 축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 하지만 축제 준비를 위한 인력과 자금이 지금도 부족한 실정에서 축제의 성격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더욱이 올해 축제의 성과가 예년만 못한 상황에서 축제 예산을 늘리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큼니다.

김 사무국장: 그렇다면 축제 준비와 진행에 지역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축제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축제 진행 시에는 주민들을 자원 봉사자로 활용한다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축제 지출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1년 만에 축제의 성격을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먹을거리 프로그램과 역사 체험 프로그램 일부를 병행하면서 축제의 성과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사회자: 지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을 제안하실 방청객께서는 손을 들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토의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배 교수는 조사한 자료를 활용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이 위원장은 토의 참여자의 발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③ 사회자는 토의를 하게 된 배경을 생략한 채 바로 진행을 시작하고 있다.
- ④ 김 사무국장은 상대방이 인용한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⑤ 김 사무국장은 상대방의 발언을 듣고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며 논의를 심화하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토의를 들은 방청객이 질문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토의를 들은 방청객은 토의 참여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때 방청객은 질문을 받게 될 토의 참여자가 토의 주제에 대해 취하는 입장, 토의 참여자가 말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질문의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 ① 이 위원장님, 왜 올해 축제가 잘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 ② 이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고장 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③ 배 교수님, 말씀하신 역사 체험 축제 말고 문제 해결의 다른 대안은 없으신가요?
- ④ 김 사무국장님, 그동안 이 축제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⑤ 김 사무국장님, 축제 방문객의 1인당 소비 지출이 가장 큰 축제가 먹을거리 축제라는 말씀의 근거 자료는 어디에서 비롯한 것인가요?

3. (보기)를 참고하여 학생들이 위 토의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토의의 주제는 시의성, 가치성, 접근성을 가져야 한다. 시의성이란 토의 주제가 당시 사정에 알맞은 현실의 문제를 다루어야 함을 뜻하고, 가치성은 그것이 공적인 성격을 띠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접근성은 다양한 의견 접근이 가능한 사안이 토의 주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보통 자신 주변의 논의거리를 논제로 삼아야만 토의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토의 주제는 토론과는 달리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조화롭게 해결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토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의 주제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때 토의 주제는 명사구나 평서문보다는 의문문 형식으로 진술해야 토의 주제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고 토의의 방향을 잘 드러낼 수 있다.

- ① 주현: 최근에 끝난 ‘밤고을 축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의이므로 토의의 주제는 시의적절한 것 같아.
- ② 수정: ‘밤고을 축제’의 참여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은 지역의 공공 사안이므로 토의 주제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 ③ 의택: 우리 고장의 지역 축제를 토의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토의의 접근성은 높다고 생각해.
- ④ 보현: 토의에서 다루는 우리 고장의 지역 축제 문제는 지역 주민 대표의 의견 위주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토의 주제인 것 같아.
- ⑤ 태완: 토의의 방향과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고장 축제’보다는 ‘우리 고장 축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처럼 의문문 형식으로 진술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4~5] 다음은 이모와 조카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선아: 이모,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이모: ㉠선아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 있지.

그래, 어떤 일이지?

선아: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요. 요즘 전 친구들과의 소통 문제로 고민이 많아요.

이모: (놀라며) 네가? 선아 너는 밝고 쾌활해서 친구들과 잘 지내지 않았었니?

선아: 예전엔 그랬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저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이모: ㉡(되뇌듯) 자신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선아: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요. 전 제 이야기를 터놓을 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 무슨 말

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모: ㉢음, 미안하지만 잘 이해가 되질 않는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선아: 예전엔 마음에 맞는 친구이다 싶어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속 깊은 이야기까지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를 점점 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이모: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혹시 그 친구들이 네게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니?

선아: 아니요. 음, 그러고 보니 그 친구들은 중학교 때 친구들과는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속 깊은 이야기를 제게 털어놓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모, 그런데 그건 왜요?

이모: 응. ㉤이모 생각엔 그 친구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네가 만났던 친구들은 아직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준비가 덜 되었을 수 있어.

선아: 그런가요?

이모: 대개 친구를 사귀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속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기는 쉽지 않은 법이란단.

선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친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모: (㉦)

선아: 아, 그럴겠네요. 이모, 고마워요.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내어 대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 ② ㉡: 상대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반복하면서 상대의 말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반문을 통해 상대가 한 말의 의도를 자신이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 ④ ㉣: 상대의 말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 ⑤ ㉤: 상대가 건넨 말들을 통해 판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대화 내용과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자기 노출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스스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절한 자기 노출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의사소통의 양적·질적 측면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준다. 하지만 성급하거나 지나친 자기 노출의 결과, 의사소통은 물론이려니와 관계 자체가 손상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

다.

- ①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네 속마음을 드러내 주어야 해. 그래야 상대방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어서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거야.
- ② 네 이야기만 강요하는 태도는 상대방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깊이 있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구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단다.
- ③ 마음속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친구 관계가 돈독해질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 돼. 어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
- ④ 만난 지 얼마 안 돼 아직 서먹서먹할 때는 속마음을 꺼내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관계가 좀 더 친밀해졌을 때 꺼내는 것이 바람직해.
- ⑤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해야 해. 네가 네 자신과 네 감정을 잘 이해하고 행동해야 상대방도 너에게 호감을 갖고 너와 친해질 수 있을 거야.

[6~7] 다음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논설문을 교지에 실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개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주제문: SNS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I. 서론 ㉠
- II. 본론
 1. 1인 미디어의 발달 과정 ㉡
 2. SNS에서의 인권 침해 유형
 - 가. 사생활 침해 ㉢
 - 나. 허위 사실의 유포
 - 다. 언어 폭력
 3. SNS에서의 인권 침해 발생 원인
 - 가. ID 도용, 해킹 등을 통한 개인 정보의 유출
 - 나. 명예 훼손으로 인한 법적 처벌의 증가 ㉣
 - 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의식 부족
 4. SNS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 가. 개인 정보를 인권으로 바라보는 태도의 확립
 - 나. 정보 제공자로서의 책임 의식 강화
 - 다. 한글 맞춤법 교육의 강화 ㉤
- III. 결론: SNS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적극적 태도의 요구

6. 글을 작성하기 전 개요를 수정·보완할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III'의 제시 방법을 고려하여 'I. 서론: SNS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으로 구체화한다.

- ② ㉡은 글의 중심 화제인 'SNS에서의 인권 침해'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 ③ ㉢은 'II-3-가'의 내용을 고려하여 '불법·유해 정보의 상업적 유통'으로 바꾼다.
- ④ ㉣은 상위 항목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의 무분별한 전파'로 바꾼다.
- ⑤ ㉤은 상위 항목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의 확립'으로 바꾼다.

7. (보기)의 (가)와 (나)에 제시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개요의 'II-4-나'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가) 신문 기사

SNS를 사용하는 손 안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 있다. SNS에서는 몇 번의 손가락 조작만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도 그 메시지가 퍼지는 특성이 있다.

(나) SNS 사용 지침(일부)

3	허위 사실 유포 금지	* SNS에 글을 올릴 때에는 게시하기 전에 허위 사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정독하고 게시할 것. * SNS에서 정보를 얻을 때, 사실과 허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
---	----------------	---

- ① SNS에서는 허위 사실도 급속히 퍼질 수 있는 속성이 있으므로 SNS 이용자는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글을 올리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 ② SNS에 글을 쓰는 행위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적 가해자가 되는 길이므로 SNS 이용자는 SNS에 글을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SNS는 그 조작의 편리함 때문에 거짓 정보가 실시간으로 퍼질 수 있으므로 SNS 이용자는 정보 통신 윤리 교육을 이수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 ④ SNS에 올리는 허위 사실은 법적 처벌의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SNS 이용자는 관련 법규를 인지하여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⑤ SNS에서 얻는 정보는 사실과 허위가 구분되지 않으므로 SNS 이용자는 SNS에 그 정보를 올려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8. (보기)에서 계획한 내용 중, 답사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기)

졸업식 답사? 선생님의 축사와 후배들의 송사 다음에 내가 낭독을 하니까 ㉠아무래도 글의 처음 부분에서 선생님과 후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게 좋겠지. 중간 부분에서는 먼저 ㉡내 경험을 토대로 학교생활에서 배웠던 점을 드러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생활에 대한 포부를 밝혀야지. 이 순서로 내용을 구성하면 되겠지. 아! 글의 내용이 무미건조하지 않게 ㉣비유법을 활용해서 표현해야지. 그리고 ㉤답사의 끝 부분에는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넣으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지. 이제 어느 정도 글 쓰기 계획이 세워졌으니 한번 답사를 써 볼까?

(답사)

안녕하십니까? 이번 졸업식에서 학생 대표로 졸업식 답사를 하게 된 ○○?입니다. 우선, 저희들을 위해 축사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 주신 선생님들과 후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척이나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저의 고등학교 생활을 떠올려 봅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늘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학교의 교육 활동 대부분이 ‘나’가 아닌 ‘우리’를 강조했고, 이를 통해 이기적이었던 제 자신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가르침을 새롭게 시작할 사회생활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학교 교표에 그려져 있는 푸른 소나무처럼 그 어떤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아가 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한 그루 푸른 소나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제 말씀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칭찬의 힘’에 대한 글을 써 보자.

(과제의 초고)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오늘도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네.’ 이처럼 평소 우리들은 잘한 일보다는 잘못된 일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곤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새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차지하여 습관적으로 자신을 비난하거나 질책하기 쉽다. 지속적인 비난과 질

책은 심리적인 불안을 초래하고, 불안은 짜증이나 신경질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칭찬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1분 칭찬하기’를 권한다. ㉡칭찬은 사람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준다. ‘1분 칭찬하기’란 거울을 보면서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내가 자랑스러워.’, ‘나는 내가 마음에 들어.’와 같이 자신을 칭찬하거나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북돋울 수 있는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일로 자신을 비난하거나 미워하기보다는 작은 성과라도 칭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1분 칭찬하기’를 통해 올바른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다고 본다.

칭찬을 통해 자아상을 확립한 사람은 상대방도 진심으로 칭찬해 줄 수 있다. 자신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이를 칭찬하게 되는 것이다. ㉤때때로 어떤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칭찬이 나쁜만 아니라 상대방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9. ‘과제의 초고’에서 글쓰기가 활용한 글쓰기 방법만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ㄱ. 화제를 친숙한 대상에 비유하며 글을 시작한다.
ㄴ. 일상적 사례를 들어 글을 시작하여 화제를 이끌어 낸다.
ㄷ.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설명한다.
ㄹ. 분석적 방법으로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며 내용을 전개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므로 ‘어느새’로 고쳐 쓴다.
② ㉡은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바로 앞의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③ ㉢은 사동 표현이 잘못 사용되었으므로 ‘듣는’으로 고쳐 쓴다.
④ ㉣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로 고쳐 쓴다.
⑤ ㉤은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11. (보기)를 참조하여 자음의 발음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표준 발음법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ㄷ, ㅌ, ㄴ), ㄹ(ㄹ, ㄴ, ㄹ, ㄴ), ㄴ(ㄴ, ㄴ, ㄴ, ㄴ), ㄷ(ㄷ, ㄷ, ㄷ, ㄷ)’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 표준 발음법 제19항	받침 ‘ㄹ,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붙임) 받침 ‘ㄱ, ㅌ’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
* 표준 발음법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 표준 발음법 제18항에 따라 ‘방물’은 [방물]로 발음한다.
- 표준 발음법 제18항, 제19항에 따라 ‘등록만’은 [등놈만]으로 발음한다.
- 표준 발음법 제19항에 따라 ‘침략’은 [침낙]으로 발음한다.
- 표준 발음법 제18항, 제19항 [붙임]에 따라 ‘석류’는 [석뉴]로 발음한다.
- 표준 발음법 제20항에 따라 ‘물난리’는 [물랄리]로 발음한다.

12. (보기 1)의 설명을 참고하여 (보기 2)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문장 성분으로서 부사어가 성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부사가 부사어가 되는 경우,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 부사어가 되는 경우, 용언의 활용형이 부사어가 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보통 부사어는 용언을 꾸미지만 관형사, 체언,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미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보기 2)	
ㄱ. 그의 차는 아주 새 차였다.	
ㄴ. 그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했다.	
ㄷ. 그는 눈을 감은 채로 그때 일을 회상했다.	
ㄹ. 정화는 정운에게 편지를 보냈다.	
ㅁ. 진달래가 곱게 피었다.	

- ㄱ의 밑줄 친 부분은 부사가 부사어로 성립된 경우이군.
- ㄴ의 밑줄 친 부분은 명사에 부사격 조사 ‘-로서’가 붙어 부사어가 성립된 경우로 볼 수 있군.
- ㄷ의 밑줄 친 부분은 의존 명사 ‘채’에 부사격 조사 ‘-

- 로’가 결합하여 부사어가 성립된 경우이군.
- ㄹ의 밑줄 친 부분은 명사 ‘정운’에 부사격 조사 ‘-에게’가 결합하여 부사어가 성립된 경우로 체언인 ‘편지’를 꾸미고 있군.
 - ㅁ의 밑줄 친 부분은 용언의 어간 ‘곱-’에 어미 ‘-게’가 붙어 부사어가 성립된 경우로 동사인 ‘피었다’를 꾸미고 있군.

13. 다음 타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자료	* 성민이가 결혼했다.	성민이가 결혼했다.
----	--------------	------------

↓

의문점	‘결혼했다’의 ‘-데’와 ‘결혼했다’의 ‘-대’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	--	--

↓

문제탐구	자료에서 ‘-데’의 쓰임을 확인한다. → 문장의 종결 어미로 사용됨.	자료에서 ‘-대’의 쓰임을 확인한다. → 문장에서 ‘-다고 해’의 줄임말로 사용됨.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종결 어미 ‘-데’의 쓰임을 알아본다. * 어제 보니까 혜정이가 참 예쁘데. * 곁에서 보니 참 훌륭한 신랑감이데. * 옆에 서 봤는데 농구 선수가 키가 크긴 크데. → 종결 어미 ‘-데’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인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줄임말 ‘-대’의 쓰임을 알아본다. * 사람들 말로는 동희가 가장 예쁘대. * 신문 기사에서 내일 날씨가 춥대. * 정준이가 얘기하기로는 어제 유성우가 정말 멋있었대. → 줄임말로써 ‘-대’는 (㉠)

↓

적용	‘같이 춤을 춘 연아 말로는 병희가 춤을 잘 춘()’에는 ‘-다고 해’의 줄임말 ‘-대’가 들어간다.	
----	---	--

-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해 감탄하면서 말할 때 쓰인다.
-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해 평가하듯이 말할 때 쓰인다.
- 화자가 청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낼 때 쓰인다.
- 화자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 막연한 의문을 나타낼 때 쓰인다.
-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인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자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았 / 었-’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이며, ‘-겠-’은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이다. 그러나 용례를 살펴보면, ‘-았 / 었-’과 ‘-겠-’은 여러 문맥에서 시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자료	설명
①	철수: 수박 하나 골라 줘. 영희: 이 수박이 잘 <u>익었어</u> .	‘-았-’이 상황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②	철수: 숙제 못 했는데 어떡하지? 영희: 뭐야? 너 내일 학교 가면 <u>훈났다</u> .	‘-았-’이 미래 어느 시점에 실현될 것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③	철수: 너희들 언제 왔어? 영희: 민희는 10분 전에 왔고, 난 <u>방금 왔어</u> .	‘-았-’이 발화시 이전에 상황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④	(자료) 철수: 민수는 뭐해? 영희: 중간고사를 준비한다고 공부하겠지.	‘-겠-’이 현재 일어나는 사실을 추정하여 인식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⑤	철수: 어디로 놀러 갈까? 영희: 네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u>따라가겠어</u> .	‘-겠-’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15. (보기)는 국어사전에서 ‘나누다’를 찾아본 결과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누다 [나누어(나뉘), 나누니] 동
1. [... 을 ... 으로]
㉠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
 ¶ 사과를 세 조각으로 나누자.
㉡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
 ¶ 나는 이 물건들을 불량품과 정품으로 나누는 작업을 한다.
2. [...을 ...에/에게] 몫을 분배하다.
 ¶ 이익금을 모두에게 공정하게 나누어야 불만이 생기지 않는다.
3. [(... 과)... 을] [(‘...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 음식 따위를 함께 먹거나 갈라 먹다.
 ¶ 나는 그녀와 술을 한잔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 말이나 이야기, 인사 따위를 주고받다.
 ¶ 고향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
㉢ 즐거움이나 고통, 고생 따위를 함께하다.
 ¶ 고통은 주위 사람과 나누면 작아지고, 즐거움은 나누면 커진다고 한다.

- ① ‘[나누어(나뉘), 나누니]’의 ‘(나뉘)’는 때에 따라서 ‘나누다’가 불규칙 활용을 하기도 함을 나타낸다.
- ② ‘나누다’가 1의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 ‘나누다’ 대신 ‘분할하다’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나누다’ 2의 용례로 ‘사업장의 각 부서에 작업량을 나눌 때는 인부들의 숙련도를 고려해야 한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④ 1 [... 을 ... 으로], 2 [... 을 ... 에/에게]는 ‘나누다’가 세 자리 서술어임을 나타낸다.
- ⑤ 3의 ㉠, ㉡, ㉢은 [(... 과)... 을]의 통사 구조를 띠는 ‘나누다’가 의미상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16.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시기 국어의 표기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글조가] 어디 부터는지 비로소 알고 [일그네] 국문으로 쓴 편지 훈장을 보자하면 한문으로 [쓴것보다] 더더 보고 [또] 그나마 국문을 자조 아니 쓰는 고로 서툴어서 잘못봄이라 그런고로 정부에서 내리는 명령과 국가 문적을 한문으로만 쓴즉 한문못하는 인민은 나모 말만 [툇고] 무슨 명령인줄 알고 (후략)
-‘독립신문(1896)’

(현대어 풀이)

글자가 어디 붙었는지 비로소 알고 읽으니 국문으로 쓴 편지 한 장을 보자면 한문으로 쓴 것보다 오래 보고 또 그나마 국문을 자주 안 쓰니 서툴러서 잘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내리는 명령과 국가 문서를 한문으로만 쓰면 한문 못 하는 인민은 남의 말만 듣고 무슨 명령인 줄 알고 (후략)

- ① [글조가]를 통해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모음자가 표기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일그네]를 통해 곺어 적기 표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쓴것보다]를 통해 띄어쓰기가 오늘날과 다른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또]를 통해 현대 국어와 달리 초성에 ‘ㅅ’으로 시작하는 합용 병서 표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툇고]를 통해 현대 국어에서 받침으로 ‘ㄷ’이 와야 할 자리에 ‘ㅅ’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전 모의고사

6회

[1~3]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논제: 동물 실험은 중지해야 한다.

사회자: 찬성 측에서는 윤리적 측면에서 동물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인간과 동물의 생체적 차이를 근거로 들어 동물 실험 폐지를 주장했고, 이에 반대 측에서는 과학 및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동물 실험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양측의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반대 1: 찬성 측에서는 생명의 중요성을 들어 동물 실험을 중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저희도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물 실험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유용하기 때문에 중지할 수 없습니다. 가령 1885년 파스퇴르는 동물 실험을 통해 광견병 백신을 발견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개도 광견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동물 실험의 유용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1: 인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인체를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동물 실험이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유용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는 존재라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반대 2: 동물 실험으로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동물 실험을 중지한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기술적 대안은 있습니까?

찬성 2: 인간 세포를 배양해서 활용한 실험이나 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한 실험이 현재 연구 중이므로 조만간 동물 실험을 대체할 만한 수준까지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대 1: 아직까지 연구 중이라 하면, 현재로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군요. 그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 아닐까요?

사회자: 반대 측은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현재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성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미 많은 대체 실험들이 실용화 단계까지 왔습니다.

사회자: 자, 그럼 이제는 찬성 측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찬성 2: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들이 인간을 대체할 만큼 인간과 유사한 생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반대 2: 동물 실험에는 주로 쥐나 토끼, 침팬지와 같은 척추동물이 사용되는데, 이들은 인간과 아주 유사한 생체적 특징을 가졌다고 합니다.

찬성 2: 동물과 인간은 생체적으로 차이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을 통과한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자: 찬성 측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 2: 지사제의 일종인 ‘클리오퀴놀’은 동물 실험을 통과했지만, 1976년 일본에서 이 약을 먹은 1만 명이 시력 상실 또는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동물에게는 안전하지만 인간에게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자: 네. 양측의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락)

1. 위 토론에 나타난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론의 진행 절차에 따라 발언 순서를 지정하고 있다.
- ② 토론자들의 발언을 요약하여 각각의 주장을 정리해 주고 있다.
- ③ 토론자들이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토론에 개입하고 있다.
- ④ 토론자의 불충분한 발언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⑤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주장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2. 위 토론의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찬성 측은 동물 실험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② 찬성 측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 ③ 반대 측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 ④ 반대 측은 동물이 인간보다 육체적 고통을 덜 느낀다고 주장한다.
- ⑤ 반대 측은 일부 동물과 인간의 생체적 특징이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3. (보기)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ㄱ) 1957년 스푸트닉 2호에 탑승한 우주견 ‘라이카’는 우주 공간에서 변화하는 맥박, 호흡, 체온 등 각종 생체징후를 보내 생물체의 우주 여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 (ㄴ)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는 질병은 고작 1.16%에 지나지 않으며 질병은 종(種)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동물에게 해가 없다고 해서 인간에게 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 ① (ㄱ)을 근거로 반대 측에서는 동물 실험을 대체할 만한 다른 실험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겠군.
- ② (ㄴ)을 근거로 찬성 측에서는 동물과 인간의 생체적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겠군.
- ③ (ㄴ)을 근거로 반대 측에서는 동물 실험이 신약 개발의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방법임을 주장할 수 있겠군.
- ④ (ㄱ)과 (ㄴ)을 근거로 찬성 측에서는 동물 실험이 인간 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유용함을 주장할 수 있겠군.
- ⑤ (ㄱ)과 (ㄴ)을 근거로 반대 측에서는 동물 실험이 인류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겠군.

[4~5]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상황) 소영과 다희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중학교 때 친구이다.

소영: ㉠다희야, 안녕! 요즘 어때? 입시 준비는 잘돼?

다희: 요즘? (한숨을 쉬며) 공부할 기분 아냐. 자꾸 짜증만 나..

소영: ㉡그러고 보니 너 최근에 얼굴을 찌푸리는 날이 많더라. 왜 무슨 일 있었어?

다희: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는 “공부해야지.” 하시고, 휴식 좀 취하려고 음악을 들으면, 아빠는 또 “그렇게 해서 대학 가겠냐?”라고 하시잖아.

소영: ㉢맞아,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는데.

다희: 너희 부모님도? 에이, 설마. 너처럼 모범생 딸을 두신 분들이 그러시겠어?

소영: ㉣모범생은 무슨 ... 우리 부모님께서는 철없는 어린 애인걸. 그것도 다 나에 대한 관심이다 싶어. 고3인데 그런 말씀도 없으시면 서운할 것 같거든.

다희: 하기가 중학교 다닐 때는 내가 공부하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셔서 조금 서운하긴 했었어.

소영: ㉤거 봐. 그게 다 부모님의 애정과 관심이라니까. 이젠 인상 좀 펴라.

다희: 네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는 하는데, 엄마, 아빠만 생각하면 답답해지네. 부모님의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

소영: 음 ... 부모님께서 왜 그러시는 것 같아?

다희: 글썄, 내가 별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 시나 봐.

소영: 네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부모님께서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 아냐?

다희: 사실은 오빠 대학 입시 때 부모님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 그때 부모님은 열심히 한다는 오빠 말만 믿고 계셨다가 마음고생이 꽤나 심하셨거든.

소영: (다희의 손을 맞잡으며) 다희야, 부모님이 그러시는

건 네 대학 입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어.
([A])

다희: 그러면 부모님의 걱정을 덜 수 있겠구나. (웃으며) 고마워, 소영아. 너밖에 없다.

4. 대화 내용과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할 때에는 친구의 감정이나 처지를 살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우리 오빠도 네 오빠처럼 부모님 속 썩이다가 지금은 어엿하게 장남 역할을 잘하고 있어. 네 오빠도 곧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 드릴 거야.
- ② 그런 불안감은 네게도 전염될 수 있어. 그럴 때는 잠깐 바람이라도 쐬면서 입시에 대한 중압감에서 잠시 벗어나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 ③ 그렇지만 부모님이 아무리 불안해하셔도 어차피 대학 입시를 치르는 건 우리잖아. 그러니 부모님 생각보다는 네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
- ④ 그런 상황이라면 공부 시간과 휴식 시간 계획을 세워 놓으면 어떨까? 네가 그 계획표를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부모님의 염려도 덜 수 있을 거야.
- ⑤ 부모님이 널 걱정하셔서 그러시는 거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도록 해 봐. 그러면 아마 부모님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떠오를 거야.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공통의 관심사를 언급하면서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 ② ㉡: 상대의 최근 모습을 환기하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유사한 경험을 제시하여 상대의 말에 호응하고 있다.
- ④ ㉣: 상대의 말을 부정하고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고 있다.
- ⑤ ㉤: 상대를 지켜세우며 상대의 부담감을 덜어 주고 있다.

[6~7] (보기 1)은 ‘가정 교육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논설문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고, (보기 2)는 논설문의 개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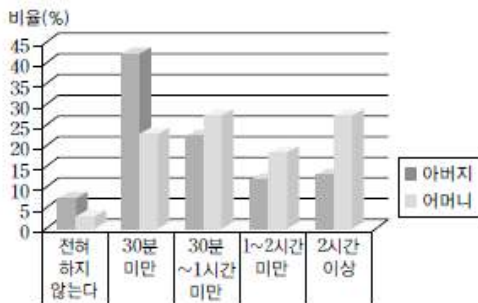
(보기 1)

(가) 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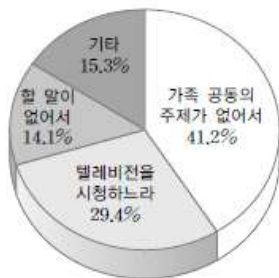
최근 청소년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제도적 보완이나 법률의 제정보다도 가정에서 청소년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특히 청소년 상담 센터 김○○ 연구원은 “요즘은 휴대 전화나 컴퓨터 등 자녀와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매체가 넘쳐나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덧붙여 자녀 교육이 가정 내에서 잘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라며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와 자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설문 조사

1. 하루 중 부모님과 대화 시간



2.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는 이유



(다) 인터뷰

“아무리 좋은 교육법이 나와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밥상머리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서로 유대감을 높이고 대화했던 것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 온 문화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선 부모의 59% 이상이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정작 밥상머리 교육을 안다고 답한 사람도 예절 교육으로 국한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밥상머리 교육은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대화를 통해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부모의 대화 태도가 중요한데,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훈계하거나 억지로 예절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자녀의 인성 교육에 매우 중요합니다.”

- 예절 교육 전문가

(보기 2)

주제: 가정의 자녀 교육 기능 회복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자.

I. 서론

II. 본론

1. 실태

가. 매체의 발달로 인한 사회 문제 심각 ㉠

나. 가정의 교육 기능이 점차 악화

2. 원인

가.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 시간의 부족 ㉡

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공동의 관심사 부족

다. 자녀의 인성 함양을 위한 가정 교육 부재

3. 해결 방안 ㉢

가. 자녀와의 대화를 위한 시간 확보

나. 가정 내에서 자녀의 역할 회복을 위한 노력 ...㉣

III. 결론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노력 촉구

..... ㉤

6.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를 활용하여 ‘II-1’을 작성할 때, ㉠은 주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매체의 발달로 인한 자녀와의 대화 단절 심화’로 수정한다.
- ② (가)와 ‘(나)-1’을 활용하여, ㉡을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 시간 부족’으로 수정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의 하위 항목에 ‘밥상머리 교육을 통한 식사 예절 교육 강화’를 추가한다.
- ④ ‘(나)-2’를 활용하여, ㉣을 ‘가족 내 공동의 주제 마련을 위한 노력’으로 수정한다.
- ⑤ (가)와 (다)를 활용하여, ㉤을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의 기능 회복 촉구’로 수정한다.

7. (보기 2)의 ‘I. 서론’에 해당하는 글을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조건)

- * 주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제시할 것.
- * ‘인과’에 따라 내용을 전개할 것.

- ① 과거에 비해 오늘날 가족 간의 유대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악화된 유대감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② 요즘 청소년 게임 중독은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져드는 이유는 청소년들

만의 건전한 놀이 문화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 ③ 최근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가정 교육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청소년 범죄 등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 ④ 최근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문제는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 ⑤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과거 밥상머리 교육이 붕괴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밥상머리 교육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교육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8. (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보기)를 요약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필요 이상으로 정보가 차고 넘치는 정보화 사회이다. 현대 사회의 정보를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시각이 엇갈린다. 하나는 ‘정보의 바다’로 보는 시선이다. 정보의 바다에는 무궁무진한 정보가 넘쳐나고, 누구든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넘쳐나는 현대 사회의 정보를 ‘정보 쓰레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 또한 잡동사니 정보에 파묻혀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시대는 자유로운 정보 교환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정보의 황금시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통되는 정보량이 많다 보면 생산·유통 과정에서 정보가 변환되거나 왜곡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정보의 출처가 명확한지,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해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조건)

- * 대상을 바라보는 대립된 관점을 대비한다.
- * 글쓴이의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한다.

- ① 현대 사회는 필요 이상으로 정보가 유통되는 정보화 사회이다. 정보가 과잉으로 넘치다 보면, 유통 과정에서 정보가 변환되거나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
- ② 정보화 사회에서는 누구라도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범람하는 정보로 인한 폐해 때문에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③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야누스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넘쳐나게 되면 유통 과정에서 왜곡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 ④ 현대 사회는 필요 이상의 정보가 범람하는 정보 과잉 시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황금시대이다.

- ⑤ 정보화 사회에서는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필요한 정보가 수많은 정보에 파묻힐 수도 있다. 그러므로 비판적 안목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봉사 활동을 글감으로 하여 자기 성찰의 글을 써 보자.

(작문 일지)

오늘 작문 과제는 봉사 활동을 글감으로 한 자기 성찰의 글쓰기였다. 작문 과제를 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까 생각해 보았다. 봉사 활동은 종류도 다양하여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마침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재능 기부 다큐멘터리가 생각나서 재능 기부를 소재로 정하고 글을 쓰기로 했다. 또한 나의 성찰이 부각되도록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전개할지 고민했다. 그런 다음, 당시 프로그램 내용을 떠올리며 작문 계획에 따라 글을 써 보았다.

(학생의 글)

나는 지금껏 기부란 시간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재능 기부를 통해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재능 기부란 개인이 가진 재능을 개인의 이익에만 사용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사회에 이바지하는 봉사 활동이다. 재능 기부가 일반적인 봉사 활동과 다른 점은 각자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 출연한 재능 기부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해 구두 수선을 직업으로 삼았다는 출연자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구두를 수선하거나 제작해 주었다. 힘들지 ㉢않으시냐고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그분은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시면서 아주 작은 재능이라도 남을 돕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나눔을 실천할 수 있고 남을 돕는 것이 유쾌하다며 활짝 웃음을 지었다. ㉣재능 기부는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더 나은 기부 형태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분을 통해 나는 시간과 돈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는 일도 봉사 활동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누가 이런 재능까지 필요로 하겠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에는 처지가 ㉤틀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다. 그림 그리기가 취미인 사람이 동네 벽화 그리기에 참여하는 것,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모두 재능 기부이다. 나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눔으로써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

9. ‘작문 일지’와 ‘학생의 글’을 고려할 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선택한 방법만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 분류의 방식으로 봉사 활동의 다양한 유형을 제시한다.
- ㉡ 개인의 경험을 떠올려 봉사 활동에 관한 글감을 구체화한다.
- ㉢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여 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 ㉣ 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과정을 제시하고 다짐으로 마무리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므로 ‘그런데’로 고친다.
- ② ㉡: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2문단의 맨 앞으로 옮긴다.
- ③ ㉢: 조사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않으시냐라고’로 고친다.
- ④ ㉣: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 ⑤ ㉤: 문맥상 단어가 잘못 사용되었으므로 ‘다른’으로 고친다.

11. 다음의 밑줄 친 단어 중, (보기)의 표준어 발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보기)

* 표준 발음법 조항

제17항 받침 ‘ㄷ, ㅌ(ㄹㄷ)’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미달이[미 : 다지] 발이[바치]

(붙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예) 굳히다[구치다] 달히다[다치다]

- ① 저 너머 모두가 우리 발이다.
- ② 그는 마음 발이 깨끗한 사람이다.
- ③ 체에 발인 찹국이 주방에 놓여 있다.
- ④ 발이랑에는 옥수수와 토마토를 심었다.
- ⑤ 마을 이장이 소에게 발혀서 꿈쩍을 못 한다.

12.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어근에 파생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한다. 어근의 앞에 붙는 파생 접사가 접두사, 뒤에 붙는 것이 접미사이다. 접두사는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접두사 중에는 명사와 동사에 다 붙을 수 있는 것들도 있다. 한편 접미사는 접두사처럼 어근에 특정한 뜻을 더하여 새로운 말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어근의 품사를 바꾸어 주기도 한다.

(보기 2)

- (가) 아이들이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
- (나) 그는 몰래 방 안을 엿보았다.
- (다) 마당에 지렁이가 꿈틀거린다.
- (라) 우리 모두 헛고생만 했다.
- (마) 그는 새빨간 옷을 입고 있었다.

- ① (가)의 접미사 ‘-이’는 어근 ‘놀-’의 품사를 바꾸어 주고 있군.
- ② (나)의 접두사 ‘엿-’은 어근 ‘보-’에 특정한 뜻을 더해 주고 있군.
- ③ (다)의 접미사 ‘-거리다’는 어근 ‘꿈틀’의 품사는 그대로 두고 특정한 뜻을 더해 주고 있군.
- ④ (라)의 접두사 ‘헛-’은 ‘헛듣다’를 고려할 때, 명사와 동사 모두에 붙는 접두사이군.
- ⑤ (마)의 접두사 ‘새-’는 어근 ‘빨갈-’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군.

13. 다음은 국어 수업 시간의 한 장면이다.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선생님, 문장에서 어떨 때는 ‘이예요’라고 쓰고, 어떨 때는 ‘예요’라고 쓰는데, 왜 그렇게 쓰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예요’는 ‘이다’나 ‘아니다’의 뒤에 붙어서 설명이나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이예요’는 ‘이다’에 ‘-예요’가 결합된 것이고, ‘예요’는 ‘이예요’의 줄임말입니다. ‘예요’는 ‘이예요’에 비해 결합상의 제약이 있는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경우에만 ‘예요’의 형태로 줄여 쓸 수 있어요. 즉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경우에는 ‘이예요’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 ① 새로 산 모자예요.
- ② 개울가의 울창이예요.
- ③ 저 아이가 제 동생이예요.
- ④ 이건 제가 심은 나무예요.
- ⑤ 저의 장래 희망은 경찰관이예요.

14.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국어의 부정 표현은 길이에 따라 짧은 부정과 긴 부정으로 나뉘고, 의미에 따라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으로 나뉜다. ‘안’ 부정문은 의지 부정에,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에 쓰인다. 한편 ‘말다’ 부정문은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이 사용되지 못하는 명령형과 청유형에서 사용된다. 일부 용언에서는 부정 표현에 제약이 있다.

(보기 2)

- ㄱ. 철수는 오늘 학교에 {안/못} 갔다.
 ㄴ. 영화는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않았다/못했다}.
 ㄷ. 이번에는 수영장에 {(*)안 가자/(*)못 가자/가지 말자}.
 ㄹ. 저도 그 사실을 {(*)안 모릅니다/모르지 않습니다}.
 ㅁ. 요즘은 가정 형편이 {안 좋다/(*)못 좋다/좋지 않다/좋지 못하다}.
 ㅂ. 그 길이 {안 좁다/(*)못 좁다/좁지 않다/(*)좁지 못하다}.
 (*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비문법적인 문장임.)

- ① ㄱ은 짧은 부정인 반면, ㄴ은 긴 부정이다.
 ② ㄱ의 ‘안’과 ㄴ의 ‘않았다’는 의지 부정, ㄱ의 ‘못’과 ㄴ의 ‘못했다’는 능력 부정을 나타낸다.
 ③ ㄷ은 청유형 문장이므로 ‘안’ 부정문이나 ‘못’ 부정문 대신 ‘말다’ 부정문이 사용된다.
 ④ ㄹ의 ‘모르다’와 ㅁ의 ‘좋다’는 짧은 부정에 한하여 부정 표현이 가능하다.
 ⑤ ㅁ의 ‘좋다’와 달리 ㅂ의 ‘좁다’는 ‘못’ 부정문을 사용할 수 없다.

15. (보기)의 담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철수: 선생님, 청소 시작할까요?
 선생님: 그러자. (두리번거리며) 그런데 혁구는 어디 있지?
 철수: 혁구는 아까 가방 들고 나가던데요?
 선생님: 뭐야? 한두 번도 아니고 ㉠그 녀석 정말
 철수: 선생님, 제가 대신 할게요. ㉡이 자리가 혁구 청소 구역이죠?
 선생님: 그래, 고맙다. ㉢거기 맞아. (퍼뜩 떠오른 듯이) 참, ㉣그 일은 잘 해결되었니?
 철수: 선생님 조언대로 했더니 ㉤그 일은 잘 해결되었어요. 다행히 오해가 풀려 영화랑 화해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영화와 다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잘 해결되었다니 다행이구나.
 철수: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 드려요.
 선생님: 철수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지. 철수야, ㉥저기도 청

소해 줄래?

철수: 쓰레기통 주변 말씀하신 거죠?

선생님: 응, 그래. 그럼 수고하렴.

- ① ㉠과 ㉡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야기의 장면에 존재하지 않는다.
 ② ㉠과 ㉡은 화자와 대상 간의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③ ㉢과 ㉣을 통해 지칭 대상이 선생님보다 철수에게 더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과 ㉣을 통해 선생님과 철수가 동일한 시·공간을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과 ㉥을 통해 영화와 다투었던 철수의 경험을 선생님이 이미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의문문을 나타내는 형태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의 경우에는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이 ‘ㅏ’나 ‘ㅑ’의 형태로 반면,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의 경우에는 ‘ㅓ’의 형태로 끝맺는다. 한편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는 특이하게 ‘-ㄴ다’의 형태가 사용된다.

(보기 2)

- ㄱ. 서경은 평안한가 묻는가 (서경은 평안한가 못한가?) (두시언해 18, 5)
 ㄴ. 고원은 이제 엇더한고 (고원은 이제 어떠한가?) (두시언해 25, 24)
 ㄷ. 네 엇데 안다 (너는 어찌 알았느냐?) (월인석보 23, 74)

- ① 민형: ㄱ의 ‘묻는가’와 현대 국어 ‘못한가’를 비교해 보니 의문사가 없는 경우 둘 다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의 형태가 같군.
 ② 채은: ㄴ의 ‘엇더한고’와 현대 국어 ‘어떠한가’를 비교해 보니, 의문사가 있을 경우 중세 국어는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의 형태가 현대 국어와 다르군.
 ③ 영문: ㄷ의 ‘고원온’을 ‘네(네가)’로 바꾸게 되면, 의문문의 형태가 달라져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이 ‘ㅏ’의 형태로 바뀌게 되겠군.
 ④ 성환: ㄷ은 주어가 ‘네’인 점으로 보아 ‘-ㄴ다’가 현대 국어와 달리 특이하게 의문문에 사용된 예이군.
 ⑤ 소영: ㄷ의 주어를 ‘뜨리(딸이)’로 바꾸면, ㄴ과 마찬가지로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이 ‘ㅓ’의 형태로 나타나겠군.

실전 모의고사

7회

[01~02] 다음은 ‘방과 후 수업’과 관련한 학생 토의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학생회장 ○○○입니다. 오늘은 방과 후 수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개설하여 공지하시면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있었는데요, 먼저 현행 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1: 네,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수업이 다양하게 개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많은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위주로 개설하다 보니 수업마다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고, 다양한 영역과 수준을 아우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 2: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고, 선착순 마감을 하다 보니 인터넷 환경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학생 3: 수업 개설 여부가 인원수에 따라 결정되면서 인원이 적어서 폐강되는 경우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수업이 폐강되면, 결과적으로 그 수업을 듣고 싶어 선택했던 소수 선택자의 선택권이 무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수업이 다양하게 개설되지 못하는 문제,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나 환경에 따른 신청의 유불리가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소수 선택자의 선택권이 무시되는 문제들이 있군요. 그렇다면 방과 후 수업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 1: 제 생각에는 학생이 직접 필요한 수업을 개설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학생이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모아서 선생님께 제안하는 방식을 쓰면 좀 더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수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 3: ㉡그렇게 되면 결국 또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수업만 개설되지 않을까요? 앞에서 문제를 제기했듯이 선생님들이 개설한 기존 수업 역시 학생들의 수요를 감안한 것이었으니까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냥 현행 방식대로 선생님이 개설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학생 2: ㉢학생의 수업 개설에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 장점이 더 큰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충분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판단할 수 있고요, 학생이 수강 인원을 미리 모아서 개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따른 문제나 인터넷 환경에 따른 유불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네, 학생의 수업 개설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장점이 있으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의 방식 보다는 기존의 방식과 학생이 수업을 개설하는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학생 3: 네, 그렇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자, 그럼 소수 선택자의 선택권 문제는 어떨까요?

학생 3: 선택하는 학생이 있으면 수업은 어떻게든 개설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원이 적다고 폐강하는 건 소수 선택자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학생 1: ㉤심정은 이해되지만 인원수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수업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전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2: 결국 수강료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만약 인원이 적어도 꼭 들을 사람이 있다면 수강료를 차별화하는 방법을 통해 해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네, 소수 선택자의 선택권 문제는 수강료 차별화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온 제안은 제가 정리해서 학교 측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01 위 토의에서 사회자가 수행한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의의 진행자로서 참여자들의 대화를 이끌고 있다.
- ② 참여자들의 말을 요약하여 토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 ③ 참여자들의 의견을 절충하여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예고한 토의 진행 순서에 맞게 순차적으로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 ⑤ 전체적인 토의 시간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의 발언 시간을 조절하고 있다.

02 ㉠~㉤ 중, <보기>의 내용에 부합하는 말하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동의를 격률은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의견 차이는 최소화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일치점을 최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

[03~05] 다음은 과학 동아리에서 한 발표의 일부이다. 물
음에 답하시오.

동아리 부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른 부원들이 발표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제 차례가 돌아오니 어떤 주제를 선정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과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한 결과 부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소재를 찾아보기로 하고 도서관에서 다양한 과학서적을 탐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동물 행동의 특성을 비교, 연구하는 학문인 동물 행동학과 관련된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발표 주제를 ‘외부의 자극에 대한 동물들의 행동 특성’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많이 보셨죠? (청중의 반응을 살핀다.) 예상대로 많이 보셨군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아마도 여러분은 동물들의 많은 행동들이 본능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 짓곤 했을 것입니다. 본능이란 사고하고 판단해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유전자 프로그램에 따라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동물들은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면 항상 이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된 동물 행동학 실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동물 행동학자가 종이로 간단한 새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준비한 모형을 보여 준다.) 이 모형은 한쪽에서는 목이 짧은 술개같이 보이고 반대쪽에서는 목이 긴 기러기같이 보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동물 행동학자는 이 모형을 이용해 병아리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짧은 목 모양으로 보이도록 날릴 때는 병아리들이 모두 숨더니, 반대로 긴 목 모양으로 보이도록 날리면 쳐다보기만 할 뿐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새의 모형에 대해 병아리들이 이러한 행동 특성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잠시 청중의 반응을 살핀다.) 어려운 질문이었나 보군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갓 태어난 병아리는 움직이는 사물을 보면 무조건 숨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떨어지는 낙엽에도 숨습니다. 그러다가 낙엽을 여러 번 보면서 그것이 아무런 해가 없다는 걸 배웁니다. 방금 전 소개해 드린 새의 모형에 대한 병아리들의 반응도 이러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이 긴 새들은 자신을 해치지 않지만, 자주 보지 못하던 목이 짧은 새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병아리들은 새의 모형을 짧은 목 모양으로 보이도록 날렸을 때에만 숨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극에 대한 동물들의 반응은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많습니다. 자극에 대한 해석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해석에 따라 자극에 대한 동물들의 반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병아리들은 움직이는 사물을 보면 위험을 느끼고 숨는 본능을 갖고 태어났지만 경험을 통해서 자극에 대한 대응 방법을 다양하게 조절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3 학생의 발표 계획 중 위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용어의 개념을 밝혀야겠어.
- ②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확인해야겠어.
- ③ 설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활용해야겠어.
- ④ 공적인 상황이므로 그에 걸맞은 호칭어와 말투를 사용해야겠어.
- ⑤ 핵심 내용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발표를 마무리해야겠어.

04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학생이 한 생각이다. 학생이 사용한 듣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발표를 하기 위해 조언을 구하고 자료를 찾느라 애를 많이 썼겠군.
•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소개한 실험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군.
• 작년에 조류 박물관에서 알게 된 술개와 기러기의 습성이 떠오르는군.
• 비언어적 표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더라면 보다 흥미로웠을 텐데.

- ① 발표자의 발표 준비 상황을 추리하며 들었다.
- ② 발표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며 들었다.
- ③ 발표에서 활용한 자료가 믿을 만한지 점검하며 들었다.
- ④ 발표자가 내린 결론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며 들었다.
- ⑤ 발표에서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평가하며 들었다.

05 발표 내용을 가장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동물들은 타고난 본능에 따라 반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에 따라 대응 방법을 달리 선택할 수 있군.
- ② 자극에 대응하는 유전자 프로그램이 같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에 대한 동물들의 반응이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군.
- ③ 자극에 따라 동물들의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동물들이 자신들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서식 환경을 변화시킨 결과이군.
- ④ 동물들이 자극에 대한 선별 능력을 갖게 된 것은 경험을 통해 서 타고난 본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이군.
- ⑤ 동물들의 행동은 유전자 수준에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경험과 학습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군.

[06~0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일상생활과 관련된 화제를 정하고, 그에 대해 조사하여 글쓰기

[학생의 초고]

우리나라는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가 외국에 비해 무척 낮은 편이다. 공공 음수대에서 사람들이 손을 씻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있지만 마시기 위해 물병에 수도물을 ㉠담아가는 모습을 본 기억은 없다. 수도물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수돗물은 중금속, 세균 등의 유해 물질을 걸러 내는 정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정수 과정을 거친 우리나라의 수도물 수질은 외국에 비해 결코 나쁘지 않다. ㉡우리나라 전역에는 대략 18만 km의 수도관이 지하에 깔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도물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수질이 아닌 다른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도관이 오래되어 녹이 슬고 떨어져 수도물이 세균에 오염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법은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물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이를 알려 ㉢준다.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가 92%로 매우 높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공공 음수대나 가정에서 수도물을 끓이지 않고 직접 마시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고 한다. 수도물에 대한 프랑스 사람들의 신뢰도가 높은 이유는 정수장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물의 수질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수도 요금 고지서에 그 결과를 공개하기 때문이다. 수도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 알 수 있는 것이다. 수도물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까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도물을 두고, 생수나 정수기 물과 같이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물을 마시는 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제는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관련 기관은 수도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물의 수질 검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수도물에 대한 관리와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공공의 물을 믿을 수 있고 건강한 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06 ‘학생의 초고’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상에서 경험한 내용을 언급하여 문제 상황을 구체화한다.
- ②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관심을 환

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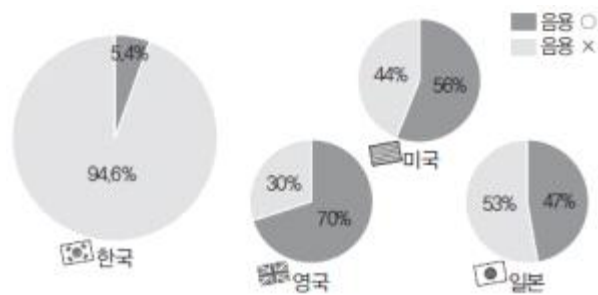
- ③ 문제 상황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내용을 인용한다.
- ④ 외국의 사례를 들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⑤ 문제 상황이 초래한 결과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07 ‘학생의 초고’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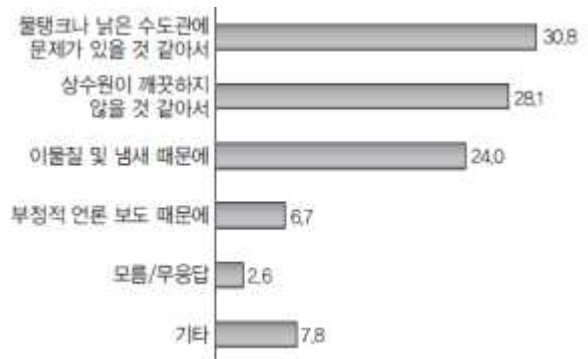
(가) 조사 자료

1. 국가별 수도물 직접 음용 현황



2. 수도물을 불신하는 이유

(단위: %)



(나) 인터뷰

“언젠가 우리나라의 전체 수도 배관 중 20년 이상 된 노후 배관이 적지 않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요즘 수도물을 직접 마시는 가정은 거의 없어요. 지난달 반상회에서도 수도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다들 그러더군요. 집과 연결된 수도관이 오래되어 깨끗하지 않을 것 같고, 집에서 사용하는 수도물의 수질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구하기 어려워서 수도물을 직접 마시기는 어렵다고요.”

(다) 신문 기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도물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가 공개되었다. 테스트는 물의 종류를 밝히지 않고 수도물,

정수기 물, 생수를 마시게 한 후, 선호하는 물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었다. 1차 테스트에서는 수도물이 0%로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학생들이 수도물을 선호하지 않은 이유는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살균을 위해 첨가하는 염소가 날아가도록 상온에서 몇 시간 보관한 후 2차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2차 테스트에서는 수도물, 정수기 물, 생수의 선호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 ① (가)-1을 활용하여, 수도물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뢰도가 외국에 비해 무척 낮은 편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물의 수질을 주기적으로 검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면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한다.
- ③ (가)-2와 (나)를 활용하여, 공공의 물을 믿을 수 있고 건강한 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④ (가)-2와 (다)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도물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수도물에서 나는 냄새 때문일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우리나라 수도물의 수질이 정수기 물, 생수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08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맥상 부적절한 말이므로 '담가'로 바꾼다.
- ② ㉡: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③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주는 것이다.'로 고친다.
- ④ ㉣: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수질 상태를'을 첨가 한다.
- ⑤ ㉤: 접속어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그리고'로 수정한다.

[09~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그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교지에 실을 글을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무엇을 쓸 것인가 생각해 보았다. 교지에 실을 글임을 감안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평소에 나와 내 친구들이 무엇에 대해 고민을 했나 생각해 보았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친구들이 학업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았다. 특히 몇몇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학습에 무기력하게 임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학습에 열심히 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주제로 글을 쓰기로 했다. 내용은 학업에 무기력해진 친구들이 힘을 내어 다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로 했고, 비유를 통해 내용을 어렵지 않게 전달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문가의 견해도 활용하기로 했다.

(나) [학생의 글]

코끼리가 어렸을 때 조그만 말뚝에 묶어 두면 코끼리는 벗어나려고 몇 번이고 몸부림을 친다고 한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린 코끼리는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벗어나려는 노력을 포기한다고 한다. 그러고 나면 덩치가 커져 조그만 말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충분한 힘이 생겨도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인해 벗어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뚝에 묶여 있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비단 코끼리에게만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다. 과거의 우리도 학습할 때 말뚝이라는 한계에 부딪혔을 것이고 어린 코끼리처럼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우리도 그 한계를 인정하고 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역경을 이겨 낼 잠재적인 힘인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역경을 이겨 내기 위해서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 즉 긍정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긍정의 마음을 갖고 이를 습관화하면 누구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학습 능력이 같아도 수학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수학 성적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심리학자는 생각의 차이가 이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학습에 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09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체를 고려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작문이 사회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작문이 예상 독자를 고려하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 ③ 자신과 주변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작문이 글쓴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 ④ 학생들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작문이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 지향적 활동임을 알 수 있다.
- 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출처를 제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작문이 인용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윤리적 관습을 지키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10 (나)의 마지막 부분에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때,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건>
- 비유의 방법을 활용하여 (가)의 ㉠가 반성적인 생각을 하도록 권유할 것.
 - 글의 내용을 고려하여 (나)의 ㉡가 드러나도록 할 것.

- ① 긍정적 생각은 커다란 말뚝도 뽑아 버릴 수 있는 힘이 다. 학습에 임할 때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성적이 많이 향상 될 것이라 생각한다.
- ② 아직도 자신이 조그만 말뚝에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을 해야 한다.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자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 ③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는다면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학습에 임하는데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 ⑤ 자신이 충분히 성장한 코끼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일이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학습에 임한다면 어려움을 이겨 낼 것이다.

11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 친 부분에 적용된 표기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한글 맞춤법에서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표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이 근본 원칙이지만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이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표기 규정은 소리대로 적을 경우에 원래 형태를 알기 어려워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꽃이, 읊다’처럼 형태를 고정시켜 표기한다는 것이다.

- ① ‘생김새가 같아’: 활용되는 용언 어간의 원래 형태를 고

- 정시켜 적은 것을 볼 때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는 원칙이 적용되었군.
- ② ‘집에 이르러’: 용언이 활용될 때 일어나는 어미의 발음상 변화를 반영하여 적은 것을 볼 때 소리대로 표기하는 원칙이 적용되었군.
- ③ ‘옆집 동생’: 합성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어근의 원래 형태를 고정시켜 적은 것을 볼 때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는 원칙이 적용되었군.
- ④ ‘배꾸기 동지’: 파생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어근의 원래 형태를 고정시켜 적지 않은 것을 볼 때 소리대로 표기하는 원칙이 적용되었군.
- ⑤ ‘여달이문’: 어휘가 합성 및 파생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발음상의 변화를 모두 반영하여 적은 것을 볼 때 소리대로 표기하는 원칙이 적용되었군.

12 다음 문장을 수정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정 내용	수정 이유
• 이곳은 땅이 기름지나 다른 지역에 비해 농사가 잘된다. → 이곳은 땅이 기름져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농사가 잘된다.	㉠
• 드디어 마을 주민들의 바람인 새 다리가 놓여질 것이라고 한다. → 드디어 마을 주민들의 바람인 새 다리가 놓일 것이라고 한다.	㉡
• 선생님께서는 ‘시련이 와도 초심을 잃지는 말자.’라고 말씀하셨다. → 선생님께서는 “시련이 와도 초심을 잃지는 말자.”라고 말씀하셨다.	㉢
• 상대성 이론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논문은 당시 중대한 사건이었다. → 상대성 이론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논문 발표는 당시 중대한 사건이었다.	㉣
• 학교는 전인 교육의 내실화에 두고 교육 과정을 재편성하기로 하였다. → 학교는 전인 교육의 내실화에 목표를 두고 교육 과정을 재편성하기로 하였다.	㉤

- ① ㉠: 앞 절과 뒤 절을 대등하게 이어 주는 연결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② ㉡: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다.
- ③ ㉢: 말을 직접 인용할 때 사용하는 문장 부호가 잘못되었다.
- ④ ㉣: 서술어의 의미에 어울리는 주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⑤ ㉤: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목적어가 쓰이지 않았다.

13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표준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ㄱ. 표준어는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을 의미한다.
 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ㄷ. 사투리는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을 의미한다.
 ㄹ. 서울말에 ‘코보’, ‘빈자떡’, ‘억스럽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는 표준어가 아니다. 서울말은 아니지만 사용 범위가 전국적으로 더 넓은 ‘코주부’, ‘빈대떡’, ‘억겁다’가 표준어이다.

- ① ㄱ을 보니, 표준어를 사용하면 국민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겠군.
 ② ㄴ을 보니, 표준어는 대부분 서울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군.
 ③ ㄹ을 보니,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쓰는 말도 경우에 따라 표준어로 인정될 수 있겠군.
 ④ ㄷ, ㄹ을 보니, 서울말 중에서 표준어가 아닌 말들은 서울 사투리라고 할 수 있겠군.
 ⑤ ㄱ, ㄷ, ㄹ을 보니,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들은 모두 사용 범위가 전국적으로 넓은 사투리였겠군.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붓다⁰¹ [부어, 부으니, 붓는[분 : -]]

「동사」

- ㉠ 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른다.
 ㉡ 얼굴이 붓다. / 병으로 간이 붓다.
 ㉢ (속되게) 성이 나서 뽀로통해지다.
 ㉣ 왜 잔뜩 부어 있나? / 약속 시간보다 늦게 갔더니 친구가 기다리다 지쳐 잔뜩 부어 있었다.

붓다⁰² [부어, 부으니, 붓는[분 : -]]

「동사」 【…에/에게 …을】

- ㉠ 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곳에 담다.
 ㉡ 자루에 밀가루를 붓다. / 가마솥에 물을 붓다.
 ㉢ 모종을 내기 위하여 씨앗을 많이 뿌리다.
 ㉣ 법씨를 붓다. / 모판에 배추씨를 붓다.

- ① 붓다⁰¹ ㉠의 용례로 ‘벌에 쏘인 자리가 붓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② 붓다⁰² ㉢의 유의어로는 ‘팽창하다’가 있겠군.
 ③ 붓다⁰¹과 붓다⁰²는 모두 다의어이군.
 ④ 붓다⁰²가 붓다⁰¹보다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더 많군.

- ⑤ 붓다⁰¹과 붓다⁰²는 모두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ㅅ’이 탈락되는군.

15 다음 예문의 중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ㄱ. 철수가 택시를 타지 않았다.
 ㄴ. 광수가 보고 싶은 친구가 많다.
 ㄷ. 귀여운 승호의 동생이 놀러 왔다.
 ㄹ. 영수는 찬기와 창수를 불렀다.
 ㅁ. 그는 어제 고향에서 온 동창생을 만났다.

- ① ㄱ: ‘않았다’가 부정하는 대상이 ‘철수’인지, ‘택시’인지, ‘타지’인지 불분명하다.
 ② ㄴ: ‘보고 싶은’의 주체가 ‘광수’인지, ‘친구’인지 불분명하다.
 ③ ㄷ: ‘귀여운’이 꾸미는 대상이 ‘승호’인지, ‘동생’인지 불분명하다.
 ④ ㄹ: ‘불렀다’의 주체가 ‘영수’와 ‘찬기’ 둘 다인지, ‘영수’만인지 불분명하다.
 ⑤ ㅁ: ‘어제’가 수식하는 대상이 ‘그’인지, ‘동창생’인지 불분명하다.

16 <보기>의 ‘히을 종성 체언’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중세 국어에서 ‘갈 [刀], 내 [川], 외 [山], 안 [內], 우 [上]’ 등은 ‘ㅎ’을 말음으로 가지는 ‘히을 종성 체언’이다.

- 갈 [刀] : 갈히(갈ㅎ+이), 갈과(갈ㅎ+과), 갈쁘기(갈ㅎ+쁘기)
- 내 [川] : 내해(내ㅎ+해), 내토(내ㅎ+도), 냇물(내ㅎ+ㅅ+물)

현대 국어에서 ‘안팎’, ‘살고기’, ‘수평아리’ 등은 ‘히을 종성 체언’의 자취가 남아 있는 단어들이다.

- 안팎(안ㅎ+밖), 살고기(살ㅎ+고기), 수평아리(수ㅎ+병아리)

- ① 중세 국어의 ‘갈히’, ‘내해’는 히을 종성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ㅎ’이 뒤에 오는 조사에 연음된 경우이군.
 ② 중세 국어의 ‘갈과’, ‘내토’는 히을 종성 체언이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ㅎ’이 뒤에 오는 조사의 초성과 축약된 경우이군.
 ③ 중세 국어의 ‘냇물’은 히을 종성 체언이 관형격 표지인 ‘ㅅ’ 앞에 위치하여 ‘ㅎ’이 탈락된 경우이군.

- ④ 현대 국어의 ‘안팎’, ‘살코기’는 히을 중성 체언이 명사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룰 때 ‘ㅎ’이 뒤의 예사소리와 결합하여 거센소리가 된 경우이군.
- ⑤ 중세 국어의 ‘갈쓰기’와 현대 국어의 ‘수평아리’는 히을 중성 체언이 실질 형태소와 결합할 때, ‘ㅎ’의 음가가 소멸된 경우이군.

실전 모의고사

8회

[01~03] 다음은 협상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환자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를 두고 병원 측이 문제를 제기하여 업체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병원 측: 환자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 환자복의 옷감이 거칠고 뻣뻣하여 착용감이 나쁘다는 불만이 너무 높군요. 치수에 맞는 환자복이 제공되지 않아 불편했다는 답변도 38%나 됩니다. 내년에 납품 받기로 계약한 환자복의 품질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업체 측: 저희가 제공하던 환자복은 원단의 등급이 높지 않아 일상복처럼 편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다른 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2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병원 측: 환자복은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입는 옷입니다. 가뜰스나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데 환자복 때문에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저희 병원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복의 착용감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업체 측: 환자복의 원단 등급을 높여 착용감을 좋게 하려면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치수의 환자복을 제공하려면 작업 공정이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 설비도 추가해야 하고 인력도 충원해야 합니다. 당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원 측: 재질 개선은 물론 치수 다양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내부 회의를 통해 10% 정도의 가격 인상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희가 처음보다 가격을 10% 인상해 드리는 대신, 업체 측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환자복의 품질을 개선하고 치수를 다양화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측: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원단 등급을 높이려면 최소 15% 정도 가격을 올려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환자복 치수를 다양하게 늘리려면 또 생산 비용이 추가됩니다. 정확한 가격 인상 폭을 다시 계산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병원 측: 저희도 환자들의 불만이 너무 심해서 올해 초에 납품 받은 환자복 재고품을 그대로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기존 제품 100벌 정도를 뜯지도 않고 폐기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저희 측의 손실 비용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업체 측: 잠깐만요, 올해 생산한 제품의 재고가 100벌이나 남아 있다고요? 잠시 회사와 통화해 보겠습니다.
(밖에 나가 잠시 회사와 통화를 한다.)

업체 측: 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병원에서 환자복 재고품 100벌을 저희에게 반납하시면 새로 만드는 제품 중 100벌을 50% 가격에 제공하는 보상 판매를 하겠습니다.

병원 측: 보상 판매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번에 새로 구매하기로 계약한 500벌 중에 100벌을 50% 가격에 받을 수 있을 테니 비용이 조금 절감되겠군요.

업체 측: 때마침 저희도 올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추가 주문이 들어와 재고품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상 판매에 동의해 주시면 새 제품 가격을 13% 정도 인상하는 대신, 치수 다양화에 드는 추가 생산 비용은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병원 측: 음, 선불리 결정할 수가 없군요. 10% 인상은 내부 회의에서 정한 것이라 협상 대표인 제 마음대로 바꿀 권한이 없습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업체 측에서 다음 주까지 검토해 보시고 조정안을 만들어 오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까지 저희도 보상 판매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01 <보기>는 협상 전 문제 상황과 양측의 기본 입장이 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제 상황

- 환자복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 병원 측이 곤란을 겪고 있다. ㉠

병원 측 입장

- 업체로부터 보다 나은 품질의 환자복을 제공받는다. ㉡
- 좀 더 다양한 치수의 환자복을 제공받는다. ㉢

업체 측 입장

- 높은 등급의 원단 사용에 따른 가격 인상에 대해 동의를 받는다. ㉣
- 당장은 환자복의 치수를 다양하게 만들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

- ① ㉠은 병원 측의 문제이지만, 계약의 유지를 위해서 업체 측의 해결 노력도 필요하다.
- ② ㉡은 병원 측의 최우선 목표로, 병원 측은 업체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③ ㉢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병원 측은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 ④ ㉣은 문제 상황과 병원 측의 목표에 대응하여 업체 측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해당한다.
- ⑤ ㉤을 위해 업체 측은 다양한 치수의 환자복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02 각 협상 주체의 협상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병원 측은 환자들의 상황과 심리 상태를 언급하여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군.
- ② 업체 측은 환자복의 원단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가격적

측면에서의 장점을 부각하는군.

- ③ 병원 측은 구체적 협상안을 먼저 제시하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군.
- ④ 업체 측은 양보할 수 없는 선을 처음에 밝혀 두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⑤ 병원 측은 최종 결정권이 협상 대표에게 있음을 밝히면서 업체 측에 조정안을 요구하고 있군.

03 보상 판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업체 측이 병원 측 상황을 활용하여 양측의 이익을 위해 제안한 절충안이다.
- ② 업체 측이 경제적 이익보다 병원 측과의 신뢰 회복을 중시하여 떠올린 양보안이다.
- ③ 업체 측이 환자복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협상안이다.
- ④ 병원 측이 협상 과정에서 업체 측에 먼저 요구하여 얻어 낸 결과이다.
- ⑤ 병원 측이 환자의 만족도보다 병원의 비용 절감을 중시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제안이다.

[04~05] 다음은 친구 간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명희와 영수가 점심을 먹고 난 뒤 산책을 하고 있다.)

명희: 너, 혹시 ○○구에서 열린 ‘인체 세계전’에 다녀왔니? 난 어제 갔다 와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는데. (들뜬 기색을 보이며) 전시물 중에는 사람의 눈을 절단해서 시신경까지 보여 주는 전시물이 있는데, 와, 그걸 보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더라고.

영수: ㉠으악, 그건 밥 먹자마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살아 있던 사람을 전시하고 그걸 구경한다는 일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가지 않아. 겁도 나고 무서워서 똑바로 못 볼 것 같고. 왠지 징그러울 것 같아.

명희: 어? 난 무섭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는데. 나는 심지어 내가 죽은 뒤에 내 몸을 기증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도 해 봤는걸.

영수: 넌 참 이상하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너는 네 몸이 포르말린에 들어가 박제가 되는 걸 원하는 거야?

명희: 포르말린이라니? 그건 잘못된 상식이야. 혹시 세계적 해부학자 군터 폰 하겐스 박사에 대해 들어 보았니? 그동안의 박제는 네 말대로 포르말린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유해하다는 인식이 있었대. ㉡하지만 이 전시에는 하겐스 박사가 만든 ‘플라스티네이션’이라는 인체 보관 기법이 활용되었대. ‘플라스티네이션’이란 표본 조직의 수분과 지방을 반응성 플라스틱으로 교체하여 표본을 생생하게 보관하는 기법이야. 신체 기증을

원하는 사람의 자원을 받아 그 사람을 박제 처리 하고 ‘인체 세계전’을 준비했다고 하네. 1995년 처음 일본에서 시작되어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인원이 관람하는 영향력 있는 행사라고.

영수: ㉢살아 있던 인간이 전시물로 바뀌어 누군가의 시선을 계속 받는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일일까?

명희: 그렇지만 이 전시회를 보고 자신의 몸을 ‘인체 세계전’에 내놓겠다고 서명한 사람도 100여 명에 이른대. 그 사람들은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존재로 남아서 소통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영수: 하지만 일부 종교계에서는 이런 전시를 위한 신체 기증을 맹렬히 비판한다고 들었어. 그 사람들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명희: ㉣나도 종교인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중요한 건 내 몸의 주인인 내가 주체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닐까? 죽고 난 뒤에 내 몸에 어떤 의식이 남아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내 몸을 보면서 깨달음이나 감동을 얻을지도 모르잖아.

영수: ㉤우리 할머니께서는 부모님께 받은 신체를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늘 말씀하셨어. 나도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 (미소를 지으며) 너처럼 독특한 생각을 하는 친구랑 다니는 것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야.

명희: (장난스러운 말투로) 나랑 다녀 줘서 정말 고맙다, 친구야. 내일 전시회 보러 같이 갈래?

영수: 음, 고맙지만 사양하고 싶다. 그래도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 주면 나중에 생각이 났을 때 한번 들어가 볼게.

0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황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화제가 선택되었다는 대화 참여자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 ② ㉡: 상대방의 인식 전환을 이끌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밝혀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 상대방의 말을 요약정리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④ ㉣: 상대방의 발언 중 일부에 동의를 표하며 대화를 이어 나 가고 있다.
- ⑤ ㉤: 평소 지니고 있던 가치관을 언급하면서 상대방과의 생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05 다음은 명희가 세웠던 말하기 수업의 발표 계획이다. 영수와 대화한 내용을 떠올린 명희가 발표 계획을 보완하려 할 때, 그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발표 상황: ‘인체 세계전’에 대해 친구들에게 홍보하기 도입

- 질문을 통해 ‘인체 세계전’에 대한 청중의 관심 정도를 확인함.

전개

- ‘인체 세계전’의 의의와 취지를 설명함.
- 실제 전시물 사진을 활용하여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
- 전시물을 직접 보고 난 뒤 자신이 느낀 점을 언급함.

정리

- ‘인체 세계전’이 끝나는 시점을 안내하고 관람을 권유함.

[명희의 생각]

영수와 대화를 나누어 보니 ‘인체 세계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전시물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부정적 인식을 지닌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선택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야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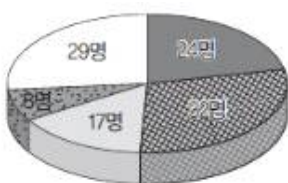
- ① 도입 부분에서 ‘인체 세계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발표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한다.
- ② 전개 부분에서 ‘인체 세계전’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준다.
- ③ 전개 부분에서 활용하려고 했던 사진 중 무섭거나 잔인하게 보일 수 있는 사진을 찾아 교체한다.
- ④ 정리 부분에서 ‘인체 세계전’을 위한 신체 기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⑤ 정리 부분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기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 ‘인체 세계전’의 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한다.

06 ‘청소년의 커피 음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보기>에 제시된 자료의 활용 및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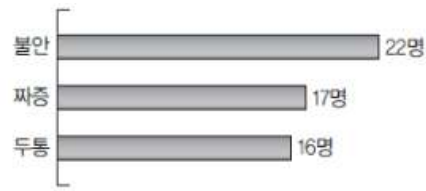
(가) 청소년들의 커피 음용 실태 관련 설문 조사 자료 (고등학생 110명 대상)

1. 커피 음용 경험



■ 매일 2잔 이상
 ■ 매일 1잔 이상
 □ 일주일에 3~4잔
 ■ 일주일에 1~2잔
 □ 거의 마시지 않는다. 마셔 본 적 없다.

2. 커피를 자주 마시는 청소년들이 겪은 금단 증상



3. 커피를 마시는 이유 (81명 중, 중복 답변 허용)

- 맛이 있어서 (34명)	- 달리 마실 음료가 없어서 (33명)
- 시험 기간에 잠 깨려고 (23명)	- 공부할 때 집중이 잘되어서고 (27명)

(나) 인터뷰 자료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을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어 확산되면서 중추 신경계를 흥분시켜,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 주고, 피로도 덜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혈액 순환과 배뇨도 잘 되도록 도움을 주지요. 이러한 효과들이 15~45 분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공부할 때 커피를 마시는 청소년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 전문 서적 자료

약리학에서는 특정 약물을 동량으로 반복하여 투여할 때 약효가 점점 감소되는 현상을 내성이라고 한다. 약물에 내성이 생기면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 보다 많은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신체 의존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신체 의존성이란 특정 약물의 사용을 중지했을 때 금단 증상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한다. 사람들이 자주 마시는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도 금단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 ① (가)-1과 (다)를 활용하여 커피를 마시는 청소년 중 일부는 신체 의존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문제로 제기한다.
- ② (가)-2와 (다)를 활용하여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의 금단 증상으로 두통이나 불안 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한다.
- ③ (가)-3과 (나)를 활용하여 커피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학생들이 커피를 음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임을 언급한다.
- ④ (가)의 설문 조사 주체가 누구인지, (다)의 내용이 어떠한 책에 나오는지 출처를 찾아 명시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높인다.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커피 음용의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다른 건강 음료와 커피의 효능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07~0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학교 신문 8월호 기사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행사를 기사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작문 계획]

1. 학교 행사 중 시의성이 있고 중요한 사건을 객관적 태도로 서술한다.
2. 기사문의 기본 형식을 따르되, 함축성이 높은 표제와 표제를 잘 보완해 주는 부제를 작성한다.
3. 전문은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4. 본문은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소감을 전달한다.
5. 본문은 행사를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행사의 사전 준비 과정과 진행 과정이 모두 드러나도록 서술한다.

[학생의 초고]

표제: 꿈을 찾아 함께 떠난 독서 여행

부제: 학교에서 있었던 책 읽기 행사

전문: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에게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나를 찾아 떠나는, 독서 여행’을 진행하였다.

본문: 지난 7월 19일, 교사 12명과 학생 100여 명이 참가한 1박 2 일의 독서 여행이 도서관의 주관으로 학교 도서관에서 실시되었다. ㉠독서 여행 행사에 참가한 교사 12명과 학생 100여 명은 각각 멘토, 멘티가 되어서 모둠에서 선택한 책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 독서를 좋아했던 나와 내 친구들은 몹시 기대하던 행사였기에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총 3부로 ㉢진행되어진 행사 중 1부에서는 학생들이 모둠별로 미리 선정한 책을 읽었고, 2부에서는 다른 모둠의 책 중에 하나를 골라 모둠원들이 번갈아 낭독하였다. 다음날 오전 3부에서는 멘토와 멘티가 서로의 독서 경험을 공유했다. 멘토들은 ‘나의 인생을 바꾼 책’을 소개하며 자신들의 독서 경험을 멘티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멘티들은 ‘내 마음을 움직인 책 속의 말’과 함께 자신들의 꿈을 발표한 후 멘토들의 조언을 들었다.

행사에 참가한 정수진 선생님은 “책 읽기를 사랑하는 학생들을 만나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함께 읽는 맛은 분명 혼자 읽을 때와는 다릅니다. 멘토, 멘티의 구분을 떠나 서로를 통해 더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7 [작문 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의 초고]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교 신문 기사로 작성한 글이므로 개인적인 취향이나 기대감을 언급하지 말고, 객관적 태도로 사건을 다루는 것이 좋겠어.

- ② 부제가 표제를 보완해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누구와 함께했는지를 밝혀 ‘독서 멘토와 함께한 1박 2일의 책 읽기’로 고치는 것이 좋겠어.
- ③ 전문을 읽고 누가, 언제, 어디서 행사를 진행했는지는 알 수 있지만, 나머지는 알 수 없으므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등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 ④ 본문에 행사의 사전 준비 과정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서술하는 것이 좋겠어.
- ⑤ 본문에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추가로 실어서 학생들이 느낀 점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어.

08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바로 앞 문장에서 언급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교사와 학생들’으로 고친다.
- ② ㉡: 우리말답지 않은 번역 투의 표현이므로 ‘함께 읽었다’로 고친다.
- ③ ㉢: 이중 피동태 해당하므로 ‘진행된’으로 고친다.
- ④ ㉣: 기사의 논리적 흐름을 해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
- ⑤ ㉤: 종결 어미가 다른 문장들과 통일되지 않았으므로 ‘말했다’로 고친다.

[0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가)를 읽고, 정부 관계자에게 문제 상황을 호소하기 위 해 (나)를 썼다.

(가) 신문 기사

15년간 기르던 반려견 ‘뚜이’가 죽어서 슬퍼하던 ○○ 씨네 ‘뚜이’의 사체를 처리하려다 깜짝 놀랐다. 현행 법상 동물의 사체는 동물 보호법에 따라 동물 장묘 업체를 통해 고가의 비용을 물고 장례를 지내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정부 관계자에게 쓴 호소문

동물 보호와 복지 업무를 하시는 담당자님, ‘반려(伴侶)’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반려’는 말 그대로 ‘짝이 되는 동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려 동물’은 인간과 평생 짝이 되는 친구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얼마 전 반려 동물의 사체는 현행법 상 고가의 비용을 물고 장례를 치르거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짝이 되는 동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라니요? 친구라면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물론 동물 장례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비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업체 수도 너무 적어 동물 사체를 모두 처리할 수도 없습니

다. 동물 보호 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매년 약 12~13만 마리의 반려 동물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전국에 등록된 장묘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연간 3만 마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8~9만 마리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지거나 불법적으로 암매장되는 데, 이 경우 공공 위생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친구인 반려 동물을 떠나보내는 데 있어 그에 걸맞은 예우를 갖추 수 있도록 동물 복지의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09 다음은 (가)를 읽은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 고려한 방법이다. (나)에 적용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단어의 의미를 환기하며 글을 시작해야겠어.
- ② 통계 수치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야겠어.
-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문제에 대한 각성을 촉구해야겠어.
- ④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야겠어.
- ⑤ 글의 신뢰성을 위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겠어.

10 <보기>의 조건에 따라 (나)의 제목을 만들어 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설의적 표현과 대조의 표현 방식을 활용할 것.
- (나)에 나타난 글쓴이의 문제의식을 부각할 것.

- ① 반려 동물과 함께한 시간, 추억마저 버리시겠습니까?
- ② 반려는 함께 지내는 것이지, 돌려보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③ 장례를 지내자니 주인이 울고, 쓰레기로 버리자니 동물이 읊니다.
- ④ 살아서는 짝이 되는 친구이고, 죽어서는 버려야 하는 쓰레기인가요?
- ⑤ 반려 동물은 인간의 친구입니다. 친구다운 예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11 <보기>는 표준 발음법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다음 중 <보기>에 제시된 세 항목이 모두 적용된 것은?

[3점]

<보기>

표준 발음법

제9항 받침 ‘ㄱ, ㅋ’, ‘ㄴ, ㄷ, ㅌ, ㄹ’,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ㅍ]으로 발음한다.

키읔[키읔] 돛[돛] 앞[앞]

제10항 겹받침 ‘ㄴ’, ‘ㄷ’, ‘ㄹ, ㄷ, ㄹ’,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몫[몫] 외곶[외곶] 여덟[여덟]

제23항 받침 ‘ㄱ(ㄱ, ㅋ, ㄴ, ㄷ), ㄷ(ㄴ, ㄷ, ㅌ, ㄹ), ㅂ(ㅍ, ㅂ,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ㄴ, ㄷ’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국밥[국뽕] 꽃다발[‘꼰따발] 덮개[덱개]

- ① 낫설고 [낫썰고]
- ② 녀두리 [넉두리]
- ③ 옷값도 [온값또]
- ④ 한없이 [하 : 넉씨]
- ⑤ 활아먹다 [할타먹따]

12 <보기>를 참고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글 맞춤법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도저히

[붙임]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반드시(꼭) 슬며시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더욱이 오죽이 해죽이

- ① ‘딱히 여기다’의 ‘딱히’는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것으로,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군.
- ② ‘깨끗이 씻다’의 ‘깨끗이’는 ‘-하다’가 붙는 어근에 ‘-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으로,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군.

- ③ '갑자기 돌아가다'의 '갑자기'는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군.
- ④ '일찍이 출발하다'의 '일찍이'는 부사 '일찍'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으로,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군.
- ⑤ '고즈넉이 기다리다'의 '고즈넉이'는 부사 '고즈넉'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으로,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군.

13 <보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여러분, 아래는 우리나라 지명에서 자음 'ㄹ'이 들어가는 지명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것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음 'ㄹ'에 대한 표기 규정을 정리 해 봅시다.

구리 - Guri	설악[서락] - Seorak
임실 - Imsil	칠곡 - Chilgok
울릉 - Ulleung	대관령[대괄령] - Daegwallyeong

학생: 선생님. 자료를 보니 자음 'ㄹ'을 'r'로 적은 경우는 [ㄹ]이 (㉠)에 있을 때이고, 'l'로 적은 경우는 [ㄹ]이 (㉡) (이)나 자음 앞에 올 때입니다. 단, [ㄹㄹ] 소리가 연이어 날 때에는 (㉢)로 적고 있습니다.

- | ㉠ | ㉡ | ㉢ |
|--------|----|----|
| ① 자음 뒤 | 어두 | l |
| ② 자음 뒤 | 어말 | ll |
| ③ 모음 앞 | 어두 | l |
| ④ 모음 앞 | 어말 | ll |
| ⑤ 모음 앞 | 어두 | ll |

14 <자료 1>과 <자료 2>로 볼 때, '만'의 띄어쓰기가 알맞지 않은 것은?

<자료 1>

한글 맞춤법 규정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자료 2>

• 만⁰¹ 「의존 명사」

동안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말.

• 만⁰² 「의존 명사」

㉠ 앞말이 뜻하는 동작이나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

㉡ 앞말이 뜻하는 동작이나 행동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말.

• 만¹⁴ 「조사」

㉠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 무엇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① 그가 그러는 것도 이해할 만은 하다.
- ② 아내는 웃기만 할 뿐 아무 말이 없다.
- ③ 잘 듣고 보니 그가 화를 낼만도 하다.
- ④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 만에 떠났다.
- ⑤ 그는 어머니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15 <보기>를 고려하여 잘못된 문장을 바르게 고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말을 어법에 맞게 쓰기 위해서는 필요한 문장 성분을 갖추어 써야 하는데, 필요한 문장 성분을 지나치게 생략해서는 안 된다. 또한 문장 성분의 호응도 고려하여야 하며,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하나의 의미만 갖도록 표현해야 한다.

- ① 사람은 남에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 사람은 남에게 속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한다.
- ② 생선의 신선도는 눈보다 아가미를 보아야 한다.
→ 생선의 신선도는 눈보다 아가미를 보고 알 수 있다.
- ③ 너는 과연 독단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 너는 반드시 독단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 ④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본능에 가깝다.
→ 아름다움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본능에 가깝다.
- ⑤ 이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싣고 하루에 다섯 번씩 운항한다.
→ 이 배는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고 하루에 다섯 번씩 운항한다.

16 <보기>에 제시된 ‘중세 국어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세 국어 자료]

ㄱ·논·엄쏘·리·니 𑖀군 ㄷ字·쫐·처섬·퍼·아·나논소·리·ᄃᄃ·
니골·바·쓰·면 𑖀꺄꺄ᄃᄃ字·쫐·처섬·퍼·아·나논소·리·ᄃᄃ·
라 …… <중략> ……

ㄷ·논·혀쏘·리·니 𑖀·둘ᄃᄃ字·쫐·처섬·퍼·아·나논소·리·ᄃᄃ·
니골·바·쓰·면 𑖀ᄃᄃᄃ字·쫐·처섬·퍼·아·나논소·리·ᄃᄃ·
라

- 『훈민정음(1459년)』 언해본 초성해 -

[현대어 풀이]

ㄱ은 어금닛소리이니 𑖀(군) 자의 처음 퍼서 나는 소리
같으니 나란히 쓰면 𑖀(규, 여기서는 ‘규’) 자의 처음 퍼
서 나는 소리 같다. …… <중략> ……

ㄷ은 혀소리니 𑖀(두) 자의 처음 퍼서 나는 소리 같으니
나란히 쓰면 𑖀(담, 여기서는 ‘땀’) 자의 처음 퍼서 나는
소리 같다.

- ① 조음 위치와 관련지어 초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오늘날에는 사용하지 않는 ‘·’, ‘△’, ‘방’ 등이 나타난다.
- ③ 성조(聲調)를 표시하기 위해 음절의 왼편에 방점을 찍고 있다.
- ④ 초성의 음가를 알려 주기 위해 한자의 음가를 활용하고 있다.
- ⑤ 초성에 서로 다른 글자를 결합하여 쓰는 합용 병서가 나타난다.

실전 모의고사

9회

[01~03]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에 대한 공경 의식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으며, 윤리적 호소로는 효의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효의 실천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 효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효 정신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의 실천을 강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는 ‘부모 부양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경제력이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도록 강제해 노인 복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효를 법제화하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노인 복지 시스템을 갖추어 가족, 사회, 국가의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법적으로 효를 장려하고, 효의 의미를 교육하고, 부양을 적절하게 강제하는 것은 인간성과 가족 공동체의 회복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반대 2: 반대 측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효를 법적으로 강제하면 오히려 효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찬성 1: 효의 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자: 이어서 반대 측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문제도 존재합니다. 효는 윤리적 문제입니다. 효를 강제하는 법을 정하면, 오히려 그 법이 가족 불화의 원인이 되어 가족 공동체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효 정신이 훼손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노인 복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그 시스템을 통해 노인을 공경하는 정신의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찬성 2: 찬성 측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구별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습니까?

반대 1: 객관적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양심과 윤리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중략>

사회자: 양측의 입론과 확인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반대 측부터 차례대로 반론하겠습니다.

반대 1: 효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효를 법제화한다고 노인을 학대하던 패륜아들이 행동을 고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봉

양한다는 것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만 많아져 효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양산으로 이어져 노인 복지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찬성 1: 통계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4명이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사회학자들이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학대를 당하는 노인의 수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가 더 이상 윤리적 문제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효의 실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효의 실천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01 위 토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자’는 토론의 배경을 소개하며 논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찬성 1’은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찬성 1’은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반론에 활용하고 있다.
- ④ ‘반대 1’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근거로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반대 1’은 제도 실시의 시의성을 근거로 찬성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02 <보기>의 ㄱ~ㄴ 중, 위 토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보기>

- ㄱ. 교육을 통해 효의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가.
- ㄴ. 효의 실천에 관한 문제를 윤리적 차원에서만 다루어야 하는가.
- ㄷ.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효를 기반으로 한 가족 공동체의 해체가 가속화될 것인가.
- ㄹ. 효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노인 복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ㄴ, ㄹ

03 위 토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 ① 노인을 학대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② 국가가 체계적으로 노인 복지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 ③ 효를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을 세대 간 합의를 통해 마

련해야 한다.

- ④ 노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시급 히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정부가 사회의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04~05] 다음은 상담에 관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어려본, 어느 날 친구가 고민을 여러분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지 않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예, 누구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상담자가 되어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상담 시 유의 해야 할 점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죠. (영상을 보여 주며)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담은 대화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그런데 상담의 대화는 일상의 대화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영상을 보며 파악해 보시죠. (영상을 마저 보여 주고) 차이점을 파악하셨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상담의 대화가 일상의 대화와 가장 다른 점은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파악하셨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웃으며) 파악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것 같네요. 상담의 대화는 행동의 변화, 신념의 변화, 정서의 변화,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의 변화, 정보의 수집 및 활용력의 변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의 대화는 내담자의 변화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내담자의 동기 형성, 내담자의 말에 대한 이해·수용·공감, 내담자의 행동 유형에 대한 통찰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담의 대화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죠.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서 그의 경험과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내담자에게 보여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상담에서의 대화는 내담자의 변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외에 상담할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상담 초기부터 조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담자의 특성과 내담자가 지닌 문제의 배경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조언은 내담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담자를 가르치려 하거나, 내담자에게 지나치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질문만 해야 하며, 폐쇄적 질문보다는 개방적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와 같이 “예”나 “아니요”를 대답으로 요구하는 폐쇄적 질문보다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와 같이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개방적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도 친구의 고민을 제대로 들어 주지 못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방적 질문을 통해 친구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 하기보다는 조언을 한다며 제 이야기를 하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을 참고해 앞으로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0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발표 주제에 관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 ② ㉡: 영상 자료에서 청중이 발표 주제와 관련 있는 정보를 파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③ ㉢: 앞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며 뒤에 이어서 발표할 내용을 예고하고 있다.
- ④ ㉣: 청중이 용어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⑤ ㉤: 청중이 지닌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발표자의 경험을 근거로 들고 있다.

05 다음은 청중이 위 발표를 듣고 상담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메모한 것이다. 발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대화의 목적이 내담자의 변화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내담자와의 대화에 임한다. ①
- 내담자의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며 그의 행동 유형도 이해하려고 한다. ②
- 내담자의 경험과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내담자에게 보여 준다. ③
- 개방적 질문을 적절히 활용해 내담자의 특성과 문제 상황에 관한 정보들을 얻는다. ④
- 문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내담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 주며 상담을 시작한다. ⑤

[06~08] 다음은 ‘청소년 여가 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설문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와 수집한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개요

I. 서론

1. 청소년 여가 활동의 유형 ㉠
2. 청소년 여가 활동 만족도의 증가 추이 ㉡

II. 본론

1. 문제점

가. 대중 매체에 편중되어 이루어지는 여가 활동의 증가

나. 과도한 소비에 의존하는 여가 활동의 증가

2. 문제의 원인

가. 청소년을 위한 여가 활동 공간과 시설의 부족

나. 청소년 여가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족

3. 개선 방안 ㉢

가. 청소년 전용 여가 활동 공간 및 시설 확충

나.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의 마련

III. 결론 ㉣

1. 청소년 여가 활동의 기능과 중요성

2. 청소년을 위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의 부족 ... ㉤

(나) 수집 자료

1. 청소년 여가 활동의 장애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인터뷰

“청소년 여가 활동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는 청소년의 여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소년의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시설의 구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특수 연령층의 여가 활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여가 활동 공간 및 시설의 확충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06 (가)의 개요를 수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에서 다룬 문제점에 대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을 ‘다양한 유형의 여가 활동을 증시하는 청소년의 증가’로 수정한다.
- ②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을 삭제한다.
- ③ ‘II-2-나’를 고려하여 ㉢에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를 하위 항목으로 추가한다.
- ④ 글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청소년 여가 활동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의 시행 촉구’를 ㉣의 하위 항목으로 추가한다.
- ⑤ 글의 논리적 흐름 및 상위 항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을 ‘II-2’의 하위 항목으로 이동한다.

07 (나)의 자료를 모두 활용해 글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을 시작할 때, 청소년의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과 시설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 ② 문제점을 제시할 때, 청소년의 여가 활동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그것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까지 해를 끼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③ 문제의 원인을 제시할 때, 청소년의 여가 활동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의 여가 활동 시간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④ 개선 방안을 제시할 때, 청소년을 위한 여가 활동 공간 및 시설에서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⑤ 글을 마무리할 때, 청소년의 여가 활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가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개선이 선행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08 다음은 (가)의 ‘II-1-가’에 대해 쓴 초고이다. 이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 형태가 인터넷, TV 등과 같은 대중 매체를 ㉠이용하는데에 편중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여가 활동 유형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컴퓨터 게임이 23%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검색이 19.6%, TV 시청이 17.3%로 그 뒤를 이었다. ㉢본래 여가 활동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모든 주체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여가 활동이 대중 매체를 이용하는 것에 계속 편중되면 청소년들이 대중 매체에 ㉣종속되어져 주체성을 잃은 채

여가 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 여가 활동 이라는 ㉔말에는 여가를 시행하는 사람의 주체적 태도라는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㉕청소년들의 대다수는 여가를 즐길 때 친구와 함께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이 대중 매체에 편중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청소년의 주체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만 하는 문제이다.

- ① ㉔는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이용하는 데에’로 고친다.
- ② ㉕는 위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다음 문장의 뒤로 옮긴다.
- ③ ㉔는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종속되어’로 고친다.
- ④ ㉔는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어색하므로 ‘말에서는’으로 고친다.
- ⑤ ㉔는 문단의 주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0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작문 과제 수행 일지

-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들
- 수록 매체: 학교 홈페이지
- 글의 목적 및 글감 선정: 학생들이 보람 있는 봉사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혈액원에서 봉사 활동에 대해 소개해야겠다.
- 자료 수집: 우리 지역 혈액원에서 여러 번 봉사 활동을 했던 나의 경험과 혈액원이 제작한 홍보 자료를 함께 활용해야겠다.
- 글의 구성과 표현 전략
 - 1) 첫 번째 문단: 대조의 방법을— 활용하여 독자의 경험을 환기하고 혈액원 봉사 활동을 소개해야겠다.
 - 2)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혈액원에서 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해야겠다.
 - 3) 네 번째 문단: ㉑혈액원 봉사 활동이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갖는 의의를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봉사 활동 신청 방법을 안내하며 글을 끝맺어야겠다.

(나) 학생이 쓴 초고

학우 여러분, 누구나 봉사 활동을 해 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봉사 활동이라도 그 보람이나 가치가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어떤 때는 봉사 활동이 끝나고 집에 오면 허탈하기만 합니다. 반면 어떤 때는 몸이 꽤 힘들었는데도 끝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고 보람이 느껴지지요? 전자는 시간 때우기 식의 봉사 활동이고, 후자는 진정한 봉사 활동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 혈액원에서 1년째 주말마다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진정한 봉사 활동인 듯해서 이렇게 여러분께도 알려 드립니다. 우리가 혈액원에서 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는 직접 헌혈을 하는 거예요. 혈액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헌혈률은 5%에 불과하고 수입 혈액 의존율이 50%를 넘어섰다고 하니, 헌혈만큼 가치 있는 봉사 활동도 드물겠죠? 그렇지만 의지만으로 헌혈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몸무게가 남녀 각각 50kg, 45kg 이상이어야 하고, 질병 유무나 투약 여부 등도 미리 점검받아야 합니다. 감기약을 먹고 있다거나 전염병이 나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헌혈을 못 하고 발길을 돌리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아, 그리고 연령 기준도 있는데요, 혈액의 모든 성분을 헌혈하는 전혈 헌혈의 경우 만 16세 이하는 불가능하니까 특히 1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만 나이를 미리 따져 보고 방문하는 게 좋겠네요. 아래의 동영상은 혈액원 홍보팀에서 만든 것인데요, 보시면 헌혈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거리에 나가 헌혈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피켓을 들고 헌혈 독려 구호를 외치는 일이 쉽지는 않죠. 저도 처음엔 무척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금세 익숙해지고 재미도 느끼게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때로는 홍보 전단을 나눠 주며 개개인에게 동 참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때 너무 강하게 잡아끌면 언짢아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헌혈을 권유하는 행동이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09 작문의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상 독자를 분석하여, 특정 학년 독자가 유의할 점까지 언급해 두었군.
- ② 정보의 효과적인 제시 방법을 구상하여, 대조와 분류 등을 통해 글을 전개했군.
- ③ 글이 수록될 매체의 속성을 고려하여, 혈액원이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제시했군.
- ④ 글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고민하여, 글쓴이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혈액원 측의 자료를 수집하였군.
- ⑤ 내용 전달에 적합한 구성 방식을 채택하여, 앞뒤 문단이 인과 관계로 서로 연결되도록 글 전체를 구성하였군.

10 ㉠을 참고하여 (나)의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고자 한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혈액원 봉사 활동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지역 혈액원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싶은 분은 3학년 1반으로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 ② ‘헌혈은 이웃 사랑의 실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혈액원 봉사 활동 중에서도 특히 헌혈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헌혈에 동참하여 이웃 사랑 실천의 보람을 느껴 봅시다.
- ③ 혈액원에서 하는 봉사 활동은 우리 사회의 생명 은행 금고를 가득 채우는 것 같은 일입니다. 진정한 봉사 활동을 하고 싶은 학우들은 우리 지역 혈액원의 봉사 활동 담당 부서(전화〇〇〇-〇〇〇〇)로 신청하세요.
- ④ 우리 사회에 생명의 나무가 있다면 혈액원 봉사 활동은 그 나무에 열매를 매다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혈액원 측은 지금 우리 고등학교생들의 관심과 봉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 ⑤ 저는 혈액원에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마치 제 마음의 키가 한 뼘씩 자라는 것 같아 뿌듯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싶은 학우들은 혈액 관리 본부 홈페이지(www.bloodinfo.net)에서 봉사 활동을 신청하세요.

11 <보기 1>의 ㉠과 ㉡는 ‘표준 발음법’의 일부이다. 이와 관련이 있는 현상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 제4장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ㄹㅎ, ㄷㅎ)’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ㄱ, ㄷ, ㅈ]으로 발음한다.
놓고[노코] 앉던[안턴] 쌓치[싸치]

㉡ 제5장 제19항 받침 ‘ㄹ, ㅁ’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담력[담 : 녁] 강릉[강능]

<보기 2>

- ㉠ 한 음운이 없어진다.
- ㉡ 없던 음운이 덧붙는다.
- ㉢ 두 음운이 한 음운으로 합쳐진다.
- ㉣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뀐다.

	가	나
①	a	b
②	a	c
③	b	d
④	c	b
⑤	c	d

12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한글 맞춤법 제3장은 ‘소리에 관한 것’이에요. 이 중에서 제5항과 제13항은 된소리와 관련이 있어요. 다음 사례들을 토대로 된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의 맞춤법 표기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탐구 사례>

표준 발음	올바른 표기	잘못된 표기
[깍두기]	깍두기	깍뚜기
[법씩]	법씩	법씩
[딱지]	딱지	딱찌
[똑딱똑딱]	똑딱똑딱	똑닥똑닥
[짹짹하다]	짹짹하다	짹잘하다
[쓱쓱쓱]	쓱쓱쓱	쓱삭쓱삭



<탐구 결과>

㉠

- ① 한 단어 안의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표준 발음대로 된소리로 적는다.
- ② 한 단어 안에서 자음 받침 뒤의 ‘ㄱ, ㄷ, ㅈ, ㅊ’이 된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표준 발음대로 된소리로 적는다.
- ③ 음성 상징어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말소리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표준 발음대로 적는다.
- ④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에서 나는 된소리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 ⑤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한 단어 안에서 같거나 비슷한 소리의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13 <보기>의 사례를 토대로 국어의 호칭과 지칭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작은아버지: ㉠채원아, 오랜만이다. 그동안 별일 없었지?
 채원: 네, ㉡작은아버지께서도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작은아버지: 그렇단다.
 할머니: (거실로 들어서는 작은아버지를 보며) ㉢아범 왔니? 그런데 무슨 일로 왔니?
 작은아버지: ㉣형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서요.
 할머니: 그렇구나. 채원아, ㉤아빠 좀 불러 줄래?
 채원: (안방으로 가서) ㉥아빠, 작은아버지께서 왔어요.
 채원 아빠: (채원에게) ㉦작은아버지가 왔다고? (방에서 나와 동생을 보며) ㉧철호야, 오랜만이다.

- ① ㉠, ㉡을 보면, 화자보다 아랫사람을 호칭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② ㉢, ㉣을 보면, 청자가 동일하지만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 ③ ㉤, ㉥을 보면, 화자와 청자가 모두 다름에도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 ④ ㉦, ㉧을 보면, 화자가 지칭해야 할 대상과 청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상을 지칭하고 있다.
- ⑤ ㉨, ㉩을 보면, 화자가 다르지만 대상을 지칭하는 말과 호칭하는 말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14 <보기>는 표준어 규정 중 ‘표준어 사정 원칙’ 항목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제8항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널리 쓰이는 말들은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데,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양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경우가 있음.
제9항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ㅣ’ 역행 동화 현상이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예외적 경우가 있음.
제11항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기 전의 형태가 아니라 발음이 바뀌어 널리 쓰이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단어들이 있음.
제12항	‘ㅜ’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함. 다만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하고,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음.
제13항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함.

구분	각 조항과 관련 있는 사례		
	표준어	비표준어	
제8항	부조(扶助), 사돈(查頓)	부주, 사둔	… ㉠
제9항	서울내기, 유기장이	서울나기, 유기쟁이	… ㉡
제11항	지루하다, 주책	지리(支離)하다, 주착(主着)	… ㉢
제12항	윗니, 웃어른	웃니, 윗어른	… ㉣
제13항	구절(句節), 글귀	귀절, 글구 [글+구(句)]	… ㉤

- ① ㉠의 ‘부조’와 ‘사돈’을 ‘부주’와 ‘사둔’ 대신 표준어로 정한 것은 어원을 의식하는 경향을 고려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
- ② ㉡의 ‘서울내기’는 ‘유기장이’와 달리 ‘ㅣ’ 역행 동화 현상이 일어난 형태이므로 제9항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어.
- ③ ㉢의 ‘지루하다’와 ‘주책’은 각각 ‘지리하다’와 ‘주착’의 모음 발음이 바뀐 형태인데, 이 말들이 표준어로 정해진 것은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
- ④ ㉣의 ‘웃어른’은 ‘윗니’와 달리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
- ⑤ ㉤의 ‘글귀’는 ‘구절’과 달리 제13항의 ‘구’로 통일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사례라고 볼 수 있겠어.

15 ㉠~㉥을 수정하는 활동을 할 때, ‘잘못된 점’을 고려하여 문장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영희가 편지를 넣었다.
- ㉡ 이번 임무는 여간 힘들어.
- ㉢ 우리 학교 아이들이 다 모이지 않았다.
- ㉣ 새해에는 우리 가족 모두 좀 더 건강하자.
- ㉤ 저번에 관리 당국한테 항의한 게 효과가 있었다.

	잘못된 점	수정한 문장
①	‘넣다’는 세 자리 서술어인데 ㉠에서는 필요한 문장 성분이 누락되었다.	영희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
②	㉡에서는 부사어와 호응하지 않는 서술어가 사용되었다.	이번 임무는 여간 힘들지 않아.
③	㉢에서는 ‘않았다’가 부정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다는 모이지 않았다.
④	‘건강하다’는 형용사이므로 ㉣처럼 청유형으로 쓸 수 없다.	새해에는 우리 가족 모두 좀 더 건강하면 좋겠다.
⑤	㉤은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다.	저번에 관리 당국에게 항의한 게 효과가 있었다.

16 다음의 ㉠~㉥을 토대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세 국어	현대어 역
㉠	부테 本來 장차 니르시리어늘	부처께서 본래 장차 말씀하실 것이거늘
㉡	부터웃 보스북면	부처를 뵈면
㉢	太子스 머리에	태자의 머리에
㉣	우리돌토 쉼利를 더러주소셔	우리들도 사리를 덜어 주십시오.
㉤	大王하 엇더 나를 모르시느니잇고	대왕이시여 어찌 저를 모르십니까?

- ① ㉠의 ‘니르시리어늘’과 ‘말씀하실 것이거늘’을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의 ‘보스북면’과 ‘뵈면’을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높임의 의미를 지닌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 객체를 높이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의 ‘太子스’와 ‘태자의’를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 현대 국어와 형태가 다른 관형격 조사가 쓰이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의 ‘주쇼셔’와 ‘주십시오’를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청자를 높이는 의미를 지닌 종결 어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의 ‘大王하’와 ‘대왕이시여’를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 현대 국어와 형태는 다르지만 높임의 의미를 지닌 호격 조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전 모의고사

10회

[01~03] 다음은 면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면접관: 안녕하세요? 해외 봉사 활동 요원 선발에 지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선발을 주관하게 된 해외 봉사 연합회 사무국장 ○○○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해 주십시오.

지원자 A, B: 예, 알겠습니다.

면접관: 그럼, 먼저 지원하시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원자 A: 예,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업이 실패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여러 분의 도움을 받아 착실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과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해외 봉사 활동에 지원했습니다.

지원자 B: 저는 평소 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비참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전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관: ㉡그렇군요. (웃으며) 두 분 다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단체에서는 지구촌 곳곳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 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격 사항이나 직업 경험, 경력 등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원자 A: 예, 저는 지난 3년간 대학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1년에 두 차례씩 의료 소외 지역으로 봉사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또 해외 봉사 활동에서 현지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면접관: 그렇군요. ㉢혹시 지원자께서는 의료 봉사 활동을 희망하시나요?

지원자 A: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다양한 분야의 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의료 봉사 요원으로 파견된다면 저의 직업 경험을 살려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관: 그렇군요. (지원자 B를 바라보며) ㉣지원자께서는 어떤 직업 경험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가][지원자 B: 저는 봉사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열정과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신을 제대로 갖추고 봉사에 임하면 해외 봉사 활동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관: 예, 봉사 활동에 대한 열정과 희생, 매우 중요한 덕목이지요. 다음 질문입니다. ㉤열악한 자연환경과 부족한 지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봉사 활동 중 해결

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시겠습니까?

지원자 A: 예, 저는 무엇보다 팀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봉사하는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어려움에 함께 대처한다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자 B: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열정과 희생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열정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디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01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원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려 하고 있다.
- ② ㉡: 봉사 활동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존중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③ ㉢: 지원자의 특성과 관련해 추가 질문을 하고 있다.
- ④ ㉣: 지원자의 이전 대답을 통해 파악한 타인과의 소통 능력을 평가하려 하고 있다.
- ⑤ ㉤: 상황을 가정하여 지원자의 문제 해결 방법이나 태도 등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

02 지원자의 답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원자 A는 성장 과정을 소개하며 지원 동기를 밝히고 있다.
- ② 지원자 A는 직업 경험을 근거로 자신이 지닌 장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지원자 A는 자신의 능력을 언급하여 봉사 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질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지원자 B는 자신의 봉사 활동 경험을 토대로 봉사 활동이 주는 효용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지원자 B는 동일한 견해를 반복적으로 제시해 봉사 활동에 임하는 자신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03 <보기>와 관련하여 [가]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면접에서 제시되는 질문에는 피면접자의 주관적 견해를 묻는 질문과 피면접자와 관련한 객관적 정보를 묻는 질문이 있다. 그러므로 피면접자는 질문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질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 ① 개인의 주관적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 면접자의 의도를 충족하고 있다.
- ② 개인의 주관적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객관적 정보만 제시하여 면접자의 의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③ 객관적 정보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객관적 정보와 개인의

견해를 동시에 제시하여 면접자의 의도를 충족하고 있다.

- ④ 객관적 정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주관적 견해를 중심으로 답변을 제시하여 면접자의 질문 의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⑤ 객관적 정보와 개인의 주관적 견해를 동시에 묻는 질문에 대해 주관적 견해만을 제시하여 면접자의 의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04~05] 다음은 선생님과 학생 간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영: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며) 선생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선생님: 어, 지영아. 이 늦은 시각까지 학교에 무슨 일로 남아 있니?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데 무슨 걱정이 있니?

지영: 네. 3학년이 되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는데, 고민이 좀 있어서요……. (머뭇거리다.)

선생님: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머뭇거리지 말고 이야기해 봐.

지영: 친구들은 제가 자기들과 친해지기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선생님: 너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서 친구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웠구나. 친구들이 너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은데.

지영: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친구들에게 저에 대해 알릴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 ㉢국어 시간에 자기소개하기 수업을 할 예정인데, 네가 대표로 발표해 보는 것은 어떠니? 너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A][지영: 아, 그러면 되겠군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며) 선생님, 그런데 제가 자기소개를 잘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 앞에 서서 발표를 해 본 적이 없어요. 발표할 때를 상상하니 벌써부터 손에 땀이 나는걸요.

선생님: 발표 준비를 꼼꼼히 하고, 연습을 몇 번 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영: 그런데 자기소개를 해 본 적이 없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 함께 준비해 보자. 너는 자기소개가 무엇을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니?

지영: 자기 자신에 대해 알리고 싶은 내용을 말하는 활동이 아닐까요?

선생님: 그래, 맞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직함이 중요하지.

지영: 네, 그런데 저의 어떤 부분을 알려 주어야 할지 모

르겠어요. 저의 성장 과정이나 취미에 대해 알려 주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걱정이 돼요.

선생님: 걱정 마. 내용을 잘 선정했어. 그런 내용을 들으면 친구들이 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번 기회에 너의 성격도 함께 소개하는 것은 어떨까? 성격은 추상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거야.]

지영: ㉣예, 그렇게 할게요. 또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은 없나요?

선생님: 단점을 말할 때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너의 노력도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좋겠구나.

지영: ㉤성격은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단점을 제시할 때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야기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0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의 비언어적 표현을 언급하며 대화를 유도하고 있다.
- ② ㉡: 상대방을 격려하며 말을 계속 이어 나가게 하고 있다.
- ③ ㉢: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 ⑤ ㉤: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자신이 들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05 [A]에서 지영이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원인을 <보기>의 ㉠~ ㉤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말하기 불안’이란 일상 대화가 아닌 공적 담화 상황에 앞서 또는 담화 과정에서 화자가 겪게 되는 심리적 긴장 상태와 그로 인한 말하기 장애를 이르는 말이다. 말하기 불안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 말하기에 대한 과거의 실패 경험	㉡ 대중적 말하기의 경험 부족
㉢ 표현의 정확성에 대한 걱정	㉣ 말할 내용에 대한 확신 부족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06~08] <보기 1>과 <보기 2>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1>

[작문 상황]

- 글을 쓰게 된 배경: 나트륨 과다 섭취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글을 쓰는 목적: 나트륨 과다 섭취와 관련한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독자들이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설득함.
- 예상 독자: 일반인

[활용할 자료]

(가) 음식에 함유된 나트륨의 양(식품 의약품 안전처)

음식	해물 칼국수	자장면	육개장	짬뽕	1일 권장 섭취량
함유량	2,355mg	2,392mg	2,853mg	4,000mg	2,000mg 미만

(나) 한국인의 음식 문화(○○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

전통적 식습관	현대적 식습관
•나트륨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국이나 찌개를 즐겨 먹음. •조리 과정에서 나트륨을 많이 사용하는 염장 식품을 즐겨 먹음.	•나트륨이 과도하게 함유된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량이 증가함. •나트륨 함량이 높은 외식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짐.

(다) 전문가 인터뷰

1. 내과 전문의: 나트륨은 체내의 산과 염기의 평형을 유지하고 신경 자극을 생성하는 등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고혈압, 위장 질환, 뇌 질환, 골격계 질환 등을 유발하여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2. 요리 전문가: 나트륨 과다 섭취를 방지하려면 식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먼저 외식을 줄이고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국과 찌개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물, 채소, 과일 등을 섭취하여 나트륨의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보기 2>

제목: 나트륨 과다 섭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I. 서론 ㉠

II. 본론

1. 나트륨 과다 섭취의 문제점 ㉡
2. 나트륨 과다 섭취의 원인 ㉢

3.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

-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안 ㉣
-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하는 방안 ㉤

III. 결론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06 <보기 1>을 고려하여, 글을 쓰는 과정에서 유의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예상 독자가 일반인이므로 나트륨 과다 섭취와 관련한 전문 용어들은 쉽게 풀어 쓰거나 관련 정보를 제시해 준다.
- ② 독자들이 나트륨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나트륨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객관적 정보를 제시한다.
- ③ 나트륨 과다 섭취의 문제점과 원인에 관한 사실적 정보를 전달할 때에는 정보를 얻게 된 출처를 밝혀 글의 신뢰성을 높인다.
- ④ 글의 목적이 설득에 있으므로 나트륨 과다 섭취를 지양하자는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실적 정보를 활용해 이를 뒷받침한다.
- ⑤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때에는 나트륨 과다 섭취의 원인과 관련하여 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들을 제시한다.

07 <보기 1>의 [활용할 자료]를 활용하여 <보기 2>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가)를 활용하여,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음식들에 나트륨이 과도하게 함유되어 있음을 밝혀 문제의식을 환기한다.
- ② ㉣에서는 (다)-1을 활용하되 나트륨은 체내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부각하여 제시한다.
- ③ ㉢에서는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전통적 식습관과 현대적 식습관이 모두 나트륨 과다 섭취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 ④ ㉡에서는 (나)와 (다)-2의 내용을 활용하여 음식물 중 섭취를 줄여야 하는 것들과 피해야 할 식습관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 ⑤ ㉢에서는 (가)와 (다)-2에 언급된 음식을, 섭취를 권장해야 하는 음식의 사례로 제시한다.

08 <보기 2>의 ‘Ⅲ. 결론’에 해당하는 글을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 나트륨 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것.
-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전통적 식습관과 현대적 식습관의 조화는 현대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건강을 위해 우리의 음식 문화를 개선합시다.
- ②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나트륨, 그래도 드시겠습니까? 적게 먹고 적게 마시는 식습관을 통해 우리의 건강을 돌보아야 하겠습니다.
- ③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나트륨을 대체할 새로운 물질을 개발해야 할 때입니다.
- ④ 우리 몸속의 나트륨은 판도라의 상자와 같습니다. 나트륨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건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식습관 개선을 통해 나트륨 과다 섭취의 해악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0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과제]

‘목표 설정’에 대한 글을 써 보자.

[작문 초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반에도 간절히 바랐더니 정말로 원했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친구들이 있다. ㉠그리고 목표는 간절히 바라다고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실제로 목표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냥 우연일 때가 많다.

얼마 전에 목표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목표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올바른 목표 설정이란 무엇일까?

첫째,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만약 내가 ㉡설정된 목표가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고 가정해 보자. 그와 같은 경우에 아무리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절실한 마음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둘째, 목표는 가능한 선 안에서 높게 세울수록 좋다. 왜냐하면 높은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예전보다 나를 ㉢번창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셋째, 매일매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목표는 너무 높지 않게 세우는 것이 좋다. 나도 얼마 전에 매일 아침에 운동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적이 있었는데, 그 목

표는 사실상 달성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 며칠 동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결국에는 아침 운동을 포기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노력하면 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는 운동만큼 정직한 것은 없다. 이처럼 목표를 너무 높게 세우면 매일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실패를 경험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좌절감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 성공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면 긍정적인 감정도 생기고, 이것이 보상으로 작용하여 보다 큰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09 ‘작문 초고’에 나타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올바른 목표 설정의 방법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 ② 올바른 목표 설정을 실현하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제시한다.
- ③ 올바른 목표 설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여 절충한다.
- ④ 올바른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유사한 사물에 빗대어 설명한다.
- ⑤ 올바른 목표 설정이 대중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배경을 제시한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앞뒤의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므로 ‘그런데’로 고친다.
- ② ㉡: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설정한’으로 고친다.
- ③ ㉢: 의미상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므로 ‘발전’으로 고친다.
- ④ ㉣: 어미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말았든’으로 고친다.
- ⑤ ㉤: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11 <보기>는 표준 발음에 대한 규정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 6 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예 눈보라[눈 : 보라], 밤나무[밤 : 나무]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 ㉡

예 반신반의[반 : 신바 : 닉/반 : 신바 : 니],
재삼재사[재 : 삼재 : 사]

[붙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 ㉢

예 보아 → 봐 [봐 :], 기어 → 겨[겨 :]

[제 7 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 ㉤

예 감다[감 : 따]-감으니[가므니],
알다[알 : 다]-알아[아라]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

예 꼬다[꼬 : 다]-꼬이다[꼬이다],
밟다[밟 : 따]-밟히다[발피다]

- ① ‘눈보라[눈 : 보라]’의 ‘눈[눈 :]’과 달리 ‘함박눈[함방눈]’의 ‘눈[눈]’을 짧게 발음하는 것은 ㉠의 규정에 따른 것이군.
- ② ‘선남선녀[선 : 남선 : 녀]’ 중 ‘선녀[선 : 녀]’의 ‘선[선 :]’을 긴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의 규정에 따른 것이군.
- ③ ‘두어[두어]’가 축약된 말인 ‘뒤[뒤 :]’를 긴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의 규정에 따른 것이군.
- ④ ‘쏘다[쏘 : 다]’의 ‘쏘[쏘 :]’와 달리 ‘쏘이다[쏘이다]’의 ‘쏘[쏘]’를 짧게 발음하는 것은 ㉤의 규정에 따른 것이군.
- ⑤ ‘울다[울 : 다]’의 ‘울[울 :]’과 달리 ‘울리다[울리다]’의 ‘울[울]’을 짧게 발음하는 것은 ㉥의 규정에 따른 것이군.

12 <보기>를 읽고,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의성이 있는 문장이란, 하나의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문장을 말한다. 중의성이 있는 문장은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의사소통에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중의성을 해소해야 한다.

* 중의성이 있는 문장

- ㉠ 그는 배를 좋아한다.
- ㉡ 나는 어머니와 동생을 만났다.
- ㉢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바다를 보고 싶다.
- ㉤ 형은 동생에게 굴과 사과 두 개를 주었다.
- ㉥ 그녀는 비싼 보석을 샀지만 그것을 숨기었다.

- ① ㉠은 동음이의어인 ‘배’로 인해 중의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잘 익은 배’와 같이 수식하는 말을 삽입하여 중의성을 해소 할 수 있다.
- ② ㉡은 서술어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중의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는 어머니와 함께,’와 같이 부사어와 쉼표를 삽입하여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 ③ ㉢은 ‘아름다운’이 수식하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 중의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다를’과 같이 어순을 바꾸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 ④ ㉤은 형이 준 ‘굴’과 ‘사과’의 개수가 분명하지 않아 중의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굴 한 개와 사과 한 개’와 같이 내용을 구체화하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 ⑤ ㉥은 ‘그것’이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 중의성이 나타난 것으로, ‘그것을 꼭꼭 숨기었다’와 같이 부사어를 삽입하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13 <보기>와 관련된 선생님의 설명을 읽고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한글 맞춤법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도 허용한다.

선생님: ‘온종일 놀아 버렸다.’에서 ‘놀다’는 원래의 의미 그대로 사용되지만, ‘버리다’는 ‘놀다’의 의미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놀다’를 본용언이라 하고, ‘버리다’를 보조 용언이라 하지요. 이 두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A가 원칙, B가 허용입니다.

A (원칙)	B (허용)
온종일 놀아 버렸다. 붙이 꺼져 간다.	온종일 놀아버렸다. 붙이 꺼져간다.

하지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어보다’는 허용되지만, ‘음식을 먹어도 보다’와 같이 조사가 사이에 들어갔을 때에는 붙여 써서는 안 됩니다. 또한 ‘덤벼들 다’와 같은 합성 동사가 앞말로 사용되었을 때에도 ‘덤벼들어 보다’처럼 띄어 써야 합니다.

한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에서 ‘돌아가다’도 ‘일이나 형편이 어떤 상태로 진행되어 가다.’라는 의미를 지닌 합성 동사입니다. 합성 동사는 본용언, 보조 용언 구성이 아닌 한 단어이므로, 반드시 붙여쓰기를 해야 합니다.

- ① ‘두다’가 보조 용언일 때 ‘자동차를 세워만두었다.’와 같이 붙여 쓰면 안 되는군.
- ② ‘내다’가 보조 용언일 때 ‘우리는 공격을 막아 냈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군.
- ③ ‘척하다’가 보조 용언일 때 ‘나에 대해 너무 잘 아는척 한다.’와 같이 붙여 써도 되겠군.
- ④ ‘떠내려가다’는 합성 동사이므로 ‘물건이 강물에 떠내려 갔다.’와 같이 반드시 붙여 써야 하는군.
- ⑤ ‘지나가다’는 합성 동사이므로 ‘하루가 후딱 지나가 버렸다.’와 같이 보조 용언을 띄어 쓰면 안 되는군.

14 <보기>를 바탕으로 외래어의 ‘무성 파열음 표기’에 적용된 규정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1절

제1항 무성 파열음([p], [t], [k])

1.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2. 짧은 모음과 유음·비음([l], [r], [m], [n])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 ([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3. 위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다.

- ① ‘gap[gæp]’이 ‘갭’으로 표기되는 것은 ‘1’이 적용되었기 때문이군.
- ② ‘act[ækt]’가 ‘액트’로 표기되는 것은 ‘2’와 ‘3’이 적용되었기 때문이군.
- ③ ‘stamp[stæmp]’가 ‘스탬프’로 표기되는 것은 ‘3’이 적용되었기 때문이군.
- ④ ‘tractor[træktə]’가 ‘트랙터’로 표기되는 것은 ‘1’과 ‘3’이 적용되었기 때문이군.
- ⑤ ‘lipstick[lipstik]’이 ‘립스틱’으로 표기되는 것은 ‘1’과 ‘2’가 적용되었기 때문이군.

15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반의 관계는 둘 이상의 단어에서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것으로,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남성 : 여성’과 같이 의미 영역이 상호 배타적인 반의어, 둘째, ‘길다 : 짧다’와 같이 정도나 등급을 나타내는 반의어, 셋째, ‘왼쪽 : 오른쪽’과 같이 ㉠방향상의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반의어이다.

- ① 참 : 거짓
- ② 가다 : 오다
- ③ 넓다 : 좁다
- ④ 높다 : 낮다
- ⑤ 미혼자 : 기혼자

16 <보기>의 ㉠~㉢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의 쓰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세 국어 표기	현대 국어 표기
㉠ 식미 기픈	쌈이 깊은
㉡ 아비 드로니	아버가 들으니
㉢ 부테 니룩샤디	부처가 말씀하시길
㉣ 太子 무로디	太子가 묻기를

- ① ㉠을 보니, 자음으로 끝난 체언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후 연철 표기되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군.
- ② ㉡을 보니, ‘|’로 끝난 체언에 결합된 주격 조사의 형태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군.
- ③ ㉢을 보니, ‘|’가 아닌 다른 모음으로 끝난 체언에 주격 조사 ‘|’가 결합된 후 ‘|’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군.
- ④ ㉣을 보니, 한자음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한자 뒤에 주격 조사 ‘|’가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군.
- ⑤ ㉡, ㉢, ㉣을 보니,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군.

실전 모의고사

11회

[01~03]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생회장: 축제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모든 동아리가 축제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동아리들이 신청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예산보다 100만 원 정도 초과되어 각 동아리가 신청한 대로 예산을 모두 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부장: 저는 동아리들의 예산 신청 항목이 동아리 고유의 활동 목적과 관계없이 단순한 게임이나 상품 또는 간식을 위한 것이라면 예산 지급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동아리는 물풍선 터뜨리기 게임을 위해 예산을 10만 원 넘게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게임은 한 해의 동아리 활동의 성과를 정리해서 보여 주자는 축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부장: ㉡물론 동아리 활동의 성과를 보여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예적인 면을 보여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학우들이 함께 즐기면서 정서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또한 축제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술적인 내용의 전시로만 축제가 구성된다면 학우들뿐만 아니라 학교 축제를 보러 오는 다른 학교 친구들도 재미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학생회장: 그렇다면 동아리 고유의 활동과 관련한 전시 또는 부스 설치에는 예산을 모두 지급하고, 게임이나 상품 관련 예산은 50%만 지급하면 어떨까요? 이 항목을 50%로 줄이면 예산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부장: 그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예산이 절반밖에 지급 되지 않는다면 동아리원들이 사비로 이 부분의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학생으로서 부담이 매우 큼니다. ㉢물건을 팔아 이익금을 남기는 동아리들의 상품 관련 예산을 줄이는 방안은 어떨까요? 이익금을 남기는 동아리들이 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무부장: 문화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건을 팔아 이익금을 남기는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익금은 국제 구호 단체나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동아리 운영을 위한 회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익금을 남긴다는 이유로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부장: 미처 그 점은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렇다면 동아리들이 신청한 축제 예산을 전체적으로 10% 줄이면 어떨까요? 그리고 예산이 적게 지급되어 생기는 문제는 동아리들이 도매 시장을 이용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회장: 도매 시장을 이용하면 해결될 수 있다니, 그런

무슨 의미인가요?

문화부장: ㉤예산 지급을 10% 줄이면, 동아리들의 신청 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예산이 줄어도 각 동아리가 도매 시장 가서 축제를 위한 물품을 구매하면, 비용의 10~40%가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축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총무부장: 좋은 의견입니다. 도매 시장에 가는 일이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도매 시장에서는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학생회장: 각 동아리들의 예산을 10%씩 줄이는 대신 도매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네요.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문화부장께서 각 동아리 대표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 토의에서 학생회장이 한 역할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 토의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 토의 참여자들에게 발언의 순서를 알려 주고 있다.
- ㉢ 토의 참여자의 발언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는 토의 참여자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② ㉡: 상대방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조하며 의견을 말하고 있다.
- ③ ㉢: 질문의 형식을 통해 상대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④ ㉣: 상대방이 고려하지 못한 사실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 ⑤ ㉤: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03 토의의 단계와 관련해, 위 토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문제 확인

- 축제 준비를 위해 동아리들이 신청한 금액이 배정된 축제 예산을 초과하고 있군.



대안 탐색

- 동아리 고유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항목에는 예산을 지급하지 말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군. ①
- 학교 축제의 경우, 학예적인 측면과 즐기는 측면이 모두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군. ②
- 게임이나 상품 관련 예산을 일부만 지급하자는 대안이 제시되었군. ③
- 동아리들이 남긴 이익금은 사회단체에 기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군. ④



대안 도출

- 각 동아리에 지급하는 금액을 줄이고 동아리들이 도매 시장을 이용해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자는 안을 도출하고 있군. ⑤

[04~05]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규리: (근심 어린 표정으로) 휴.....

단비: ㉠너 무슨 일이 있구나. 네 얼굴에 그렇게 씩어 있어.

규리: 별일 아니야.

단비: 웬데? 우리 모든 비밀을 털어놓는 사이잖아.

규리: 그래, 우리 특별한 사이니까. 그래서 ㉡너니까 하는 말인 데, 어제 민수랑 언짢은 일이 있었어.

단비: ㉢너 요즘 민수랑 한 조가 되어 국어 수행 평가를 하고 있었지. 혹시 그것과 관련된 일이니?

규리: 응. 과제 주제를 정해야 하는데 나랑 민수랑 의견 일치를 못 봤어. 그래서 다른 조들은 과제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

단비: ㉣과제를 아직 시작도 못했다면 내가 네 입장이라도 많이 답답할 것 같아. 그런데 민수랑은 어제 무슨 일로 언짢았니?

규리: 과제 주제를 정하는데 민수가 주장하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더니, 민수가 얼굴이 벌게져서 그냥 가더라고. 민수한테 사과하고 싶은데 도저히 얼굴을 보고 못하겠어.

단비: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휴대 전화를 이용하면 어떨까?

규리: ㉤그래, 휴대 전화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면 충분히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뭐라고 사

과하지?

단비: (㉠)

규리: 네 말대로 하면 되겠구나. 조언 고마워.

04 위 대화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의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상황을 추리하고 있다.
- ② ㉡: 대화 참여자 간의 유대감 정도가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고 있다.
- ③ ㉢: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 ④ ㉣: 상대방과 유사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며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있다.
- ⑤ ㉤: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활용할 매체를 고려하고 있다.

05 <보기>와 위 대화의 내용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상대방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갈등의 발생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면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껴 오히려 갈등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담되는 표현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부담을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상대방이 너그럽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 ① “네가 좀 더 조리 있게 설명을 했다면 내가 금방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해 봐.”
- ② “어제는 서로 흥분한 상태였으니 둘 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다시 이야기해 보자고 말해 봐.”
- ③ “내가 전에 했던 말을 네가 알아주지 못한 것이 섭섭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난 것이라고 말해 봐.”
- ④ “우리는 서로 친한 사이니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먼저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갖자고 말해 봐.”
- ⑤ “내가 어제는 네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으니, 한 번만 더 네 의도를 설명해 줄 수 없겠냐고 말해 봐.”

[06~0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작문 상황:** 블록 타임제의 시행을 앞두고 그에 대한 소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교지에 블록 타임제의 장단점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싣고자 한다.

[글의 초고]

우리 학교에서 블록 타임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그에 따라 블록 타임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블록 타임제란 무엇일까? 블록 타임제는 같은 과목의 수업을 두 시간씩 붙여서 ㉠진행한다. 예를 들어 1, 2교시나 3, 4교시를 이어서 한 과목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 블록 타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한다.

블록 타임제에 대해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블록 타임제가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록 타임제는 기존의 40~50분 단위의 수업에서는 실시하기 어려웠던 토론, 발표, 모둠 활동 등을 활용한 수업을 가능하게 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진다. 작년에 과학 전문 재단에서 실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 타임제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실험을 해야 하는 수학, 과학 등의 과목 수업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다. ㉢블록 타임제의 수업 모형 및 수업 효과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블록 타임제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블록 타임제는 두 시간 동안 연속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의 위주의 획일적인 수업이 진행되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나 집중도가 떨어 질 수 있다. ㉣그래서 학교 행사나 시험 등으로 특정 요일의 수업이 여러 번 결손될 경우 진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블록 타임제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선생님들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연구해야 하고, 학생들은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에 임해야 한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블록 타임제를 철저히 준비해야 블록 타임제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06 ‘글의 초고’에서 학생이 세운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 ㉠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자.
 ㉡ 인용 자료의 출처를 밝혀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자.
 ㉢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 블록 타임제의 효과를 드러내자.
 ㉣ 유추의 방법을 활용하여 블록 타임제에 대한 이해를 돕자.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07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어와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진행하는 방식이다.’로 수정한다.
 ② ㉡: 문장에서 필요한 성분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은’ 다음에 ‘수업으로부터’를 추가한다.
 ③ ㉢: 글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
 ④ ㉣: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므로 ‘그리고’로 수정한다.
 ⑤ ㉤: 문맥에 맞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실시될’로 교체한다.

08 다음은 ‘공공 도서관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설문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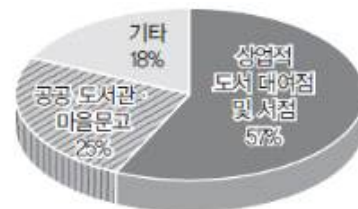
(가) 통계 자료

1. 주요 국가의 공공 도서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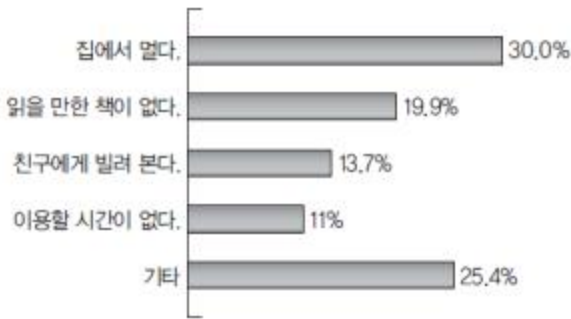
국명	도서관 수 (개 관)	1관당 인구수 (명)	1인당 장서 수 (권)
한국	828	61,532	1.53
미국	8,951	34,493	2.62
일본	3,210	39,813	3.13

2. 설문 조사 자료

- 독서를 하는 문화 공간



• 공공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나) 신문 기사

공공 도서관 이용자의 대부분이 도서관을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 열람 등 정보를 얻는 대신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다. 자료를 찾기 위해 종종 도서관을 이용하는 ○○○씨는 “도서관에 읽을 만한 책이 없어 사실상 정보를 얻으러 오는 사람은 적다.”며 “시험 기간에는 공부하러 오는 사람 때문에 자리가 없어 도서관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라고 지적했다.

(다) ○○○ 교수 인터뷰

“사서는 도서관과 정보 센터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문헌 정보 전문가입니다. 이들이 있어야 공공 도서관의 정보가 제대로 분류돼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지요. 하지만 사서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질이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일부 도서관에서는 사서가 없어서 전문성이 없는 계약직 사원이 도서관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 ① (가)-1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공공 도서관 현황을 비교해 우리나라의 공공 도서관 실태를 제시한다.
- ② (가)-2를 활용하여, 접근성이 좋아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공공 도서관을 만들어야 함을 주장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공공 도서관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서의 채용을 늘려서 도서관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을 주장한다.
- ④ (가)-2와 (나)를 활용하여, 공공 도서관에 어떤 책이 소장되어 있느냐가 사람들의 공공 도서관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설립 취지에 맞는 공공 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 이용자와 사서의 의식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0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상황]

신문 제작 동아리의 담당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은 작문 과제를 부여받았다.

작문 과제 1

신문 제작 동아리를 홍보하는 문구를 작성해 보자.

작문 과제 2

후배들에게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글을 써 보자.

09 다음은 [작문 과제 1]을 수행하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다. 메모의 내용을 모두 반영한 것은?

- 신문 제작 동아리의 활동 취지를 포함하자.
- 대구와 비유의 기법을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자.

- ① 사실을 전하는 것은 쉽지만 진실을 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신문 제작 동아리는 사실을 담는 기사보다는 진실을 담는 기사를 추구합니다.
- ② 신문을 보면 세상을 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우물 안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 지금 바로 신문을 읽으세요.
- ③ 현대 사회를 살아가려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 합니다. 우리 신문 제작 동아리가 만든 신문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합니다.
- ④ 거짓은 가볍지만 진실은 무겁습니다. 종이는 가볍지만 신문은 무겁습니다. 우리 신문 제작 동아리는 신문을 통해 무거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나팔수입니다.
- ⑤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시나요? 한 장의 종이가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문 제작 동아리는 정확한 보도를 통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0 다음은 [작문 과제 2]를 수행하기 위한 글쓰기 계획이다. ㉠~㉥ 중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는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점]

- ㉠ 동아리에 가입하게 된 동기를 밝힌다.
- ㉡ 동아리 활동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 ㉢ 동아리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화를 밝힌다.
- ㉣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제시한다.
- ㉤ 동아리 가입을 우회적으로 권유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신입생 여러분,

저는 신문 제작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라고 합니다. 요즘은 동아리 가입 기간이지요? 삼 년간의 고교 생활에서 동아리의 선택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신입생 때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동아리를 선택할 때 제가 좋아하고, 또 앞으로의 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인데, 신문 제작 기사를 쓰다 보면 좋은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신문 제작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우리 신문 제작 동아리의 활동은 크게 ‘기삿거리 조사, 기사 작성, 편집 및 발간’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기삿거리 조사란 기사가 될 만한 학교 내외의 사건들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진을 찍는 기술은 물론이고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사 작성이란 실제로 신문에 실릴 기사문을 쓰는 일인데, 이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기사문은 수필이나 일기와는 달리 사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기사문을 쓰는 활동을 하면 정확한 문장 표현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편집 및 발간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기사문을 실제로 발행되는 신문처럼 보기 좋게 편집하고 또 인쇄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 저는 컴퓨터나 사진 프로그램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문 제작 동아리의 활동 지침은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따뜻하게’입니다. 이 말은 신문을 만들 때에는 논리적 사고력과 합리적 판단력을 지녀야 하고, 그 외의 활동을 할 때에는 따뜻한 감성으로 동아리 부원을 아끼고 사랑하자는 의미입니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지니고 싶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 동아리의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밑줄 친 부분의 발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표준 발음법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ㄴ(ㄴ, ㄷ, ㅌ, ㅍ,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ㄴ,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ㄷ(ㄷ)’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 ‘ㄱ, ㄴ,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ㄴ,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끊어서 말할 때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보기 2>

산에 ㉠오를 적에는 청바지를 입어서는 안 된다. 산행 중 축축한 땅에 ㉡앉거나 ㉢일시적(一時的)으로 비가 와서 청바지가 축축해질 때가 있다. 이때 청바지가 몸에 ㉣감기는 바람에 산행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땀을 잘 ㉤흡수하고 보온 기능 이 있는 등산복을 입는 것이 좋다.

- ① ㉠: 관형사형 ‘-(으)ㄹ’ 뒤에 ‘ㅈ’이 연결되어 있는데, ‘오를’과 ‘적’을 끊어서 말할 때에는 ‘적’을 [적]으로 발음해야 한다.
② ㉡: 어간 받침 ‘ㄴ’ 뒤에 어미의 첫소리로 ‘ㄱ’이 연결되므로 [안꺼나]로 발음해야 한다.
③ ㉢: 한자어 받침 ‘ㄹ’ 뒤에 ‘ㅅ’이 연결되므로 [일시적]으로 발음해야 한다.
④ ㉣: 어간 받침 ‘ㅁ’ 뒤에 피동 접미사 ‘-기-’가 연결되므로 [감기느]으로 발음해야 한다.
⑤ ㉤: 받침 ‘ㅂ’ 뒤에 ‘ㅅ’이 연결되므로 [흡쑤]로 발음해야 한다.

12 <보기>를 참고할 때, 단어의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생: 선생님, 축구 선수가 패스를 성공한 비율을 뜻하는 단어를 적고 싶은데, ‘패스 성공률’과 ‘패스 성공율’ 중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옳은가요?

선생님: 한글 맞춤법 제11항은 한자음 ‘라, 러,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학생: 단어의 첫머리 이외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하나요?

선생님: 그렇지. 예를 들어 예의(禮儀)에서 ‘례’는 단어의 첫머리에 있기 때문에 ‘예의’로 적는 반면, 사례(謝禮)의 ‘례’는 단어의 첫머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음대로 적는단다. 따라서 ‘성공율’이 아니라 ‘성공률’이 맞는 표기란다. 한편 제11 항의 [붙임 1]을 보면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지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룰’은 발음 형태가 ‘열, 율’로 나타나므로 관용적인 발음을 인정하여 ‘열, 율’로 적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

- ① 그는 양심(良心)선언을 했다.
- ② 식물의 품종 개량(改良)이 이루어졌다.
- ③ 선반 위에 상품이 진열(陳列)되어 있다.
- ④ 농구의 3점 슈트는 실패율(失敗率)이 높다.
- ⑤ 우리 학교는 대학 합격율(合格率)이 높다.

13 다음은 국어사전의 일부 내용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뜨다⁰¹ [떠, 뜨니]

「동사」

[1] 【…에】 【…으로】

물속이나 지면 따위에서 가라앉거나 내려앉지 않고 물 위나 공중에 있거나 위쪽으로 솟아오른다.

㉠ 종이버가 물에 뜨다. / 나무가 물 위로 뜨다.

[2]

「1」 착 달라붙지 않아 틈이 생기다.

㉡ 풀칠이 잘못되어 도배지가 떴다.

「2」 (비유적으로) 차분하지 못하고 어수선하게 들떠 가라앉지 않게 되다.

㉢ (㉣)

뜨다⁰⁴ [떠, 뜨니]

「동사」

[1] 【…에서 …을】

「1」 큰 것에서 일부를 떼어 내다.

㉤ 호수에서 얼음장을 뜨다.

「2」 (㉥)

㉦ 양어장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떴다.

「3」 【…에 …을】 어떤 곳에 담겨 있는 물건을 퍼내거나 덜어 내다.

㉧ 항아리에서 간장을 뜨다.

/ 종지에 간장을 뜨다.

[2] 【…을】

「1」 수저 따위로 음식을 조금 먹다.

㉨ 밥맛이 없어 밥을 한술 뜨다 말았다.

- ① ‘뜨다01’과 ‘뜨다04’는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것을 보니 동음이의어에 해당하는군.
- ② ‘뜨다01[2]’와 ‘뜨다04[2]’는 주어 이외의 다른 문장 성분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군.
- ③ ㉠에는 ‘소풍 생각에 마음이 떠 있었다.’를 넣을 수 있겠군.
- ④ ㉢에는 ‘물속에 있는 것을 건져 내다.’를 넣을 수 있겠군.
- ⑤ ‘뜨다04[1]」 「3」’은 필수적으로 부사어를 요구하는데, 부사어에 사용되는 조사로는 ‘에서’와 ‘에’가 있군.

14 <보기>를 참고하여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찾아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말소리의 형태	의미적 연관성
다의어	같음	어원이 같고 의미적 연관성이 있음.
동음이의어	같음	어원이 다르고 의미적 연관성이 없음.

예1 ㉠아침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다.

- ㉠은 특정 시간을 나타내고, ㉡은 ‘아침밥’을 의미하여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다의 관계

예2 추운 날 ㉢김을 매려 나왔더니, 입에서 ㉣김이 난다.

- ㉢은 눈발에 난 잡풀을 나타내고, ㉣은 입에서 나오는 더운 기운을 의미하여 형태만 같고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의 관계

	예문	다의어	동음 이의어
①	어디로 갔는지 그를 찾을 길이 없다.	√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건 내 길이 아니었다.		
②	뭔가 얻어먹으려 했더니 날 다 썼다.		√
	아버지께서 솫돌로 부엌칼의 날을 가셨다.		
③	그는 물 묻은 손을 바지에 쓱쓱 닦았다.	√	
	외국 물을 먹더니 말씨가 달라졌다.		
④	외딴 정원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났다.		√
	풀을 뽳뽳하게 먹어 옷을 다렸다.		
⑤	발이 커서 장군이란 말을 많이 들었다.		√
	철수는 발이 빨라서 따라가기 어렵다.		

15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시제는 발화시(화자가 말을 하는 시점)와 사건시(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시점)의 관계에 따라 과거(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선행), 현재(발화시와 사건시가 같음), 미래(발화시보다 사건시가 후행)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제는 대체로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등을 통해 구현된다. ㉠ 어제 나는 친구들과 축구 경기를 보았다. ㉡ 할 일이 이렇게 밀린 걸 보니 잠은 오늘 다 잤다. ㉢ 어머니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그릇을 아직도 쓴다.	
---	--

- ① ㉠의 ‘-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② ㉡의 ‘할’은 관형사형 어미 ‘-ㄹ’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③ ㉢의 ‘잔다’는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선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④ ㉡의 ‘밀린’과 ㉢의 ‘물려주신’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사용되었다.
 ⑤ ㉢의 ‘쓴다’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세 국어 자료] 너·논 高麗人 사·락·미어시·니·쏘 엇·디 漢語날·오·미잘·흐· 닙·뇨·내 漢兒人의 손·딕·글빅·호·니·이·런전·초·로·저·그· 나 漢語·아·노·라 믹·실이른새배니·러·혹당·의·가스승·님·씩·글든·좁·고·혹 당·의·노·하·든지·와·밥머·기뵈·고 - 『번역노걸대』 (1517) - [현대어 풀이] 너는 고려 사람이거니와 또 어찌 중국말을 잘하는가? 내가 중국 사람에게 글을 배웠으니 이런 까닭으로 조금 중국말을 아노라.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학당에 가서 스승님께 글을 듣고 학당에서 놀이면 집에 와서 밥 먹기를 마치고	
---	--

	언어 자료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
①	너·논, :믹·실	중세 국어 시기에는 현대 국어에는 없는 음운이 사용되었다.
②	:사·락·미어시·니, 지·'	중세 국어 시기에는 현대 국어와 달리 연철 표기가 사용되었다.
③	·쏘, ·씩	중세 국어 시기에는 현대 국어와 달리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쓴 표기가 있었다.
④	·흐·닉·뇨	중세 국어 시기에는 현대 국어와 달리 ‘예’, ‘아니요’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 ‘-오’ 계열의 어미가 사용되었다.
⑤	든·좁·고	중세 국어 시기에는 현대 국어와 달리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실전 모의고사

12회

[01~03]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오늘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측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 1: 최근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각종 글쓰기 활동을 살펴보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방자하여 다른 사람의 인신을 공격 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인터넷 공간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무분별한 글쓰기로 인해 공익이 침해받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서는 안 됩니다.

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반대 1:] 공격이나 오염이라는 말은 표현의 결과만을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닌지요? 누군가에게 나쁘게 보일 수 있는 표현도 다양한 표현 방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였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물론 이 과정을 지켜본 많은 누리꾼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글을 쓸 때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두 입장이 처음부터 팽팽하군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 보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네티즌의 글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있다면, 이것은 공익을 해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 양측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은데요.

반대 2: 그런 시각은 인터넷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이 검증은 거친 정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 때 네티즌들은 그 글에 담긴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는 자기 스스로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2: 글쎄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회자는 '인터넷에서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네티즌'이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류가 있는 글을 올리게 되면 수많은 네티즌이 올바르게 알은 정보나 평가 등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익에 해가 되므로 규제해야 합니다.

반대 1: 저는 다르게 봅니다. 글을 쓰다 보면 주장을 강조

하기 위해 말을 좀 보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허위가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쉽게 글을 쓸 수 없게 될 겁니다.

사회자: 인터넷에서의 글쓰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찬성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나][찬성 1:] 그걸 위축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자기가 쓴 게시물에 자신의 실명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축되기보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책임을 강조하는 풍토가 자리 잡혀 갈 것입니다. 여론 조사 전문 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봐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자신이 쓴 글에 대해 책임감을 가진다면 인터넷 공간은 훨씬 깨끗해지고 사회가 건강해 질 겁니다.]

01 위 토론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발언자의 발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는다.
- ㄴ. 토론 논제와 관련된 하위 쟁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양측의 견해를 요구한다.
- ㄷ. 토론 규칙을 알려 토론 참여자가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02 [가]와 [나]의 공통적인 말하기 방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많은 사람의 생각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어 주장을 펼쳐 나간다.
- ② 어떤 상황을 가정한 다음 그 가정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한다.
- ③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자 한다.
- ④ 대상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가 담긴 어휘를 자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설명한다.
- ⑤ 자신의 주장이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선행 조건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한다.

03 위의 내용으로 볼 때, <보기>의 영희의 행위에 대해 반대 측에서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영희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지만 영희의 블로그는 매우 유명하다. 다양한 여행 상식 및 경험을 블로그에 사진 등과 함께 보기 좋게 정리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영희에게 곤란한 일이 생겼다. 영희가 여러 번 이용해 보고 추천했던 여행사가 경영 악화로 부도를 맞았다. 영희의 블로그 내용을 믿고 여행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엉망이 되자, 이에 실망하여 영희의 블로그에 항의 댓글을 달고 있다.

- ① 영희가 인터넷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아직 미성년자일 뿐인데, 영희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어.
- ② 영희가 여행사의 재정 상태까지 정확히 알고 쓸 수는 없는 것이므로, 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자기 스스로 검증하는 태도가 필요했다고 생각해.
- ③ 영희가 책임을 온전히 지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해. 영희는 영향력 있는 블로거인 만큼 이런 기회에 인터넷 세상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해.
- ④ 피해를 본 사람들이 영희의 블로그에서 도움을 받았던 일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도움을 받은 일이 있었다면 이번 피해는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봐.
- ⑤ 영희가 추천한 여행사가 부도를 맞았으니 영희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 물질적 보상은 못 하더라도 믿어 준 사람들에게 연락해 이해를 구하는 게 당연해.

[04~05] 다음은 학생의 ‘모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저희 모둠이 발표할 주제는 ‘열에 관한 학생들의 오개념과 올바른 학습 방법 제언’입니다. 여기서 오개념이란, (당황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오개념이란 게 뭐냐면,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학계에서 수용되는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기억하려고 애쓰는 표정으로) 다시 말해 자신만의 경험이나 직관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념입니다. 우리는 일상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 지식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 학습한 후에도 오개념이 지속되거나 새로운 오개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오개념을 교정하지 않으면 학습 효과가 반감되거나 개념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오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넘기며) 우리 학교 고2 인문계 학생 100명과 자연계 학생 100명에게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포장해 집에 가져갈 때, 다음 중 어느 것으로 포장해야 녹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까?’라는 문항으로 열과 에너지

지에 관한 학생들의 오개념을 조사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알루미늄 포일, 솜, 비닐, 종이 중 정답은 뭘까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역시 알루미늄 포일을 택한 분들이 많네요. (화면을 넘기며) 인문계 학생들의 45%가 알루미늄 포일을, 22%가 솜을, 17%가 비닐을, 16%가 종이를 선택했습니다. 자연계 학생들은 알루미늄 포일 38%, 솜 35%, 비닐 13%, 종이 14%로 조사되었습니다. (화면을 넘기며) 인문계 남/여학생은 알루미늄 포일 44%/46%, 솜 23%/21%, 비닐 17%/17%, 종이 16%/16%입니다. 그리고 자연계 남/여학생은 알루미늄 포일 39%/37%, 솜 35%/35%, 비닐 14%/12%, 종이 12%/16%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개념을 적용할 때, 정답은 솜입니다. 아직 납득이 안 되시나요? 그럼 많은 학생이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솜이 보온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솜이 열을 붙잡아 두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다 보니 아이스크림을 녹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솜이 보온에 유리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열전도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열전도율이 낮다는 것의 의미를 잘 헤아려 보십시오. 차가운 물질을 오랫동안 차갑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할까요, 높아야 할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렇죠. 열전도율이 낮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식지 않게 하는 경우와 차갑게 유지하는 경우 모두 열전도율이 낮은 것으로 감싸는 것이 유리합니다. 열전도율과 같은 기초 개념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오개념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학습을 위해서는 자신이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4 다음은 위 발표를 위한 사전 계획이다. 발표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오개념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한다.
- ② 수업 중 발표할 예정이므로 공적인 상황에 맞게 경어법을 사용한다.
- ③ 설문 조사 대상과 인원을 제시함으로써 발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인다.
- ④ 발표 중간에 질문을 던져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관심도를 높인다.
- ⑤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여러 물질의 열전도율을 비교하는 자료를 준비한다.

05 학생의 ‘모의 발표’를 들은 후 발표를 보완하기 위해 모둠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메모를 준비하여 발표 때 내용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는 게 좋겠어.
- ② 발표 주제에 걸맞은 내용으로 다듬기 위해서는 올바른 학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좋겠어.
- ③ 알루미늄 포일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는 것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말고,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까지 제시해 주면 좋겠어.
- ④ 학생들의 답지 반응률을 언급할 때, 통계 정보를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재구성하는 게 더 좋겠어.
- ⑤ ‘따라서’, ‘하지만’의 담화 표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앞뒤 내용을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겠어.

[06~08] 다음은 원고 청탁서와 이에 따라 쓴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원고 청탁서

저는 △△ 웹툰 동호회 회장 ○○○입니다. 저희 회원들은 웹툰 작가에 대한 꿈을 키워 가고 있는 고등학생들입니다. 작가가 되려면 우리나라 웹툰의 전반적인 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지만 웹툰 작품은 알아도 우리나라 웹툰이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회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웹툰 작가이신 선생님께서 저희 동호회 홈페이지 ‘영사 초대석’ 게시판에 실을 글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 웹툰 작가가 게시판에 올린 글

불과 10년 전에는 ‘웹툰(Web+Cartoon)’이란 단어가 낯설었다. 언제부터인가 ‘웹툰이 대세’라는 말이 자주 들리더니,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에는 확실히 웹툰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웹툰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고, 출판 만화는 몰라도 웹툰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면이 있다. 창작 환경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 미래를 장밋빛으로만 그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대부분의 웹툰이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판권이나 서적 출판 등 2차 수입이 있는 유명 작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작가들은 원고료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다. 현재 많은 작가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일부 인기 작가를 제외하고는 한 달 수입이 최저 임금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여러 분도 아는 것처럼 얼마 전부터 「치치와 강아지」 같이 인기 있는 완결작을

중심으로 유료화가 시작됐지만 지금도 유료화에 반감을 갖는 사람이 많다.

둘째, 우리나라에는 웹툰이 안정적으로 연재될 공간이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도 원인이다. 현재 우리나라 웹툰은 유통과 소비 구조가 인터넷 포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자생력이 부족하다. 그로 인해 작가들이 작품을 창작해도 독자들에게 선보일 기회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신인 작가들인 경우 더더욱 연재 기회를 얻기가 힘들다. 만약 여러분이 작가가 되었을 때 작품을 만들어도 독자들에게 작품을 안정적으로 보여 줄 기회가 없다면 계속해서 작가로 생활할 수 있겠는가?

그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웹툰 유료화가 확대되어야 한다. 웹툰의 유료화는 작가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책이나 음원은 구매 대상으로 인식하면서도 누군가의 창작물인 웹툰에 대해서는 무료로 인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작품의 창작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작가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웹툰 작가라는 직업인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다. 여러분이 나중에 작가가 되어 활동하려면 창작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으로 웹툰 전문 사이트의 수를 늘려야 한다. 포털 사이트의 한 귀퉁이를 점유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웹툰에 특화되어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사이트의 수를 증설해야 한다. 이는 작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할 기회를 얻도록 하는 방법인 동시에,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을 확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물론 이 부분은 작품을 향유 하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웹툰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나 기업이 나서야 하는 부분이며 이보다 먼저 이용자들 차원에서 전문 사이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정부나 기업에서 웹툰 관련 지원책을 세우는 것과 별개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웹툰을 사랑하고 웹툰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웹툰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웹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나도 여러분의 나이 때에는 웹툰 작가에 대한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던 내가 이런 글을 통해 여러분과 만나 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언젠가 내가 여러분을 동료 작가라고 부를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 가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실력을 기르고, 당연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5년 후, 10년 후 우리나라 웹툰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06 다음은 (나)의 글쓰기가 실시한 독자 분석과 작문 계획이다. (가)의 내용을 고려할 때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독자 분석	작문 계획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함.	나의 경험을 언급하여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해야겠어. ①
	웹툰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언급하여 독자가 막연한 꿈을 현실적 계획으로 발전시키도록 유도해야겠어. ②
	독자가 미래에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언급하여 웹툰 작가가 되어도 작가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야겠어. ③
우리 나라 웹툰 관련 문제점을 잘 모름.	웹툰 작가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여 독자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겠어. ④
	사람들이 웹툰 구독에 대해 갖는 인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확장해야겠어. ⑤

07 (나)의 글쓰기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의 호기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질문을 활용하고 있다.
- ②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 작품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문제 상황의 해결을 위해 독자들이 해야 할 일을 당부하고 있다.
- ④ 독자의 내용 파악을 돕기 위해 내용을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전달하고 있다.
- 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같은 설문 조사의 결과를 도입부와 결말부에 인용하고 있다.

08 다음은 (나)를 읽은 독자 간의 대화이다. 글의 내용과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민수가 게시판에 댓글을 쓰기 위해 생성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주연: 명사 초대석에 올라온 글 읽어 봤니? 난 공감되는 게 많은데.....
 민수: 음, 나는 웹툰 무료 배포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 해결 방안에는 동의하지만, 웹툰을 안정적으로 연재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글쓴이 의견에 반대해. 그래서 내 생각을 게시판에 댓글로 쓰려고 해.

- ① 독자들이 취향에 따라 웹툰을 골라 보기 쉽게 분야별로 전문 사이트를 늘리고 홍보하는 것이 더 낫다.
- ② 웹툰을 무료로 배포하는 사이트를 차단하여 작가들의 노력이 적절히 평가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
- ③ 독자를 생각한다면 유료화보다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더 낫다.
- ④ 웹툰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작품을 연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웹툰 전문 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하여 웹툰 연재 공간을 늘리는 것이 더 낫다.
- ⑤ 웹툰을 연재할 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므로 웹툰 전문 사이트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웹툰 전문 사이트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더 낫다.

[09~10] (가)는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한 교사의 조언이고, (나)는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교사의 조언

자기소개서에는 평가자가 지원자의 특성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진로 희망을 드러내는 소재목을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는 ‘본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활동을 왜 하였는가?’, ‘무엇을 시도해 보았는가?’, ‘어려웠거나 힘든 점은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결과는 어떠했는가?’, ‘결과를 보니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 후로 자신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등을 담는 것이 좋아요.

(나)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의 일부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최명희의 『혼불』을 읽으며 국어의 아름다움을 살린 문장에 사로잡혀 우리말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원작에 나오는 우리말 어휘를 정리해서 교내학술제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하지만 10권이나 되는 분량을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문학 동아리 ‘글타래’ 회원 4명에게 공동 참여를 제 안하였고 각자 2권씩 읽고 정리해서 어휘집을 내기로 했습니다. 6개월 가량 연구에 매달린 끝에 마침내 어휘집이 나오게 되었고 저희는 학술제에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 학술제 참여를 계기로 학문 연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으며, 저도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어 국문학과에 진학하여 다른 소설에 나오는 어휘도 계속 정리해서 우리말 어휘집을 내고 그 어휘집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논문을 써 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

09 (가)를 고려하여 (나)에 소재목을 붙인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제나 협동을 중시하다
- ② 최명희의 『흔불』을 읽고
- ③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눈과 귀
- ④ 우리말 어휘 연구를 꿈꾸는 아이
- 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작가가 되고 싶다

10 (가)에 따라 <보기>를 (나)에 추가하여 글을 수정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저희의 어휘집과 대상을 받은 학생의 소논문을 비교해보니 자료를 찾아 정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실을 밝혀 내려고 노력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① ㉠에 추가하여 자신이 전공을 결정하게 된 구체적 계기를 제시한다.
- ② ㉠에 추가하여 단순한 흥미에서 출발한 활동이 지식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된 과정을 제시한다.
- ③ ㉡에 추가하여 활동의 결과물에 대해 개선점을 찾으려고 분석하는 모습을 제시한다.
- ④ ㉢에 추가하여 자신의 독특한 학습법이 자신의 학업 역량을 키우는 방법임을 제시한다.
- ⑤ ㉣에 추가하여 자신의 동아리 활동 경험이 전공과 관련이 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11 <보기>의 문장들을 대상으로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 활동을 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가) ㉠ 칠판의 글씨가 선명하게 보인다.
㉡ 그 아이가 불쌍하게 보였다.
- (나) ㉢ 그들은 황우지를 녹지로 만들었다.
㉣ 형이 종이로 공룡 모형을 만들었다.
- (다) ㉤ 우리는 국어와 수학을 공부했다.
㉥ 민호는 수지와 극장에서 만났다.
㉦ 진수는 동생과 공원에서 놀았다.

- ① (가)-㉠의 '보인다'와 (가)-㉡의 '보였다'는 모두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② (나)-㉢의 '녹지로'는 필수 부사어이지만 (나)-㉣의 '종이로'는 필수 부사어가 아니다.
- ③ (나)-㉤에서는 의미 변화 없이 목적어와 부사어의 순서를 바꿀 수 없지만 (나)-㉥에서는 그럴 수 있다.
- ④ (다)-㉤에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만 있고 (다)-㉥에는 주어, 부사어, 서술어만 있다.

⑤ (다)-㉥의 '수지와'는 필수 부사어이지만 (다)-㉥의 '동생과'는 필수 부사어가 아니다.

12 <보기>를 통해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풍속화의 주요 특성은 무엇일까? 풍속화는 인간의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야 하므로 무엇보다 먼저 사실성을 언급할 수 있다. ㉡또한 인간 생활의 여러 단면들을 사실적으로 다루어야 하므로, 많은 적든 기록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성과 기록성은 풍속화의 일차적인 요건이며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결여되어도 진실된 풍속화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풍속을 추상적으로 표현한다거나 화가가 자기 시대의 풍속을 외면하고 과거의 풍속을 상상해서 그린다면, 그러한 그림들도 풍속화로서의 생명력을 지닐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풍속화는 사실성, 기록성과 함께 시대성이 중요한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위의 세 가지 특성을 잘 구현한 풍속화가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 ① ㉠: 글 전체의 주제가 들어 있는 의문문 형식으로 화제를 제시하여 글의 통일성을 높이는 문장이다.
- ② ㉡: 앞에 나온 내용에 더하여 다른 내용을 언급함을 보여 주는 장치로서 글의 응집성을 높이는 접속 부사이다.
- ③ ㉢: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가리키는 대용 표현으로서 글의 응집성을 높이는 관형어이다.
- ④ ㉣: 앞에 나온 내용을 그와 유사한 내용의 말로 바꾸어 보여 주는 장치로서 글의 응집성을 높이는 표현이다.
- ⑤ ㉤: 글 전체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글의 통일성을 높이는 문장이다.

13 다음 밑줄 친 ㉠의 이유를 탐구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맛있다'의 표준 발음은 두 가지이다. [마딤따]로 발음할 수도 있고 [마싣따]로 발음할 수도 있다. [마딤따]와 [마싣따]의 차이는 '맛'의 받침을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있다. ㉠두 가지 발음 중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마딤따]이다. [마싣따]는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으로 허용한 것이다.

- ① 받침 'ㅅ'은 어말에서 제 음가대로 발음한다.
- ② 받침 'ㅅ'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뒤에 오면 [ㄷ]으로 발음한다.
- ③ 받침 'ㅅ'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뒤에 오

면 연음시켜 발음한다.

- ④ 받침 ‘ㅅ’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뒤에 오면 [ㄷ]으로 발음한다.
- ⑤ 받침 ‘ㅅ’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뒤에 오면 [ㄷ]으로 발음한다.

14 다음 국어사전의 내용을 이해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띄다1 [띠 : 다] [띄어[띠어/띠여], 띄니[띠 : 니]]

「동사」

- [1] 「1」 ‘띄이다02[1]」 「1」’의 준말.
「2」 ‘띄이다02[1]」 「2」’의 준말.
- [2] 【…에】
「1」 ‘띄이다02[2]」 「1」’의 준말.
▶원고에 가끔 오자가 눈에 띈다.
「2」 ‘띄이다02[2]」 「2」’의 준말.
▶빨간 지붕이 눈에 띄는 집
「3」 ‘띄이다02[2]」 「3」’의 준말.

띠다1 [띠 : 다] [띠어[띠어/띠여], 띠니[띠 : 니]]

「동사」

- [1] 【…에 …을】
띠나 끈 따위를 두른다.
▶치마가 흘러내리지 않게 허리에 띠를 띠다.
- [2] 【…을】
「1」 물건을 몸에 지니다.
▶추천서를 띠고 회사를 찾아가라.
「2」 용무나, 직책, 사명 따위를 지니다.
▶중대한 임무를 띠다.
「3」 빛깔이나 색채 따위를 가지다.
▶붉은빛을 띤 장미
「4」 감정이나 기운 따위를 나타내다.
▶노기를 띤 얼굴
「5」 어떤 성질을 가지다.
▶일에 전문성을 띠다.

- ① ‘띄다1’과 ‘띠다1’은 모두 다의어이다.
- ② ‘띄다1’과 ‘띠다1’은 발음이 서로 동일하다.
- ③ ‘띄다1’과 ‘띠다1’은 모두 자동사로 쓰일 수 있다.
- ④ ‘띠다1’은 의미에 따라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진다.
- ⑤ ‘띠다1’[2]의 예문으로 ‘광채를 띠는 물건’을 추가할 수 있다.

15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世尊하 ㉡날 爲하야 니르쇼셔 부테 ㉢니르샤되 바르래 누룬 이룬 ㉣네 죽사랏 ㉤바르래 잇논 야이오

- 『월인석보』 권 1 -

【현대어 풀이】

세존(世尊)이시여 나를 위해 말씀하소서. 부처께서 말씀하시되 바다에 누운 일은 네가 생사(生死)의 바다에 있는 모습이고

- ① ㉠: 높임의 대상을 부르는 호격 조사가 사용되었다.
- ② ㉡: 목적격 조사로 ‘를, 를’대신 ‘ㄴ’이 쓰였다.
- ③ ㉢: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결합되었다.
- ④ ㉣: 주격 조사가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 ⑤ ㉤: 체언의 발음을 이어 적기 방식으로 표기했다.

실전 모의고사

13회

[01~03] 다음은 협상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교 축제 동아리 마당을 준비하기 위한 모임에서 동아리 대표들이 협상을 하고 있다.)

정치 경제반: 저희는 정치 현상이나 경제 현상과 관련된 스피드 퀴즈 게임을 마련했습니다. 이 행사는 반별 2인 1조로 참가하고 참가 팀이 미리 섭외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응원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대강당에서 오전 시간에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입장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대강당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홍보 장소는 정문 진입로를 원합니다.

패션 사랑반: 저희는 가장행렬을 하고 학교를 누빌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행사 공간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가장행렬을 위해서는 분장할 장소와 옷을 갈아입을 장소가 필요합니다. 소강당이면 충분합니다.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침부터 분장을 하는 것이 좋고 분장도 조금씩 수정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사용하고 싶습니다. 다른 동아리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도 홍보 자리는 정문 진입로로 하고 싶습니다.

음식 조리반: ㉢패션 사랑반이 하는 가장행렬 연출은 개인적으로 작년에도 참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패션 사랑반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소강당이 필요합니다. 저희 동아리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판매할 예정이므로 대강당보다는 소강당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패션 사랑반이 분장을 마친 후에는 학교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것이라고 하셨으므로 오후에는 저희가 사용했으면 합니다.

패션 사랑반: ㉣저희 동아리는 축제 내내 활동해야 되므로 오후에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오후 시간에는 저희 동아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소강당 한구석을 내주세요. 분장이 지워질 수도 있어서 계속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전 시간이 끝나기한 시간 전에 음식 조리반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소강당을 내드리겠습니다.

음식 조리반: 알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먼저 들어가서 준비하고 패션 사랑반이 활동할 수 있게 오후에는 한쪽 공간을 비워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보 자리는 수돗가 근처로 해 주세요. 음식 재료를 씻으려면 그곳이 편리합니다.

연극 천하반: 저희는 대강당에서 오전에 연극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반이 오전 시간을 원하고 있으니 장소가 서로 겹치겠네요. (잠시 생각한 후) 저희가 과감하게 시간대를 오후로 옮기죠. 대신 되도록 많은 관객을 모을 수 있도록 홍보에 가장 유리한 정문 진입로에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동아리가 장

소와 시간을 먼저 선택했으니 홍보 자리는 저희에게 우선권을 주세요. 홍보 장소가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 경제반: ㉦그렇다면 저희 동아리와 패션 사랑반이 홍보 자리를 다른 곳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군요. 많은 관객에게 연극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원하는 심정 이해합니다. 저희가 시간대와 장소를 선정했으니 홍보 자리는 양보하겠습니다.

패션 사랑반: 좋습니다. 정문 진입로는 저희도 양보하여 학교 쉼터 근처에서 홍보하겠습니다.

01 위 협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연극 천하반은 행사 시간대를 옮기며 홍보 장소를 중요시하는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정치 경제반은 예상 참여 인원과 응원 학생들의 편의성을 근거로 특정 행사 장소를 요청하고 있다.
- ③ 패션 사랑반은 오전과 오후 모두 행사 진행 장소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며 다른 협상 참여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 ④ 정치 경제반과 연극 천하반은 행사 진행 장소와 홍보 장소를 놓고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고 있다.
- ⑤ 음식 조리반은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며 패션 사랑반에게 행사 진행 장소를 양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0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은 상대방에게 정보를 공개하여, ㉡은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자신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발화이다.
- ② ㉠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여, ㉡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겸손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 자신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발화이다.
- ③ ㉠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해시켜, ㉡은 자신이 상대방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해하여 상대방과 원만한 타협을 보려는 발화이다.
- ④ ㉠은 상대방이 나보다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가졌는지 확인 하여, ㉡은 상대방과 공유하는 이익을 제시하여 상대방과 원만한 타협을 보려는 발화이다.
- ⑤ ㉠은 상대방에게 협상이 실패했을 때의 손해를 언급하여, ㉡은 상대방에게 협상이 성공했을 때의 이익을 언급하여 상대방과 원만한 타협을 보려는 발화이다.

03 ㉢~㉥ 중, <보기>의 전략을 사용한 것은?

<보기>
이 전략은 쟁점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언급하여 일시적으로 갈등을 지연시킨다.

- | | | |
|-----|-----|-----|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

[04~05]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오늘은 우리나라 클래식 공연 문화를 새롭게 바꾸고 있는 ‘하우스 콘서트’ 기획자를 모시고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우스 콘서트란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대담자: 하우스 콘서트의 초창기 모습을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집이나 몇몇 연주자들의 자택에서 공연이 열렸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은 거실에서 관람했는데, 연주자와 불과 1~2m 떨어진 거리에서 연주를 들으셨습니다. 연주자의 숨소리와 악기의 떨림까지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이처럼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간에서 연주가 이루어지는 게 하우스 콘서트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아 그렇군요. 그럼 하우스 콘서트의 특징이랄까, 이런 건 무엇입니까?

대담자: 특징보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보통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으려면 관객과 연주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집과 같은 작은 공간은 이러한 점에서 효과적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하우스 콘서트는 집에서만 열리는 건가요?

대담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지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열릴 때는 200명까지도 오는데, 각 지역의 소규모 공연장을 이용합니다. 공연장 무대에 객석을 설치합니다. 관객을 무대에 올리는 거죠. 그럼 연주자와 관객이 직접 소통하기 때문에 친밀감이 생깁니다. 하우스 콘서트의 성패는 공연장에서 열리느냐 집에서 열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연주자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에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행자: 공연장이나 집이나 관객과 소통하는 방식은 같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하우스 콘서트를 할 때 클래식뿐만 아니라 국악, 재즈, 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담자: 네. 하우스 콘서트는 결국 무대와 객석의 거리감을 좁혀, 연주자의 마지막 손끝 하나에 관객이 전율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음악에 대한 일종의 선입견도 허물어지게 되고요.

진행자: 그럼 이번에는 하우스 콘서트가 클래식 문화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 보겠습니다.

대담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하우스 콘서트가 클래식 음악계의 창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작곡가들이 하우스 콘서트를 통해 새로운 음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관객들에게 검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작곡가를 무척 중시합니다. 공연 기획을 하다 보면 흔히 사람들은 연주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작곡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음악은 연주자나 가수 못지않게 작곡가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음악은 계속 새로운 음악이 나오는데, 클래식 음악계는 유명한 곡을 연주자만 바꾼 채 계속 공연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우스 콘서트를 통해 새로운 곡들이 발표되었으면 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하우스 콘서트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우스 콘서트처럼 새로운 클래식 공연 문화가 활성화되려면 정부의 문화 정책에도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문화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4 대담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하우스 콘서트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개인적 경험을 들어 하우스 콘서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하우스 콘서트의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 진행자가 설정한 질문의 초점을 달리 제시하여 말하고 있다.
- ③ 하우스 콘서트의 성격을 보여 주기 위해 질문 받은 사항 외에도 이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 ④ 하우스 콘서트에 대한 시각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진행자에게 질문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⑤ 하우스 콘서트에서 작곡가의 중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다른 장르와 대비하여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고 있다.

05 위 대담을 들은 청취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하우스 콘서트에서는 새로 작곡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겠군.
- ② 어떤 하우스 콘서트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대중음악 가수의 공연이 열릴 수도 있겠군.
- ③ 하우스 콘서트가 주로 작은 공간에서 열리는 이유는 연주자와 관객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군.
- ④ 하우스 콘서트 기획자는 본인이 직접 연주와 작곡을 병행하면서 클래식 공연 문화를 새롭게 개척하고 있는 분이로군.
- ⑤ 하우스 콘서트와 같은 클래식 공연 문화가 활성화되면 정부의 문화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행자는 생각하고 있군.

[06~08] (가)는 환경 단체 소식지의 학생 기자 모집 안내문이 고, (나)는 (가)에 따라 기사문을 작성하기 위한 사고 과정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기자 모집을 위한 안내

월간 '자연과 생활'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생 기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참여 방법: 2016년 ○월 ○일까지 직접 작성한 기사 한편과 자기소개서를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주세요.
- 활동 조건: 학생 기자로 선정될 경우 연간 3편 이상의 기사를 제출하여야 하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합니다.
- 기사 작성 시 유의 사항
 1. 자연과 생활에 관련이 있는 내용을 주제로 하여 작성해 주세요.
 2. '표제-부제-요약문-본문'의 구성에 맞추어 1,200자 이내로 쓰고, 관련 사진이나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나) 사고 과정

- 내용 생성: '살충제'의 사용 증가로 인한 '꿀벌 개체 수'의 감소가 '농산물의 생산량'이나 '농산물의 가격'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자료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최근 소식을 알려 주는 기사문을 써야겠다.
- 내용 조직 및 전개 방향: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강조하려는 내용을 먼저 언급하면서 내용과 어울리게 글을 조직하고 적절한 전개 방법을 사용해야겠다.

06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예상 독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독자의 참여를 이끌고 있군.
- ② (가)는 알리고자 하는 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상 독자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군.
- ③ (나)는 현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예상 독자에게 해결 방안을 제안할 것을 요청하려고 하는군.
- ④ (나)는 어떤 현상에 대한 예상 독자의 관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는군.
- ⑤ (나)는 자신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을 대비하여 예상 독자에게 자기주장의 타당성을 부각하려고 하는군.

07 <보기>는 (나)에 따라 기사문을 작성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자료 1] 연구 결과

스웨덴의 연구진은 캐놀라 꽃밭 16개 중 절반에는 살충제를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대로 두고 꽃밭을 찾은 꿀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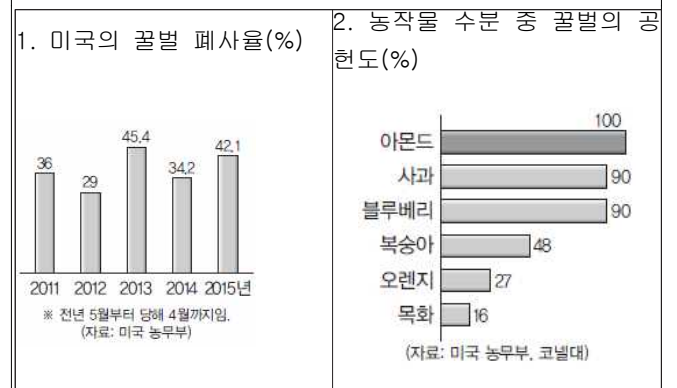
의 상태를 분석했다. 살충제가 뿌려진 꽃밭을 찾은 꿀벌들은 번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군집 성장이 더뎠다.

과학자들은 특히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이 포함된 살충제를 지목하며 이 살충제에 노출된 꿀벌은 방향 감각을 잃고 자신의 집을 찾아가지 못해 허공을 맴돌며 먹지도 않아서서히 죽어 간다고 했다.

[자료 2] 전문가 인터뷰

꿀벌은 우리가 먹는 과일과 각종 농산물의 수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계 100대 농작물의 71%가 수분을 꿀벌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 세계 꿀벌의 노동 가치는 연간 33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꿀벌이 대량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농산물의 양과 종류가 그만큼 줄어들고 인류가 식량 부족에 처할 수 있어, 아인슈타인은 “지구 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이내에 인류가 멸망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료 3] 통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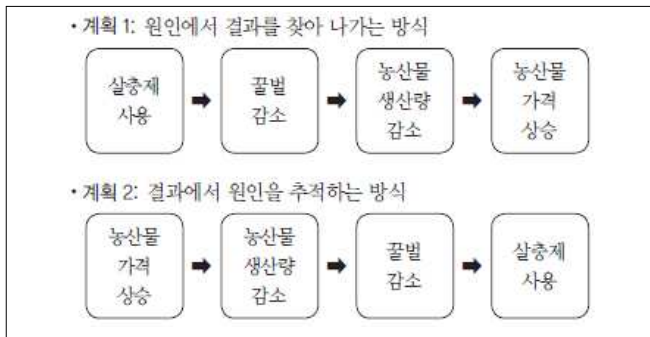
[자료 4] 관련 보고서

미국에서는 최근 10년간 꿀벌 대여 비용이 3배 가까이 뛰고 아몬드 생산량이 감소하여 아몬드 농가가 직격탄을 맞고 아몬드 가격이 급등하였다. 아몬드는 꿀벌 없이는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아몬드를 가공한 시리얼, 우유, 과자 가격도 들쭉였다. 전 세계 아몬드의 80%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만큼 글로벌 식품 업체들도 원가 상승 부담을 지게 됐다. 아몬드 농가의 피해액 다음으로 사과와 블루베리 농가의 피해가 컸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토종벌이 대량 폐사하자 이듬해 호박과 매실, 복숭아와 단감의 수확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 ① [자료 1]: '살충제' 부분에서 활용하여, 살충제 사용이 증가하면 꿀벌의 개체 수가 계속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한다.
- ② [자료 2]: '꿀벌 개체 수' 부분에서 활용하여, 꿀벌의 감소가 생태계와 인류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한다.

- ③ [자료 2], [자료 3-2]: ‘꿀벌 개체 수’ 부분에서 활용하여, 최근 전 세계적으로 꿀벌 개체 수가 감소한 것은 꿀벌이 수분을 돕는 농작물의 종류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제시한다.
- ④ [자료 3-1], [자료 4]: ‘농산물의 가격’ 부분에서 활용하여, 꿀벌의 개체 수 변화가 농산물과 다른 먹거리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제시한다.
- ⑤ [자료 3-2], [자료 4]: ‘농산물의 생산량’ 부분에서 활용하여, 꿀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일수록 재배 농가의 피해가 증가한다는 내용을 제시한다.

08 다음은 기사문의 ‘본문’을 구성하기 위해 계획한 것이다. (나)를 고려하면서 ‘계획 1’이나 ‘계획 2’에 따라 글을 쓰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꿀벌 감소 현상을 강조하면서 농산물 생산량이 꿀벌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적으로 제시하려면 ‘계획 1’을 따라야겠군.
- ② 살충제 사용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로 인한 꿀벌 개체 수의 감소 전망을 분석적으로 제시하려면 ‘계획 2’를 따라야겠군.
- ③ 농산물 가격 상승을 강조하면서 농산물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려면 ‘계획 2’를 따라야겠군.
- ④ 농산물 생산량 감소를 강조하면서 그 원인이 꿀벌 감소와 살충제 사용에 있다는 점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려면 ‘계획 1’을 따라야겠군.
- ⑤ 살충제 사용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로 인한 꿀벌의 감소가 농산물 생산량과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려면 ‘계획 2’를 따라야겠군.

[09~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그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글의 목적: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글을 쓰려고 함.
- 예상 독자: 학급 문집을 읽을 친구들

[학생의 글]

㉠디지털 수단의 발전

얼마 전 친구가 휴대 전화로 메시지를 보내왔다. 자신의 블로그가 포함된 포털 사이트가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그럼 내 일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하며 몹시 당황하는 눈치였다.

그 친구의 블로그에는 많은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예쁜 일상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고, 오랫동안 지인들과 주고받은 글,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쓴 일기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그렇게 정성 들여 블로그를 관리하며 기록을 남기는 친구에게 기록 보관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과연 얼마나 오래 잘 보관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말을 건넨 적이 있다. 친구의 대답은 “설마.”라는 한마디였다.

디지털 수단이 발전하면서 글이나 사진, 영상 그리고 다른 여러 형태의 기록들이 디지털 정보로 남겨지고 있다. 일기를 쓰면서도 컴퓨터 파일이나 인터넷 서비스,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록 면에서 디지털 일기가 20년이고, 30년이고 ㉢유지한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꼭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증명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의 발전으로 일기조차 종이라는 안정적인 도구를 뒤로하고 편리함을 기준으로 도구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반은 놀랍고 반은 걱정스럽다.

디지털 일기는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 어디에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을 뿐 디지털로 남긴 자취는 글쓴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너무나 손쉽게 사라질 수 있다. 클릭 한 번으로 수많은 시간이 한순간에 증발해 버릴 수도 있다. 디지털화도 필요하기는 하다. 문화재를 디지털 데이터로 복구하는 작업 등은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므로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디지털이라는 수단이 발전하면서 거의 모든 기록이 디지털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정말 소중한 간직하고 싶은 개인의 기록이라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죽기 전에 다시 한 번 ㉣어쩔 수 없이 읽어 볼 일기를 쓰려고 한다면, 서비스 종료를 걱정하면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보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양이 꽤 되지만 나는 아직 어릴 때 쓴 일기를 고이 간직하고 있다. 집에 화재가 나거나 도둑을 맞지 않는다면 일기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이다. 컴퓨터가 많이 보급

되고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됐어도 여전히 연말이나 연초에 다이어리 구매에 열을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손 글씨의 맛이 있는 것은 물론, 눈으로 보며 실제로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일기를 반드시 종이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써 쓴 일기가 웹 서비스 종료로 사라지거나 혹은 백업을 제때 하지 못해서 영영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잘 쓰는 것만큼 잘 담아 두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09 다음은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이다. 밑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디지털화의 장점에 대해 언급해야겠어.
- ② 일상적인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겠어.
- ③ 지속적인 일기 쓰기의 필요성을 제시해야겠어.
- ④ 기록 보관에 대한 인식에 문제를 제기해야겠어.
- ⑤ 종이에 쓴 기록과 디지털 도구에 쓴 기록의 차이점을 밝혀야겠어.

10 밑글을 쓴 학생이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글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므로 '디지털 기록 매체의 역사'로 바꿔야겠어.
- ② ㉡은 수식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일상의 모습을 담은 예쁜 사진'으로 고쳐야겠어.
- ③ ㉢은 문장 성분의 호응을 고려하여 '유지된다는'으로 고쳐야겠어.
- ④ ㉣은 문장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해야겠어.
- ⑤ ㉤은 맞춤법에 맞지 않으므로 '활성화됐어도'로 고쳐야겠어.

11 <보기 1>은 한 소설의 일부분이고 <보기 2>는 <보기 1>의 '그'에 대한 평가이다. ㉠과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자, 이제부터 뭔가가 변화한다.” 하고 그는 외쳤다. 그는 이제부터 ‘침대’를 ‘그림’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아침에 눈을 뜨자 그는 한참 동안 ‘그림’ 속에 누워서 이제 ‘의자’를 무어라 부르든 좋을까 골똘히 생각하였다. 그는 ‘의자’를 ‘자명종’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고는 ‘자명종’에 앉아서 두 팔을 책상에 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책상’도 더 이상 ‘책상’이라고 불러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는 이제 ‘책상’을 ‘양탄자’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그는 아침에 ‘그림’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는 ‘양탄자’ 앞의 ‘자명종’에 앉아 무엇을 어떻게 부를까 곰곰이 생각한 것이다.

- 피터 빅셀, 「책상은 책상이다」

<보기 2>

‘그’는 의도적으로 언어의 ㉠을 활용하였으나 언어의 ㉡을 간과하였다.

	㉠	㉡
①	자의성	사회성
②	자의성	역사성
③	분절성	사회성
④	분절성	역사성
⑤	사회성	분절성

12 <보기>는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단어의 예를 보인 것이다. ㉠~㉤의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그 사람을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친구가 시험을 ㉡언제 보니?
이 방이 ㉢밝다.	날이 ㉣밝는다.
㉤그 일은 너무 어렵다.	㉠그가 수학을 좋아한다.
㉡만세, 우리가 이겼다.	그들은 ㉢만세를 불렀다.
㉣한참을 기다리고 나니 그 언니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 ① ㉠이 포함된 ‘언제부터’가 ‘그 사람’과 자리를 바꿀 수 있으므로 ㉠은 대명사이고, ㉡은 동사 ‘보니’바로 앞에서 꾸며 주어야 하므로 부사이다.
- ② ㉢은 현재 시제 평서형으로 ‘-다’를 썼으므로 형용사임을 알 수 있고, ㉣은 현재 시제 평서형으로 ‘-는다’를 썼으므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 ③ ㉤은 뒤의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은 조사가 붙고 ‘민수’와 같은 명사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대명사이다.
- ④ ㉡은 감정을 나타내고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독립적으로 쓰였으므로 감탄사이고, ㉢은 어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고 격조사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명사이다.
- ⑤ ㉣은 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고 어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명사이고, ㉤은 서술어 ‘바라보았다’를 꾸며 주므로 부사이다.

13 <보기>의 ㉠, ㉡이 모두 들어 있는 문장은?

<보기>

문장 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주성분, 주성분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 그리고 문장의 다른 부분과 문법적 관련이 없는 독립 성분으로 나뉜다. 또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필수 성분과 생략할 수 있는 수의 성분으로 나누기도 한다. 주성분은 필수 성분이고 부속 성분과 독립 성분은 대개 수의 성분이지만, 부속 성분 중에서 ㉠서술어가 요구하여 꼭 나타나야 하는 부사어와 ㉡명사가 요구하여 꼭 나타나야 하는 관형어는 필수 성분이다.

- ① 어제 언니는 초등학교 친구들과 만나 즐겁게 놀았다.
- ② 우리가 만나서 결혼한 지 벌써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 ③ 주희는 크리스마스에 백화점에서 목도리를 구입하였다.
- ④ 선생님께서 영혜에게 건네주신 것은 파란색 볼펜이었다.
- ⑤ 우리는 그 사람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 화가 났다.

14 ㉠~㉣에 공통으로 적용된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씻 + 고 → [싹꼬], 밭 + 과 → [밭파]
 ㉡ 읊 + 지 → [읍찌], 읊 + 다 → [읍따]
 ㉢ 빛 + 만 → [빈만], 쫓 + 는 → [쫓는]

- ① 초성에 놓인 자음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 ② 인접한 자음의 특성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다.
- ③ 예사소리를 그에 대응하는 된소리로 바꾸어 주는 음운 변동이다.
- ④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음운 변동이다.
- ⑤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7가지로 제한되어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15 (가)의 조건에 비추어 (나)의 단어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 합성어일 것.

- ㉡ 어근 중 하나 이상이 용언일 것.
 ㉢ 어간과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포함될 것.

(나) 비린내, 길짐승, 길마중, 불거리, 디딜방아

- ① 비릿한 냄새를 가리키는 '비린내'는 ㉠, ㉡, ㉢을 모두 충족하는 예이군.
- ② 기어 다니는 동물을 가리키는 '길짐승'은 ㉠, ㉡, ㉢을 모두 충족하는 예이군.
- ③ 길에서 기다리는 일을 가리키는 '길마중'은 ㉠, ㉡, ㉢을 모두 충족하는 예이군.
- ④ 불만한 물건이나 일을 가리키는 '불거리'는 ㉠, ㉡, ㉢을 모두 충족하는 예이군.
- ⑤ 발로 디디는 방아를 가리키는 '디딜방아'는 ㉠, ㉡, ㉢을 모두 충족하는 예이군.

실전 모의고사

14회

[01~03]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급 회장**: 1학기 학급 야영 직후에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만족도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1학기 야영이 친구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 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의 결과를 토대로 2학기 야영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의 의견부터 듣고 싶습니다.]

㉡[**민수**: 야영 행사 프로그램으로 영화 감상 후 감상문 쓰기, 친구에게 편지 쓰기, 장기 자랑, 공포 체험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프로그램의 순서 배치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기 자랑과 공포 체험이 모두 뒤쪽에 배치되어, 충분히 즐기지 못한 채 서둘러 끝났습니다.]

㉢[**혜선**: 친구들이 저녁 식사 준비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조별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 자 신의 조가 다른 조와 비교되지 않습니까? 야영에 어울리지 않게 과다한 음식을 준비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 조도 있었습니다. 소박하게 준비한 친구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학급 회장**: 프로그램의 완성도 부족과 조별로 큰 차이가 나는 저녁 식사 준비가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민수: 사회자님, 프로그램 완성도가 아니라 프로그램 배치에 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학급 회장: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프로그램의 배치와 저녁 식사 준비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민수와 혜선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죠.]

㉤[**혜선**: 제 생각으로는 2학기 때는 장기 자랑을 맨 앞쪽에 배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친구들이 충분히 흥을 돋울 수 있을 것 같고 시간 활용에 융통성을 줄 수 있습니다. 장 기 자랑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면 감상문 쓰거나 편지 쓰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포 체험은 아무래도 한밤에 진행하는 게 어울리므로 선생님께 허락을 얻어 2학기 때는 11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0시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민수: 저녁 식사 준비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각 조에서 한 명씩 자원하면 6명이 되는데, 이 조리 팀이 저녁 식사 준비를 전담하여 반 전체가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식단은 학교 영양사님의 도움을 받아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짜고, 식자재는 공동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질의 저녁 식사를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조리 시간이 단축되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혜선: ([가]) 그러므로 조별로 조리하되 통일된 식단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민수: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렇게 하면 학급 친구들 간에 더욱 친화력이 생겨 재미있게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하 생략>

01 다음은 위 토의를 들으며 학생들이 한 생각이다. 학생들의 듣기 전략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1: 이번 야영은 프로그램 순서가 아쉬웠어. 게다가 우리 조 저녁 식사는 옆 조에 비해 초라하기까지 했지.

학생 2: 프로그램 배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다만 장기 자랑이 짧아서 아쉬웠을 뿐이야. 이 시간만 더 늘리면 좋을 것 같아.

학생 3: 11시부터 공포 체험을 하면 좋은 점만 있을까? 늦게 끝날 테니 위험 요소가 많아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단점도 있을 것 같아.

학생 4: 학급 야영 직후 실시한 설문 조사는 참여율이 낮았는데 다시 조사해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학생 5: 다음 야영에서는 친구에게 편지 쓰는 시간이 줄어들지 도 모르겠군. 친구에게 평소 하지 못한 말을 할 수 있어서 난 참 좋았는데.

- ① ‘학생 1’은 민수와 혜선의 말에 동의하며 들었다.
- ② ‘학생 2’는 민수의 말에 동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며 들었다.
- ③ ‘학생 3’은 혜선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들었다.
- ④ ‘학생 4’는 학급 회장이 활용한 자료가 믿을 만한지 점검하며 들었다.
- ⑤ ‘학생 5’는 2학기 학급 야영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며 들었다.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야영 만족도가 예상보다 낮은 원인과 그 개선 방안을 토의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 사회자의 요청으로 발언하며 문제의 원인이 야영 프로그램 배치에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 ③ ㉢: 앞 발화자와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여 저녁 식사 준비에 과도한 시간이 소모되었음을 문제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 ④ ㉣: 사회자가 토의 결과를 잘못 정리하자 토의 참여자가 이를 지적한 후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 ⑤ ㉤: 다른 참여자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토의에 참여하고 있다.

03 토의의 흐름과 <보기>를 참고할 때, [가]에 들어갈 발
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말하기에서 상대방 의견을 비판할 필요가 있을 때는 먼저 상대 의견의 타당한 점을 언급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 ① 친구들이 다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친구들의 친목을 다지고 저녁 식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지는 의문입니다.
- ② 저녁 식사 조리 팀에서 일정한 식단에 따라 일괄적으로 조리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친구들의 다양한 음식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③ 그것이 학급 야영 프로그램 다양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저녁 식사 조리 팀이 별도로 조리를 담당한다면 저녁 식사 시간을 줄이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④ 저녁 식사 조리 팀이 별도로 담당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가령 저녁 식사 조리 팀이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다른 친구들은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⑤ 저녁 식사 조리 팀이 생긴다면 식사 준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담 조리 팀이 저녁 준비를 하면 조별로 음식을 만들며 친구들 간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게 됩니다.

[04~05] 다음은 강연을 들은 후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명수: 오늘 강연 어땠어? 우리 생활 속의 일상적인 현상을 심리학 용어와 관련지어 얘기해 주니 재미있더라.

혜주: 맞아. ㉠나도 정말 재미있었어. 인터넷 신문 기사를 제목만 보고 들어갔다가 내용이랑 달라서 황당했던 적이 많은데, 그게 심리 현상이랑 관련이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 넌 어땠어?

민호: 낯이는 거잖아. 그건 결국 사람들이 뉴스 자체에 관심을 갖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 아냐? ㉡그게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심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명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뉴스를 볼 때에 제목만 보고 관심이 생기면 바로 클릭하는 경우가 80%가 넘는다고 하니까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그런 심리를 활용하는 것이겠지. 인터넷 뉴스가 점점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제목에서 얘기한 게 정작 뉴스 내용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말이야.

혜주: ㉢강사님이 그런 현상을 ‘맥거핀 효과’라고 말씀하셨

지. 그 용어는 원래 영화에서 나온 말이라. 줄거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관객의 시선을 끌기 위해 삽입하는 의도적인 장치가 발휘하는 효과를 말하는 거지.

민호: 의도적인 장치라……. 뭘 말하는 거지?

혜주: ㉣공포 영화 같은 데에서 주인공 뒤를 걷는 험상궂게 생긴 사람을 비취 주는 거지. 관객들은 그 사람이 주인공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장면 이후에는 나오지 않거든. 하지만 관객은 그 사람으로 인해 무슨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공포를 느끼거나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지.

명수: 저게 도대체 뭔가 궁금해하면서 계속 주시하는 거지.

민호: 그런가? ㉤맥거핀 효과는 원래 내용과는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는 거구나, 결국은.

혜주: 그래서 맥거핀 효과는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도 종종 적용되곤 해. 미끼를 던지는 거라고 해야 할까? (㉥)

0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상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고 있다.
- ② ㉡: 상대의 생각에 동조의 뜻을 표현하면서 상대의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 ③ ㉢: 강연에서 들었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며 상대에게 자신의 느낌을 전하고 있다.
- ④ ㉣: 상대의 의문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답하고 있다.
- ⑤ ㉤: 상대의 말을 요약하면서 상대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05 대화 내용을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출연하는 사람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거지. 비밀 이야기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 ② 출연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부풀려서 말하는 거지. 그러면 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
- ③ 출연하는 사람이 이 방송에서만 최초로 공개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지. 처음 듣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 ④ 출연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유명하니까 예고편 같은 데에서 살짝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 주는 거지. 그의 이름만 나와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니까.
- ⑤ 출연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나와 그 물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각자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물건들에 얽힌 사연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으니까.

[06~08] (가)는 학생이 작성한 개요의 초안이고, (나)는 그에 따라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개요의 초안

- 주제문: 평판의 기능과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개인의 노력
- 내용 구성
 - 처음: 평판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힘. ㉠
 - 중간
 - 1. 평판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제시함. ... ㉡
 - 2. 평판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시함. ㉢
 - 3. 평판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함. ㉣
 - 끝: 좋은 평판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강조함. ㉤

(나) 학생의 초고

세상 사람들의 비평을 평판이라고 한다. 주변의 평판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을 좇대 없는 사람으로 보기도 한다. 주변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삶’에 자신을 맞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도 한다. 하지만 주변의 평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느 누구도 그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는 개인에게 족쇄일 뿐인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니다. 개인의 성장을 돕는 디딤돌이기도 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참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주변과 원활하게 어울리며 더욱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반면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야.”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남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고 반성해야 할 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을 생각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평판은 공동체가 잘 유지되도록 이끌어 나가는 데도 기여 한다. 개인에 대한 평가에서 공동체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에 어울리는 사람’,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 등의 표현이 그에 해당한다.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방해하는 돌출 행위를 하는 사람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포용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며 지지하여 왔다.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에게는 평판이 회초리 역할을 하며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우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평판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중

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져 점점 사회가 각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부분이 많다. 물론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라는 것은 아니다. 좋은 평판을 듣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좋은 평판을 듣는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나 공동체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평판은 우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들에 의해 생성되고 축적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평판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며 자신에 대한 좋은 평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면 평판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판을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06 (가)의 ㉠~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07 (나)를 쓰는 과정에서 학생이 선택한 방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판의 개념을 제시한다.
-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평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 ㉢ 평판과 관련된 사회적 관습을 제시하여 논지를 강화한다.
- ㉣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밝힌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08 학생이 <보기>를 추가로 접한 후 (나)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개인주의와 익명성은 매력적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면 타인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질화, 파편화, 협력성 상실의 특성을 지닌 현대 사회에서 개인주의와 익명성의 뒤에 숨어 점차 공익에 무관심하고, 물질적 이익과 자아실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 ① 예전에는 평판이 나쁘면 사는 것이 불편했지만 현대 사회는 평판이 나빠도 불편함이 없는 익명성의 사회라는 점을 강조 해야겠군.
- ② 평판은 올바르게 이용하면 공동체에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잘못 이용하면 폭력 행위를 조장하고, 마녀사냥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점을 글에 언급해야겠군.

- ③ 평판은 진실을 뛰어넘고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왜곡되며 사실로 굳어져 오히려 사실보다 더 생생한 이미지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된다는 점을 글에 추가해야겠군.
- ④ 사회가 각박해져 가는 이유 중 하나가 개인주의와 익명성의 확대에 따른 평판의 견제 기능 약화에 있다는 점을 밝히고, 우리가 평판에 대해 알고 고민해 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겠군.
- ⑤ 인터넷의 등장은 우리에게 익명성과 무한한 자유를 주었지만, 인터넷에서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일반적인 정보보다 더 빨리 확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평판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겠군.

[09~10] 다음은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을 쓰기 위해 읽은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쌈은 곡식의 하나다. 밥을 지어 먹는다.’ 선생이 이런 예문을 주면, ‘무는 채소의 하나다. 김치를 담가 먹는다.’ 이런 문장을 써 놓아야 과거에는 글을 잘 짓는 학생이었다. 자기의 감각이란 사용될 데가 없었다. 양프강 이남에서 ‘서리 맞은 단풍이 2월의 꽃보다 곱구나.’라고 한 것을, 2월 달에 꽃이라고는 냉이꽃이나 볼지 말지 한 조선에 앉아서도 무작정 ‘온 산의 단풍이 2월의 꽃보다 낫구나.’라고 하였다.

뜻이 어떻게 되든, 말이 달든 안 달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오직 글을 지으면 된다. 자기 신경은 딱 봉해 두고 작문(作文)이란 말 그대로 문장의 조작이었다.

새로운 문장 작법은 ‘글을 짓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말을 짓기로 해야 한다. 글짓기가 아니라 말짓기라는 데 더욱 선명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 글이 아니라 말이다. 우리가 표현하려는 것은 마음이요, 생각이요, 감정이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가까운 것은 글보다 말이다. ‘글 곧 말’이라는 글에 입각한 문장관은 구식이다. ‘말 곧 마음’이라는 말에 입각해 최단 거리에서 표현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문장 작법은 글을 어떻게 다듬을까에 주력해 왔다. 그래서 문자는 살되 감정으로 죽이는 수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부터의 문장 작법은 글을 죽이더라도 먼저 말을 살려, 감정을 살려 놓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 본위의 문장 작법이어야 한다. 말은 사회에 속한다. 개인의 것이 아니요, 사회의 소유인 단어는 개인적인 것을 표현하기에 원칙적으로 부적당하다. 그러므로 언어에 의해서 개인의식의 개인적인 것을 타인에게 전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가진 @학자도 없지 않다. 아무튼 현대의 문화 전반에서는 개인의 개성을 강렬

하게 요구한다.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사상의 교환을 현대인처럼 절실히 요구받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감정과 사상의 교환, 그 수단으로 문장처럼 편리한 것은 없으므로 현대 문장 연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개인적인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일이 되었다. 현대는 전화로 말소리를 그대로 들을 뿐 아니라 텔레비전으로 자족의 표정까지를 마주 보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어찌 문장에서만 누구나 쓰는 상투적인 문구에다가 현대의 복잡다단한 자기의 표현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 이태준, 『문장 강화』 -

(

나) 자기가 겪은 사실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잡아 보여주는 일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상을 정확하게 그려 보이는 일과 같이, 기본으로 닦아 나가야 할 글쓰기의 수련 과정이다. <중략>

삶이 있는 글을 쓰자. 삶을 쓰자. 그 삶은 남의 삶이 아닌 나 자신의 삶이다. 지금까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여 덮어 숨기고 멀리해 온 내 것, 우리 것을 다시 찾아내어, 그 가난하고 조그마한 것들을 귀하게 아끼고 드러내어 보이고, 고이 키워 가야 한다. ⑥ 눈부신 황금으로 빛나는 글의 보물 창고는 먼 어느 나라의 화려한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걸린 무지개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걱정과 한숨과 웃음과 눈물과 고뇌로 얼룩진 우리들 나날의 삶, 나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것이다. 삶의 글은 삶의 말로 써야 한다. 삶의 말은 나날이 쓰는 정다운 우리들의 말, 나 자신의 말이다. 빌려 온 말, 유식을 자랑하는 말, 남의 말이 아닌 쉬운 우리말이다. 사실을 보여 주는 말, 진실을 느끼게 하는 말, 가슴에 바로 와 닿는 말이다.

- 이오덕,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까』 -

09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필자의 작문에 대한 인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살아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글쓰기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군.
- ② 옛사람들의 문장을 본받아 이를 염두에 두면서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것이 우리말을 가꾸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군.
- ③ 자신의 언어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쉬운 문장으로 글을 쓰고 글을 끊임없이 다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④ 자신의 세대가 답습하고 있는 언어와 문화를 새롭게 정립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군.
- ⑤ 자신의 눈으로 직접 관찰한 여러 가지 현상을 세밀하게 포착하여 섬세한 문장으로 글을 쓰는 것이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군.

10 글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조건>에 따른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 ㄱ. (가)의 ㉠의 입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할 것.
 ㄴ. (나)의 ㉡에 나타난 열거의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것.

- ① 글을 쓴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의 의미를 갖는다. 나는 어느 순간의 감정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을 때에, 무언가 잘못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싶을 때에 글을 쓴다.
 ② 글을 쓴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과정을 경험한다는 뜻이다. 글쓰기는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등 매 순간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다.
 ③ 글을 쓴다는 것은 나와 내 글을 읽을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고려해야 함을 전제한다. 나는 내 눈앞에 독자가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나의 글을 읽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글을 쓴다.
 ④ 글을 쓴다는 것은 글을 써야 할 이유나 글을 읽을 독자의 존재를 함의한다. 그래서 나는 종종 해결하고 싶은 내 주변의 문제에 대해 누군가와 소통할 필요가 있을 때에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⑤ 글을 쓴다는 것은 나의 글을 통해 나의 사상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내가 쓰는 글은 나 혼자만 읽을 글도 아니고, 주변의 몇몇 사람들만 읽을 글도 아니고, 다른 시대와 다른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읽고 나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글인 것이다.

11 <보기>의 ㉠~㉣을 재료로 하여 (가)~(다)의 문장을 만들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 민희가 마음씨가 착하다.
 ㉡ 민희가 인기가 많다.
 ㉢ 아빠가 케이크를 사 오셨다.
 ㉣ *나는 기대했다.
 ㉤ 영수는 케이크를 먹었다.

- (가) 마음씨가 착한 민희가 인기가 많다.
 (나) 나는 아빠가 케이크를 사 오시기를 기대했다.
 (다) 영수는 아빠가 사 오신 케이크를 먹었다.

*는 비문법적인 말임.

- ① (가): ㉠이 주어가 생략된 채로 ㉢에 관형사절로 안겨 들어간 문장이다.
 ② (나): ㉡이 주어가 생략되지 않은 채로 ㉤에 명사절로 안겨 들어간 문장이다.
 ③ (다): ㉡이 주어가 생략되지 않고 목적어가 생략된 채

㉤에 관형사절로 안겨 들어간 문장이다.

- ④ (가), (다): ㉠, ㉡이 각각 관형사절로 안기면서 결합된 각각의 관형사형 어미는 형태가 같지만 시제적 의미는 다르다.
 ⑤ (나), (다): ㉡이 ㉢과 ㉤에 각각 필수 성분으로 안겨 들어간 문장이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사동문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주동문 의 서술어	㉡ 주동문	㉢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
형용사	길이 다.	넓 다.	인부들이 길을 넓혔다.
자동사	아기가 잤 다.	형이 아기를 재웠 다.	형이 아기가 자게 했다. / 형이 아기를 자게 했다.
타동사	아이가 옷 을 입었 다.	누나가 아이에게 옷 을 입혔다. / 누나가 아이를 옷 을 입혔다.	누나가 아이가 옷을 입게 했다. / 누나 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

- ① ㉠이 형용사일 때에는 ㉡에서 주어였던 것이 ㉢과 ㉣에서 모두 목적어로 나타나는군.
 ② ㉠이 자동사일 때에는 ㉡에서 주어였던 것이 ㉢에서 목적어로만 나타나는 것과 달리 ㉣에서는 주어로도 나타나고 목적어로도 나타나는군.
 ③ ㉠이 타동사일 때에는 ㉡에서 목적어였던 것이 ㉢과 ㉣에서 계속 목적어로 유지되는군.
 ④ ㉠이 형용사와 자동사일 때에는 ㉡의 주어가 ㉢에서 목적어로만 되는 것과 달리 타동사일 때에는 ㉡의 주어가 ㉣에서 부사어로만 되는군.
 ⑤ ㉠이 형용사이든 자동사이든 타동사이든 상관없이 ㉡에 쓰인 서술어의 자릿수보다 ㉢에 쓰인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 자리 더 많은군.

13 다음 밑줄 친 ㉠의 예로 적절한 것은?

음운과 음운이 결합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음운이 끼어드는 첨가, 두 음운이 제삼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이 음운 변동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러한 음운 변동은 한 유형만 적용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 가지 유형이 모두 적용되기도 한다. 가령 ‘옴+는 → [옴 : 는]’에는 탈락만 적용되었지만 ‘읽+고 → [일꼬]’에는 교체와 탈락이라는 두 유형의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

- ① 잡+고 → [잡꼬] ② 흙+는 → [흙큰]
 ③ 덮+고 → [덥꼬] ④ 깎+다 → [깎따]
 ⑤ 놀+는 → [논는]

14 다음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단어이지만 둘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다의어라고 부른다. 국어에는 많은 다의어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들다 ㉠’은 ‘밖에서 안으로 가거나 오다, 어떤 일에 돈이나 물자 따위가 쓰이다’와 같은 뜻을 지닌다. 그래서 이 단어는 (㉠) 등 여러 문장에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 ① 깨끗한 숲 속에 들고 보니 공기가 훨씬 맑았다.
 ② 그는 방 안에 들고 나서도 계속 한기를 느꼈다.
 ③ 사건이 해결되는 데에는 시간이 들기 마련이다.
 ④ 이번 작품의 완성에는 여러 사람의 품이 들었다.
 ⑤ 너무 잘 드는 칼은 사용할 때 몹시 조심해야 한다.

15 다음 밑줄 친 ㉠이 쓰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어의 용언 어간은 홀로 쓰이지 못하는 의존 형태소이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쓰일 때에는 반드시 뒤에 어미와 결합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합성어를 형성할 때에는 어미와 결합하지 않고 어간만 쓰이기도 한다. 가령 현대 국어의 ‘오르내리다, 검붉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오르내리다’의 ‘오르-’나 ‘검붉다’의 ‘검-’은 모두 어미 없이 어간만 홀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합성어는 중세 국어 시기에는 훨씬 더 많이 존재했다.

- ① 七寶塔이 짜해져 쏫나아 (칠보탑이 땅에서 솟아나)
 ② 울며 웁든니느 곳고리느 (울며 웁아 다니는 꾀꼬리는)
 ③ 나조히 다시 올마가더니라 (저녁에 다시 옴아가더니라)
 ④ 서르 뒤접후며 서르 보솔퍼 (서로 대접하며 서로 보아 살피)
 ⑤ 익얼거 지순 뒤 안자쇼매 (매고 엮어 지은 데에 앉아 있음에)

실전 모의고사

15회

[01~0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저의 취미는 게임, 특히 온라인 게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제 취미가 게임이라고 말하면 다들 약간은 한심하다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곤 합니다. 지금 이 발표를 듣는 우리 반 학우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이 정말 그렇게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을 소개하고, 게임에 대해 우리가 갖는 편견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말해 보고자 합니다. 게임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놀이의 일종입니다. 놀이는 활동 자체가 즐겁고, 사람들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행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이는 단순히 즐거운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놀이는 세상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친구들과의 놀이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형성해 가듯이 놀이를 하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말하면, 게임은 게임을 개발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 안에서 주어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무언가를 수행하는, 좀더 복잡한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할 때에는 생각의 과정이 요구됩니다. 학술지

게임과 교육 최근호에는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환경과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과 기억력, 가설 검증, 전략적 기획 과 같은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임 분야 권위자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저 역시 게임을 하는 동안 복잡한 생각의 과정을 거치면서 게임 안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어른들은 게임을 나쁘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어른들은 게임을 하는 것이 책을 읽는 것이나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아이들이 해야 할 바람직한 활동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사실 게임은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게임을 하는 것이 책을 읽는 것보다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요즘 아이들이 밖에 나가 뛰어놀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한다고 걱정합니다. 게임을 많이 해서 몸이 약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생각 속에서 게임은 항상 비교육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게임이 책 읽기나 운동만큼 가치 있는 활동이며, 책 읽기나 운동을 하며 얻는 즐거움과 다른 성격의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도 게임에 대해 오해를 하기에 앞서 먼저 한번 게임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01 다음은 위 발표를 준비하며 세운 계획이다. ㉠~㉥ 중 발표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오늘 국어 시간에는 나의 취미를 소개하고 나의 취미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발표를 해야 하는데, 나는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니까 온라인 게임에 대해 소개해야지. ㉠내 취미에 대해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시작해야겠다. 게임도 놀이의 한 종류임을 들어, 놀이의 장점을 언급해야지. ㉡게임에 대한 친구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함께 소개하면 게임이 갖는 놀이의 의미를 부각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 그리고 ㉢게임이 사고 계발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음을 설명해야겠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게임이 이런 걸 방해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야지. 그 때문에 ㉤게임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해야겠다. 그리고 게임을 한번 해 보라고 권유해야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02 위 발표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자는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군.
② 발표자는 시각 자료를 함께 보여 주면서 청중의 이해를 돕고자 하고 있군.
③ 발표자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함으로써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군.
④ 발표자는 자신이 궁금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청중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있군.
⑤ 발표자는 청중이 같은 반 학우라는 점을 고려하여 반말을 사용함으로써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군.

03 발표가 끝난 후 청중이 <보기>와 같은 질문을 하였을 때, 발표자가 답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종종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느끼는 재미야말로 게임을 하게 만드는 힘인 것 같습니다. 발표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게임에서 느끼는 재미와 책 읽기에서 느끼는 재미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저 역시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은 스트레스 해소라고 봅니다. 이는 게임이 놀이의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게임을 하는 것이지요.
②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대부분이 게임을 과도하게 한다는 신문 보도를 보면서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정해 놓고 적절한 수준에서 게임을 하곤 합니다.

③ 책을 많이 읽는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게임을 많이 한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없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을 읽는 것과 게임을 하는 것 둘다에서 지적인 성취감은 물론 정서적 만족감까지 얻습니다.

④ 저는 무엇보다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 게임을 합니다. 게임도 놀이의 일부이기 때문에 재미 이외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놀이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유희였다면, 게임은 가상의 공간에서 구현되는 유희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말입니다.

⑤ 저는 주로 주어진 조건 속에서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게임을 즐겨 합니다. 이러한 게임에서는 제가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이미 만들어진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책 읽기의 재미가 있다면, 게임은 제가 스스로 내용을 펼쳐 가는 데에서 재미를 느낀다는 차이가 있지요.

[04~05] 다음은 학생에 대한 면접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면접관: 안녕하세요. 우리 □□시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에 보조를 담당할 자원봉사자로 지원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말해 주면 됩니다.

학생: 예. 알겠습니다.

면접관: ㉠먼저, 박물관 자원봉사를 지원한 동기가 궁금하군요. 언제부터 박물관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학생: 초등학교 때 소풍으로 박물관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박물관에서 유물을 보았을 때의 기억과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설명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보조 자원봉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면접관: ㉡우리 박물관보다 규모가 큰 박물관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 박물관에 지원한 이유가 있나요?

학생: 저는 우리 □□시 박물관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제가 느꼈던 감동을 다른 누군가에게, 특히 저보다 어린 친구들에게 전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면접관: ㉢어린 친구들에게 감동을 전한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우리 박물관에서 학생을 뽑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학생: 저는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단순히 이 지역에 살아서가 아니라 지역 생활사 등을 꾸준히 공부하였기 때문에 지역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격도 원만한 편이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박물관

에 온 어린 친구들을 잘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접관: ㉣우리 박물관에 대한 학생의 애정이 느껴집니다.

자원 봉사를 하면 아무래도 개인 시간을 많이 빼앗길 수도 있는데, 부모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 부모님께서서는 저의 생각을 존중해 주십니다. 아버지 역시 이 지역 출신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고, 어머니도 우리 것에 대한 애정이 있으십니다. 두 분 모두 제가 □□시 박물관 자원봉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에 응원해 주셨습니다.

면접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기 바랍니다.

학생: 저는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를 담고 있는 이 박물관을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시 박물관의 자원봉사자가 된다면 제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4 위 면접 참여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면접관과 학생은 면접이 공적인 말하기임을 고려하여 언어 예절을 지키며 말하고 있다.
- ② 학생은 자원봉사 활동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밝히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학생은 지역 문화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성격이 봉사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 ④ 면접관은 학생이 해당 업무에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 ⑤ 면접관은 학생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지 평가하고 있다.

05 <보기>에 제시된 질문의 성격을 고려할 때, 위 면접에서 면접관이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면접에서 사용하는 질문은 크게 ㉠폐쇄형 질문, ㉡개방형 질문, ㉢보충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 폐쇄형 질문은 특정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고, 개방형 질문은 지원자가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는 질문이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답변이 부족하거나 답변의 내용과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할 경우 덧붙이는 질문이다.

- ① ㉠을 말한 후 “학생이 생각할 때 다른 자원봉사와 구별되는 박물관 자원봉사의 장점은 무엇이지요?”라는 ㉠을 추가한다.
- ② ㉡을 말한 후 “우리 박물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

- 물 현황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까?”라는 ㉞를 추가한다.
- ③ ㉞을 말한 후 “우리 박물관에서 얻은 감동을 특히 어린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㉞를 추가한다.
- ④ ㉞을 말한 후 “우리 박물관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애정을 갖고 있습니까?”라는 ㉞를 추가한다.
- ⑤ ㉞을 말한 후 “학생이 생각하는 우리 박물관의 장점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겠습니까?”라는 ㉞를 추가한다.

[06~08] 다음은 작문 과제와 그에 따라 학생이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시사적 화제에 대해 조사하여 글쓰기

[학생의 초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몇 차례 비가 오면 가뭄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며 한시름 덜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가뭄이 그리 간단하게 해소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자연 현상일까? 그렇지 않다. 가뭄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가뭄은 강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기상학적 가뭄,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는 농업적 가뭄, 하천 유량, 저수지, 지하수 등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양으로 판단하는 수문학적 가뭄으로 나뉘어진다. ㉞이 중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수문학적 가뭄이다. 수문학적 가뭄은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등의 공급 가능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지역의 가뭄 문제는 어떠할까? 올해 전국 평균 강수량은 현재까지 592mm로 평년의 6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올해 강수량이 평년의 54% 수준을 보이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가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에 비해 정작 지역 주민인 우리는 가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인 댐이 역할을 다하고 있어 실제 생활에서 수도물을 사용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댐에 가득 채운 물을 방류하여 사용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㉞비가 오지 않으면 댐에 유입되는 물의 양도 적어진다. 댐의 물이 부족한 댐 가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댐 가뭄은 여러 가지 피해를 초래한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 부족의 문제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역 주민들은 제한 급수로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고 산업 용수가 부족한 업체는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농가에서는 농사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부진한 작 황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댐 가뭄이 지속된다면 인근 작은 하천의 물을 끌어와서 사용하게 되고 이는 하천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천 수량이 줄어들면 모래 입자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작은 하천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서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A][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역 댐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개인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권유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물을 물 쓰듯 한다면, 언젠가는 물이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 될 수 있다. 물이 인간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음을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물을 아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06 학생이 초고에서 사용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문자답의 형식을 취하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관용구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물을 함부로 쓰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가뭄으로 올 수 있는 피해를 가정의 측면에서만 아니라 지역이나 생태계의 측면에서도 논의하고 있다.
- ④ 우리 지역 댐의 평년 물 방류량 및 올해 물 방류량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가뭄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뭄의 종류를 분류하여 제시한 후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뭄이 무엇인지를 언급하여 논의를 초점화하고 있다.

07 학생이 초고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보기>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보기>에 제시된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가) 관련 전문가 인터뷰

“우리나라는 연간 1,276억 톤의 비가 오는데 이 중 26%만 지하수·하천수로 사용되고 나머지 빗물은 모두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로 흘러간 빗물의 5 ~ 10%만 활용해도 물 부족으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빗물을 모으고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지요.”

(나) 가뭄 대책 보고서의 일부

댐 유역에 내린 비 중 댐으로 들어오는 유입량을 따져보면 심각한 상황을 알 수 있다. 가뭄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비가 오더라도 댐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비가 적게 올수록 토양으로 스며들거나 증발하는 빗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다) 신문 기사의 일부

10년째 이어지는 가뭄 가뭄으로 전국적으로 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현재 ‘가뭄 대응 위기 경보’가 발령 중인 댐은 9곳에 달한다. 특히 우리 지역의 댐은 심각 단계로 현재 저수율이 23.6%에 불과하다.

올해 가뭄은 단순히 비가 적게 내린 문제가 아니다. 10년째 이어진 가뭄으로 댐 저수량률이 급감하는 수문학적 가뭄에다, 강우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밖에 미치지 못해 총체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강우량이 적었던 이유로 전문가들은 엘니뇨 현상을 거론한다. 우리나라의 강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받는데, 엘니뇨가 나타날 경우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져 장마 전선이 늦게 북상하기 때문이다.

- ① (가)는 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물을 댐에 비축해 두었다는 내용으로, ㉔의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 ② (나)는 가뭄이 오면 댐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양이 적어진다는 내용으로, ㉔의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 ③ (다)는 기존의 용수 공급을 재평가하여 수자원 시설물을 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㉔의 내용을 구체화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 ④ (가)와 (다)는 강우량이 적은 상황에서 지하수 자원을 확보해야 가뭄 지역의 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㉔의 내용을 구체화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 ⑤ (나)와 (다)는 강수량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결정된다는 내용으로, ㉔와 ㉔ 모두의 내용을 구체화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08 친구의 조언에 따라 [A]를 고쳐 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 잘 읽었어. 댐 가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잘 드러냈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대책과 지역에서 마련해야 할 대책을 각각 제시해 주면, 너의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 ① 현재 우리나라 댐의 관리는 홍수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와 같은 관리 방식은 댐 가뭄을 방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댐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 ② 그러므로 댐 가뭄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예측 시스템을 활용하여 물 자원을 확보하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면 댐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여 누수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각 가정에서 누수를 막는 만큼 댐의 물을 절약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물 절약 농법을 활용하여 농업용수를 절약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 ④ 따라서 우리 지역 댐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다방면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우선 일상생활에서 세탁기, 화장실 사용 시 물 절약을 실천하여 생활용수 수요를 줄이는 등의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지역 물 자원 종량제를 시범 운영하는 등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 ⑤ 그러므로 댐 가뭄에 대해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물 이용과 환경 생태 조건에 적합한 가뭄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인간과 환경, 기술 발전, 생태 시스템까지 고려하여 가뭄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환경을 고려한 가뭄 예방을 시행할 수 있다.

[09~10] 다음은 교지에 실기 위해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 어디선가 보았던 책 제목이었는데,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덩실덩실 춤추는 고래가 머릿속에 떠올라 피식 웃고 말았다. 그런데 얼마 전 칭찬이 나를 춤추게, 아니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잠에서 깬 김에 어질러진 방을 청소했다는 것 정도였다. 청소를 마친 후, 학교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께서 그런 나를 보시더니 “우리 아들, 엄마가 힘드니까 도와주려고 아침부터 애썼구나. 아침 시간에 바쁜 엄마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청소를 한 시간은 5분가량이었을 것이다. 물론 아침 시간의 5분은 이불 속에서 조금 더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아침 식사를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학교에 일찍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좀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 보냈던 5분보다 그날 아침의 5분이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머니의 칭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먹은 것은 바로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잠깐의 짝이라도 있을 때면 책을 치우거나 방을 청소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 부모님을 도와 드려야 한다는 마음만 있었던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날 아침 들었던 어머니의 칭찬이 마음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나 혼자만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때로는 무심하게 보냈던 아침을 보다 부지런하게 보내게 된 것이다.

09 학생의 초고에서 글쓰기가 사용한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칭찬과 관련된 경험을 제시한 후 자신의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칭찬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심리 실험을 근거로 들어 제시하고 있다.
- ③ 칭찬으로 인해 성공하게 된 유명인의 사례를 제시한 후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칭찬과 질책에 따른 행동의 차이를 서로 견주어 언급하여 칭찬이 갖는 힘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 ⑤ 칭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후 칭찬을 통해 변화한 자신의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0 다음은 학생의 초고에 대한 교지 편집장의 메모이다. 메모 내용에 따라 학생의 초고를 보완할 때에 글의 마지막에 추가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마지막 부분에 대한 추가 문장 필요!
- 형식: '칭찬은 고래도 춤 추게 한다.'라는 문장과 유사한 구조의 문장으로 작성할 것.
- 내용: 어머니의 칭찬으로 행동이 변화했다는 의미가 드러나는 내용으로 구성할 것.

- ① 어머니의 칭찬은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
- ② 어머니의 칭찬은 내 삶을 여유롭게 만든다.
- ③ 나의 하루를 여는 어머니의 칭찬은 마르지 않는 샘이다.
- ④ 어머니의 칭찬으로 인해 '마음만 먹었던 나'는 '행동으로 실천 하는 나'가 되었다.
- 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어제와는 다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11 <보기 1>에 따라 <보기 2>의 문장에 있는 형태소를 분류하는 활동을 하였다. ㉠~㉣에 들어갈 말을 짝지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형태소는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립성이 있어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야만 하는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고 한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문법 형태소라고 한다. 자립 형태소는 모두 실질 형태소이지만 의존 형태소에는 실질 형태소도 있고 문법 형태소도 있다.	

<보기 2>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	㉡
문법 형태소	-	㉢

	㉠	㉡	㉢
①	그, 얼굴, 이내, 빛	밝, 띠	의, 이, 은, 을, 었, 다
②	얼굴, 이내, 빛	그, 의, 이, 밝, 을, 띠	은, 었, 다
③	얼굴, 빛	그, 이내	의, 이, 밝, 은, 을, 띠, 었, 다
④	그, 얼굴, 이내, 빛	의, 이, 밝, 을, 띠	은, 었, 다
⑤	얼굴, 이내, 빛	그, 밝, 띠	의, 이, 은, 을, 었, 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에'와 '(으)로'가 '원인' 혹은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만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부사격 조사는 다른 격 조사에 비해 그 수효도 많고 하나의 부사격 조사가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간혹 서로 다른 형태의 부사격 조사가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있는데, '에'와 '(으)로'가 '원인' 혹은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 ① 동수는 1주일에 한 번씩 등산을 간다.
어제 그 건물은 화재로 다 타 버렸다.
- ② 나는 밖의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깼다.
우리는 학생 대표로 그 기관을 방문했다.
- ③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생각이다.
그 물질이 액체에서 고체로 응고되었다.
- ④ 나는 대표 팀의 4강 진출에 환호했다.
할머니께서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신다.
- ⑤ 이 물약은 기침에 잘 듣는다고 한다.
그 가게는 색종이를 낱장으로 팔지 않는다.

13 <보기>는 남한의 말과 북한의 말 중 이질적인 것을 대조한 것이다. ㉠~㉡을 탐구한 결과로 바르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남한	북한
㉠	‘老人’을 ‘노인’으로 적고 [노인]으로 발음함.	‘老人’을 ‘로인’으로 적고 [로인]으로 발음함.
㉡	‘스커트(skirt)’, ‘냉수욕(冷水浴)’을 사용함.	‘스커트’대신 ‘양복(洋服)치마’를, ‘냉수욕’ 대신 ‘찬물미역’을 사용함.
㉢	[초뿔]로 소리 나는 ‘초에 켜 불’을 ‘촛불’로 적음.	[초뿔]로 소리 나는 ‘초에 켜 불’을 ‘초불’로 적음.
㉣	‘되+-어’를 ‘되여’라고 적고 [되여], [되여]의 두 발음을 모두 인정함.	‘되+-어’를 ‘되여’라고 적고 [되여]의 발음만 인정함.
㉤	한글 맞춤법에서 ‘ㅃ’을 ‘쌍비읍’으로 부르도록 함.	조선말 규범집에서 ‘ㅃ’을 ‘된비읍’으로 부르도록 함.

- ㉠: 남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표기에도 반영하는데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이 발음과 표기에 적용되지 않는군.
- ㉡: 북한에서는 남한에 비해 외래어보다는 한자어를, 한자어보다는 고유어를 더 선호하여 사용하는군.
- ㉢: 남한에서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된 합성 명사에서 일어나는 사잇소리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는데 북한에서는 사잇소리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군.
- ㉣: 어미 ‘-어’앞에 반모음 ‘ㅣ’가 첨가되어 발음되는 것을 남한에서는 표기에 반영하는데 북한에서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군.
- ㉤: 남한 어문 규정에서는 문자 두 개가 나란히 있음을 부각한 명칭을 사용하는데 북한 어문 규정에서는 해당 자음의 발음을 부각한 명칭을 사용하는군.

14 다음 ㉠, ㉡의 예가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음과 자음이 결합하면 음운 변동이 잘 일어난다. 이때 흔히 일어나는 음운 변동으로 자음 동화를 들 수 있다. 자음 동화는 한 자음이 인접한 자음의 특성에 닮아 가는 음운 변동이다. 자음 동화는 ㉠앞 자음의 특성에 뒤 자음이 닮는 것과 ㉡뒤 자음의 특성에 앞 자음이 닮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	㉡
①	달+님 → [달림]	작+년 → [장년]
②	국+물 → [궁물]	칼+날 → [칼랄]
③	달+님 → [달림]	능+력 → [능녁]
④	국+물 → [궁물]	능+력 → [능녁]
⑤	권+리 → [겔리]	작+년 → [장년]

15 (가)와 (나)를 참고하여 (다)의 ㉠ ~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자음의 로마자 표기

ㄱ	ㄲ	ㅋ	ㄷ	ㄸ	ㅌ	ㅊ	ㅍ	ㅍ
g, k	kk	k	d, t	tt	t	b, p	pp	p

ㅈ	ㅉ	ㅊ	ㅌ	ㅍ	ㅎ	ㄴ	ㄹ	ㅇ	ㄷ
j	jj	ch	s	ss	h	n	m	ng	r, l

(나) 음운 변동의 로마자 표기

- 자음 동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한다.
- ‘ㄴ, ㄹ’의 첨가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한다.
- 구개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한다.
- 거센소리되기는 체언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로마자 표기에 반영한다.
-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 학생들의 로마자 표기 예

- ㉠ 독립[동닙]: dongnip
 ㉡ 담요[담뇨]: damnyo
 ㉢ 굳이[구지]: guji
 ㉣ 집합[지팍]: jipap
 ㉤ 박수[박쑤]: baksu

- ㉠: 자음 동화를 로마자 표기에 반영했으므로 올바른 표기이다.
- ㉡: ‘ㄴ’첨가를 로마자 표기에 반영했으므로 올바른 표기이다.
- ㉢: 구개음화를 로마자 표기에 반영했으므로 올바른 표기이다.
- ㉣: 거센소리되기를 로마자 표기에 반영했으므로 올바른 표기이다.
- ㉤: 된소리되기를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올바른 표기이다.

실전 모의고사

16회

[01~02] 다음은 거리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된 토의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지금부터 우리 지역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공무원께서 현재 우리 지역의 간판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 사무관: 지금 우리 ○○시에는 간판이 너무 많아 거리 환경 조성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한 가게에 서너 개의 간판을 달아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민원도 있고, 영업장을 폐쇄하였는데도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여 위험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예, 우리 지역 간판의 문제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 우리 시는 신도심의 개발로 인해 구도심에 비어 있는 낡은 건물이 많습니다. 문제는 영업을 하지 않는 상점에서도 간판을 철거하지 않아 간판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 사무관: 낡은 건물의 간판이 모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노후 간판 철거 작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하였음에도 여전히 노후 간판들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박 교수: 간판 자체가 노후한 것은 물론 문제입니다.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간판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최근 설치된 간판들도 중구난방 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 사무관: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시청 주변의 건물에는 간판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 청정한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지역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 합니다.

사회자: 예, 패널들께서는 노후 간판의 문제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간판의 문제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사: 우리 시의 노후 간판을 교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난번 △△시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후하거나 약해져 있는 간판은 자연재해로 인해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박 교수: 이 박사님 말처럼 안전을 위해 노후 간판은 우선 철거하되, 철거하는 간판은 도시 환경에 어울리는 것으로 교체하는 데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간판 교체 사업은 여타 도시 미관 개선 사업에 비해 비용도

적게 들고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도 짧습니다. 물론 간판 교체 사업을 시행할 때에 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의 이미지와 가게 이미지 둘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사무관: 사업장 특성도 중요하지만 간판을 교체할 때에는 도시 전체의 이미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우리 지역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 패널들의 의견에 대해 청중의 질의를 받아 보겠습니다.

청중: 박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시청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가게 간판이 우리 가게의 특성을 알리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간판으로 일률적으로 교체하면 우리 가게만의 고유성을 살리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 교수: (㉔)

01 위 토의에 나타난 토의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자’는 토의의 의제를 소개하고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 ② ‘이 박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박 교수’는 ‘김 사무관’의 말에 동의를 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김 사무관’은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토의 의제와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이 박사’는 ‘박 교수’의 말을 근거로 들어 자신의 제안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절함을 피력하고 있다.

02 ‘박 교수’가 토의 과정에서 드러낸 자신의 관점을 유지하며 ‘청중’의 질문에 답하려고 할 때, ㉔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게의 이미지와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게의 이미지를 잘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② 간판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별도의 관리 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시의 이미지 제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③ 시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간판으로 교체한다면 가게로서도 손해 볼 일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가게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④ 시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간판은 장기적으로 볼 때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

시 전체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통일된 이미지로 조성된 거리는 관광객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 ⑤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면서도 가게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하면 어떨까요? 시에서 일률적으로 특정한 간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장을 운영하는 분과 세부적인 내용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3~05] 다음은 역사 인물에 대한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은 독립운동가 중 어떤 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은 유관순 열사, 신채호 선생, 안창호 선생 등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독립운동가인 ‘심산 김창숙’ 선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창숙 선생이 어떤 분인지 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 손을 들어 보세요. (손을 든 학생을 확인한 후) 여러분에게는 다소 생소한 분이지요? 김창숙 선생은 유림 출신으로 조국 해방을 위한 독립운동과 민족의 통일,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친 민족 운동가입니다. 저는 그중 독립운동 가로서의 심산 선생의 면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독립운동의 의미를 생각하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선생은 1879년 경상북도 성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심산은 선생의 호입니다. 심산은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웠고, 18세 이후에는 당대의 이름난 학자들을 찾아다니며 성리학을 배웠습니다. 일제의 침탈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선생은 “성인의 글을 읽고도 성인이 세상을 구제할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가짜 선 비이다.”라고 말하며 민족 문제와 동떨어져 있는 선비가 아니라 그 문제 해결에 솔선수범하는 선비가 되어야 한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선생의 이러한 신념은 을사늑약의 체결을 계기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을사늑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까? 누가 이야기해 볼까요? (학생의 대답을 확인한 후)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선생은 대궐 앞에 나아가 조약에 동조한 역신을 처형할 것을 상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 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선생은 통곡하며 귀향하여 본격적으로 국권 회복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선생은 국채 보상 기금을 마련하는 데에 앞장서기도 하였으며,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침탈되자, 심산은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곧 “학문을 닦으면서 서서히 우리나라의 광복을 도모하되 기회를 보아 움직이는 것이 곧 너의 나아갈 길이다.”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느낀 바 있어 이후 오직 독서와 학문 연구에 전념하면서 독립운동의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선생은 전국의 유림을 규합하여 한국 독립을 호소하는 유림단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중국 상해로 망명한 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 평화 회의에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국 대사·공사·영사관 및 중국의 각 정계 요인들에게도 이를 보내어 우리 민족이 독립을 절실하게 염원하고 있음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1920년 말을 고비로 국내외 독립운동이 점차 침체되어 가던 때에도 심산은 만주와 몽고 접경지대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새로운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등 독립운동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심산은 1927년 상해에서 일본 영사관 직원에게 잡혀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뒤 14년의 형을 선고받아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옥중 투쟁과 일본 경찰의 고문에 의한 두 다리 마비로 형 집행 정지를 받아 출옥하였습니다. 고문으로 두 다리가 마비된 상황에서 심산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학생들을 둘러보면서)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 뒤로도 심산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창씨개명에 반대하는 등 항일의 자세를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광복 직전까지 독립 운동을 계속하는 심산에게 일제의 탄압은 계속되었습니다. 광복의 날도 감옥에서 맞이할 정도였으니, 심산의 심 없는 나라 사랑의 의지를 엿볼 수 있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심산 선생의 업적의 일부일 뿐입니다. 선생은 이후에도 나라를 위해 일하는 데에 온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연을 통해 자신의 일생을 바쳐 나라를 사랑한 심산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03 위 강연을 위해 작성한 강연자의 메모이다. 실제 강연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강연 구성 방안

- 독립운동가로 살아간 심산 선생의 삶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것. ㉠
- 심산 선생의 활동을 시간 순으로 제시할 것. ㉡
- 심산 선생의 굽히지 않는 기개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할 것. ㉢
- 심산 선생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독립운동에 대한 신념에 대해 밝힐 것. ㉤
- 심산 선생의 삶과 당대 사건의 관련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각 역사적 사건의 의의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할 것. ㉥

- ① ㉠ ② ㉡ ③ ㉢ ④ ㉤ ⑤ ㉥

04 위 강연자가 청중과 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강연의 중심 화제를 초점화하여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 ② 강연자 자신의 감회를 제시하여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 ③ 강연의 내용에 대해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청중의 이해를 확인하고 있다.
- ④ 다양한 질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청중의 적극적인 사고를 유도하고 있다.
- ⑤ 강연을 들은 청중에게 기대하는 마음가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강연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05 다음은 위 강연을 들은 학생이 쓴 글이다. 학생이 쓴 글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 선생의 삶에 대한 강연을 듣고 그간 우리나라를 일구어 온 선현들의 삶에 대해 무심했던 나의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다. 특히 나라 사랑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않고 사는 무심한 현재의 나의 모습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따랐던 시대에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그분의 삶의 모습이 비교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심산 선생님의 삶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학생의 입장에서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 ① 강연에서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생활과 마음가짐을 되돌아보고 있군.
- ② 강연에서 제시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가며 객관적으로 수용하고 있군.
- ③ 강연의 세부적 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지식을 심도 있게 확장하여 내면화하고 있군.
- ④ 강연자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을 비교하며 강연자의 의견이 수용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있군.
- ⑤ 강연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군.

[06~08] 다음은 쓰기 과제와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쓰기 과제]

- 목적: 설득
- 화제: 대중문화, 청소년
- 예상 독자: 같은 반 친구들

[학생의 초고]

여러분은 TV 없이 살 수 있는가? 1960년대 영국의 한 방송국에서는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설문 조사를 하였다. “당신은 돈을 얼마나 주면 TV 없이 살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한 것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①비단 많은 돈을 주어도 TV 없이 살 수는 없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1960년대의 영국과 지금의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다르겠지만, 만약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머뭇거린다면 여러분 역시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사람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가 흔히 대중문화라고 부르는 것은 대중 매체에 의해 상품으로 대량 생산되고 대중에 의해 소비되는 문화를 지칭한다. ②앞서 말했던 TV는 대표적인 대중 매체 중 하나이다. 우리와 같은 10대 청소년은 대중문화의 주요한 소비자로 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TV와 가까이 지내면서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다양한 이미 지를 소비하며 자라 온 청소년들이 대중문화의 주요한 소비자로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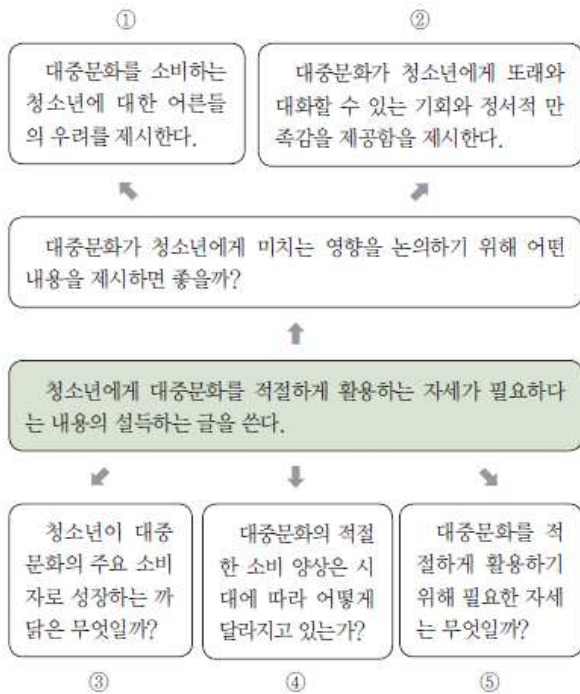
청소년들이 대중문화의 주요한 소비층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대중문화와 밀접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한다. ③대중문화는 대중적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중의 가치와 취미를 획일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획일적인 대중문화는 청소년을 주체적인 문화의 소비자로 자리 잡게 하는 데에 방해 요인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대중문화는 청소년에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조장하기도 한다. ④폭력적인 장면을 담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지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대중문화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첫째, 대중문화는 또래 집단에게 유사한 경험을 제공한다. 유행이 되는 TV 프로그램이 그다음 날 친구들과 의 화젯거리가 될지 몰라 그것을 시청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⑤그만큼 청소년에게 또래 집단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소중한 대상이다. 둘째, 대중문화는 청소년에게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는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한다. 대중문화는 새롭고 독특한 방식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⑥대중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배양하기보다는 대중문화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중문화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적절하게 대중문화를 활용한다면, 수동적인 자세로 이를 소비하는 주변인이 아닌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대중문화를 만들어 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06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작성하기 위해 쓰기 과제에서 제시된 항목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07 밑줄의 글쓰기가 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 모든 채널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요리 프로그램이 유행을 하면 모든 채널에서 앞다투어 요리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 ② 대중 매체는 어린이들에게는 초기 사회화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어린이들은 대중 매체를 통해 사회의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을 학습하게 된다.
- ③ 리모컨은 즉각적으로 채널 전환을 가능하게 만든다. 리모컨의 이러한 기능은 내용을 일관된 흐름으로 보게 하지 않고 단편적이고 감각적으로 추구하게 만든다.
- ④ 대중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뉴스는 예전에 비해 오락적 기능이 강화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를 강조하는 전통적 방식과는 달리 시각적 만족이나 상업성 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 ⑤ TV 시청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신체 활동과 관련된 여가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어린이들은 TV 앞에 있을 때에는 신체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에너지 소모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보고되고 있다.

08 밑글의 글쓰기가 초고를 고쳐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은 매우 많은 돈을 주어도 TV를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 되어야 하므로 ‘비단’을 ‘아무리’로 고쳐야겠어.
- ② ㉒은 TV와 관련된 논의를 응집성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글의 흐름상 바로 앞 문장과 순서를 바꾸어야겠어.
- ③ ㉓은 대중문화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삭제해야겠어.
- ④ ㉔은 청소년이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이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진술이 아니므로 대중문화가 청소년이 또래 집단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으로 재구성해야겠어.
- ⑤ ㉕은 대중문화를 무조건 밀어내는 것보다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어야 하므로 ‘배양’을 ‘배척’으로 수정해야겠어.

[09~10] 다음은 학생이 요약문을 작성하기 위해 읽은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아라비아 숫자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0의 발명이다. 0은 인도어로 ‘sunya’라고 불렸으며, 후에 아랍어로는 ‘cifir’라 했다. 이 용어가 영어에 들어와서 무(無)를 뜻하고, 주판이나 계산틀의 빈 줄을 일컫는 ‘사이퍼(cipher)’가 된 것이다.

0의 개념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사냥한 동물의 수를 기억하기 위해, 지난날을 세어 보기 위해, 또는 여행한 거리를 어림잡기 위해 셈을 해 왔기 때문에 0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20세기 영국 철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말한다.

“0에 대한 요점은 그것이 일상생활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도 0마리의 물고기를 사기 위해 나가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0은 어느 면에선 모든 기수가운데 가장 세련된 수다. 0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사고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수다.”

화이트헤드의 ‘정교하게 다듬어진 사고’라는 표현이, 단지 0이 셈 계산의 수준을 높였다는 사실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0이 계산의 편리성 문제보다 더 심오한 뭔가의 속박을 풀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디오판토스도 알고 있었듯이, 적합한 숫자 체계가 주어진다면 수학에서 계산 기술뿐만 아니라 대상을 추상화시키는 기술도 발달하게 마련이다. 0은 사상과 진보에 가로놓였던 장애를 없애 버린 것이다.

0은 두 가지 면에서 기존의 숫자 체계에 대변혁을 일으켰다. 첫째, 0에서 9까지 열 개의 숫자만 사용하면 모든 계산이 가능해졌고, 어떤 숫자건 단지 숫자 열 개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는 1, 10, 100 등 숫

자의 배열이 있을 때, 그다음 숫자는 1000임을 수열 자체로 알 수 있게 되었다. 0은 숫자 체계의 전체 구조를 눈으로 보는 순간 명확히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로마 숫자로 된 수열에서는 쉽게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두 개의 수열 I, X, C와 V, L, D를 예로 들어 보겠다. 자, 그다음 숫자는 각각 무엇인가?

09 윗글을 <조건>에 따라 요약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학생의 요약 전략]

- 구체적인 예시나 부연 설명은 글의 중심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삭제해야지.
-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면서 나열하는 것은 글 전체의 의미를 포괄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글 전체의 핵심 내용을 일반화하여 간추려야지.

- 0은 셈 계산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사상과 진보에 가로놓였던 장애를 없애는 데에 공헌하였다고 평가받는다.
- 0은 수학의 계산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고 대상을 추상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일찍이 디오판토스가 언급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 화이트헤드는 0을 정교하게 다듬어진 사고라고 표현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숫자라도 사고의 기능을 위해서는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0의 개념이 옛날 사람들에게 생소했던 이유는 그것이 물건을 사는 데에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0이 등장함으로써 열 개의 숫자로 계산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 0은 계산을 용이하게 만들고 숫자 체계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0의 발명이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수학적 계산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서 더 나아가 인간의 추상적 사고를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0 윗글을 읽은 학생이 내용을 재구성하여 학교에서 발표하려고 한다. <조건>에 따라 실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건>

[학생의 발표 전략]

-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의 화제를 명확하게 제시하자.
- 청중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작용을 시도하자.
- 청중에게 내용의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체를 적절

히 사용하자.

- ㉠: '0의 발명'이 발표의 화제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해야지.
- ㉡: 0이 필요한 경우가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청중에게 질문하고 그 반응을 살펴야지.
- ㉢: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인 3을 소개하면서 사람마다 선호하는 숫자가 다른 이유에 대해 청중과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지.
- ㉣: 사냥한 동물의 숫자를 옛날 사람들이 표기해 놓은 그림 자료를 제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수의 많고 적음을 헤아릴 때는 0이 필요하지 않았음을 언급해야지.
- ㉤: 같은 숫자를 로마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칠판에 써 가면서 수 체계를 시각적으로 보여 줘야지.

11 <보기>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탐 구	아래의 탐 구 자료를 통해 주격 조사 '이/가'와
목 표	보조사 '은/는'의 특성을 알아본다.
탐 구	㉠ 동생(은/이) 학교에 갔어. ㉡ 수박(은/*이) 철수가 먹었어. ㉢ 부산에(는/*가) 철수가 갔지. ㉣ 학교에서(는/*가) 열심히 공부해라. ㉤ 빨리(는/*가) 먹지 못하겠다.
자 료	
탐 구	
결 과	(가)

- ㉠을 보니, '은/는'과 '이/가'는 주어 자리에 나타날 수 있군.
- ㉠, ㉡을 보니, '은/는'이 항상 '이/가'와 교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군.
- ㉠~㉤을 보니, '은/는'은 '이/가'와 달리 다양한 문장 성분에 붙을 수 있군.
- ㉢, ㉣을 보니, '은/는'은 '이/가'와는 달리 앞말에 붙어 앞말을 필수 성분으로 만드는군.
- ㉢, ㉣, ㉤을 보니, '은/는'은 '이/가'와 달리 체언 이외의 말 뒤에도 결합할 수 있군.

12 <보기>의 예로 추가할 만한 다의어가 쓰인 예문의 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공간적 개념을 시간적 개념으로 바꾸어 생각하는 것은 어떤 말을 다의어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가) 형님의 머리가 드문드문 나 있어요.

(나) 친구가 드문드문 와서 놀다 가요.

(가)의 ‘드문드문’은 ‘뺄뺄이, 등성등성’ 등으로 바뀌 써서 공간과 관련한 다양한 뜻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반면, (나)의 ‘드문드문’은 ‘가끔, 이따금, 자주’ 등으로 바뀌 써서 시간과 관련한 다양한 뜻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두 ‘드문드문’은 공통적으로 ‘많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국어사전에서는 하나의 표제어 아래에서 서로 연관된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의어로 처리된다.

①현지 뒤에 앉아 있는 학생이 지희이다.

그 사건 뒤에는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②10년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우리는 앞 세대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한다.

③벽면의 갈라진 틈으로 물이 새서 위험하다.

요즘 너무 바빠서 문화생활을 할 틈이 없다.

④대전은 서울과 광주 사이에 있다.

선후배 사이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⑤여기는 땅이 넓어 큰 건물도 지을 여지가 있다.

그 규정은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없다.

13 다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국어에는 ‘닭, 값, 여덟’과 같이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가 적지 않다. 이때 겹받침은 뒤에 오는 형태소의 종류에 따라 발음이 달라진다.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하여 연음이 되면 겹받침이 모두 발음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거나 또는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중 겹받침의 하나가 탈락하는 음운 변동을 흔히 자음 군 단순화라고 한다. 자음 군 단순화의 예로는 (㉠) 등을 들 수 있다.

① ‘꿇고’를 [곤코]로 발음하는 경우

② ‘싫은’을 [시른]으로 발음하는 경우

③ ‘안팎’을 [안팍]으로 발음하는 경우

④ ‘값없이’를 [가법씨]로 발음하는 경우

⑤ ‘넓히다’를 [넌피다]로 발음하는 경우

14 다음 설명을 읽고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설명】 단어를 만드는 데 쓰이는 형태소는 크게 어근과 접사로 구분된다. 어근은 의미상의 중심이 되는 부분인 반면 접사는 어근에 붙어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거나 부분적인 의미만 더해 주는 부분이다. 가령 ‘지우개’에서 중심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지우-’는 어근이고 ‘-개’는 ‘지우-’와 결합하여 파생 명사를 만들어 주는 접사이다. 어근끼리 결합하거나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말을 복합어라고 한다. 복합어를 둘로 쪼개었을 때 두 가지가 모두 어근이면 합성어이고, 둘 중 하나가 접사이면 파생어이다.

【탐구】 다음 단어들의 구조에 대해 탐구해 보자.

㉠ 짓밟히다, ㉡ 버드나무, ㉢ 되돌리다,

㉣ 비빔밥, ㉤ 오르막길

① ㉠은 두 개의 접사가 들어 있는 파생어이다.

② ㉡은 어근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합성어이다.

③ ㉢과 동일한 접사가 쓰인 파생어로 ‘되감다’를 들 수 있다.

④ ㉣과 동일한 구조로 된 합성어로 ‘웃음꽃’을 들 수 있다.

⑤ ㉤은 두 개의 어근과 하나의 접사로 된 파생어이다.

15 (가)의 ㉠, ㉡에 해당하는 예를 (나)에서 찾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가)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중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음운의 측면이다. 우선 ㉠중세 국어에는 단어의 첫머리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었다. 현대 국어는 단어의 첫머리에 최대 하나의 자음만 발음되지만 중세 국어는 두 개의 자음도 발음이 가능했다. 다음으로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에 없는 자음들이 더 존재했다. 자음의 수는 중세 국어가 현대 국어보다 더 많았으며 이 중 일부가 없어지면서 현재와 같이 19개의 자음만 남게 되었다.

(나) 내 이를 爲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덟 字를 링노니 사람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부메 便安키 하고 저 흙 썩키 미니라

【현대어 풀이】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
①	링노니	수비
②	히여	여덟
③	부메	수비
④	링노니	여덟
⑤	부메	이를

정답 및 해설

1회

- | | | |
|-------|-------|-------|
| 1. ③ | 2. ④ | 3. ② |
| 4. ④ | 5. ⑤ | 6. ⑤ |
| 7. ⑤ | 8. ④ | 9. ② |
| 10. ① | 11. ② | 12. ⑤ |
| 13. ② | 14. ② | 15. ④ |
| 16. ⑤ | | |

1. 토론의 적절성, 전략 평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일관성 여부 평가

사회자는 세 번째 발언에서 각자의 입장에 충실한 토론자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토론자 발언 내용의 일관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용어의 개념과 토론 배경 언급

사회자는 첫 번째 발언에서 대체 휴일제의 개념과 토론의 배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② 확인: 발언 내용 요약·정리

사회자는 두 번째 발언에서 양측의 발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정리해 주고 있다.

④ 확인: 용어에 대한 보충 설명 요구

사회자는 네 번째 발언에서 질문을 통해 용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⑤ 확인: 토론 규칙을 상기시키며 발언 순서를 지키게 함

사회자는 마지막 발언에서 발언 순서를 지켜 달라는 점과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 달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2. 토론의 적절성, 전략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상대 발언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 주장 펼치기

찬성 측의 두 번째 발언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동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반대 측의 발언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 반대 측의 세 번째 발언 내용을 보면, 찬성 측이 앞서 주장한 대체 휴일제의 파급 효과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주 5일제의 파급 효과와 유사한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이끌어 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구체적 수치 활용 여부

찬성 측은 첫 번째 발언에서, 반대 측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발언에서 구체적 수치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② 확인: 상대의 발언 경청 여부

찬성 측은 마지막 발언에서 반대 측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든다.

③ 확인: 외국의 성공 사례

찬성 측은 세 번째 발언에서 일본의 골든 위크 사례를 근거로 들며 대체 휴일제를 시행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⑤ 확인: 논의 대상과 기대 효과가 유사한 사례

반대 측은 마지막 발언에서 찬성 측이 주장하는 대체 휴일제의 파급 효과가 이전에 시행된 주 5일제의 파급 효과처럼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상대의 논거를 반박하고 있다.

3. 추가 자료의 활용 방안 추론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확인 1: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대체 휴일제 필요

(보기 1)의 (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국내 소비 감소 추세로 인해 촉발된 것이므로, 기업의 생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국내 소비를 활성화해야 침체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찬성 측의 세 번째 발언을 보면 '대체 휴일제 시행으로 휴일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여가를 더 즐기게 되면 서비스 산업 창출 및 국내 소비 증대 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으므로 ㉠은 (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확인 2: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대체 휴일제 필요

(보기 1)의 (나)는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월차 유급 휴가 사용률이 40%대에 불과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과중한 업무 부담, 직장의 관행, 대체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연·월차 휴가 사용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월차 휴가 제도가 제대로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대체 휴일제가 필요함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은 (나)를 적절히 활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확인: 휴일 증가로 인한 국가 경제적 손실

(보기 1)의 (가)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는 기업의 생산력 감소가 원인이 아니라 국내 소비 감소 추세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 했다. 따라서 대체 휴일제 시행이 가져올 소비 활성화 효과보다 기업의 생산력 손실이 더 커서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은 (가)를 적절히 활용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

㉡ 확인: 연·월차 휴가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음

(보기 1)의 (나)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연·월차 휴가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은 연·월차 휴가 제도가 이미 잘 활용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굳이 대체 휴일제까지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은 (나)를 적절히 활용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

4. 화법의 성격과 요소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란 대화 참여자들이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은 대화 참여자가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나타낸 것이고, 다른 대화 참여자도 이에 대해 쉽게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대화 참여자 간에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화제 선택에 제약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비언어적 표현

표정이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이 고민거리가 있다고 짐작하고 있다.

② 확인: 상대방의 발언을 유도

상대방의 고민을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에게 고민을 말해 보라고 유도하고 있다.

③ 확인: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

상대방이 진로에 대한 화제를 제시하자, 대화 참여자는 상대방이 몇 달 전부터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⑤ 확인: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

대화 참여자는 '많이 답답한 모양이구나.'라며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한 후에, 상대방과 같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5. 이어질 내용 생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진로 지도를 전담하시는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

'나 같아도 진로가 결정이 안 되면 참 힘들었을 거야.'라고 하여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 다음에 '그런데 우리는 인생 경험이 많지 않은 데다가 전문적 지식도 없기 때문에 혼자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라고 하여 상대방이 혼자서 진로를 결정하려는 것의 결과를 예상하여 보여 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러니 학교에서 진로 지도를 전담하시는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네가 혼자서 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아.

'네가 며칠 더 고민한다고 해도 진로를 결정할 수는 없어.'라고 하여 결과의 예상만 제시하고 있다.

② 확인: 지금까지 네가 혼자서 고민했지만 결국 해결이 안 되었잖니?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으니 정말로 답답할 거야.'라고 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그런데 진로 문제라는 게 혼자서 고민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라고 하여 결과의 예상만 제시하고 있다.

③ 확인: 인생은 결국 자신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니?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헤쳐 나가려는 정신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해.'라고 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인생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라고 하여 대안만 제시하고 있다.

④ 확인: 너는 항상 모든 것을 혼자서만 결정하려는 게 문제야.

'특히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고민을 해도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라고 하여 결과의 예상되는 점과, '우리 지역에 있는 진로 지도 센터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좀 더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라고 하여 대안만 제시하고 있다.

[작문 6~10]

6. 내용 조직의 적절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원인과 해결 방안의 관계 고려

'II-1-나'에서 문제의 원인으로 '일부 허위·과장 광고에 의해 고카페인 음료를 '에너지 음료'로 오인'하는 것을 지적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런 허위·과장 광고의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㉔은 적절하다. 고카페인 음료 광고가 청소년 구매 유도에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으므로 ⑤는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글의 유형과 내용 고려

논설문이라는 글의 유형과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 실태와 그것의 원인, 해결 방안, 문제의 개선 촉구를 주장하는 글의 내용 흐름을 고려할 때, ㉑의 주제문을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② 확인: 하위 항목과 결론의 제시 방법

서론의 하위 항목이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음용 빈도'이고, 결론은 'III. 결론: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 문제의 개선 촉구'와 같이 하위 항목에 들어갈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므로 하위 항목의 내용과 결론 제시 방법을 고려해 ㉒을 'I. 서론: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 실태'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③ 확인: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의 관계 고려

청소년들이 고카페인 음료를 과다 섭취하는 문제의 원인이 제시되어야 할 항목에 '국내에 유통 중인 고카페인 음료의 종류 및 가격 파악'이라는 ㉔의 내용은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확인: 원인과 해결 방안의 관계 고려

㉔은 카페인에 대해 무엇을 교육한다는 것인지 막연하기도 하고 'II-1-가'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㉔을 'II-1-가'의 내용을 고려하여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필요'로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하다.

7.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국내 고카페인 음료 판매 관리 정책의 보완 방안

'II-2-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해야 하므로 '고카페인 음료 판매 관리 정책의 보완 필요'와 관련된 내용의 글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자료를 모두 활용해야 하므로 '자료 1'을 통해 청소년의 경우 어른보다 고카페인 음료 섭취 문제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자료 2'와 '자료 3'을 통해 학생들의 고카페인 음료 구매 경로를 참고했을 때 현재 학교 매점에서만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카페인 음료 관리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므로 외국의 경우처럼 판매 금지나 제한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모두 활용한 ⑤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자판기에서의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자료 2'의 내용을 보면, 자판기보다도 일반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고카페인 음료를 구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판기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확인: 고카페인 음료 생산 제한

(보기)의 자료는 청소년들이 편의점이나 자판기에서 쉽게 고카페인 음료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과 현재 고카페인 음료 판매 관리 정책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 되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고카페인 음료 자체의 생산을 부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더구나 ‘자료 2’는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③ 확인: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 홍보

‘자료 1’을 활용하여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 문제가 어른들의 경우보다 청소년들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은 좋지만, ‘자료 2’와 ‘자료 3’의 내용이 전혀 활용되지 않았으며 ‘11-2-다’의 내용으로도 볼 수 없다.

④ 확인: 고카페인 음료 섭취 자체 노력

일반 편의점이나 자판기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 한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구매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자료 2’를 활용한 판단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자체하려는 청소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11-2-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자료 1’과 ‘자료 3’은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

8.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문제 상황이 발생한 원인 제시

본문 첫 문단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기사 내용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표제

표제의 내용에서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 워킹맘들이 아이돌보미를 구하기 어렵다는 주요 내용이 압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② 확인: 표제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부제

부제에 아이돌보미 시급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표제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확인: 기사문 내용을 요약적으로 소개하는 전문

전문에서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 워킹맘들이 아이돌보미를 구하기 어렵다는 본문의 주요 내용이 요약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⑤ 확인: 설문 조사 자료를 제시하여 기사 내용의 신뢰도를 높임
본문에서 여성 가족부가 조사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기사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9. 글쓰기 전략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확인: 공간적인 순서

2문단에서 ‘학교 폭력이 과거에는 단순히 신체 혹은 재산상의 피해만을 의미했습니다.’와 ‘현재는’이라고 하여 학교 폭력이 과거에 비해 심각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교 폭력의 변화이지 공간의 순서에 따른 변화는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사례를 서두에 제시

1문단의 ‘모범생이었던 중학생 K군은 갑자기 우울해지고 성적이 떨어졌으며, 학교에 가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고 엄마를 밀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확인: 가해자가 되는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

3문단의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확인: 자료의 출처를 밝힘

4문단의 ‘2012년에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에서 조사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확인: 매체 특성을 고려

5문단의 ‘지금 혹시 학교 폭력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스톱불링을 누르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확인: 문장의 접속 관계

현재의 학교 폭력이 과거에 비해 심각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그뿐만 아니라’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를 ‘그렇다면’으로 고쳐도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확인: 피동 표현

‘확대되어지고’는 피동이 중복 사용된 것이므로 ‘확대되고’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③ 확인: 단어의 쓰임

‘발발’은 ‘전쟁이나 큰 사건 따위가 갑자기 일어남.’이라는 의미로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남.’을 의미하는 ‘발생’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확인: 글의 흐름

3문단에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요인을 세 가지로 나누고 두 가지를 설명했으므로 나머지 한 가지 요인인 @을 3문단의 맨 뒤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⑤ 확인: 호응 관계

‘같았습니다’는 ‘그 이유는’과 호응되지 않으므로 ‘같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문법 11~16]

11.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확인: ㉠ 만만치, ㉡ 섬섬지

[보충 설명]을 통해 어간 끝음절 ‘하’ 앞의 받침이 울림소리인 경우는 제40항 본항, 안울림소리인 경우는 제40항 [붙임 2]의 적용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만만하지’의 경우 ‘하’ 앞의 받침은 ‘ㄴ’이고 이는 울림소리이므로 ‘만만하지’의 준말은 제40항 본항에 따라 ‘만만치’임을 알 수 있다. ‘섬섬하지’의 경우 ‘하’ 앞의 받침은 ‘ㅂ’이고 이는 안울림소리이므로 ‘섬섬하지’의 준말은 [붙임 2]에 따라 ‘섬섬지’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어간 끝음절 ‘하’ 앞이 모음인 경우에도 제40항 본항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연구하도록’의 준말은 ‘연구토록’이다.

12. 조사의 올바른 쓰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보조사 ‘이나’의 의미

(a)에 쓰인 보조사 ‘이나’는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을 표현할 때 쓰는 보조사이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보조사 ‘은’의 의미

보조사 ‘은’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적절하다.

② 확인: 보조사 ‘만’의 의미

보조사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적절하다.

③ 확인: 보조사 ‘도’의 의미

보조사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한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④ 확인: 보조사 ‘도’와 조차’의 의미

보조사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한다는 뜻을 나타내며, ‘조차’는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극단의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뜻을 나타낼 때 쓴다. 그러므로 ‘너도 나를 배신했다.’를 ‘너조차 나를 배신했다.’라고 바꿔 표현하면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던 너까지 나를 배신했다는 뜻을 더할 수 있다.

13. 표준 발음법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확인: 겹받침 ‘ㄹ’의 발음

제11항에 따르면 겹받침 ‘ㄹ’은 자음 앞에서는 [ㄹ]으로, 용언의 어간 말음일 때는 ‘ㄹ’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따라서 ‘읽고’에서 ‘읽’은 [일]로, ‘밝지’에서 ‘밝’은 [박]으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겹받침 ‘ㄹ’의 발음

‘읽고’의 경우 ‘ㄹ’ 뒤에 자음이 이어지므로 제11항에 따라 ‘읽’은 [일]으로, ‘읽은’의 경우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이어지므로 제13항에 따라 [을픈]으로 발음해야 한다.

③ 확인: 받침 ‘ㅍ’의 발음

‘앞쪽’의 경우 ‘ㅍ’ 뒤에 자음이 이어지므로 제9항에 따라 [압쪽]으로, ‘무릎을’의 경우 ‘ㅍ’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이어지므로 제13항에 따라 [무르플]로 발음해야 한다.

④ 확인: 겹받침 ‘ㄹ’의 발음

‘드넓은’의 경우 ‘ㄹ’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이어지므로 제13항에 따라 [드넵븐]으로, ‘밝지’의 경우 ‘ㄹ’ 뒤에 자음이 이어지므로 제10항에 따라 ‘밝’은 [박:]으로 발음해야 한다.

⑤ 확인: 겹받침 ‘ㄹ’의 발음

‘엷고’의 경우 ‘ㄹ’ 뒤에 자음이 이어지므로 제10항에 따라 ‘엷’은 [언]으로, ‘얕아라’의 경우 ‘ㄹ’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이어지므로 제13항에 따라 [안자라]로 발음해야 한다.

14.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확인: 용례

‘잔치가 겹다’라는 것은 잔치에 음식의 가짓수가 많고 푸짐하다는 의미이므로, ‘겹다’ ㉠의 용례로는 적절하지 않고 ‘겹다’ ㉡의 용례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동음이의어

발음은 같지만 별개의 표제어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동음이의어라는 것을 의미한다.

③ 확인: 반의어

‘폴다’는 ‘묶이거나 감기거나 얹히거나 합쳐진 것 따위를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되게 하다.’라는 의미이므로 ‘겹다’의 반의어

로 사용될 수 있다.

④ 확인: 문장의 의미

베틀은 삼베, 무명, 명주 따위의 피륙을 짜는 틀로, ‘베틀에 삼베를 겹다’에는 ‘베틀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삼베를 준비하여 놓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⑤ 확인: 문장 성분

‘... 에 ... 을’로 보아 주어 이외에도 두 개의 문장 성분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높임 표현의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막냇삼촌

화자인 ‘아버지’ 입장에서는 ‘막냇삼촌’이 동생이기 때문에 높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다. 그런데 청자인 ‘딸’ 입장에서는 ‘막냇삼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즉 청자와 대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찾아뵙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대상을 높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할머니

화자인 ‘누나’의 입장에서 ‘할머니’는 당연히 높여야 하는 대상이다.

② 확인: 대상의 확인

말하는 대상인 ‘딸’을 높이지 않았다.

③ 확인: 회장

화자인 ‘상사’ 입장에서는 ‘회장’이 당연히 높여야 하는 대상이다.

⑤ 확인: 대상의 확인

말하는 대상이 제시되지 않았다.

16.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관형격 조사

‘중취’는 현대어 풀이를 참고하면 ‘중후가’로 풀이된다. 따라서 ‘중취’는 ‘중후’에 주격 조사 ‘쪽’가 붙어 축약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① 확인: 끊어 적기, 거듭 적기

‘사름이니’는 ‘사람이니’와 같이 음절 끝 자음을 다음 모음으로 이어 적지 않고 끊어 적고 있으므로 끊어 적기로 쓴 표기이다. 또 ‘도적글’의 경우 ‘ㄱ’을 앞 음절의 종성으로 적고 또 뒤 음절의 초성으로도 적는 거듭 적기가 나타나 있다.

② 확인: 구개음화

‘티다가’를 보면 ‘쪽’ 앞에서 ‘ㅌ’이 ‘ㄷ’으로 구개음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확인: 두음 법칙

‘뉴핑노’, ‘닐와다’를 보면 ‘ㄴ’나 ‘쪽’ 모음 앞의 ‘ㄴ’이 탈락되지 않았으므로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확인: 부사격 조사

‘안영으로’는 ‘안영과’로 풀이되어 있다. 즉 ‘으로’가 지금의 공동 부사격 조사 ‘와/과’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회

1. ⑤ 2. ④ 3. ⑤
4. ③ 5. ⑤ 6. ④
7. ③ 8. ④ 9. ⑤
10. ① 11. ③ 12. ④
13. ④ 14. ④ 15. ⑤
16. ③

1. 면접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기회 제공

은표는 슬기가 자신의 질문에 대해 당황하자 ‘괜찮으니 당황하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확한 답변을 할 때까지 여러 번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면접 방식

‘지원자가 많아 두 명이 한조를 이루어 면접이 진행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 드렸지요?’에서 알 수 있다.

② 확인: 면접 질문

‘우선 우리 동아리에 지원한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아리의 구성원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에서 알 수 있다.

③ 확인: 추가 질문

‘또래 상담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에서 알 수 있다.

④ 확인: 격려

‘(웃으며) 괜찮으니 당황하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에서 알 수 있다.

2. 면접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개방형 질문

[B]에서 은표는 ‘민성 님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라고 하며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답변이 가능한 개방형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여러 가지 종류의 질문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② 확인: 답변을 회피

슬기는 은표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다.

③ 확인: 근거 요구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⑤ 확인: 질문의 의도 파악

민성은 은표의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하게 답변하고 있다.

3. 면접의 적절성, 전략 평가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장황한 답변

은표의 질문에 대해 슬기는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고민을 들어 주는 따뜻한 상담자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상담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겠지요.’라고 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장황한 답변을 늘어놓아 민성이 대답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면접 태도

‘(당황한 표정으로 들고 있던 수첩을 넘겨 보면서) 그게 ..., 저 ...’에서 알 수 있다.

② 확인: 충실한 답변

‘선배들로부터 ‘우리 사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우리 동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더 있는지요?’라는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확인: 질문 내용 이해

‘네, 저는 고민이 있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보다는 친구들과 상담하는 편입니다. 친구들이 성적, 이성 관계 등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또래 상담 동아리 친구에게 받았던 것 같은 도움을 주는 상담자가 되고 싶어요.’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확인: 다른 지원자에 대한 태도

‘(슬기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지 10년이나 된 역사 깊은 동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담한 내용을 모아 분기별로 책자를 내고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에서 알 수 있다.

4. 화법 요소의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평가가 옳은지 확인

지우가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아이들이 많이 떠드는 것 같아.’라고 하자, 이를 받아 윤서가 ‘하긴, 우리 반 아이들이 자습 시간에 떠들긴 하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지우의 말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옳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지우가 한 말을 일부 반복하여 동조의 뜻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비언어적 표현

표정이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 있다고 짐작하고 있다.

② 확인: 대화 참여자 간의 친밀한 관계

상대방과 친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④ 확인: 공감을 표현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⑤ 확인: 매체의 적절한 활용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학급 홈페이지라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다.

5. 이어질 내용 생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성적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

성적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점심시간에 시간을 아껴가며 자습을 한다는 점을 제시하라고 하여 청중과 공유하는 점을 밝히라고 제안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자신이 자습 시간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상황만 드러낸 것이다.
- ② 확인: 집중하는 정도와 성적이 향상되는 정도
자습 시간의 집중도와 성적 향상과의 비례에 대한 발언이 청중과 공유하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 보기 어렵다.
- ③ 확인: 자습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다
시끄러워서 자습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발언은 현재의 상황을 제시한 것으로, 시끄럽게 떠돌고 있는 청중과 공유하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 ④ 확인: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감정에 호소
자신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감정에 호소하는 발언 자체가 청중과 공유하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 보기 어렵다.

[작문 6~10]

6. 내용 조직의 적절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상위 항목과의 어울림
‘에너지 생산의 비용이 적게 들.’은 ‘석탄 화력 발전과 관련한 문제점 해결 방안’이라는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II-1’의 ‘석탄 화력 발전과 관련한 문제점’이라는 하위 항목으로도 어울리지 않으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하위 항목 포괄
‘석탄 화력 발전의 전력 생산 비중’과 ‘석탄 화력 발전 시설의 수와 설치된 지역’은 ‘석탄 화력 발전의 전력 생산 실태’라는 상위 항목으로 묶기에 적절하다.
- ② 확인: 유사한 내용 통합
‘이산화탄소를 과도하게 발생시켜 공기가 오염됨.’은 대기 오염에 해당하므로 ㉠과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확인: 해결 방안 제시
‘관련 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함.’이 석탄 화력 발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확인: 결론 내용의 적합성
본론에서 주로 석탄 화력 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현재의 결론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7.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확인: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
‘(가)-2’와 (나)를 활용하여 ‘II. 본론’에서 주민들이 석탄 화력 발전소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것임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가)-1’과 (나)만으로는 이끌어 내기 어렵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전력 생산 비중
‘(가)-1’에서 우리나라 전력 생산 비중에서 석탄 화력 발전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② 확인: 이산화탄소 처리
석탄을 활용한 발전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으므로 이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확인: CCS의 역할
외국의 경우도 CCS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설치를 늘리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 ⑤ 확인: CCS 관련 연구
외국의 경우 연구 센터를 설립해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므로 연구의 필요성을 촉구할 수 있다.

8. 내용 생성의 적절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통계 자료
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을 뿐 통계 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건의문을 작성하는 사람, 정중한 태도
‘저는 교지 편집부의 회장 김은미입니다.’라고 건의문을 작성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 ② 확인: 건의할 내용
‘다름이 아니고 동아리 방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에서 건의할 내용을 밝히고 있다.
- ③ 확인: 대안 제시
‘교지 편집부는 화·목요일, 밴드부는 월·수·금요일에 모임을 한다면’에서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확인: 문제 해결의 효과
‘밴드부에서도 마음놓고 큰 소리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동아리도 회의를 원활히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에서 효과를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글쓰기 전략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확인: 친숙한 대상,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 자신의 인식 변화를 제시한 후에 다짐으로 마무리
안데르센 동화라는 친숙한 대상을 제시하면서 글을 시작했고(ㄱ), ‘다윈, 실러, 헨델, 모차르트, 슈베르트’ 등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을 제시하여 글에 신뢰감을 주었다(ㄴ). 또한 ‘그러고 보면 역경이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나도 내가 처한 역경을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공의 원동력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하여 역경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변화를 제시한 후에 다짐으로 마무리했다(ㄷ).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ㄴ. 확인: 정의의 방식을 사용
역경에 대한 개념을 정의의 방식으로 제시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확인: 문장 성분의 호응
‘읽어 보았다’를 ‘읽었다’로 고쳐도 ‘한번쯤은’과 호응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읽어 보았을 것이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확인: 문단을 자연스럽게 연결
2문단은 1문단의 내용과 상반되고 있다. 따라서 ‘그리고’보다는 ‘그러나’ 정도가 적절하다.
- ③ 확인: 단어의 사용
‘굴절’은 ‘생각이나 말 따위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 본래의 모습과 달라짐.’이라는 의미로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이리저리 굽어 꺾여 있음.’을 의미하는 ‘굴곡’이 적절하다.
- ④ 확인: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
안데르센이 주옥같은 동화를 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질문은, 163편에 이르는 많은 동화책을 썼다는 사실과 어울리지 않고, ‘그러자 안데르센은 ~ 대답했다.’의 내용과 어울린다.
- ⑤ 확인: 어문 규정
‘-든’은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어떤 일이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다는 미완(未完)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인 ‘-던’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문법 11~16]

11. 높임 표현의 적절성 평가

-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확인: 높이는 대상이 불명확
ㄴ은 ‘웃’을 높이고 있어 잘못된 높임 표현의 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높이는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기 1)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을 높여야 하는데 사물을 높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자신을 높임
‘저는 ~ 노력 중입니다.’라고 하며 자신을 높이고 있다.
- ② 확인: 사물을 높임
‘주문한 음식 나오셨습니다.’라고 하며 사물인 음식을 높이고 있다.
- ④ 확인: 잘못된 호칭어 사용
‘이모’는 친족 간에 쓰는 호칭어로, 자신보다 어린 종업원을 부르는 호칭어로 적절하지 않다.
- ⑤ 확인: 종결 어미를 잘못 결합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와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인 ‘-ㄹ게’가 잘못 결합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ㄹ게’는 타인의 행동에 대해 쓰면 어색하다.

12.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서술어와의 호응 문제
d는 ‘좋아하다’의 주체가 ‘그’와 ‘어떤 사람’ 모두가 되어 중의성을 갖게 된 문장이다. ‘좋아하다’의 주체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고치려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좋아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서술어와의 호응 문제
a는 ‘나’도 ‘영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 ② 확인: 서술어와의 호응 문제
b는 ‘나’가 ‘이모’와 ‘이모부’를 동시에 만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③ 확인: 수량사 사용의 문제
c는 연필 한 개와 지우개 두 개를 주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 ⑤ 확인: 수식어, 피수식어의 관계
e는 ‘그녀’가 아름다운지, ‘그녀의 동생’이 아름다운지 명확하지 않다.

13. 표준 발음법 적용

-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물난리’는 [물날리]로 발음
제20항을 통해 [물날리]로 발음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않는’은 [안는]으로 발음
제12항의 3. [불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② 확인: ‘끓는’은 [끓른]으로 발음
제12항의 3. [불임]과 제20항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확인: ‘할네’는 [할레]로 발음
제20항의 [불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⑤ 확인: ‘천리’는 [철리]로 발음
제20항을 통해 알 수 있다.

14. 높임 표현 파악

-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듣는 이, 주체, 객체
㉠에서는 ‘있대요’라고 하여 듣는 이인 ‘아버지’가, ㉡에서는 ‘주시었다’라고 하여 용돈을 주는 주체인 ‘할머니’가, ㉢에서는 ‘여쭙어’라고 하여 객체인 ‘선생님’이 각각 높임을 받고 있다.

15. 시제 표현 파악

-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확인: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
날이 가물어서 올해 농사는 이미 망쳤다는 의미이므로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사용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값이 많이 올랐다.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② 확인: 이미 밥을 먹었다.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확인: 강물이 많이 불었다.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확인: 어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았다.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고 있다.

16.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확인: 가획의 원리
(보기)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발음 기관을 고려
‘입술소리’라는 말로 보아 입술 등과 같은 발음 기관을 고려한 글자임을 알 수 있다.
- ② 확인: 병서
a의 ‘뽕’의 용례를 통해 해당되는 글자를 나란히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확인: 초성, 중성
초성에 쓴 말을 중성에 다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확인: 초성, 중성, 종성
a의 ‘처음 펴서 나는 소리’, b의 ‘가운데 소리’, c의 ‘나중의 소리’는 각각 초성, 중성, 종성을 의미한다.

3회

- | | | |
|-------|-------|-------|
| 1. ⑤ | 2. ① | 3. ② |
| 4. ⑤ | 5. ③ | 6. ④ |
| 7. ③ | 8. ④ | 9. ② |
| 10. ④ | 11. ⑤ | 12. ③ |
| 13. ④ | 14. ④ | 15. ① |
| 16. ④ | | |

1. 토론 참여자의 역할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확인: 상대의 주장을 예상하여 논박함
반대 2는 ‘찬성 측의 그러한 주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라고 하면서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해 찬성 측의 주장을 논박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토론의 배경과 논제 소개
사회자는 학생들의 봉사 활동을 입시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자는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며 토론의 배경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의 봉사 활동을 점수화해야 한다.’라는 논제를 밝히고 있다.
- ② 확인: 토론자의 토론 내용 요약 및 정리
사회자는 토론 순서를 지정해 주고 있을 뿐 토론자의 토론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
- ③ 확인: 논제에서 벗어난 내용에 대한 주의
토론 참여자들은 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사회자도 논제에서 벗어난 내용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지는 않다.
- ④ 확인: 상대의 발언 인정
찬성 2는 반대 1이 말한 ‘봉사 활동을 하는 동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2. 논거의 특성과 기능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확인: 자신의 주장과 연관성이 없는 근거
찬성 1은 봉사 활동 점수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등학생의 여가 시간 부족을 근거로 봉사 활

동에 대한 동기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과 연관성이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확인: 좀 더 다양한 사례 제시
찬성 2는 다큐 프로그램의 사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사례에 해당되므로 좀 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면 주장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③ 확인: 주장과 관련된 내용 인용
반대 1은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④ 확인: 사실 논거
사실 논거는 일반화된 지식과 정보,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 정확한 통계 수치 등을 의미한다. 반대 2는 설문 조사 결과의 정확한 통계 수치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확인: 논거의 신뢰성
설문 조사의 조사 대상과 표본 수를 명확히 밝힐 때, 논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반대 2는 설문 조사의 조사 대상과 표본 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3. 토론 유형과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확인: 반대 측의 주장을 반박
반대 2가 제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는 학생들이 봉사 활동의 참된 의미를 잊은 채로 봉사 활동을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봉사 활동의 참된 의미를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봉사 활동의 점수화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교육이 수행될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 ① 확인: 체험 활동을 대학 입시에 반영함
체험 활동을 대학 입시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은 논제에서 벗어난 내용에 해당한다.
- ③ 확인: 봉사 활동 참여 활성화
자발적인 봉사 활동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면 굳이 봉사 활동을 점수화할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자발적인 봉사 활동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음은 찬성 측이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④ 확인: 봉사 활동 점수화의 긍정적 효과
봉사 활동 점수화의 긍정적 효과는 찬성 측의 의견으로 적절하다.
- ⑤ 확인: 의무적 봉사 시간을 늘려야 함
학생들의 의무적인 봉사 활동 시간을 늘리는 것은 찬성 측의 의견으로 적절하다.

4. 화법의 특성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확인: 완곡하고 우회적인 거절
수행 평가 보고서를 아직 다 못 썼다는 준석의 말은 공원에 놀러 가자는 혜연의 말에 대한 완곡하고 우회적인 거절로 해석할 수 있다. 거절의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대신 거절의 뜻을 완곡하고 우회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직접적인 거절
그날은 어렵겠다는 준석의 말은 축제 보러 오라는 혜연의 말에

대한 직접적인 거절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확인: 직접적인 거절

가기 힘들 것 같다는 준석의 말은 영화 보러 가자는 혜연의 말에 대한 직접적인 거절에 해당한다.

③ 확인: 자신의 상태 설명

준석의 말은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말로 볼 수 있다.

④ 확인: 거절이 아닌 표현

준석의 말은 혜연의 말에 대한 거절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5. 말하기 방식 추론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과거와 현재의 대조

영호는 '고민이 뭐니?'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답하여, 자신의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선생님께 설명하고 있는데,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언급

내일이 시험인데 미처 못 한 공부가 많다는 것은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확인: 상대방과 생각이 유사하다는 것

선생님은 집보다는 학교에서 공부가 더 잘되는 것 같다는 영호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유사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④ 확인: 요약물 통한 반응

㉔은 자신이 좋아하는 국어, 영어 성적은 원하는 만큼 나오는데, 자신이 싫어하는 수학, 과학 성적은 늘 불만족스럽다는 영호의 말을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확인: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

좋아하는 과목에만 공부가 치우치지 않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영호가 처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안된 것이다.

[작문 6~10]

6. 내용 생성의 적절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외부인에게도 개방

'(나)-1'은 대부분의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고, '(다)-1'은 도서관에 전문 인력이 없어서 학생들이 도서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외부인에게 도서관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논의의 필요성

(가)에서 학교 도서관이 현대화 사업을 했음에도 단순한 '도서 대여점'의 역할만 한다는 문제점과 독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을 지적할 수 있다.

② 확인: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부재

(가)에서는 학교 도서관이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며,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며, '(나)-2'에서는 사서 교사 배치 현황이 저조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확인: 독서 프로그램 개발

(가)에서는 학교 도서관이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

수업과 도서관을 연계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다)-2'에서는 도서관의 특색을 살리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 수 있다.

⑤ 확인: 사서 교사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

'(나)-2'에서는 사서 교사 배치 현황이 저조한 통계 자료를 통해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고, '(다)-3'에서는 사서 교사를 충원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사서 교사의 임금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1: 문제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속담

'빛 좋은 개살구'는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띠고 있지만 맛은 없는 개살구라는 뜻으로,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학교 도서관이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시설은 좋아졌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이 어울린다.

확인 2: 구체적 해결 방안

해결 방안으로 (가)에서는 학교 수업과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의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1: 문제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속담

'개 발에 편자'는 옷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제격에 맞지 아니하여 어울리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주제에 어울리는 적절한 속담이 아니다.

확인 2: 구체적 해결 방안

학교 도서관이 도서 대여점에서 벗어나는 것은 해결 방안을 실행해서 얻게 되는 결과에 해당한다.

② 확인 1: 문제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속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나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여기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속담이 아니다.

확인 2: 구체적 해결 방안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④ 확인 1: 문제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속담

'찬물에 기름 돌듯'은 서로 화합하여 어울리지 아니하고 따로 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주제에 어울리는 적절한 속담이 아니다.

확인 2: 구체적 해결 방안

전문 인력의 부족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지, 해결 방안이 아니다.

⑤ 확인 1: 문제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속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는 일이 몹시 급하여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추어 일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주제에 어울리는 적절한 속담이 아니다.

확인 2: 구체적 해결 방안

독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은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해당한다.

8.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더 알고 싶은 점

글의 내용을 보면 '제주도'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여행지를 정하는 과정

글쓴이는 얼마 전에 다룬 친구와 화해하기 위해 여행을 갈 만한 장소를 찾다가 텔레비전에 방영된 제주도를 알게 되어 여행을 가고 있다.

② 확인: 여행지의 특성과 여행의 의의

글쓴이는 밀물과 썰물로 바닷길이 열리는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을 언급하며 여행을 통해 친구와 화해하기를 바라고 있다.

③ 확인: 여행지에서 보고 들은 내용

글쓴이는 제주도 주민의 말과 파도, 갈매기, 전망대 등 여행지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⑤ 확인: 여행을 통해 얻은 유익한 점

글쓴이는 여행을 다녀오면서 친구와 이전보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며 여행을 통해 얻은 유익한 점을 언급하고 있다.

9. 글쓰기 전략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확인: 광고의 의미 해석, 문제의식 제시, 자신의 견해를 드러냄

'과제의 초고'를 보면, 글쓴이는 1문단에서 해당 공익 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해석하고, 2, 3문단에서 문명의 도구가 오히려 흥기로 변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한 다음, 4문단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구로 인터넷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광고에 대한 다양한 해석

'과제의 초고'에서 해당 공익 광고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확인: 일화를 언급하면서 주의를 환기

'과제의 초고'에서는 해당 공익 광고와 관련된 일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확인: 광고가 다루는 화제에 대한 통념 반박

'과제의 초고'에서는 해당 공익 광고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광고가 다루는 화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통념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대해 반박하고 있지 않다.

⑤ 확인: 광고의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언급

'과제의 초고'에서는 해당 공익 광고가 사회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글의 통일성 유지에 대한 판단

㉞은 바로 앞 문장인 '우리는 인터넷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와 내용상 관련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㉞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주술 호응을 고려

'이 광고는'이라는 주어를 고려해 볼 때, '거듭해 왔다'가 아닌 '거듭해 왔음을 보여 준다'가 더 적합한 서술어로 쓰일 수 있을 것을 알 수 있다.

② 확인: 내용상 흐름을 고려

내용상 흐름으로 보아 커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커서가 곧 인터넷을 상징한다는 것을 언급해야 자연스럽다.

③ 확인: 중복된 피동 표현 고치기

'전개되어졌을까'에서는 중복된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전개되었을까'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확인: '다르다'와 '틀리다'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라는 의미이므로, ㉞은 '달라질'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문법 11~16]

11. 표준어 규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개구장이'와 '개구쟁이'

(보기)에 제시된 규정의 [붙임 2]를 보면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고 했다. '개구쟁이'는 기술자가 아니므로, '개구쟁이'로 쓰는 것이 맞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아기'와 '애기'

'ㅣ'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확인: '-내기'와 '-나기'

'ㅣ'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내기'의 경우는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내기'의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③ 확인: '아지랑이'와 '아지랭이'

'ㅣ'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데, '아지랑이'가 표준어이고 '아지랭이'는 표준어가 아니므로 '아지랭이'는 'ㅣ'역행 동화가 일어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④ 확인: '가구장이'와 '가구쟁이'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구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가구장이'는 기술자이므로 '가구쟁이'라고 쓰면 안 된다.

12.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적합하다'의 자릿수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 이외에 목적어 또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를 말한다. '적합하다'는 '날씨는'이라는 주어 이외에 '운동하기에'라는 부사어가 있어야 문장이 성립되므로 두 자리 서술어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아니다'의 자릿수

'아니다'는 주어('이것은')와 보어('문제가')를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② 확인: '예쁘다'의 자릿수

'예쁘다'는 주어('꽃들이')만을 필요로 하므로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④ 확인: '주었다'의 자릿수

'주었다'는 주어('그는'), 목적어('것을'), 부사어('친구에게')를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⑤ 확인: '이탈했다'의 자릿수

'이탈했다'는 주어('우주 왕복선이'), 목적어('궤도를')를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13. 다의어의 의미 확장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공간 → 시간 → 추상

'계곡이 깊은 곳에 있어서 찾기 쉽지 않다.'에서 '깊은'은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밤이 깊어서 앞이 잘 안 보인다.'에서 '깊어서'는 시간의 의미를 지니며, '여기서 또 만나다니 우리는 참 인연이 깊구나.'에서 '깊구나'는 추상적 의미를 지닌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기본적 의미 → 비유적 의미 → 관용적 의미

'토끼는 앞발이 짧다.'에서 '짧다'는 기본적 의미를 지니고, '그는 외국어 실력이 짧다.'에서 '짧다'는 비유적 의미를 지니며, '우리 집 양반은 입이 짧다.'에서 '짧다'는 관용적 의미를 지닌다.

② 확인: 사람 → 동물 → 무생물

'아이가 밥을 _먹었다._ → 사과에 벌레가 많이 _먹었다._ → 종이가 기름을 _먹어서_ 가볍지 않다.'에서는 '사람 → 동물 → 무생물'의 의미 확장 양상이 나타난다.

③ 확인: 액체 → 자료 → 시간

'시냇물이 _흘러간다._ → 자료가 어떤 경로로 그에게 _흘러갔는지_ 꼭 밝혀야 한다. → 세월이 참 빨리도 _흘러간다._'에서는 '액체 → 자료 → 시간'의 의미 확장 양상이 나타난다.

⑤ 확인: 물리적 위치 → 사회적 위치 → 심리적 위치

'그는 아무도 없는 달린 방 안에 _있다._ → 그는 '부장'이라는 중요한 위치_에 있다._ → 그의 나직한 목소리는 아작도 내 마음속_에 있다._'에서는 '물리적 위치 → 사회적 위치 → 심리적 위치'의 의미 확장 양상이 나타난다.

14. 단어의 구조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어간과 어미의 변화

'하얏-'이 어미 '-아'와 결합하면 어간 '하얏-'이 변할 뿐만 아니라 어미 '-아'도 변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어간의 모음이 탈락

'쓰-'가 어미 '-어'와 결합하여 '써'가 되는 과정에서는 '쓰-'의 모음 '-이'가 탈락한다.

② 확인: 어간의 변화

'긋-'이 어미 '-어'와 결합하여 '그어'가 되는 과정에서는 '긋-'이라는 어간이 변화한다.

③ 확인: 어미의 변화

'하-가 어미 '-아'와 결합하여 '하어'가 되는 과정에서는 어미 '-아'가 '-여'로 변화한다.

⑤ 확인: 어간과 어미의 불변

'잡-'이 어미 '-아'와 결합하여 '잡아'가 되는 과정에서는 어간 '잡-'과 어미 '-아' 모두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15. 명령문의 특성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확인: 명령문의 주어

'너 저기 가서 내 가방 좀 가져와.'에서 주어는 2인칭 청자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명령문의 주어는 2인칭 청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확인: 형용사의 제약

'커라'는 형용사 '크다'의 어간 '크-'와 '-어라'의 결합형으로, '커라'가 비문법적인 것으로 보아 형용사는 명령형으로 만들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확인: '-겠-'이나 '-았/었-'과의 결합의 제약

'공부하겠어라', '왔어라'가 비문법적인 것으로 보아, 명령형 어미가 '-겠-'이나 '-았/었-'과 결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④ 확인: 인용절의 명령형 어미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골고루 먹으라고 했다.'라는 문장에서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골고루 먹으라고'는 인용절에 해당한다. 이때 '-(으)라'가 인용절의 명령형 어미로 쓰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확인: '말다'의 활용형

'너무 걱정하지 마라.'는 부정 명령에 해당하는데, '마라'는 '말다'의 활용형에 해당한다.

16. 국어의 변천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

㉠에서는 '북'과 '애'의 결합형을 '북애'로 적었고, ㉡에서는 '高麗人:사·롬'과 '이어시·니'의 결합형을 '高麗人:사·롬·이어시·니'로 적었으므로, ㉠과 ㉡ 모두 이어 적기에 해당한다. ㉠은 '별이오'와 같이 형태소를 분리하여 적었으므로 끊어 적기에 해당하고, ㉡은 '漢人말을'과 같이 적었으므로 끊어 적기에 해당한다.

4회

- | | | |
|-------|-------|-------|
| 1. ④ | 2. ⑤ | 3. ② |
| 4. ④ | 5. ③ | 6. ④ |
| 7. ④ | 8. ⑤ | 9. ① |
| 10. ① | 11. ② | 12. ④ |
| 13. ① | 14. ① | 15. ① |
| 16. ③ | | |

1. 사회자의 역할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

토론자가 상대측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할 때 발언에 주의를 주는 것은 사회자의 역할 중 하나이다. 제시된 토론에서는 상대측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토론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자는 이러한 발언에 주의를 줄 필요가 없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발언 요약

사회자는 두 번째 발언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요약하고 있다.

② 확인: 토론 주제 소개

사회자는 첫 번째 발언에서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과 토론의 주제를 소개하고 있다.

③ 확인: 발언 순서 지정

사회자의 두 번째 발언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먼저 반론해 주십시오.’에서 토론자의 발언 순서를 지정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확인: 논제에서 벗어난 발언에 대한 주의

사회자는 마지막 발언에서 논제에서 벗어난 발언 내용에 대해 주의를 주고 있다.

2. 토론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1: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

반대 2는 휴대 전화를 학교에서 수거했을 경우 관리 소홀로 휴대 전화를 분실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변상해야 하는데, 학교가 일방적으로 그러한 부담을 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확인 2: 휴대 전화기 소지 금지 규정 폐지에 대한 학교의 입장
반대 2는 학교에서 휴대 전화기 소지 금지 규정 폐지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수업 방해

반대 1은 수업 방해를 근거로 논제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② 확인: 긴급한 연락

찬성 2는 긴급한 연락을 할 수 없음을 들어 찬성 1의 입론을 보강하고 있다.

③ 확인: 자제력 부족

반대 1은 학생들의 자제력 부족을 근거로 찬성 1의 입론을 반박하고 있다.

④ 확인: 수업 방해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

찬성 1은 학교에서 조회 시간에 휴대 전화를 수거하고 종례 후 돌려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며 반대 1의 반론을 반박하고 있다.

3.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확인 1: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극복

제시된 자료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 중 휴대 전화기 사용을 현격하게 줄인 사례에 해당한다.

확인 2: 수업 방해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안

찬성 측은 휴대 전화기 소지를 금지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휴대 전화기로 인한 수업 중 학습 방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시된 자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학생들의 자제력

찬성 측은 학생들이 상황을 고려하여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자제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③ 확인: 긴급한 연락

긴급한 연락을 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은 제시된 자료와 거리

가 먼 내용이다.

④ 확인: 다른 규정에 영향

제시된 자료에서는 휴대 전화기 소지가 다른 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없다.

⑤ 확인: 휴대 전화기 통제 방안

자료에서 제시한 내용은 휴대 전화기 사용을 줄이는 방안에 해당한다.

4. 화법의 성격과 요소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언급

“-라-”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 타기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경각심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청자의 주의 환기

“-가-”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 사고를 언급하면서 청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② 확인: 특정 문제와 청자와의 관련성

“-나-”에서는 청자인 기철이 역시 인라인스케이트 사고와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③ 확인: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다-”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 사고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것을 예방하려면 조심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⑤ 확인: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과 방법 제시

헬멧, 무릎 보호대 같은 보호 장구를 해야 한다는 것은 해결 방법으로서의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과 방법에 해당한다.

5. 화법의 특성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기존의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

㉔은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시간과 공간의 공유를 바탕으로 한 즉각적인 반응

㉔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함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구두 언어의 특징을 보여 주는 한 사례에 해당한다.

② 확인: 자신의 경험에 대한 언급

㉔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다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헬멧, 무릎 보호대 같은 보호 장구를 안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④ 확인: 상대방과의 경험 공유

기철은 ㉔에서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인라인스케이트 사고가 부쩍 늘었다는 뉴스를 들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과의 경험의 공유를 드러낸 것이다.

⑤ 확인: 상대방의 말에 대한 동의

㉔에서 기철은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때 헬멧, 무릎 보호대 같은 보호 장구를 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작문 6~10]

6. 개요 수정의 적절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1: 자녀 양육비 지원

‘II-3-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자녀 양육비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언급하고 있다.

확인 2: ‘자녀 양육 관련 교육 프로그램 부재’

‘자녀 양육비 지원 및 세제 혜택’이라는 해결 방안에 어울리는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증대’가 적절하다. 따라서 ‘자녀 양육 관련 교육 프로그램 부재’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문장 형식

주제문이므로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문장 형식으로 수정해야 한다.

② 확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저출산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으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확인: 상위 항목 부합

‘고령화 사회에 따른 연금 재정의 부족’은 저출산 문제라는 문제 현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확인: ‘자녀 양육 시설의 확충’

‘자녀 양육 시설의 부족(II-2-나)’의 해결 방안으로 ‘자녀 양육 시설의 확충’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7.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1: 스웨덴의 출산율

(보기)에서는 스웨덴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여 출산율을 회복하고 일정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 말하고 있다.

확인 2: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④에서는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의 확대

직장 여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은 (보기)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② 확인: 자녀 양육 지원 제도의 다양화

(보기)의 자료에서 스웨덴이 자녀 양육 지원 제도를 다양화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③ 확인: 직업 윤리 의식 마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보기)의 자료에서 직업 윤리 의식이 부족하여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⑤ 확인: 자녀 양육 지원 제도의 부재

(보기)의 자료에서는 출산 휴가, 육아 휴직과 같은 자녀 양육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것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분위기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8.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확인하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논평이나 전망, 평가 등을 담은 해설 쓰기

기사문의 본문 말미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논평이나 전망, 평가 등을 간단히 언급할 수 있다. 하지만 작성된 기사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전문을 통한 기사 요약

1문단은 전문으로 기사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확인: 관련 사진 넣기

관련 사진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확인: 인터뷰 자료

‘강 ○○ 씨’를 인터뷰하여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④ 확인: 표제 작성

‘암 센터에 올려 퍼진 ‘사랑의 선물’은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표제에 해당한다.

9. 글쓰기 전략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확인: 일상적인 경험과 연관 지은 작문 과제 해석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 종종 상대방을 따라 했던 일이라든가 부모님과 함께 등산했을 때의 일을 언급한 것은, 일상적인 경험과 연관 지어 작문 과제를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확인: 통념을 반박

‘학생의 초고’에는 과제 분석을 통해 통념을 반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확인: 유추의 방식을 바탕으로 낯선 개념 소개

‘학생의 초고’에는 실험에서의 낯선 개념에 대한 소개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확인: 자문자답의 방법 동원

‘학생의 초고’에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법이 동원되어 있지 않다.

⑤ 확인: 작문 과제에 대한 비판과 절충

‘학생의 초고’에는 작문 과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비판과 절충이 드러나 있지 않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확인: 앞 문장을 뒷받침하기

공연을 관람할 때 어느 순간에 박수를 쳐야 할지 모를 때 주변 사람들을 따라서 한 적이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거나 동조하면서 생활하는 것의 한 예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확인: 문장 성분 사이의 호응

㉠을 포함한 전체 문장의 주어는 ‘한 사회 심리학자는’이므로 ‘존재한다고 설명한다’로 고쳐야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게 된다.

③ 확인: ‘데’의 띄어쓰기

‘높이는데 기여한다’라는 말에서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④ 확인: 문장의 연결 관계 고려

‘~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문장은 연결 관계가 어색하다. ‘~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로 고치

면 문장의 연결 관계가 자연스러워진다.

⑤ 확인: 맞춤법 고려

‘몇 날’을 의미하는 말은 ‘몇일’이 아닌 ‘며칠’이다. ‘몇일’로 적는 경우는 없다. 항상 ‘며칠’로 적는다.

[문법 11~16]

11. 음의 길이 구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확인 1: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 짧게 발음한다.

확인 2: ‘꼬이다’를 [꼬 : 이다]로 발음

‘꼬이다’는 ‘꼬-’라는 긴소리를 가진 단음절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짧게 발음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쉬어’를 [쉬어]로 발음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거나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③ 확인: ‘방송이’를 [방 : 송이]로 발음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확인: ‘봐’를 [봐 :]로 발음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⑤ 확인: ‘진눈깨비’에서 ‘눈’을 [눈 :]이 아닌 [눈]으로 발음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1: 중의적 표현

‘내 동생은 나보다 철수를 좋아한다.’는 ‘내 동생이 내가 철수를 좋아하는 것보다 철수를 더 좋아한다.’로 읽힐 수도 있고, ‘내 동생이 나보다는 철수를 더 좋아한다.’로도 읽힐 수 있다. 이처럼 한 문장이 여러 의미로 읽힐 수 있는 것을 중의적 표현이라고 한다.

확인 2: 문장 성분의 과도한 생략

썰매는 달리는 것이고 팽이는 도는 것이므로 ‘썰매와 팽이가 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문장 성분이 과도하게 생략된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조사의 쓰임

직접 인용에는 조사 ‘~라고’를 사용한다.

② 확인: 이중 피동

‘금지되어진다’에는 ‘되다’와 ‘-어지다’의 이중 피동이 나타나 있다.

③ 확인: 높임 표현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는 것이므로 ‘내려오시라고’는 적절하지 않다.

⑤ 확인: 문장 성분 사이의 호응

‘생각은’이라는 주어에는 ‘~ 것이다’라는 서술어가 어울린다.

13. 로마자 표기법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확인 1: ‘ㄷ’은 어말에서 ‘t’로 표기함

‘ㄱ, ㄷ, ㅂ’은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확인 2: 벚꽃

‘beodkkod’을 ‘beotkkot’으로 수정한 것은 “‘ㄱ, ㄷ, ㅂ’은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라는 표기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확인: 홍빛나

‘Hong Binna’가 ‘Hong Bitna’로 수정될 때, ‘n’이 ‘t’로 바뀐 것은 ㉔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③ 확인: 대관령

‘Daekwallyeong’이 ‘Daegwallyeong’으로 수정될 때, ‘k’가 ‘g’로 바뀐 것은 ㉔의 규정, ‘i’가 ‘ll’로 바뀐 것은 ㉔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④ 확인: 낙동강

‘Nakddonggang’이 ‘Nakdonggang’으로 수정될 때, ‘dd’가 ‘d’로 바뀐 것은 ㉔의 규정, ‘k’가 ‘g’로 바뀐 것은 ㉔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⑤ 확인: 섯별

‘saetbbyeol’이 ‘saetbyeol’로 수정될 때, ‘bb’가 ‘b’로 바뀐 것은 ㉔의 규정, ‘r’이 ‘l’로 바뀐 것은 ㉔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14.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확인: 동사로서의 ‘밝다’

‘벌써 새벽이 밝아 온다.’에서 ‘밝다’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밝다’는 동사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확인: 두 품사로 쓰이는 ‘밝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밝다’는 동사와 형용사의 두 품사로 쓰임을 알 수 있다.

③ 확인: ‘밝다’의 활용 정보

‘밝고[발꼬]’에서는 받침 ‘ㄹ’ 중 ‘ㄱ’이 탈락했고, ‘밝지[박찌]’에서는 받침 ‘ㄹ’ 중 ‘ㄹ’이 탈락했다.

④ 확인: ‘밝다’의 사동사

‘조명탄이 사방을 밝히다.’에서 ‘밝히다’는 ‘불빛 따위가 환하다.’라는 뜻의 ‘밝다’의 사동사에 해당한다.

⑤ 확인: ‘밝다’의 의미

‘벽지가 밝아서 집 안이 아주 환해 보인다.’의 ‘밝다’는 ‘빛깔의 느낌이 환하고 산뜻하다.’의 의미이다.

15. 단어의 구조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확인: ‘반짝매장’

‘반짝매장’은 ‘반짝’이라는 부사와 ‘매장’이라는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이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확인: ‘맷시꽃’

‘맷시꽃’은 ‘맷시’라는 명사와 ‘꽃’이라는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③ 확인: ‘지붕창’

‘지붕창’은 ‘지붕’이라는 명사와 ‘창’이라는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④ 확인: ‘멋글씨’

‘멋글씨’는 ‘멋’이라는 명사와 ‘글씨’라는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⑤ 확인: ‘책길잡이’

‘책길잡이’는 ‘책’이라는 명사와 ‘길잡이’라는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16. 국어의 변천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1: 거듭 적기의 출현

‘늣므’가 ‘늣물물’로 변화된 것은 ‘ㄴ’을 받침과 뒷말 초성에 두 번 적은 것으로, 거듭 적기의 출현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 2: 모음 조화의 동요

‘슬후니’가 ‘슬호니’로 변화된 것은 음성 모음 ‘ㅡ’와 어울리는 음성 모음 ‘ㅜ’가 양성 모음 ‘ㅗ’로 변화된 것으로, 모음 조화의 동요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 3: ‘ㅅ’의 소실

‘ㅅㅅ물’이 ‘ㅅㅅ물’로 변화된 것에서 ‘ㅅ’의 소실을 확인할 수 있다.

5회

- | | | |
|-------|-------|-------|
| 1. ① | 2. ① | 3. ④ |
| 4. ③ | 5. ④ | 6. ③ |
| 7. ① | 8. ⑤ | 9. ③ |
| 10. ③ | 11. ④ | 12. ④ |
| 13. ⑤ | 14. ⑤ | 15. ① |
| 16. ② | | |

[화법 1~5]

1. 말하기 방식 추론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확인: 조사한 자료를 활용

배 교수는 축제를 관람한 인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 자료로 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확인: 토의 참여자의 발언에 감정적 대응

이 위원장은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을 뿐이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③ 확인: 토의를 하게 된 배경을 생략한 채

사회자는 지역 축제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토의를 시작하고 있다.

④ 확인: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 제기

김 사무국장은 배 교수가 조사한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 단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⑤ 확인: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며

김 사무국장은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지 않다.

2. 반응의 적절성 평가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확인: 올해 축제가 잘 끝났다

이 위원장은 올해 축제가 잘 끝났다고 말한 적이 없다. 오히려 성과가 예년만 못하다고 말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확인: 우리 고장 축제의 문제점

이 위원장은 토의 주제에 관해서 우리 고장 축제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기보다는 인력과 자금의 부족함, 시간적인 한계 등을 근거로 하여 상대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고 제한적으로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문제점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위원장에게 토의 주제와 관련된 ‘우리 고장 축제의 문제점’을 물어볼 수 있다.

③ 확인: 다른 대안

배 교수는 ‘밤고를 축제’가 특색 없는 지역 특산물 중심의 먹을거리 축제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 대안으로 우리 고장의 읍성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역사 축제로 바꾸자는 대안 한 가지만을 얘기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방청객은 축제 전문가인 배 교수에게 충분히 다른 대안을 물어볼 수 있다.

④ 확인: 구체적인 수치

김 사무국장은 이 축제가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다고만 언급할 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김 사무국장에게 그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⑤ 확인: 근거 자료

김 사무국장은 먹을거리 축제가 방문객의 1인당 소비 지출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이라고만 얘기할 뿐 근거 자료를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방청객은 충분히 질문 가능하다.

3. 토의의 적절성, 전략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지역 주민 대표의 의견 위주로

교수, 지역 주민 대표, 축제 준비 위원장 등 각기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밤고를 축제’의 문제 해결

시의성은 토의 주제가 당시 사정에 알맞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최근에 끝난 ‘밤고를 축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사안을 토의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시의성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② 확인: 공공 사안, 가치

지역 축제 문제는 공공 사안이기 때문에 토의 주제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확인: 우리 고장의 지역 축제
주변에 있는 우리 고장의 행사이기 때문에 토의 주제로서의 접근성은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 ⑤ 확인: 의문문 형식으로 진술
토의 주제를 '우리 고장 축제'처럼 명사구로 끝을 맺기보다는 의문문 형식으로 진술하는 것이 토의 방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토의 주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말하기 방식 추론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확인 1: 반문
반문이란 물음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되받아 묻는 것을 가리킨다. ㉞에서 이모는 선아의 말이 구체적이지 않아 그 내용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반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확인 2: 상대가 한 말의 의도
이모는 선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대가 한 말의 의도를 자신이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1: 우호적인 태도
이모는 '선아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 있지.'라고 하며 선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확인 2: 대화 상황을 조성
이모는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느냐는 선아의 말에 '그래, 어떤 일이지?'라고 물으며 대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 ② 확인 1: 발언 내용 중 일부를 반복
이모는 '자신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선아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반복하고 있다.
확인 2: 상대의 말에 대한 관심
이모는 선아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를 물어보면서 선아의 말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확인 1: 상대의 말에 대한 공감
이모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라고 하며 선아의 말에 대해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확인 2: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
이모는 '그런데 혹시 그 친구들이 네게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니?'라고 물어보면서 선아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 ⑤ 확인 1: 상대가 건넨 말들을 통해 판단
이모는 선아의 말을 모두 듣고 나서 '그 친구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확인 2: 자신의 의견을 제시
이모는 자신이 판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네가 만났던 친구들은 아직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준비가 덜 되었을 수 있어.'라고 하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말하기 내용의 적절성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1: 선아가 처한 문제 상황 확인
㉞에 대한 발언 이전에 이모는 '대개 친구를 사귀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속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기는 쉽지 않은 법이란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모는, 선아가 성급한 자기 노출

로 인해 친구 관계 자체가 손상되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인 2: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언

성급한 자기 노출로 인해 원만한 친구 관계 형성이 어려운 선아의 상황을 고려할 때, ㉞에는 지나친 자기 노출의 문제를 지적하고, 적절한 자기 노출에 대해 조언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것은 ④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1: 선아가 처한 문제 상황 확인
'상대방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선아의 문제 상황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확인 2: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언
문제 상황을 잘못 파악했으므로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네 속마음을 드러내 주어야 해.'라는 말은 선아가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② 확인 1: 선아가 처한 문제 상황 확인
'네 이야기만 강요하는 태도'는 선아의 문제 상황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확인 2: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언
문제 상황을 잘못 파악했으므로 '친구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말은 선아가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③ 확인 1: 선아가 처한 문제 상황 확인
'어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라는 말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친구들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선아의 문제 상황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확인 2: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언
(보기)에 따르면, 적절한 자기 노출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의사소통의 양적·질적 측면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으므로 '마음속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친구 관계가 돈독해질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 돼.'라는 말은 선아가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⑤ 확인 1: 선아가 처한 문제 상황 확인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해야' 한다는 말은 선아의 문제 상황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확인 2: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언
문제 상황을 잘못 파악했으므로 '네가 네 자신과 네 감정을 잘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은 선아가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6~10]

6. 내용 조직의 적절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확인: 'II-3-가'의 내용을 고려하여
'II-3-가'에서 인권 침해의 발생 원인으로 'ID 도용, 해킹 등을 통한 개인 정보의 유출'을 들고 있다. 그리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유형으로 사생활 침해가 이에 해당되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III'의 제시 방법을 고려하여
'III. 결론'에서 들어가야 할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고 있으므로 'I. 서론'에서도 적합한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② 확인: 'SNS에서의 인권 침해'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1인 미디어는 블로그, SNS, UCC 등의 다양한 소셜 미디어 전 반을 가리키며 인권 침해의 내용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중심 화제인 'SNS에서의 인권 침해'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 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확인: 상위 항목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상위 항목은 'SNS에서의 인권 침해 발생 원인'을 언급하고 있 다. 개요에 제시된 내용은 SNS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결과와 관련된 것이므로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출처가 불분명 한 정보의 무분별한 전파'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⑤ 확인: 상위 항목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임으로

상위 항목의 내용은 SNS에서의 인권 침해 예방 방안이고, 개요 에 제시된 내용은 이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방 방안에 해당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의 확립'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7.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확인: 급속히 퍼질 수 있는, 사실 여부를 파악

(보기)의 (가)의 신문 기사는 SNS가 급속히 퍼질 수 있는 속성이 있으므로 글을 올릴 때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는 SNS에서 허위 사실 유포자가 되지 않기 위한 예 방책으로서 사실 여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①은 이 두 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 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확인: SNS에 글을 쓰지 않도록

SNS에 글 자체를 올리지 말라는 내용은 (보기)의 자료에서 확 인할 수 없다.

③ 확인: 정보 통신 윤리 교육 이수

정보 통신 윤리 교육 이수의 내용은 (보기)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④ 확인: 법규를 인지하여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보기)의 자료는 처벌을 피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글을 올릴 때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⑤ 확인: SNS에 그 정보를 올려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사실 관계 를 파악

정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SNS에 그 정보를 올려 사람 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일은 무책임하게 정보를 퍼뜨리는 일과 다르지 않다.

8.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말

답사의 끝 부분에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처음 부분에서 선생님과 후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우선, 저희들을 위해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 주신 선생님 들과 후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에서 감사함을 표하고 있다.

② 확인: 내 경험을 토대로, 배웠던 점

'학교의 교육 활동 대부분이 '나'가 아닌 '우리'를 강조했고, 이 를 통해 이기적이었던 제 자신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에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학교생활에서 배웠던 점을 드러내고 있

다.

③ 확인: 사회생활에 대한 포부 언급

'푸른 소나무처럼 그 어떤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 습니다.'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생활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④ 확인: 비유법을 활용해서 표현

'푸른 소나무처럼 그 어떤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 습니다.', '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한 그 루 푸른 소나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에서 비유법을 활 용하고 있다.

9. 내용 조직의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1: 일상적 사례

글쓰이는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오늘도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네.'와 같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칭찬'이라는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ㄴ).

확인 2: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글쓰이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1분 칭찬하기'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 시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ㄷ).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ㄱ. 확인: 친숙한 대상에 비유

'과제의 초고'에서 '칭찬'을 친숙한 대상에 비유하며 글을 시작 하고 있지 않다.

ㄴ. 확인: 분석적 방법

'과제의 초고'에는 분석적 방법으로 '칭찬'의 특성을 설명한 내 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1: 사동 표현

'들려주다'는 '[... 에게 ... 을] 소리나 말을 듣게 해 주다.'의 의미이다. ㉠이 포함된 문장은 "'1분 칭찬하기'란 ~ 자기 스스 로에게 ~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다.'로 정리할 수 있으 므로 ㉠은 적절한 표현이다.

확인 2: 고쳐쓰기의 적절성

'듣다'는 목적어만 필요로 하므로 ㉡을 '듣는'으로 고쳐 쓰면 ㉡ 이 포함된 문장이 어색해진다. 따라서 '들려주는'을 '듣는'으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1: 띄어쓰기

㉢은 '어느 틈에 벌써'라는 뜻의 부사 '어느새'의 띄어쓰기가 잘 못된 단어이다.

확인 2: 고쳐쓰기의 적절성

'어느 새'를 '어느새'로 고쳐 써야 한다.

② 확인 1: 문장의 연결 관계

㉣의 앞 문장에서는 '1분 칭찬하기'에 대해 언급했고, ㉣의 다 음 문장에서는 '1분 칭찬하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확인 2: 고쳐쓰기의 적절성

그러므로 ㉣은 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그래서 전문가들 은 '1분 칭찬하기'를 권한다.'라는 문장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확인 1: 문장 성분 간의 호응

㉔이 포함된 문장의 주어는 '전문가들은'인데, 주어인 '전문가들은'과 서술어인 '가져야 한다'의 호응이 자연스럽게지 않다.

확인 2: 고쳐쓰기의 적절성

주어와 서술어가 자연스럽게 호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한다'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로 고쳐 써야 한다.

⑤ 확인 1: 글의 흐름

㉔ 앞뒤에서는 상대방을 칭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㉔은 칭찬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글의 흐름에 어긋난다.

확인 2: 고쳐쓰기의 적절성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㉔을 삭제해야 한다.

[문법 11~16]

11. 표준 발음법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석류'는 [석뉴]로 발음

표준 발음법 제19항 [불임]에 따라 '석류'가 [석뉴]로 바뀐 후 제18항에 따라 [성뉴]로 바뀌어 발음이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밤물'은 [밤물]로 발음

표준 발음법 제18항에 따라 받침 'ㅁ'은 'ㄹ' 앞에서 [ㄹ]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밤물]로 발음되는 것이 맞다.

② 확인: '등록만'은 [등농만]으로 발음

우선, 표준 발음법 제19항에 따라 '등록만'은 [등농만]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제18항에 따라 [등농만]은 [등농만]으로 발음된다.

③ 확인: '침략'은 [침낙]으로 발음

표준 발음법 제19항에 따라 받침 'ㄹ'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ㄹ]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침낙]으로 발음되는 것이 맞다.

⑤ 확인: '물난리'는 [물랄리]로 발음

표준 발음법 제20항에 따라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된다. 따라서 [물랄리]로 발음되는 것이 맞다.

12. 문장 성분의 호응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체언인 '편지'를 꾸미고

ㄹ의 밑줄 친 부분은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여 부사어가 성립된 경우로, 동사인 '보냈다'를 꾸미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부사가 부사어로 성립

ㄴ은 '아주'라는 부사가 그대로 문장 성분으로서 부사어가 되고 있다.

② 확인: 명사에 부사격 조사 '-로서'가 붙어

ㄴ의 '아버지로서'는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 부사어가 되는 경우이다.

③ 확인: 의존 명사 '채'에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

ㄴ의 밑줄 친 부분은 의존 명사 '채'에 부사어의 성질을 띠게 만드는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되어 부사어로 성립된 경우이다.

⑤ 확인: 용언의 어간 '굽-'에 어미 '-게'가 붙어 부사어가 성립

ㄴ의 밑줄 친 부분은 형용사 '굽다'의 활용형이 부사어로 성립된 경우이고, 이는 동사인 '피었다'를 꾸미고 있다.

13.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

문제의 탐구 과정에서 자료를 탐색한 결과 '-대'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직접 경험한 사실, 감탄

직접 경험한 사실을 말할 때는 '-데'가 쓰인다. 그리고 감탄하면서 말하는 태도와도 관련이 없다.

② 확인: 직접 경험한 사실, 평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말할 때는 '-데'가 쓰인다. 그리고 평가하듯이 말하고 있지도 않다.

③ 확인: 청자의 반응,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냄

문제 탐구 과정의 자료에서 청자의 반응을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④ 확인: 막연한 의문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은 맞지만, 막연한 의문을 나타낼 때 쓰이지는 않는다.

14. 시제 표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겠-'의 의미

'따라가겠어'의 '-겠-'은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로서 철수를 '따라가'는 일에 대한 영화의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철수를 '따라가'는 일에 대한 영화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었-'의 의미

'익었어'의 '-었-'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로서 '익다'라는 상황이 완료되고, 완료된 결과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② 확인: '-았-'의 의미

'훈났다'의 '-았-'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이지만 여기서는 '내일'이라는 미래의 시점에 숙제를 하지 못해 '훈나'는 일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③ 확인: '-았-'의 의미

'왔어'의 '-았-'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로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 이전에 영화가 이미 '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 확인: '-겠-'의 의미

'공부하겠지'의 '-겠-'은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이지만 여기서는 발화시 현재 민수가 중간고사를 준비한다고 '공부하'고 있다는 추측을 나타내고 있다.

15.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확인: 불규칙 활용을 하기도 함

표제어인 '나누다'의 옆에 있는 [나누어(나뉘), 나누니]에서 '(나뉘)'는 '나누어'가 축약된 형태이다. 따라서 '(나뉘)'는 때에 따라서 '나누다'가 불규칙 활용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확인: '나누다'의 유의어

'분할하다'는 '나누어 쪼개다.'라는 의미의 단어이다. 따라서 '나누다'가 (1)의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 '나누다' 대신 '분할하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확인: 용례의 이해

'사업장의 각 부서에 작업량을 나눌 때는 인부들의 숙련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나누다'의 통사 구조와 의미를 다 갖추고 있으므로 용례로 추가할 수 있다.

④ 확인: 통사 정보의 이해

국어사전에서 [] 표시는 일반적으로 해당 단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을 나타낸다. (1) [... 을 ... 으로], (2) [... 을 ... 에/에게]는 '나누다'가 주어와 목적어,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⑤ 확인: 의미의 분화 이해

'나누다' (3)의 ㉠, ㉡, ㉢은 동일한 통사 구조를 띠고 있지만 의미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나누다' (3)의 ㉠, ㉡, ㉢은 [(... 과)... 을]의 통사 구조를 띠는 '나누다'가 의미상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6. 국어의 변천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확인: 끊어 적기 표기

'알그니'로 표기한 것은 끊어 적기 표기를 보여 주고 있는 사례가 아니라 이어 적기 표기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모음자 사용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모음자인 '·(아래 아)'가 표기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확인: 띄어쓰기가 오늘날과 다른 점

현대 국어에서는 '쓴 ∨ 것보다'처럼 어절 단위의 띄어쓰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보기)에서는 이를 '쓴것보다'와 같이 붙여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확인: 초성에 'ㅅ'으로 시작하는 합용 병서 표기

현대 국어에서는 'ㅅ'계 합용 병서 표기는 쓰이고 있지 않다.

⑤ 확인: 받침으로 'ㄷ'이 와야 할 자리

현대 국어로 표기하면 '들고'이기 때문에 받침에 'ㄷ'이 와야 하지만, (보기)에서는 '들고'로 표기하여 받침에 'ㅅ'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회

- | | | |
|-------|-------|-------|
| 1. ⑤ | 2. ⑤ | 3. ② |
| 4. ④ | 5. ⑤ | 6. ③ |
| 7. ③ | 8. ⑤ | 9. ③ |
| 10. ③ | 11. ④ | 12. ③ |
| 13. ③ | 14. ④ | 15. ② |
| 16. ③ | | |

화법 1~5

1. 말하기 과정 분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1: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

토론에서 사회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 순서 지정, 주장 정리, 대립 방지, 추가적 설명 요구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한다.

확인 2: 질문을 통한 반박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통해 주장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찬성 측과 반대 측 토론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해당한다. 질문을 통한 반박은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발언 순서 지정

사회자의 첫 번째 발언 '먼저 반대 측에서 질문해 주십시오.'와 세 번째 발언 '자, 그럼 이제는 찬성 측에서 질문해 주십시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확인: 양측의 주장 정리

사회자의 첫 번째 발언 '찬성 측에서는 윤리적 측면에서 동물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인간과 동물의 생체적 차이를 근거로 들어 동물 실험 폐지를 주장했고, 이에 반대 측에서는 과학 및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동물 실험 유지를 주장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확인: 토론자들의 감정적 대립 방지

사회자의 두 번째 발언 '반대 측은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확인: 추가적 설명 요구

사회자의 네 번째 발언 '찬성 측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토론의 유형과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1: 토론에서의 쟁점

쟁점이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이 상호 대립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확인 2: 동물과 인간의 생체적 특징

'동물과 인간의 생체적 특징은 유사한가?'라는 문제를 놓고 찬성 측에서는 '동물과 인간은 생체적으로 차이점이 많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동물 실험에는 주로 쥐나 토끼, 침팬지와 같은 척추동물이 사용되는데, 이들은 인간과 아주 유사한 생체적 특징을 가졌다고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동물 실험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찬성 2의 세 번째 발언 '실제로 동물 실험을 통과한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경우도 있습니다.'에서 찬성 측에서는 동물 실험의 결과를 신뢰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확인: 동물 실험은 유용하지 않다

찬성 1의 첫 번째 발언 '동물 실험이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유용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에서 찬성 측에서도 동물 실험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확인: 동물의 생명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

반대 1의 첫 번째 발언 '저희도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에서 반대 측에서도 인간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동

물의 생명 또한 존중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확인: 동물이 인간보다 육체적 고통을 덜 느낀다

찬성 1이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는 존재'라는 점을 들어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자, 반대 2도 '동물 실험으로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기술적 대안이 없음을 반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찬성과 반대 측 모두 동물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추가 자료의 활용 방안 추론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확인: 동물과 인간의 생체적 특징

(ㄴ)에 따르면,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는 질병이 1.16%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물과 인간의 생체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 실험에서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인간에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찬성 측에서는 (ㄴ)의 자료를 활용하여, 동물과 인간의 생체적 특징이 다르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동물 실험을 대체할 만한 다른 실험

(ㄱ)은 우주 공간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인간을 대신한 실험이라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동물 실험을 대체할 만한 실험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확인: 동물 실험은 인간을 보호하는 방법

(ㄴ)에서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는 질병이 1.16%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 측보다는 오히려 찬성 측에서 동물 실험을 통해 개발된 신약이 인간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④ 확인: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유용함

(ㄱ)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유용함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고, (ㄴ)은 동물과 인간의 생체적 차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ㄴ)은 동물 실험이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유용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⑤ 확인: 인류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ㄱ)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 동물 실험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지만, (ㄴ)은 반대 측보다는 오히려 찬성 측에서 동물 실험의 무용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ㄱ)과 (ㄴ)을 모두 근거로 삼아 반대 측에서 동물 실험의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말하기 내용의 적절성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1: 친구의 감정이나 처지를 살핌

소영은 다희의 감정과 처지를 살펴 시간 활용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냐고 말하고 있다.

확인 2: 해결 방안의 제시

소영은 공부 시간과 휴식 시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철저히 지키며 공부한다면 부모님의 염려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다희의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자기 오빠의 상황 제시

소영이 자기 오빠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다희 오빠에 대한 걱정

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다희의 처지를 잘못 이해한 결과에서 비롯한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확인: 기분 전환을 해 볼 것을 제안

다희 부모님의 불안감이 다희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은 다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소영이 제시한 방법은 부모님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다희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볼 수 없다.

③ 확인: 각자의 입장을 분리할 것을 제안

소영은 다희 부모님의 불안과 다희의 입장을 분리해서 생각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이는 다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확인: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조언

소영은 다희에게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면 부모님의 불안을 잠재울 좋은 방법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문제 해결을 다희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5. 의사소통 전략 평가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상대를 치켜세움

소영은 지나치다 싶은 다희 부모님의 간섭을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다희에게 위안의 말을 건네며 부담감을 덜어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공통의 관심사 언급

중학교 때 친구인 다희와 만난 소영은 공통의 관심사인 '입시 준비'를 언급하며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② 확인: 상대의 최근 모습 환기

소영은 '얼굴을 찌푸리는 날이 많'은 다희의 최근 모습을 환기하며 다희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③ 확인: 상대방과 유사한 경험 제시

소영은 다희와 유사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다희가 겪는 상황이 자신과 비슷함을 확인하며 다희의 말에 호응하고 있다.

④ 확인 1: 상대의 말을 부정

소영은 자신을 '모범생'으로 치켜세우는 다희의 말을 부정하고 있다.

확인 2: 자신을 낮추어 표현

소영은 자기 자신을 '철없는 어린애'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고 있다.

작문 6~10.

6.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밥상머리 교육, 식사 예절 교육

(다)를 보면, '정작 밥상머리 교육을 안다고 답한 사람도 예절 교육으로 국한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라고 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은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대화를 통해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밥상머리' 교육은 단순한 식사 예절 교육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를 활용하여, ㉠의 하위 항목에 '밥상머리 교육을 통한 식사 예절 교육 강화'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매체 발달, 자녀와의 대화 단절

‘II-1’은 가정 교육과 청소년 문제와 관련한 실태를 제시한 부분으로, (가)의 ‘요즘은 휴대 전화나 컴퓨터 등 자녀와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매체가 넘쳐나고’를 통해 매체의 발달로 인해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확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 시간 부족’

(보기 2)의 주제는 ‘가정의 자녀 교육 기능 회복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자.’이므로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 시간의 부족’은 문제점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다. (가)와 ‘(나)-1’을 활용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 시간 부족’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확인: 가족 공동의 대화 주제 부족

‘(나)-2’를 보면,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는 이유 중 41.2%가 ‘가족 공동의 주제가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이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으로 ‘가족 내 공동의 주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제시할 수 있다.

⑤ 확인: 가정의 기능 회복

(가)의 ‘가정에서 청소년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라는 내용과 (다)의 ‘아무리 좋은 교육법이 나와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밥상머리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유대감을 높이고 대화했던 것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 온 문화입니다.’,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자녀의 인성 교육에 매우 중요합니다.’라는 내용을 활용하여, 결론에서는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7. 내용 생성의 적절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1: 문제 상황

최근 들어 청소년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한 것이 문제 상황이 된다.

확인 2: 인과 관계

‘최근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가정 교육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가 원인이고, ‘청소년 범죄 등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결과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문제 상황

‘과거에 비해 오늘날 가족 간의 유대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이지만, ‘인과’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확인: 인과 관계

‘청소년 게임 중독’이라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청소년들만의 건전한 놀이 문화가 부재’한 현실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가정의 자녀 교육 기능 회복’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이 아니다.

④ 확인: 문제 상황

‘최근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이지만, ‘인과’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확인: 인과 관계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남’이 원인이고, ‘과거 밥상머리 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는 결과에 해당하므로 인과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밥상머리 교육’과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교육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과는 거리가 멀

다.

8. 요약하기 전략, 실제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1: 대립된 관점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즉 ‘정보 바다’와 ‘정보 쓰레기’에 관한 내용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한다.

확인 2: 글쓴이의 주장

글쓴이의 관점은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정보의 출처가 명확한지,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해서 수용해야 할 것이다.’와 관련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대립된 관점 및 글쓴이의 주장 부재

‘정보가 과잉으로 넘치다 보면, 유통 과정에서 정보가 변환되거나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는 현상에 대한 진단에 불과하다. 대립된 관점의 대비나 글쓴이의 주장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확인: 대립된 관점 및 글쓴이의 주장 부재

정보화 사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대립된 관점의 대비나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③ 확인: 대립된 관점만 제시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아누스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에는 대상을 바라보는 대립된 관점만 나타나 있고, 글쓴이의 주장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확인: 대립된 관점만 제시

‘정보 과잉 시대’와 ‘정보 황금시대’라는 대립된 관점만 나타나 있고, 글쓴이의 주장은 나타나 있지 않다.

9. 내용 조직의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1: 개인의 경험을 떠올려 글감 구체화

‘작문 일지’에서 글쓴이는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재능 기부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던 경험을 떠올리고, ‘학생의 글’에서 봉사 활동에 관한 글감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확인 2: 인식 변화 과정 제시 및 다짐

‘학생의 글’에서 ‘지금껏 기부란 시간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텔레비전에 출연한 재능 기부자의 모습을 통해 ‘시간과 돈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는 일도 봉사 활동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④ 확인 1: 분류의 방식

‘분류’란 특정 기준에 따라 어떤 대상에 포함되는 것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확인 2: 봉사 활동의 다양한 유형 제시

‘작문 일지’에서 봉사 활동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학생의 글’에서는 그 가운데 하나인 재능 기부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봉사 활동의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⑥ 확인 1: 전문가의 견해 소개

‘학생의 글’에서는 봉사 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지 않다.

확인 2: 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작문 일지’에서 봉사 활동에 대한 글쓰기의 성찰이 제시되어 있지만, 그것이 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1: 조사 사용의 적절성

‘고’는 앞말이 간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은 조사 사용이 적절하다.

확인 2: 고쳐쓰기의 적절성

‘라고’는 앞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따라서 ‘라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힘들지 않으시냐’를 직접 인용하여 “‘힘들지 않으시냐.’라고 ~”의 형태로 사용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1: 문장의 접속 관계

‘그리고’는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의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앞뒤 문장이 서로 상반되므로 ‘그리고’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확인 2: 고쳐쓰기의 적절성

㉡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거나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끌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런데’로 고쳐야 한다.

② 확인 1: 글의 흐름 고려

1문단에서는 재능 기부의 개념 및 특성을 소개하고 있고, 2문단에서는 글쓰기가 텔레비전에서 본 재능 기부자를 소개하고 있다.

확인 2: 고쳐쓰기의 적절성

㉢은 텔레비전에서 본 재능 기부자를 소개하고 있는 2문단의 맨 앞에 놓여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진다.

④ 확인 1: 문단의 통일성

‘학생의 글’ 2문단에서는 글쓰기가 텔레비전에서 시청한 적이 있는 재능 기부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은 재능 기부에 대한 평가가 다루어져 있어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다.

확인 2: 고쳐쓰기의 적절성

문단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을 삭제해야 한다.

⑤ 확인 1: 단어 사용의 적절성

‘틀리다’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 따위가 그렇게 되거나 어긋나다.’이다. 문맥을 고려할 때 ㉤은 단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

확인 2: 고쳐쓰기의 적절성

문맥을 고려할 때 ㉤은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뜻을 지닌 ‘다른’으로 고쳐야 한다.

문법 11~16.

11. 표준 발음법 적용

답: ④

④ 확인: 발이랑

표준 발음법 제17항에 따르면, 받침 ‘ㄷ, ㅌ(ㄹ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그런데 ‘발이랑’은 ‘발’과 ‘이랑’이 결합된 합성어로, 이 경우 ‘이랑’의 ‘ㅣ’는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ㅗ’가 아니다. ‘발이랑’은 ‘ㄴ’음이 첨가되어 [반니랑]으로 발음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발이다

명사 ‘발’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된 형태이다.

② 확인: 발이

명사 ‘발’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③ 확인: 발인

동사 ‘발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⑤ 확인: 받혀서

동사 ‘받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된 형태이다.

12. 단어의 구조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접미사 ‘-거리다’의 기능

접미사 ‘-거리다’는 동작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일부 어근 뒤에 붙어서 ‘그런 상태가 잇따라 계속됨.’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여기서 ‘-거리다’는 ‘꿈틀’이라는 부사에 붙어 ‘꿈틀거리다’라는 동사를 파생시켰으므로, 어근의 품사에 변화를 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놀이

동사 ‘놀다’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명사로 파생된 단어이다.

② 확인: 옛보다

동사 ‘보다’에 ‘올래’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옛-’이 결합되어 파생된 단어이다.

④ 확인: 헛고생

‘헛고생’과 ‘헛들다’는 각각 ‘고생’과 ‘들다’에 ‘이유 없는’, ‘보람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헛-’이 결합되어 파생된 단어이다.

⑤ 확인: 새빨간

형용사 ‘빨갈다’에 ‘매우 짙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새-’가 결합되어 파생된 단어이다.

13.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 ‘이에요’

‘동생’은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이므로, ‘이에요’를 결합하면 ‘동생이에요’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모자예요

‘모자’와 같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는 ‘예요’로 줄여 쓸 수 있다.

② 확인: 올챙이에요요

‘올챙이’에 ‘이에요’를 결합하면 ‘올챙이에요요’로 줄여 쓸 수 있다.

④ 확인: 나무예요

‘나무’와 같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는 ‘나무예요’로 줄여 쓸 수 있다.

⑤ 확인: 경찰관이에요

‘경찰관’처럼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이에요’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이다.

14. 부정 표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짧은 부정에 한하여 부정 표현 가능

ㄹ에서 ‘안 모르다’는 비문법적인 문장이지만, ‘모르지 않다’는 문법적인 문장이다. ㄴ에서 ‘못 좋다’는 비문법적인 문장이지만, ‘안 좋다’, ‘좋지 않다’, ‘좋지 못하다’는 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ㄹ의 ‘모르다’와 ㄴ의 ‘좋다’는 긴 부정 표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짧은 부정과 긴 부정

ㄱ의 ‘안 갔다’와 ‘못 갔다’는 짧은 부정 표현이고, ㄴ의 ‘일어나지 않았다’와 ‘일어나지 못했다’는 긴 부정 표현에 해당한다.

- ② 확인: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

‘안’ 부정문은 의지 부정이고,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이므로 ㄱ의 ‘안’과 ㄴ의 ‘않았다’는 의지 부정, ㄱ의 ‘못’과 ㄴ의 ‘못했다’는 능력 부정에 해당한다.

- ③ 확인: 청유형에 사용되는 ‘말다’ 부정문

ㄷ은 청유형 문장이므로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을 사용할 수 없고, ‘가지 말자’와 같이 ‘말다’ 부정문만 사용할 수 있다.

- ⑤ 확인: ‘못’ 부정문

ㄴ의 ‘좋다’는 ‘좋지 못하다’와 같은 부정 표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ㄴ의 ‘좁다’는 ‘못 좁다’, ‘좁지 못하다’와 같은 부정 표현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못’ 부정문을 사용할 수 없다.

15. 호칭어와 지칭어 평가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확인: 화자와 대상 간의 물리적·심리적 거리

일반적으로 지시 표현은 가리키는 대상과 화자 및 청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때로 지시 표현은 이야기의 장면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때에는 물리적 거리 대신 심리적 거리가 나타나게 된다. ㉠은 청소를 하지 않고 간 혁구에 대한 선생님의 심리적 거리가 반영되어 있지만, ㉡은 ‘쓰레기통 주변’이라는 물리적 거리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은 화자와 대상 간의 심리적 거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만, ㉡은 화자와 대상 간의 물리적 거리를 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이야기의 장면에 존재

지시 표현은 이야기의 장면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가리키기도 한다.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이야기의 장면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다.

- ③ 확인: 지칭 대상의 위치

㉠은 지칭 대상이 철수에게 가까이 있음을 나타낸 반면, ㉡은 지칭 대상이 선생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철수에게 가까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확인: 동일한 시·공간 공유

㉢과 ㉣은 각각 ‘혁구의 청소 구역’, ‘쓰레기통 주변’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과 ㉣을 통해 선생님과 철수가 동일한 시·공간을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확인: 철수의 경험 공유

선생님과 철수의 대화를 통해서 ㉢과 ㉣은 ‘철수가 영화와 다른 일’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확인: 주어가 2인칭으로 바뀌는 경우

ㄴ의 주어 ‘고원?’을 ‘네(네가)’로 바꾸면 주어가 2인칭이 되므로, 올바른 의문문의 형태는 ‘-ㄴ다’를 사용한 ‘네 이제 었더?’가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ㄱ은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이 쓰인 경우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모두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이 ‘ㅏ’의 형태로 끝난다.

- ② 확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ㄴ은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이 쓰인 경우로, 중세 국어는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이 ‘ㅏ’의 형태로 끝나는 반면 현대 국어는 ‘ㅏ’의 형태로 끝난다.

- ④ 확인: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

ㄷ은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이 쓰인 경우로, 중세 국어는 특이하게 ‘-ㄴ다’의 형태가 사용되었다.

- ⑤ 확인: 주어가 3인칭으로 바뀌는 경우

ㄹ의 주어 ‘네’를 ‘?리(딸이)’로 바꾸면 주어가 2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게 된다. 주어가 3인칭일 경우 ‘-ㄴ다’가 의문형 어미로 사용되지 못하므로 ‘엇데’를 고려하여 의문문의 마지막 모음이 ‘ㅏ’의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7회

01 ⑤ 02 ③ 03 ⑤ 04 ④ 05 ⑤
06 ③ 07 ⑤ 08 ① 09 ⑤ 10 ⑤
11 ⑤ 12 ① 13 ⑤ 14 ② 15 ⑤
16 ⑤

화법 [01~05]

01 _ 말하기 과정 분석 [답] ⑤

- ⑤ 참여자들의 발언 시간을 조절

사회자는 토의 안건을 제시하고 참여자들의 말을 요약하거나 의견을 절충하는 등 토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참여자들의 발언 시간을 조절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는 않다.

- ① 토의의 진행자

사회자는 토의의 안건을 제시하고 참여자들의 발언을 유도하며 의견을 절충하는 등 토의를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참여자들의 말을 요약

사회자는 두 번째 발언에서 앞서 토의 참여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 ③ 참여자들의 의견을 절충

사회자는 세 번째 발언에서 학생 1과 학생 3의 주장을 절충하여 두 방식을 혼합한 새로운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 ④ 순차적으로 토의를 진행

사회자는 첫 번째 발언에서 방과 후 수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토의를 진행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토의 과정을 보면, 먼저 방과 후 수업의 문제점을 듣고 난

뒤,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토의함으로써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순차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_ 화법의 특성 파악 [답] ③

③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장점이 더 큰 제안

학생 2는 ㉢에서 학생 1이 제시한 의견에 약간의 우려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학생 1과의 의견 차이는 최소화하고 의견의 일치점을 최대화하고 있다.

① 그것보다

동의를 격렬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의견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데, 학생 2는 ㉠에서 자신의 생각만을 말하고 있으므로 동의를 격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그렇게 되면 결국

㉢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고, 이는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차이가 최대화된 발언이므로 동의를 격렬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소수 선택자를 무시하는 처사

㉢은 ㉠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견만 말하고 있으므로 동의를 격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현실적으로 수업 개설은 불가능

㉢은 학생 3의 말에 공감은 하지만 학생 3이 주장하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고, 이는 다른 사람과의 의견의 일치점을 최소화하고 의견 차이를 최대화한 발언이므로 동의를 격렬에 부합하지 않는다.

03 _ 발표의 적절성, 전략 평가 [답] ⑤

⑤ 비유적 표현으로 발표를 마무리

마무리 부분에서 동물들은 경험을 통해서 자각에 대한 대응 방법을 다양하게 조절해 간다는 발표의 핵심 내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① 용어의 개념을 밝힘

1문단에서 동물 행동학을 ‘동물 행동의 특성을 비교, 연구하는 학문’으로, 2문단에서 본능을 ‘사고하고 판단해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유전자 프로그램에 따라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각각 그 개념을 밝히고 있다.

②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확인

2문단의 ‘여러분, 동물들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많이 보셨죠? (청중의 반응을 살핀다.)’, 3문단의 ‘여러분, 새의 모형에 대해 병아리들이 이러한 행동 특성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잠시 청중의 반응을 살핀다.)’에서 발표자가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시각 자료를 활용

3문단에서 동물 행동학 실험을 소개하면서 준비한 시각 자료, 즉 ‘한쪽에서는 목이 짧은 술개같이 보이고 반대쪽에서는 목이 긴 기러기같이 보이도록 만들어진 모형’을 보여 주고 있다.

④ 공적 상황에 걸맞은 호칭어와 말투를 사용

발표라는 공적인 말하기에 맞게 호칭어 ‘여러분’과 상대 높임의 격식체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고 있다.

04 _ 반응의 적절성 평가 [답] ④

④ 결론이 타당한 것인지 판단

<보기>에서 언급된 학생의 생각에는 ‘발표자가 내린 결론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며 들었다.’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발표 준비 상황을 추리

<보기>의 첫 번째 생각, ‘발표를 하기 위해 조연을 구하고 자료를 찾느라 애를 많이 썼겠군.’에서 학생이 발표를 위해 조연을 구하고 책을 탐독했던 발표자의 사전 활동을 추리하며 발표를 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발표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림

<보기>의 세 번째 생각, ‘작년에 조류 박물관에서 알게 된 술개와 기러기의 습성이 떠오르는군.’에서 학생이 발표 내용과 관련된 박물관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발표를 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활용한 자료가 믿을 만한지 점검

<보기>의 두 번째 생각,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소개한 실험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군.’에서 학생이 발표에서 활용한 실험 자료의 출처와 관련된 신뢰성을 점검하며 발표를 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평가

<보기>의 네 번째 생각, ‘비언어적 표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더라면 보다 흥미로웠을 텐데.’에서 학생이 발표자가 비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 평가하며 발표를 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_ 발표 내용 파악 [답] ⑤

⑤ 경험과 학습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

2문단에서 발표자는 동물들이 미리 준비된 유전자 프로그램인 본능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3문단에서 발표자는 모형의 모양에 따라 병아리들의 반응이 다른 것은 동물들이 본능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험을 통해 배운 결과를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발표자는 동물들의 행동이 본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각에 대한 대응 방법을 다양하게 조절해 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들의 행동은 유전자 수준에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경험과 학습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발표의 주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① 본능에 따라 반사적으로 행동

동물들이 외부의 자극에 따라 대응 방법을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본능에 따라 반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법을 습득했기 때문이다.

② 자극에 대한 동물들의 반응이 동일한 양상

동물들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 획일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외부의 자극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다.

③ 생리적 특성에 맞게 서식 환경을 변화

자극에 따라 동물들의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동물들이 서식 환경을 자신들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변화시킨 결과가 아니라 동물들이 외부의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④ 본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

동물들이 자극에 대한 선별 능력을 갖게 된 것은 경험을 통해 본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한 결과가 아니라 학습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식을 터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작문 [06~10]

06 _ 글쓰기 전략 [답] ③

③ 전문가의 분석 내용을 인용

초고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뢰도가 낮은 원인으로 수도관의 노후화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원인을 언급하면서 전문가

의 분석 내용을 인용하지는 않았다.

① 일상에서 경험한 내용을 언급

1문단에서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문제 상황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공 음수대에서 목격한 일을 소개하고 있다.

②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

1문단에서 '수도물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물으며 문제 상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④ 외국의 사례를 들어 정보를 제공

3문단에서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물의 수질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⑤ 문제 상황이 초래한 결과 및 그 해결의 필요성 언급

4문단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물을 마시는 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생수나 정수기 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문제 상황이 초래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생수나 정수기 물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하며 문제 상황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07 _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 ⑤

⑤ 다른 물에 뒤지지 않는 수도물의 수질

(나)는 '수도물을 직접 마시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된 자료이고, (다)는 '학생들의 수도물 선호도'와 관련된 자료이다.

(나)와 (다)에는 우리나라 수도물의 수질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두 자료를 활용하여 수도물과 정수기 물, 생수의 수질을 비교할 수는 없다.

①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한 근거

(가)-1의 '국가별 수도물 직접 음용 현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가 외국에 비해 무척 낮은 편이라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② 수질 검사 공개와 수도물 신뢰도 향상

'학생의 초고'에서 수도물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할 때, (나)의 인터뷰 내용 중 '집에서 사용하는 수도물의 수질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구하기 어려워 수도물을 직접 마시기는 어렵다'라는 말에서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물의 수질을 주기적으로 검사한 후 공개하면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③ 수도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해소에 대한 필요성

(가)-2와 (나)의 인터뷰 내용에서 수도물을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로 수도관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도물을 믿을 수 있고 건강한 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수도물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인 냄새

(가)-2에서 수도물을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로 '냄새'가 제시되어 있고, (다)에서 1차 테스트에서 수도물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낮은 이유로 살균을 위해 첨가하는 염소의 냄새가 언급되어 있다.

08 _ 고쳐쓰기의 적절성 ㉢ ①

① 문맥상 부적절한 말

'담귀'는 '담가'의 잘못된 표현이다. '담가'의 기본형인 '담그다'는 '김치·젓갈 따위를 만드는 재료를 버무려 익도록 그릇에 넣어 두다.'의 의미로, '담가, 담그니'로 활용된다. 그런데 '담가' 또한 적절하지 않다. 문맥을 고려할 때 ㉠은 '어떤 물건을 그릇 따위에 넣다.'의 의미를 갖는 '담다'의 활용형 '담아'로 바꾸는 것이 옳다.

②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문장

㉡의 앞 문장에서는 '정수 과정을 거친 우리나라의 수도물 수질은 외국에 비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의 뒤 문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도물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수질이 아닌 다른 데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은 우리나라의 수도관 길이에 대한 내용으로 앞뒤 문장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을 삭제하면 뒤의 문장에서 사용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의미가 더 명확해지면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③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서술어 '준다'는 주어인 '방법은'과 호응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가 잘 호응되도록 서술어를 '주는 것이다.'로 고치는 것이 옳다.

④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

'알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인데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빠져 있다. 따라서 목적어로 '수질 상태를' 정도의 말을 첨가하는 것이 옳다.

⑤ 문장의 연결 관계에 맞는 접속어

문맥상 앞 문장과 뒤 문장은 병렬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그리고'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

09 _ 작문의 성격 파악 ㉢ ⑤

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출처를 제시

마지막 문단에서 '학습 능력이 같아도 수학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수학 성적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심리학자는 생각의 차이가 이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한다.'라고 하여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를 인용한 출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① 공통체를 고려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쓰기로 하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비유의 방법을 사용

'비유를 통해 내용을 어렵지 않게 전달하기로 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자신과 주변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바탕

'평소에 나와 내 친구들이 무엇에 대해 고민을 했나 생각해 보았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친구들이 학업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학생들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

'학업에 무기력해진 친구들이 힘을 내어 다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_ 내용 생성의 적절성 ㉢ ⑤

⑤ 성장한 코끼리

'자신이 충분히 성장한 코끼리가 되었는데도'라고 하여 비유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생각해 볼 일이다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일이다.'라고 하여 반성적인 생각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학습에 임한다면’이라고 하여 학습에 임할 때의 마음가짐을 드러내고 있다.

① 커다란 말뚝

‘긍정적 생각은 커다란 말뚝도 뽑아 버릴 수 있는 힘이다.’에서 비유의 활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믿음

‘학습에 임할 때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에서 학습에 임할 때의 마음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반성적인 생각을 하도록 권유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② 조그만 말뚝에 묶여

‘조그만 말뚝에 묶여’에서 비유의 활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성찰을 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을 해야 한다.’에서 반성적인 생각을 권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에 임할 때의 마음가짐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에서 반성적인 생각을 권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긍정적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는다면’에서 학습에 임할 때의 마음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비유의 방법을 활용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④ 생각해 보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학습에 임하는데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에서 반성적인 생각을 권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비유의 방법을 활용한 부분이나 학습에 임할 때의 마음가짐은 확인할 수 없다.

문법 [11 ~16]

11 _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 ⑤

⑤ ‘여달이’의 단어 형성 방법

‘여달이[여다지]’는 ‘열다’의 어간 ‘열-’과 ‘달다’의 어간 ‘달-’, 접사 ‘-이’가 합성 및 파생되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여달이’의 발음과 표기의 비교

‘여달-’은 합성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발음상의 변화를 반영한 부분이고, ‘-달이[다지]’는 파생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발음상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어근의 원래 형태 ‘달-’을 고정시켜 표기한 것이다.

‘여달이’에 반영된 표기 원칙

‘여달이’는 합성 및 파생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발음상의 변화를 모두 반영하여 적은 것이 아니라 소리대로 표기하는 원칙과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는 원칙을 둘 다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① ‘갈아’의 발음과 표기

‘갈아[가타]’는 활용되는 어간의 원래 형태인 ‘갈-’을 고정시켜 적고 있으므로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 것이다.

② ‘이르러’의 발음과 표기

‘이르러’는 ‘어간(이르-)+ 어미(-어)’가 ‘이르러’로 불규칙 활용된 것으로, 이때 일어나는 어미의 발음상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소리대로 표기한 것이다.

③ ‘옆집’의 발음과 표기

‘옆집[엿집]’은 합성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어근 ‘옆’과 ‘집’의 원

래 형태를 고정시켜 적은 것이므로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 것이다.

④ ‘빠꾸기’의 발음과 표기

‘빠꾸기’는 어근 ‘빠꾹’과 접사 ‘-이’가 결합해 파생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발음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소리대로 표기한 것이다.

12 _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 ①

① 수정 후 문장에서 사용한 연결 어미의 쓰임

수정 후 문장에서 ‘기름지나’를 ‘기름져서’로 수정한 이유는 문장의 앞 절이 뒤 절의 이유나 근거가 되도록 이어 주는 연결 어미(-어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문장을 수정한 이유

수정 후 문장에서 종속적 연결 어미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앞 절과 뒤 절을 대등하게 이어 주는 연결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장을 수정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

‘놓여지다’는 피동문을 만들 때 사용되는 접사 ‘-이-’와 ‘-어 지다’를 중복 사용한 잘못된 표현이다.

③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의 쓰임

큰따옴표(“ ”)는 글 가운데에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나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쓴다. 작은따옴표(‘ ’)는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나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쓴다.

직접 인용 시 사용한 작은따옴표의 적절성

제시된 문장에서는 ‘라고’를 사용하여 실제로 발화된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으므로 큰따옴표(“ ”)를 사용해야 한다.

④ 서술어의 의미에 어울리는 주어 사용

서술어 ‘사건이었다’에서 ‘사건’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할 때, ‘논문’ 자체는 사건이 될 수 없으므로 문장의 주어로 적절하지 않다.

⑤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목적어

‘두다’는 주어와 목적어(…을), 부사어(…에)를 모두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인데,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13 _ 표준어 규정 파악 ㉠ ⑤

⑤ 표준어와 사투리의 개념과 그 차이점

‘표준어’는 한 나라 안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이다. 이와 달리 ‘사투리’는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이다.

표준어와 사용 범위가 넓은 사투리의 관계

‘코주부’, ‘빈대떡’, ‘억겁다’ 등은 ‘사용 범위가 전국적으로 넓은 말’이었지만 표준어로 인정된 경우라는 점에서 표준어가 서울 이외 지역의 말을 완전하게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들은 모두 사용 범위가 전국적으로 넓은 사투리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은 표준어를 뜻하는 것으로, 표준어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 범위가 넓지 않은 서울말이 표준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⑤의 진술은 표준어의 사정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① 표준어 사용의 효과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공용어’라는 표현을 통해 표준어 사용이 국민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표준어의 지역적 조건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을 통해 표준어가 대부분 서울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③ 표준어로 인정된 서울 이외 지역의 말
서울말이 아닌 ‘코주부, 빈대떡, 역겹다’ 등이 표준어가 되었으므로 지방에서 쓰는 말도 경우에 따라서는 표준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④ 표준어가 아닌 서울 사투리
사투리는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이므로, 서울말 중에서 표준어가 아닌 말들은 서울 사투리가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4 _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㉔ ②

② 유의어로는 ‘팽창하다’
‘팽창하다’는 ‘부풀어서 부피가 커지다.’라는 의미이므로 씨앗을 많이 뿌리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① 용례
‘벌에 쏘인 자리가 붓다.’는 ‘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르다.’라는 의미에 해당되므로 붓다① ㉔의 용례로 적절하다.

③ 다의어
붓다 ①과 붓다 ②는 모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이다.

④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붓다 ②는 붓다 ①에 비해 ‘…에/에게 …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더 필요로 한다.

⑤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부어, 부으니’처럼 ‘붓-’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ㅅ’이 탈락되고 있다.

15 _ 의미의 중의성 파악, 해소 ㉔ ⑤

⑤ 수식하는 대상
ㄹ은 ‘어제’가 수식하는 대상에 따라 ‘고향에서 동창생이 온 시기가 어제’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동창생을 만난 시기가 어제’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어제’는 ‘온’과 ‘만났다’를 수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의적이다.

① 부정하는 대상
‘철수’가 택시를 타지 않았다는 것인지, 철수가 ‘택시’를 타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철수가 택시를 ‘타지’ 않았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② 주체
‘광수’가 보고 싶은 친구가 많다는 의미인지, ‘많은 친구들이’ 광수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의미인지 모호하다.

③ 꾸미는 대상
‘승호’가 귀엽다는 의미인지, ‘승호의 동생’이 귀엽다는 의미인지 모호하다.

④ 주체
‘영수와 찬기’ 둘이서 창수를 불렀다는 의미인지, ‘영수’가 찬기와 창수를 불렀다는 의미인지 모호하다.

16 _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㉔ ⑤

⑤ ‘갈쁘기’의 단어 구성과 ‘ㅎ’의 음가
‘갈쁘기’는 히을 종성 체언인 ‘갈ㅎ’이 실질 형태소 ‘쁘기’와 결합하여 ‘ㅎ’이 탈락하면서 음가가 소멸한 경우이다.

‘수평아리’의 단어 구성과 ‘ㅎ’의 음가
‘수평아리’는 접사 ‘수ㅎ’와 실질 형태소 ‘병아리’가 결합하면서 축약(ㅎ + ㅂ → ㅍ)이 일어난 것으로, ‘ㅎ’의 음가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① ‘갈히’, ‘내해’의 음운 환경
‘갈히’와 ‘내해’는 히을 종성 체언이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 ‘애’와 결합하는 음운 환경을 보이고 있다.

‘ㅎ’의 연음 여부
‘갈히’는 ‘ㅎ’이 조사 ‘이’에, ‘내해’는 ‘ㅎ’이 조사 ‘애’에 연음되어 표기된 경우이다.

정답과 해설 7

② ‘갈과’, ‘내토’의 음운 환경
‘갈과’, ‘내토’는 히을 종성 체언이 각각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과’, ‘도’와 결합하는 음운 환경을 보이고 있다.

‘ㅎ’이 뒤에 오는 ‘초성’과 축약
‘과’는 ‘ㅎ’이 뒤에 오는 조사의 초성(ㄱ)과 축약(ㅎ + ㄱ → ㅋ)된 경우이고, ‘토’는 ‘ㅎ’이 뒤에 오는 조사의 초성(ㄷ)과 축약(ㅎ + ㄷ → ㅌ)된 경우이다.

③ ‘넷을’의 음운 환경
‘넷을’은 히을 종성 체언 ‘내ㅎ’가 관형격 표지 ‘ㅅ’과 함께 명사 ‘을’과 결합하는 음운 환경을 보이고 있다.

관형격 표지 앞에서의 ‘ㅎ’ 탈락
‘넷을’은 히을 종성 체언이 관형격 조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ㅅ’ 앞에 위치하여 ‘ㅎ’이 탈락되어 사라진 경우이다.

④ ‘안팎’, ‘살고기’의 단어 형성 과정
‘안팎’, ‘살고기’는 히을 종성 체언이 명사와 결합(안ㅎ + ㅍ, 살ㅎ + 고기)하여 합성어를 이룬 것이다.

‘ㅎ’과 예사소리의 결합 양상
‘안팎’은 ‘ㅎ’이 뒤의 예사소리(ㅍ)와 결합하여 거센소리(ㅍ)가 된 경우이고, ‘살고기’는 ‘ㅎ’이 뒤의 예사소리(ㄱ)와 결합하여 거센소리(ㅋ)가 된 경우이다.

8회

01 ② 02 ④ 03 ① 04 ③ 05 ④
06 ⑤ 07 ③ 08 ④ 09 ④ 10 ④
11 ③ 12 ⑤ 13 ④ 14 ③ 15 ③
16 ⑤

화법 [01~05]

01 _ 협상 내용 파악 ㉔ ②

② 자발적 노력
㉔은 환자복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높다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 측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최우선 목표이다. 이를 위해 업체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업체가 자발적 노력을 통해 보다 나은 재질의 환자복을 제공할 것이라고 병원 측이 기대하는 상황은 아니다. 병원 측 역시 환자복의 품질(원단 등급)을 높이기 위한 가격 인상 요인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으므로, 업체 측의 자발적 노력만을 기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병원 측의 문제, 업체 측의 해결 노력
병원 측에서 조사한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 환자복에 대한 불만이 높아서 병원 측이 곤란을 겪고 있다. 이는 환자복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므로, 병원과의 납품 계약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업체 측도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다.

③ 설문 조사 결과

병원 측에서는 다양한 치수의 환자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설문 조사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 특히 환자복 치수와 관련된 불만 답변 비율이 38%나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면서 근거로 삼고 있다.

④ 업체 측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업체 측은 환자복의 원단 등급을 높여 착용감을 높이는 대안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품 가격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업체 측은 문제 상황과 병원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㉔을 달성할 때, 업체 측에서 제안한 인상 폭에서 가격 인상안이 합의되기를 바라고 있다.

⑤ 구체적으로 설명

업체 측은 환자복 치수를 다양하게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작업 공정이 복잡해짐, 설비 추가 문제, 인력 총원 문제 등을 언급하여 병원 측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02 _ 협상의 적절성, 전략 평가 ㉔ ④

④ 양보할 수 없는 선을 밝히고 그것을 고수함

업체 측은 병원 측의 제안이나 생각을 들으면서 협상안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양보할 수 없는 한계선을 처음에 밝히거나,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업체 측은 병원 측의 태도를 고려하여 인상 비율을 15%에서 13%로 조정하고 있다. 오히려 ‘양보할 수 없는 선’을 밝혀 두고 그것을 고수하는 것은 병원 측이라고 할 수 있다. 병원 측은 내부 회의의 결정을 언급하며 업체 측에 조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① 환자들의 상황과 심리 상태를 언급

병원 측은 두 번째 발언에서 환자들의 상황과 심리 상태를 언급하면서 병원 측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환자복의 착용감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②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장점을 부각함

업체 측은 환자복 원단의 등급이 높지 않아 품질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비슷한 품질의 옷을 다른 업체보다 20% 정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구체적 협상안을 먼저 제시

병원 측은 내부 회의 결과를 언급하면서 업체 측보다 먼저 10% 가격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병원 측은 자기 측 협상안이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 하고 있다.

⑤ 최종 결정권

병원 측 협상 대표는 마지막 발언에서 ‘내부 회의에서 정한 것’에 대해 자신이 바꿀 권한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협상을 다음 주로 미루면서, 업체 측에 조정안을 만들어 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협상까지 시간을 벌면서 ‘보상 판매’에 대해 검토하고, 가격 인상의 폭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보려는 것이다.

03 _ 말하기 내용 추론 ㉔ ①

① 병원 측 상황 활용, 절충안

업체 측은 병원 측에 기존 제품의 재고가 남아 있다는 말을 듣고, 보상 판매를 제안한다. 업체 측의 이러한 절충안은 병원 측의 상황을 활용하여 양측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업체 측의 경우 ‘올해 생산한 제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을 해결하여 경제

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병원 측은 폐기하기로 했던 재고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새로 구매하기로 계약했던 제품 중 100벌을 50%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이 된다.

② 신뢰 회복을 중시한 양보안

‘보상 판매’는 기존 환자복의 재고가 남아 있는 병원 측의 상황을 파악한 후 업체 측이 제시한 것이다. 업체 측은 때마침 ‘올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추가 주문’이 들어와 재고품이 필요했다고 밝히고 있다. 업체 측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보상 판매’를 제안하고 있으므로, 업체 측이 병원 측과의 신뢰 회복을 경제적 이익보다 중시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③ 환자들의 만족도, 사전에 준비한 협상안

업체 측은 병원 측의 상황을 알게 된 후 회사와 협의를 거쳐서 ‘보상 판매’를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보상 판매’는 환자복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미리 준비해 온 협상안이 아니다.

④ 먼저 요구하여 얻어 낸 결과

‘보상 판매’를 먼저 언급한 것은 병원 측이 아니라 업체 측이다.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활용하여 업체 측이 ‘보상 판매’를 제안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병원의 비용 절감

‘보상 판매’로 인해 병원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크게 보면 이 또한 환자복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의 일환이다. 또한 병원 측은 병원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업체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므로, 환자의 만족도를 비용 절감보다 우선적으로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04 _ 말하기 방식 추론 ㉔ ③

③ 상대방의 말을 요약정리, 스스로 문제 해결

㉔은 ‘인체 세계전’에 대해 명희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영수의 발화이다. 앞에서 명희가 한 말을 요약정리해서 명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발언이 아니다. 화제에 대해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① 상황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화제

영수는 ‘인체 세계전’이라는 화제가 밥을 먹고 난 직후의 화제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황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대화의 화제가 선택되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② 용어의 개념을 밝혀 이해를 도움

바로 앞에 있는 영수의 질문을 보면, 영수가 ‘포르말린’을 활용한 전시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희는 이 전시회에 ‘플라스티네이션’이라는 기법이 활용되었음을 밝혀, 이러한 인식이 잘못된 이해에서 온 것임을 알려 주려 한다. ㉔에는 ‘플라스티네이션’의 개념을 밝힘으로써 상대방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는 의도가 담겨 있다.

④ 상대방의 발언 중 일부에 동의

명희는 ‘일부 종교계에서는 ~ 비판한다고 들어.’라는 영수의 말을 일부 인정하며, ‘나도 종교인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라고 답하고 있다. 상대방의 발언 중 일부에 동의를 표하며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 나가는 것이다.

⑤ 평소 지니고 있던 가치관

대화를 통해서 의견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서로의 생각 차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영수는 할머니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기에, 그러한 가치관에서 벗어난 명희의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05 _ 말하기 전략 평가 ㉔ ④

④ 신체 기증의 필요성

명희는 신체 기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지만, 영수는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명희는 영수와 대화로 통해서 자신과 다른 관점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점을 고려하여 발표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자신과 다른 관점을 지닌 사람들의 반응을 고려할 때 ‘신체 기증의 필요성’은 강조하지 않는 것이 낫다.

① 다양한 관점이 있음

명희는 ‘인체 세계전’에 대해 자신과 다른 관점을 지녔거나 부정적 인식을 지닌 사람들도 있음을 영수를 통해 알게 되었으므로, 그것을 도입 부분에 언급하면서 자신의 발표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

‘포르말린’과 ‘박제’를 언급하던 영수를 생각할 때, ‘인체 세계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편견을 고쳐 주는 발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인체 세계전’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③ 사진을 찾아 교체

영수의 경우, 명희가 마음에 들어 했던 전시물에 대해서 겁이 나고, 무섭고, 징그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반응을 고려할 때, 무섭거나 잔인하게 보일 수 있는 사진을 무서움을 덜 느낄 만한 무난한 사진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⑤ 홈페이지 주소 안내

관련 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하면 다양한 정보를 추가로 얻기 원하는 친구들은 자신이 원할 때 해당 홈페이지를 찾아가 볼 수 있다. 대화의 마지막에서 ‘홈페이지 주소’를 요구했던 영수의 말을 참고한 수정 방안이다.

작문 [06~10]

06 _ 매체 활용 계획 ㉔ ⑤

⑤ 다른 건강 음료와 커피의 효능을 비교

(나)에는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의 긍정적 효과가 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커피 음용의 부작용’을 강조하기에 적절한 자료는 아니다. 또한 (나)와 (다)에는 다른 건강 음료의 효능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건강 음료와 커피의 효능을 비교하여 제시하는 것은 (나)와 (다)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① 문제 제기

(다)에는 신체 의존성과 카페인의 금단 증상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가)-1에는 커피의 음용 실태에 대한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다)를 참고할 때, (가)-1에서 커피를 매일 두 잔 이상 마시거나 매일 한 잔 이상 꾸준히 마시는 청소년들의 경우 신체 의존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카페인의 금단 증상

(가)-2에는 커피를 자주 마시는 청소년들이 겪은 금단 증상으로 ‘불안’, ‘짜증’, ‘두통’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다)에서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이 금단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자료를 연결하면 카페인의 금단 증상으로 ‘불안’,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할 수 있다.

③ 커피를 음용하는 이유

(가)-3에는 ‘시험 기간에 잠 깨려고’,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되어서’와 같은 학생 답변이 제시되고 있고, (나)에는 공부할 때 커피

를 마시는 청소년들이 생기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두 자료를 종합하면, 커피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학생들이 커피를 음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자료의 신뢰성

(가)와 (다)는 객관적 자료의 일종이지만, 그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고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좋다.

07 _ 내용 조직의 적절성 ㉔ ③

③ 육하원칙

육하원칙이란 기사문의 요건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원칙을 말한다. 전문을 통해 기사 전체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여 보완해야 한다. 초고의 전문에는 누가(도서부에서는), 무엇을(‘나를 찾아 떠나는, 독서 여행’을), 왜(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은 언급되어 있지만, 언제(7월 19일), 어디서(도서관에서), 어떻게(교사와 학생이 각각 멘토, 멘티가 되어서)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

① 객관적 태도

객관성은 신문 기사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이다. 현재 초고에는 기사를 쓴 개인의 취향이나 기대감이 표현된 부분(평소 독서를 좋아했던 ~ 감추지 못했다.)이 있는데, 이러한 문장을 찾아 삭제하면 기사 전체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② 표제를 보완해 주는 부제

현재 초고의 부제는 ‘학교에서 있었던 책 읽기 행사’로 학교 신문이라는 특성을 생각할 때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표제를 보완하는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표제에서 언급한 ‘함께 떠난’이 누구와 함께 떠난 것인지, ‘독서 여행’이 얼마 동안 진행된 것인지 등을 보완하려면 ‘독서 멘토와 함께한 1박 2일의 책 읽기’와 같이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행사의 사전 준비 과정

작문 계획에서 떠올렸던 ‘행사의 사전 준비 과정’이 초고에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다.

⑤ 학생들의 인터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행사이므로, 학생들이 느낀 감동이나 깨달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학생 인터뷰를 넣는 것이 효과적이다.

08 _ 고쳐쓰기의 적절성 ㉔ ④

④ 논리적 흐름

㉔은 기사의 흐름상 3부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 행사의 3부에는 멘토와 멘티가 서로의 독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㉔의 앞 문장은 멘토들이 한 행동이고, ㉔은 멘티들이 한 행동이다. 그러므로 3부 행사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㉔을 삭제하면 안 된다. 기사의 논리적 흐름이나 완결성을 고려할 때, ㉔은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① 앞 문장의 내용 반복

‘교사 12명과 학생 100여 명이 참가한 1박 2일의 독서 여행’이라는 구절이 바로 앞 문장에 있으므로 ㉑에 제시된 내용 중 ‘독서 여행 행사에 참가한’과 ‘12명과 100여 명’은 불필요하게 반복된 내용이다. 다만 ㉑이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므로 ‘교사와 학생들’과 같이 고쳐야 한다.

② 우리말답지 않은 번역 투의 표현

‘시간을 가졌다’는 영어식 문장 표현(영어를 직역하여 표현한 번

역 투)으로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에 해당한다. ‘함께 읽었다’와 같이 바꾸어 표현해야 한다.

③ 이중 피동

‘진행되어진’은 ‘되다’라는 피동 표현과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함께 쓰인 불필요한 이중 피동에 해당한다. ‘진행된’으로 고쳐야 한다.

⑤ 종결 어미의 일치

㉠은 다른 문장들의 종결 어미와 달리 ‘-습니다’라는 어미를 사용한 합쇼체 문장이다. 기사문의 경우 사건을 독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상대 높임의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문장의 종결 어미와 일치시켜 ‘말했다’로 수정해야 한다.

09 _ 작문의 과정 평가 ㉡ ④

④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

(나)의 호소문에서는 동물 보호 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설령 이것을 전문가의 견해로 보더라도 이는 현상에 대한 분석 자료일 뿐, 이것이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① 특정 단어의 의미를 환기

(나)의 첫 문장에서 ‘반려’라는 단어의 의미를 물으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② 통계 수치

동물 보호 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 수치를 활용하고 있다.

③ 설의적 표현

(나)의 ‘친구라면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반려 동물의 사체 처리 문제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⑤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의 출처

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통계 자료의 출처로 동물 보호 협회를 제시하고 있다.

10 _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 ④

④ 살아서는 짝이 되는 친구이고, 죽어서는 버려야 하는 쓰레기인가요?

‘살다’와 ‘죽다’, ‘짝이 되는 친구’와 ‘쓰레기’가 대조되고 있고, ‘쓰레기인가요?’는 쓰레기가 아니라는 답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설의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 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글쓴이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④는 <보기>의 조건을 충족하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① 반려 동물과 함께한 시간, 추억마저 버리시겠습니까?

반려 동물의 사체가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 상황과 이에 대한 글쓴이의 문제의식이 부분적으로 내포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글이 문제 해결의 주제로 동물 복지 관계자를 지칭한 데 비해,

①은 반려 동물의 사체를 쓰레기로 버리는 사람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설의적 표현은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대조가 사용되지 않았다.

② 반려는 함께 지내는 것이지, 돌려보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글쓴이의 문제의식을 아우르기에는 내용이 부족하며, 설의적 표현과 대조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③ 장례를 지내자니 주인이 울고, 쓰레기로 버리자니 동물이 읊니다

전체적으로 글쓴이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장례를 지내’는 것과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대조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반려 동물은 인간의 친구입니다. 친구다운 예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고 설의적 표현도 사용되었으나, 대조가 사용되지 않았다.

문법 [11~16]

11 _ 표준 발음법 적용 ㉡ ③

③ 제9항, 제10항, 제23항

‘웃값도’의 발음은 [온값도]이다. ‘웃’은 제9항의 적용을 받아 [온]으로 발음된다. ‘웃값’과 ‘값도’는 제10항과 제23항의 적용을 받아 각각 [온값], [값도]로 발음된다. [온값도]는 이 세 가지 원칙이 모두 적용된 단어이다.

① 제9항, 제23항

‘낮설고’가 [넉설고]로 발음되는 것은 제9항과 제23항의 적용을 받은 것이다.

② 제10항, 제23항

‘넋두리’가 [넉두리]로 발음되는 것은 제10항과 제23항의 적용을 받은 것이다.

④ 제9항의 미적용

‘한없이’가 [하 : 넵씨]로 발음되는 것은 제9항과는 관련이 없다.

⑤ 제9항, 제10항의 미적용

‘활아먹다’가 [할타먹따]로 발음되는 것은 제9항, 제10항과는 관련이 없다.

12 _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 ⑤

⑤ ‘고즈넉이’의 단어 형성 방법

‘고즈넉이’는 ‘-하다’가 붙은 어근 ‘고즈넉’에 ‘-이’가 붙은 경우에 해당하여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따라서 부사 ‘고즈넉’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경우가 아니다.

① ‘딱히’의 단어 형성

‘딱히’는 원형을 밝혀 적은 것으로, ‘딱하다’의 어근에 ‘-히’가 붙은 말이다.

② ‘깨끗이’의 단어 형성

‘깨끗이’는 원형을 밝혀 적은 것으로, ‘깨끗하다’의 어근에 ‘-이’가 붙은 말이다.

③ ‘갑자기’의 단어 형성

‘갑자기 돌아가다’의 ‘갑자기’는 소리대로 적은 것으로, ‘-하다’가 붙은 어근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 아니므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④ ‘일찍이’의 단어 형성

‘일찍이’는 원형을 밝혀 적은 것으로, 부사 ‘일찍’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말이다.

13 _ 로마자 표기법 ㉡ ④

④ 자음 ‘ㄹ’의 표기

자음 ‘ㄹ’은 ‘구리 - Guri’, ‘설악[서락]-Seorak’과 같이 ‘모음 앞’에서는 ‘r’로, ‘임실-Imsil’과 같은 ‘어말’이나 ‘칠곡-Chilgok’과 같은 ‘자음 앞’에서는 ‘l’로 적는다. 단, ‘울릉-Ulleung’, ‘대관령[대괄령]-Daegwallyeong’과 같이 [ㄹㄹ] 소리가 나면 ‘ll’로 적는다는 것을 <보기>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_ 품사의 세부 유형 분류, 적용 ㉡ ③

③ 화를 낼만도

③에 쓰인 ‘만’은 ‘만 02 ㉠’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널만도’는 한글 맞춤법 규정 제42항에 의거하여 ‘널만도’로 띄어 써야 한다.

① 이해할 만은

①에 쓰인 ‘만’은 ‘만 02 ㉡’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의존 명사’이다.

② 웃기만

②에 쓰인 ‘만’은 ‘만 14 ㉢’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조사’이다.

④ 두 시간 만에

④에 쓰인 ‘만’은 ‘만 01’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의존 명사’이다.

⑤ 받아야만

⑤에 쓰인 ‘만’은 ‘만 14 ㉣’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조사’이다. 그런데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는 비교적 생략이 자유롭다.

15 _ 비문의 유형 및 해소 ㉤ ③

③ 과연, 반드시

‘과연’은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의 의미가 있는데, 주로 생각과 실재가 같음을 확인할 때 쓴다.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의 의미로 쓰이는데, 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그런데 두 부사는 모두 긍정적 서술어와 호응한다. 부정적 서술어와 호응하는 부사로 ‘결코’ 등이 있다.

① 남을 속이기도 한다

‘속이기도 한다.’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남을 속이기도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

② 보고 알 수 있다

고치기 전 문장에서는 ‘생선의 신선도’에 호응되지 않는 서술어인 ‘보아야 한다.’가 쓰였다. 따라서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보고 알 수 있다.’로 수정해야 한다.

④ 아름다움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그녀의’가 수식하는 대상이 ‘아름다움’인지 ‘관심’인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그녀의’를, 수식하는 대상인 ‘관심은’의 앞으로 옮기면 종의성을 없앨 수 있다.

⑤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고

‘싣다’는 ‘물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 배, 수레, 비행기, 짐승의 등 따위에 올린다.’의 의미로 쓰인다. 그런데 사람은 ‘싣는’ 것이 아니라 ‘태우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이 배는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고 하루에 다섯 번씩 운항한다.’로 수정해야 한다.

16 _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 ㉤ ⑤

⑤ 초성에 서로 다른 글자를 결합하여 쓰는 합용 병서

합용 병서란 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방법을 뜻한다. ‘ㄱ, ㄴ, ㄷ’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기>의 자료는 15세기 중세 국어 자료로, 원래는 합용 병서가 사용되던 시기의 자료이다. 하지만 제시된 부분에는 합용 병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원래 중세 국어 시기에는 ‘ㄱ, ㄴ, ㄷ, ㄹ’ 등의 합용 병서가 초성에서도 사용된다. 그러나 현대어에서는 초성에서의 합용 병서가 인정되지 않고 종성에서만 남아 있다.

① 조음 위치

‘ㄱ’, ‘ㄷ’과 같은 초성을 예로 들면서, ‘어금닛소리’나 ‘혓소리’와 같은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어금니’, ‘혀’와 같은 조음 위치와 관련지어, 초성을 설명한 것이다.

②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글자 (음운)

제시된 중세 국어 자료에서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글자(음운)인 ‘ㆍ’(아래 아), ‘△’(반치음), ‘병’(순경음 비음) 등을 확인할 수 있

다. 이 외에도 ‘몽’(순경음 미음)과 ‘ㅇ’(옛이음)을 해당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③ 방점

방점은 중세 국어 시기에 해당 음절(소리)의 성조(聲調, 음절 안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시기 방점은 성조에 따라 0~2개가 쓰였다.

④ 한자의 음가 활용

‘ㄱ’, ‘ㄷ’과 같은 자음자의 음가를 알려 주기 위해 ‘君(군) 자’의 처음 펴서 나는 소리, ‘斗(두) 자’의 처음 펴서 나는 소리를 상기시키고 있다. 익숙한 한자음을 활용해 초성의 음가를 가르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9회

01 ⑤ 02 ⑤ 03 ② 04 ⑤ 05 ⑤
06 ① 07 ④ 08 ④ 09 ⑤ 10 ③
11 ⑤ 12 ⑤ 13 ③ 14 ② 15 ⑤
16 ②

화법 [01~05]

01 _ 토론의 적절성, 전략 평가 ㉤ ⑤

⑤ 제도 실시의 시의성

‘반대 1’은 효를 법제화하는 것의 실효성을 문제 삼아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지 제도 실시의 시의성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지는 않다. 즉 현재의 사회적 상황과 관련해 제도의 실시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와 관련 있는 근거를 제시해 찬성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제도 실시의 시의성을 근거로 찬성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다.

① 토론의 배경

사회자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노인에 대한 공경 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토론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외국의 사례

‘찬성 1’은 입론에서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

‘찬성 1’은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학대를 당하는 노인의 수는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인 사회학자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효가 더 이상 윤리적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반론하고 있다.

④ 예상되는 문제점

‘반대 1’은 효를 법제화하면 오히려 부모를 봉양한다는 것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만 많아져 효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키울 수도 있으며, 그것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양산으로 이어져 노인 복지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02 _ 토론의 유형과 내용 파악 ㉤ ⑤

ㄴ. 윤리적 차원

토론에서는 논제와 관련해 하위 쟁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찬성 1’은 효가 윤리적 문제만이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법적으로 효를 장려하고, 교육하고, 부양을 적절하게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에 ‘반대 1’은 효는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윤리적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즉 효의 실천에 관한 문제가 윤리적 차원에서만 다루어져야 하는가에 관해 서로 입장이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ㄷ. 노인 복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

‘반대 1’은 효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일으켜 노인 복지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 1’은 효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통해 노인 복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효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노인 복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관해 하위 쟁점이 형성된 것이다.

ㄱ. 교육

교육을 통해 효의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가의 유무에 대해서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지 않다.

ㄴ. 가족 공동체의 해체

반대 측에서는 효를 강제하는 법을 정하면, 오히려 그 법이 가족 불화의 원인이 되어 가족 공동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토론은 사회의 고령화와 더불어 효를 기반으로 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 자체가 쟁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3 _ 화법 참여자의 공통점 추론 [답] ②

② 노인 복지 시스템

‘찬성 1’은 국가가 체계적으로 노인 복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반대 1’도 고령화 사회의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노인 복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국가가 체계적으로 노인 복지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법적 책임을 강화

노인 학대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토론에 나와 있으나, 노인을 학대한 사람들에게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언급하지 않았다.

③ 세대 간 합의

효를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을 세대 간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은 토론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사회적 합의

‘찬성 1’이 국가가 체계적으로 노인 복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나, ‘반대 1’이 국가가 나서서 노인 복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통해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노인 복지 강화에 대해 언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언급하지 않았다.

⑤ 고령화 속도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 모두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04 _ 말하기 효과 평가 [답] ⑤

⑤ 통념의 문제점

㉠은 발표자의 경험을 언급한 것이다. 그런데 ㉠은 발표자가 청중에게 자신이 발표한 내용을 잘 숙지해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기 위해 먼저 말한 것이다. 청중이 지닌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① 청중의 경험을 환기

㉡에서 발표자는 청중에게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지 묻고 있다. 이는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청중의 경험을 환기한 것이다.

② 발표 주제와 관련 있는 정보를 파악했는지 확인

㉢에서 발표자는 영상 자료를 활용해 청중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영상 자료에서 청중이 발표 주제와 관련 있는 정보를 파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③ 앞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

㉣에서 발표자는 앞서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며, 요약한 내용을 토대로 이어서 발표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히 밝히고 있다.

④ 구체적 사례를 제시

㉤의 예들은 ‘폐쇄적 질문’과 ‘개방적 질문’의 개념을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제시한 것들이다.

05 _ 말하기 내용의 적절성 평가 [답] ⑤

⑤ 문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

발표에서는 상담 초기부터 조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내담자의 특성과 내담자가 지닌 문제의 배경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조언은 내담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내담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상담을 시작하는 것은 발표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① 내담자의 변화

2문단에 따르면, 상담의 대화는 내담자의 변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상담을 할 때는 그와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두고 대화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내담자의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

3문단에서 내담자와 대화를 할 때는 내담자의 말에 관심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하며, 대화의 과정에서 내담자의 행동 유형도 이해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상담의 대화에 내담자의 행동 유형에 대한 통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서 알 수 있다.

③ 내담자의 경험과 감정을 잘 이해

3문단에 따르면, 상담의 대화에서는 내담자의 경험과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내담자에게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④ 개방적 질문

4문단에서 내담자의 특성과 내담자가 지닌 문제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방적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다.

작문 [06~10]

06 _ 작문 계획의 적절성 [답] ①

① 문제점에 대한 독자의 주의를 환기

서론에서 청소년 여가 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면서 글을 시작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청소년 여가 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부정적 여가 활동 실태를 제시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여가 활동을 중시하는 청소년의 증가’에 관한 내용으로는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청소년 여가의 문제점에 대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유형의 여가 활동을 중시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가 활동을 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② 글의 통일성

‘청소년 여가 활동 만족도의 증가 추이’는 ‘청소년 여가 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즉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것이다.

③ 정책적 지원 확대

‘II-2-나’에서 ‘청소년 여가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족’을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㉔에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글의 주제를 강조

이 글의 주제는 ‘청소년 여가 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다. 이러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결론에서 청소년 여가 활동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의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㉔에 들어가야 한다.

⑤ 글의 논리적 흐름 및 상위 항목과의 관련성

㉔은 문제의 원인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II-2’의 하위 항목으로 이동해야 한다.

07 _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답] ④

④ 경제적 부담

(나)-1의 자료는 청소년들이 비용 부담과 시간 부족으로 여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나)-2의 자료는 청소년 여가 활동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나)-1과 (나)-2 모두를 활용해 논지를 강화하고자 할 때,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은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청소년을 위한 여가 활동 공간 및 시설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

(나)-1의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방안이다. (나)-2에서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가 활동 공간 및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활용해 청소년의 여가 활동을 위한 기존의 공간과 시설에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강조하는 것은 논리의 초점이 맞지 않을 수 있다.

② 청소년의 정신 건강

청소년의 여가 활동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은 (나)-1과 (나)-2의 자료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③ 여가 활동 시간을 제한하는 요인들

청소년의 여가 활동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나)-1의 자료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가 활동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 여가 활동 시간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을 강조하면 (나)-2의 자료를 활용하기 어렵다.

⑤ 여가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개선

여가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나)-1과 (나)-2의 자료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08 _ 고쳐쓰기의 적절성 [답] ④

④ 문장 성분 간의 호응

㉔의 ‘말에는’은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와 호응이 어색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말에는’을 ‘말은’으로 고쳐야 한다. ‘말에서는’으로 고치면 어색한 호응 관계가 바로잡히지 않는다.

① 띄어쓰기

‘경우’의 의미를 지닌 ‘데’는 의존 명사이다. 의존 명사는 띄어 써야 한다.

② 다음 문장의 뒤

㉔은 여가 활동의 본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여가 활동의 유형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 자료의 내용과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문장은 ㉔ 뒤에 있는 문장이다. 따라서 ㉔ 뒤의 문장과 위치를 바꾸어야 한다.

③ 피동 표현

‘중속되어져’에는 피동 표현을 만드는 요소인 ‘-되다’와 ‘-어 지다’가 중복 사용되었다.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으므로, ‘중속되어’로 고쳐야 한다.

⑤ 문단의 주제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여가를 즐길 때 친구와 함께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대중 매체에 편중되어 이루어지는 여가 활동의 증가’라는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 즉 문단의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삭제해야 한다.

09 _ 작문의 성격 파악 [답] ⑤

⑤ 인과 관계로 서로 연결

작문을 할 때 내용 전달에 적합한 구성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글이 전체적으로 인과 관계에 의해 앞뒤 문단이 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의 ‘글의 구성과 표현 전략’을 참고하여 (나)의 초고를 보면 ‘진정한 봉사 활동과 혈액원 봉사 활동 소개(1문단) → 헌혈을 통한 봉사 활동(2문단) → 헌혈 캠페인을 통한 봉사 활동(3문단) → 혈액원 봉사 활동의 의의와 신청 방법(4문단)’이라는 구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문단 간의 연결이 인과 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① 특정 학년 독자가 유의할 점

‘혈액의 모든 성분을 헌혈하는 전혈 헌혈의 경우 만 16세 이하는 불가능한데 특히 1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만 나이를 미리 따져 보고 방문하는 게 좋겠네요.’는 예상 독자 중 특별히 1학년 학생들이 유의할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대조와 분류

1문단에서는 진정한 봉사 활동과 형식적 봉사 활동을 대조하였고, 2문단과 3문단은 혈액원에서 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의 종류를 나누었으므로 분류의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

③ 동영상 자료

학교 홈페이지에 실을 글이므로, 인터넷에서 구현 가능한 멀티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헌혈 시 유의 사항에 관한 동영상상을 첨부하였다.

④ 글쓴이 자신의 경험, 혈액원 측의 자료

‘감기약을 먹고 있거나 전염병이 나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헌혈을 못 하고 발길을 돌리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나 ‘저도 처음엔 무척 쑥스러웠습니다.’ 등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린 것이고, 헌혈 상황에 대한 통계 수치를 제시한 부분이나 헌혈 시 유의 사항에 관한 동영상 등은 혈액원 측의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10 _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답] ③

③ 우리 사회의 생명 은행 금고, 전화 000 - 0000

혈액원 봉사 활동이 우리 사회의 생명 은행 금고를 가득 채우는 일과 같다고 함으로써 사회 전체 차원의 의의를 비유적으로 제시했고, 혈액원 봉사 활동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를 안내하며 신청 방법을 알려 주었다.

① 사회 전체 차원에서 갖는 의의, 비유적으로 제시

자기를 찾아오라는 부분은 봉사 활동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로 볼 수 있으나, 혈액원 봉사 활동이 갖는 사회 전체 차원의 의의가 비유적으로 제시된 부분이 없다.

② 비유적으로 제시, 신청 방법 안내

혈액원 봉사 활동 전체보다 헌혈의 의의와 가치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비유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았다. 또 봉사 활동 신청 방법을 안내한 부분도 없다.

④ 신청 방법 안내

혈액원 봉사 활동이 지닌 사회 전체 차원의 의의가 비유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봉사 활동 신청 방법을 안내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사회 전체 차원에서 갖는 의의

봉사 활동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는 담고 있으나, 비유적으로 제시된 혈액원 봉사 활동의 의의는 사회 전체 차원의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의 것이다.

문법 [11 ~16]

11 _ 음운 변동 이해, 적용 ㉮ ⑤

⑤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ㄹ’은 [ㄴ]으로 발음

<보기 1>의 ㉮(제4장 제12항의 일부)는 ‘ㄹ(ㄹ, ㄹ)’이 ‘ㄴ, ㄷ, ㅈ’과 결합하여 [ㄴ, ㄷ, ㅈ]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에 대한 규정이므로, <보기 2>의 ㉮(음운의 축약)과 관련이 있다. 또 ㉮(제5장 제19항의 일부)는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에 대한 규정이므로, <보기 2>의 ㉮(음운의 교체)와 관련이 있다. 참고로, ㉮는 음운의 탈락, ㉮는 음운의 첨가에 대한 설명이다.

12 _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 ⑤

⑤ ‘ㄴ,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깎두기’, ‘법석’, ‘딱지’는 ‘ㄴ,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를 된소리로 적지 않음을 보여 준다. 이들 예는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다. 그러나 ‘똑똑똑’, ‘짹짹하다’, ‘씩씩씩’은 한 단어 안에서 같거나 비슷한 소리의 음절이 겹쳐 나는 것들로 발음대로 된소리를 밝혀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ㄴ,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한 단어 안에서 같거나 비슷한 소리의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탐구해야 할 사례로 제시된 예들은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것을 보여 주는 것들이 아니다.

② 자음 받침 뒤의 ‘ㄴ, ㄷ, ㅈ, ㅊ’이 된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한 단어 안에서 자음 받침 뒤의 ‘ㄴ, ㄷ, ㅈ, ㅊ’이 된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표준 발음대로 된소리로 적는다고 하면 ‘깎두기’, ‘법석’, ‘딱지’ 모두 각각 ‘깎뚜기’, ‘법씩’, ‘딱찌’라고 적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가 아니다.

③ 음성 상징어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

‘똑똑똑’, ‘씩씩씩’은 음성 상징어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다. 그러나 ‘짹짹하다’는 음성 상징어가 아니다. 탐구 사례로 제시된 음성 상징어의 경우 표준 발음대로 표기를 한다. 따라서 음성 상징어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표준 발음대로 적는다는 것은 적절한 탐구 결과가 아니다.

④ 어근에 접사가 결합

‘똑똑똑’, ‘씩씩씩’, ‘짹짹하다’ 등은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이 중에 ‘짹짹하다’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

된 말로 된소리로 적은 경우이다. 그런데 ‘똑똑똑’이나 ‘씩씩씩’은 어근인 ‘똑’과 ‘씩’이 중첩되어 만들어진 말임에도 불구하고 된소리로 적은 경우이다. 따라서 어근에 접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것은 적절한 탐구 결과가 아니다.

13 _ 호칭어와 지칭어 평가 ㉮ ③

③ 화자와 청자의 관계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그런데 ㉮, ㉮과 같은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표현한 것은 화자와 청자가 다르며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도 다르기 때문이다. 즉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고려되어 ㉮, ㉮처럼 다르게 표현된 것이다.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아범’이라고 지칭한 것이고, ‘채원 아빠’는 채원과 자기 동생의 관계를 고려해 ‘작은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표현했다는 것은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① 아랫사람을 호칭

㉮, ㉮은 모두 아랫사람을 호칭하는 데에 그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② 화자와 청자의 관계

㉮, ㉮이 포함된 발화는 모두 청자가 ‘작은아버지’이다. 청자는 동일하지만 ㉮, ㉮처럼 다르게 표현된 것은 채원과 작은아버지, 할머니와 아들과 같이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④ 지칭해야 할 대상과 청자의 관계

작은아버지는 자신의 형을 지칭하는 데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인 자신의 어머니를 고려하여 ‘형님’이라고 하지 않고 ‘형’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할머니는 채원에게 채원과 자기 아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아들을 ‘아빠’라고 지칭하고 있다.

⑤ 지칭하는 말과 호칭하는 말

㉮, ㉮은 모두 ‘아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의 화자는 할머니이고 ㉮의 화자는 채원이인데, 대상을 지칭하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14 _ 표준어 규정 파악 ㉮ ②

② ‘ㄴ’ 역행 동화 현상

‘서울내기’는 ‘서울나기’에서 온 말로 ‘ㄴ’ 역행 동화 현상이 일어난 예이다. 따라서 ‘서울내기’는 제9항에 제시된 내용처럼 ‘ㄴ’ 역행 동화 현상이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즉 제9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인 것이다.

① 어원을 의식하는 경향

<보기>의 제8항에서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양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있다. ‘부주’, ‘사둔’과 같은 음성 모음 형태가 아닌, ‘부조’, ‘사둔’과 같은 양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은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기 때문

<보기>의 제11항에서 발음이 바뀌어 널리 쓰이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단어들이 있다고 하고 있다. ‘지루하다’, ‘주책’은 그 경우에 해당한다.

④ ‘아래, 위’의 대립

‘웃어른’에 상대되는 개념을 지닌 말로 ‘아랫어른’이란 말은 없다. 즉 ‘웃어른’은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말인 것이다.

⑤ 예외적 사례

제13항에서는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글귀’는 ‘귀’라고 표기하는 것을 표준어로 삼고 있다. 이는 제13항에 제시된 ‘구’로 통일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5 _ 문장 성분 분석, 적용 ㉔ ⑤

⑤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

㉔은 ‘잘못된 점’에서 언급한 대로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다. ‘한테’는 사람이나 동물에게만 쓸 수 있는 조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 당국한테’를 ‘관리 당국에게’로 고친다고 해서 바르게 수정한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에게’ 역시 ‘한테’처럼 사람이나 동물에게만 쓸 수 있는 조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 당국에게’가 아니라 ‘관리 당국에’가 되어야 한다.

① 세 자리 서술어

‘널다’는 세 자리 서술어라서 주어 이외에도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 ‘~에’에 해당하는 부사어가 모두 필요하다. 그런데 ㉔은 편지를 어디에 넣었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영희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처럼 수정한 것은 적절하다.

② 부사어와 호응하지 않는 서술어

‘어떤 상태가 보통으로 보아 넘길 만한 것임.’을 나타내는 말인 ‘여간’은 주로 뒤에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 온다. 따라서 ‘이번 임무는 여간 힘들지 않아.’라고 수정한 것은 적절하다.

③ 부정하는 범위

㉔에서는 ‘않았다’가 부정하는 말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즉 우리 학교 아이들이 한 명도 모임 장소에 오지 않았다는 것인지, 우리 학교 아이들 중 일부만 모임 장소에 오지 않았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우리 학교 아이들이 다는 모이지 않았다.’처럼 보조사 ‘는’을 붙여 주면 우리 학교 아이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안 온 아이들도 있었다는 뜻으로만 해석되므로 의미가 명확해진다.

④ 형용사, 청유형

‘건강하다’ 같은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건강하자’ 같은 청유형으로 쓸 수 없다. 따라서 ‘건강하길 바란다’, ‘건강하면 좋겠다’처럼 기원을 담은 형식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16 _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㉔ ②

② 높임의 의미를 지닌 어휘를 사용

㉔의 ‘보수북면’은 ‘뵈면’에 대응한다. ‘뵈면’의 기본형인 ‘뵈다’는 객체를 높일 때 사용하는 특수 어휘이다. ‘보수북면’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W-’이 사용되어 있다. 그러나 ‘뵈면’에는 이와 같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어 있지 않다. 현대 국어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없다.

①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니르시리어늘’과 ‘말씀하실 것이거늘’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시-’는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③ 관형격 조사

제시된 자료에서 ‘太子’ 뒤에 관형격 조사로 ‘ㅅ’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 국어의 ‘의’와 형태가 다른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사람이면서 높여야 할 대상을 가리키는 말 뒤에 관형격 조사를 써야 할 경우에는 ‘ㅅ’을 썼다.

④ 청자를 높이는 의미를 지닌 종결 어미

‘주쇼셔’는 ‘주십시오’로 풀이된다. 즉 ‘-쇼셔’는 ‘-십시오’에 대응한다.

⑤ 높임의 의미를 지닌 호격 조사

‘大王하’의 ‘하’는 호격 조사이다. 현대어 역을 보면, ‘대왕이시여’

로 풀이되고 있는데, 이는 ‘하’가 높임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는 현대 국어에는 사용되지 않는 호격 조사이다.

10회

01 ④ 02 ④ 03 ④ 04 ③ 05 ④
06 ② 07 ⑤ 08 ⑤ 09 ① 10 ④
11 ④ 12 ⑤ 13 ⑤ 14 ④ 15 ②
16 ③

화법 [01~05]

01 _ 면접 내용 파악 ㉔ ④

④ 지원자의 이전 대답을 통해 파악한 소통 능력을 평가하려는 질문

㉔ 이전에 제시된 지원자 B의 답변 중 지원자 B의 소통 능력이 언급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① 지원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는 말하기

면접은 면접의 목적에 걸맞은 인물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큰 심리적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맥락에서 ㉔과 같은 면접관의 발언은 지원자의 심리적 부담을 다소간 덜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지원자를 존중하는 말하기

㉔에서는 지원자들이 해외 봉사 활동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듣고 긍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지원자들의 지원 동기를 존중하고 있다.

③ 지원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질문 추가하기

면접관은 지원자 A의 직업이 간호사이며 의료 소외 지역으로 봉사 활동을 다녀왔다는 답변을 듣고 ㉔과 같은 질문을 추가하고 있다.

⑤ 상황을 가정한 질문

㉔에서는 열악한 자연환경과 부족한 지원을 언급하며, 해외 봉사 활동 중에 어려움에 봉착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02 _ 면접의 적절성, 전략 평가 ㉔ ④

④ 봉사 활동이 주는 효용과 가치를 강조

이 면접에서 지원자 B는 평소 봉사 활동에 참여해 왔음을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근거로 봉사 활동이 주는 효용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① 성장 과정을 소개하며 지원 동기를 밝힘

지원자 A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장했으며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착실한 사람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 과정으로 인해 해외 봉사 활동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② 직업 경험을 근거로 자신의 장점을 드러냄

면접 내용에 따르면, 지원자 A는 대학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경험과 의료 봉사 활동을 다녀온 경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 경험을 살려 의료 봉사 활동에 임한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자 A는 자신의 직업 경험을 근거로 자신이 지닌 장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자신의 능력을 언급하며 자질을 드러냄

지원자 A는 자신의 외국어 능력을 언급하며 해외 봉사 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질을 드러내고 있다.

⑤ 동일한 견해를 반복적으로 제시해 자신의 태도를 부각

지원자 B는 봉사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과 희생'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봉사 활동에 임하는 자신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03 _ 반응의 적절성 평가 [답] ④

④ 질문의 종류에 따른 답변

[가]에 앞서 면접자는 피면접자에게 봉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 경험, 경력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은 지원자가 객관적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해야 하는 질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원자 B는 이를 제시하지 않은 채 봉사 활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만을 언급함으로써 질문의 의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① 면접자의 의도를 충족한 답변

[가]에서 지원자 B는 해외 봉사 활동에 도움이 되는 직업 경험, 경력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주관적 견해만을 제시함으로써 질문의 의도를 충족하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② 객관적 정보만 제시한 답변

[가]에서 지원자 B는 객관적 정보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객관적 정보는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견해만을 제시하고 있다.

③ 객관적 정보와 개인의 견해를 동시에 제시한 답변

[가]는 객관적 정보와 개인의 주관적 견해가 동시에 제시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견해만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객관적 정보와 주관적 견해를 동시에 묻는 질문

[가]가 지원자 B의 주관적 견해를 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앞서 제시된 질문은 객관적 정보와 개인의 주관적 견해를 동시에 묻는 질문이 아니라 객관적 정보만을 묻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04 _ 의사소통 전략 평가 [답] ③

③ 상대방의 말을 비판

선생님은 지영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 즉 자기 소개하기 수업에서 대표로 발표하는 방법을 지영에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① 비언어적 표현을 언급

선생님은 지영의 비언어적 표현, 즉 고민하는 표정에 대해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데 무슨 걱정이 있니?'라고 언급하며 대화를 유도하고 있다.

② 상대방을 격려하며

말하기를 머뭇거리는 지영에게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머뭇거리지 말고 이야기해 봐.'라고 말함으로써, 지영을 격려하며 말을 계속 이어 나가게 하고 있다.

④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

지영은 성격을 소개하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자기소개를 할 때 알고 있어야 할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⑤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요약

지영은 자기소개에서 성격과 단점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 선생님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들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05 _ 말하기 과정 분석 [답] ④

㉔ 대중적 말하기의 경험 부족

'선생님, 그런데 제가 자기소개를 잘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해 본 적이 없어요. 발표할 때를 상상하니 벌써부터 손에 땀이 나는걸요.'에서 알 수 있듯이, 지영은 대중적인 말하기의 경험이 부족하여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다.

㉕ 말할 내용에 대한 확신 부족

'그런데 저의 어떤 부분을 알려 주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의 성장 과정이나 취미에 대해 알려 주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걱정이 돼요.'에서 알 수 있듯이, 지영은 말할 내용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다.

㉖ 말하기에 대한 과거의 실패 경험

지영이 말하기에 대한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에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는 모습은 [A]에서 찾을 수 없다.

㉗ 표현의 정확성에 대한 걱정

지영이 표현의 정확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는 모습은 [A]에서 찾을 수 없다.

작문 [06~10]

06 _ 작문 계획의 적절성 [답] ②

② 나트륨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객관적 정보를 제시

[작문 상황]에 따르면, 글을 쓰게 된 배경으로 생활 속에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또 [활용할 자료]의 (다)에 따르면, 나트륨이 체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나트륨을 무조건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위해 글의 주제나 목적과 관련이 없는 나트륨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객관적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예상 독자를 고려한 용어 사용

<보기 1>의 [작문 상황]에 따르면 예상 독자는 일반인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활용할 자료]에는 영양 식품, 위장 질환, 뇌 질환, 골격계 질환과 같은 전문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풀어쓰거나 관련 정보를 제시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③ 출처를 밝혀 글의 신뢰성을 높임

글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밝히게 되면 자료와 글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④ 글의 목적에 따른 글쓰기 전략

[작문 상황]을 통해 글의 궁극적 목적이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주제나 목적, 의도에 적합한 사실적 정보를 활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할 경우 글의 논리성과 타당성, 내용의 적절성 등을 높일 수 있다.

⑤ 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방법

글의 내용 중 문제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모두 구성하는 경우, 원인으로 제시한 각각의 내용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글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

07 _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답] ⑤

⑤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확인

㉔은 과다 섭취한 나트륨을 체내에서 잘 배출하는 방안이다. 그러므로 ㉔에는 (다)-2의 내용 중 물, 채소, 과일 등 섭취를 권장해야 하는 음식물들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가)에는 나트륨 1일 권장 섭취량인 2,000mg을 넘는 음식들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㉔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서론에 활용할 자료의 적절성 확인

(가)에는 ‘해물 칼국수, 자장면, 육개장, 짬뽕’과 같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의 나트륨 함유량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음식들에 함유되어 있는 나트륨의 양이 1일 권장 섭취량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는 이 글의 문제의식을 환기하는 데 적절한 자료로 볼 수 있다.

② 본론에 활용할 자료의 적절성 확인

㉠은 나트륨 과다 섭취의 문제점이므로 나트륨이 체내에서 하는 역할과 함께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부각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다)-1을 통해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고혈압, 위장 질환, 뇌 질환, 골격계 질환 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본론에 활용할 자료의 적절성 확인

(나)를 통해, 전통적 식습관으로 국, 찌개, 염장 식품과 같이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즐겨 먹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현대적 식습관으로 인스턴트 음식, 외식 등을 즐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나)의 내용을 통해 전통적 식습관과 현대적 식습관이 모두 나트륨 과다 섭취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본론에 활용할 자료의 적절성 확인

(나)에는 국, 찌개, 염장 식품, 인스턴트 음식 등과 같이 나트륨이 과도하게 함유된 음식들과 이를 즐기는 식습관이 제시되어 있다. 또 (다)-2에는 외식을 줄이고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을 구성하는 데 (나)와 (다)-2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08 _ 내용 생성의 적절성 ㉢ ⑤

⑤ 조건에 맞는 글의 내용 창작

[작문 상황]에 제시된 글의 목적과 배경을 고려할 때, 결론 부분에는 나트륨 과다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환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에서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트륨 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또 나트륨 과다 섭취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식습관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① 경각심을 고취하는 내용의 확인

<조건>의 내용 중 나트륨 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② 글의 내용의 적절성 확인

<조건>의 내용 중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방법과 관련하여 ‘적게 먹고 적게 마시는 식습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트륨은 인체에 유익한 영향을 주기도 하므로 무조건 적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또 ‘적게 먹고 적게 마시는’의 대상도 분명하지 않아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비유적 표현도 사용되지 않았다.

③ 글의 내용의 적절성 확인

건강을 위해 나트륨을 대체할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것은 [작문 상황]과 <보기 2>의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으로 결론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비유적 표현도 사용되지 않았다.

④ 경각심을 고취하는 내용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 여부 확인

‘판도라의 상자’라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나트륨 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에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나트륨 과다 섭취의 문제나 그 양상과도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또 ‘나트륨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노

력’은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기보다는 원론적 방향에 해당하므로 조건에 맞는 결론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

09 _ 글쓰기 전략 ㉣ ①

① 세부적으로 나누어 제시

작문 초고에서 ‘첫째,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둘째, 목표는 가능한 선 안에서 높게 세울수록 좋다.’, ‘셋째, 매일매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목표는 너무 높지 않게 세우는 것이 좋다.’와 같이 올바른 목표 설정 방법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② 과정을 시간순으로 제시

작문 초고에서 올바른 목표 설정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올바른 목표 설정을 실현하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여 절충

작문 초고에서 올바른 목표 설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여 절충하고 있지 않다.

④ 유사한 사물에 빗대어 설명

작문 초고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목표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와 같이 올바른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유사한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⑤ 대중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배경을 제시

작문 초고에서 올바른 목표 설정이 대중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10 _ 고쳐쓰기의 적절성 ㉣ ④

④ 어미 사용이 잘못됨

지난 일을 회상하는 내용이므로, ㉡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어미 ‘-던’을 사용하여 ‘말았던’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선택의 의미를 가지는 어미 ‘-든’을 사용하여 ‘말았던’으로 고쳐 쓰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①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함

앞의 문장은 간절히 바랐더니 목표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소개하고 있고, 뒤의 문장은 목표는 간절히 바란다고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상반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뒤의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그리고’를 ‘그런데’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② 불필요한 피동 표현

‘나’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설정된’에는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설정한’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③ ‘번창’과 ‘발전’의 의미

‘번창’은 ‘일이나 집안, 나라 등이 한창 잘되어 성하게 됨.’이라는 의미로,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물이 보다 낮고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감.’이라는 의미의 ‘발전’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⑤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

운동은 노력하면 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난다는 ㉡의 내용은 실패를 경험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좌절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경험하는 것은 목표 달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글의 흐름과 어긋나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문법 [11 ~16]

11 _ 음운 현상 이해, 적용 [답] ④

④ ‘쏘이다’의 장단음

‘쏘다[쏘 : 다]’의 ‘쏘[쏘 :]’와 달리 ‘쏘이다[쏘이다]’의 ‘쏘[쏘]’를 짧게 발음하는 것은 용언 어간에 ‘-이-’라는 피동 접미사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㉔의 규정이 아닌 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① ‘함박눈’의 장단음

‘눈보라[눈 : 보라]’의 ‘눈[눈 :]’과 달리 ‘함박눈[함방눈]’의 ‘눈[눈]’을 짧게 발음하는 것은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㉖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② ‘선남선녀’의 장단음

단어의 첫음절이 아니지만 ‘선남선녀[선 : 남선 : 녀]’ 중 ‘선녀[선 : 녀]’의 ‘선[선 :]’을 긴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는 ㉗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③ ‘뒤’의 장단음

‘두어[두어]’가 축약된 말인 ‘뒤[뒤 :]’를 긴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는 ㉘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⑤ ‘울리다’의 장단음

‘울다[울 : 다]’의 ‘울[울 :]’과 달리 ‘울리다[울리다]’의 ‘울[울]’을 짧게 발음하는 것은 용언 어간에 사동 접미사 ‘-리-’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㉙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12 _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답] ⑤

⑤ 부사어 삽입을 통한 중의성 해소

㉔에 ‘꼭꼭’이라는 부사어를 삽입한다고 해도 ‘그것’이 지시하는 의미가 ‘보석’인지 ‘보석을 산 사실’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중의성이 해소되지 않는다.

① 수식어의 사용을 통한 중의성 해소

㉕의 문장에 ‘잘 익은’이라는 수식어를 삽입할 경우, ‘배’가 가리키는 것의 의미가 먹는 배로 한정되므로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② 부사어와 첨표의 삽입을 통한 중의성 해소

㉖에 ‘함께’라는 부사어와 첨표를 삽입하면, ‘만났다’의 목적어가 동생으로 한정되며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③ 수식어의 위치 조절을 통한 중의성 해소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의 위치를 ‘바다를’ 앞으로 옮기게 되면 ‘아름다운’이 수식하는 대상이 ‘바다’로 한정되어 중의성이 해소된다.

④ 내용의 구체화를 통한 중의성 해소

형이 동생에게 준 ‘굴’과 ‘사과’의 개수를 과일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히게 되면 중의성이 해소된다.

13 _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답] ⑤

⑤ 합성 동사 뒤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지나가 버렸다’에서 ‘지나가’의 기본형은 ‘지나가다’로 합성 동사이다. 합성 동사가 앞말로 사용되면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나가 버렸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지나가 버렸다’와 같이 띄어 쓰면 안 된다고 설명한 ⑤는 적절하지 않다.

① 보조 용언의 붙여쓰기 허용 예외

‘세워 두다’는 본용언, 보조 용언 구성이 맞으므로 ‘세워두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세워만’과 같이 조사가 붙었을 때는 ‘세워만 두었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붙여쓰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②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원칙

‘막아 내다’는 본용언, 보조 용언 구성이 맞다. ‘막아 내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③ 보조 용언의 붙여쓰기 허용

‘아는척하다’의 경우 본용언, 보조 용언 구성에 해당하므로 ‘아는척하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는척하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④ 합성 동사의 붙여쓰기

‘떠내려가다’는 합성 동사이므로 ‘떠내려가다’와 같이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떠내려 가다’와 같이 띄어 쓰면 본용언, 보조 용언 구성이 사용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14 _ 외래어 표기의 적절성 평가 [답] ④

④ ‘tractor’의 외래어 표기

‘tractor[træktə] - 트랙터’에서 첫 번째 음운 [t]는 제1항 ‘3’의 적용을 받아 ‘트’로 적어야 한다. 또 [k]는 짧은 모음과 유음·비음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이기 때문에 ‘2’에 따라 받침 ‘ㄱ’으로 적는다.

① ‘gap’의 외래어 표기

‘gap[gæp]-갭’에서 [p]는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이기 때문에 ‘1’에 따라 받침 ‘ㅍ’으로 표기한 것이다.

② ‘act’의 외래어 표기

‘act[ækt]-액트’에서 [k]는 짧은 모음과 유음·비음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이기 때문에 ‘2’에 따라 받침 ‘ㄱ’으로, [t]는 ‘1’과 ‘2’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어말 무성 파열음이기 때문에 ‘3’에 따라 ‘으’를 붙여 ‘트’로 표기한 것이다.

③ ‘stamp’의 외래어 표기

‘stamp[stæmp]-스탬프’에서 [p]는 ‘1’과 ‘2’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어말 무성 파열음이기 때문에 ‘3’에 따라 ‘으’를 붙여 ‘프’로 표기한 것이다.

⑤ ‘lipstick’의 외래어 표기

‘lipstick[lipstik]-립스틱’에서 [p]는 짧은 모음과 유음·비음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이기 때문에 ‘2’에 따라 받침 ‘ㅍ’으로, [k]는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이므로 ‘1’에 따라 받침 ‘ㄱ’으로 표기한 것이다.

15 _ 문맥에 따른 반의어 파악 [답] ②

② 반의어의 유형과 예

‘참 : 거짓’과 ‘미혼자 : 기혼자’는 의미 영역이 상호 배타적인 반의어이고, ‘넓다 : 좁다’, ‘높다 : 낮다’는 정도나 등급을 나타내는 반의어이다. 방향상의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반의어는 ‘가다 : 오다’이다.

16 _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답] ③

③ 중세 국어 ‘부테’의 주격 조사 표기

㉔에서, ‘부터’와 주격 조사 ‘ㅣ’가 결합되어 ‘부테’라고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㉔은 체언의 마지막 음운에 해당하는 모음과 주격 조사 ‘ㅣ’를 합쳐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① 중세 국어 ‘식미’의 주격 조사 표기

‘식미’는 체언의 마지막 자음 ‘ㅁ’이 주격 조사 ‘이’에 연결되어 표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중세 국어 ‘아비’의 주격 조사 표기

‘아비’는 체언이 ‘ㅣ’ 모음으로 끝난 단어로 결합하는 주격 조사의 형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중세 국어 ‘太子ㅣ’의 주격 조사 표기

‘太子’라는 한자어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한 경우, 한자 옆에 주격 조사 ‘ㅣ’를 따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중세 국어 주격 조사의 쓰임

㉠, ㉡, ㉢의 현대 국어 표기 ‘아버가’, ‘부처가’, ‘태자가’를 통해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 ㉡, ㉢의 중세 국어 표기에서는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지 않고 주격 조사 ‘ㅣ’와 ‘∅(없음)’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회

01 ② 02 ③ 03 ④ 04 ④ 05 ⑤
06 ① 07 ② 08 ⑤ 09 ④ 10 ③
11 ③ 12 ⑤ 13 ② 14 ⑤ 15 ③
16 ④

화법 [01~05]

01 _ 토의의 적절성, 전략 평가 ㉠ ②

㉠ 토의를 진행함

학생회장은 토의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첫 번째 발언에서 토의가 열리게 된 배경을 언급하며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

학생회장은 두 번째 발언에서 게임이나 상품 관련 항목의 예산 지급을 50%로 줄이자고 제안하고 있다. 즉 학생회장은 토의의 참여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추가 정보를 요청

학생회장은 문화부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도매 시장을 이용하면 해결될 수 있다니,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라고 물음으로써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발언의 순서를 알려 줌

토의 참여자들에게 발언의 순서를 알려 주는 모습은 특별히 드러나 있지 않다.

㉣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에 주의를 줌

토의 중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는 토의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 주의를 주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02 _ 말하기 전략 평가 ㉠ ③

③ 질문의 형식을 통해 상대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

㉡에서 문화부장은 질문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을 뿐, 상대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의 앞 문장인 ‘만약 예산이 절반밖에 ~ 부담이 매우 큼니다.’가 상대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에 해당된다.

①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례

㉠에서 총무부장은 단순히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예산을 신청한

특정 동아리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② 상대방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조

㉠에서 문화부장은 축제의 학예적인 면을 중시하는 총무부장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축제가 즐거워야 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④ 상대방이 고려하지 못한 사실

㉡에서 총무부장은 동아리들이 축제에서 얻은 이익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문화부장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이익금을 남기는 동아리들의 예산 축소를 주장하는 문화부장의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이다.

⑤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

㉢에서 문화부장은 예산의 10% 축소 지급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동아리가 도매 시장에 가서 축제를 위한 물품을 구매하면 비용의 10~40%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03 _ 토의 내용 파악 ㉠ ④

④ 의견 제시

총무부장은 두 번째 발언에서 동아리들이 남긴 이익금은 국제 구호 단체나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문화부장의 의견에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리들이 남긴 이익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하자는 주장을 펼친 것은 아니다.

① 의견 제시

총무부장의 첫 번째 발언에는 단순한 게임이나 상품 또는 간식과 같이 동아리 고유의 활동 목적과 관계없는 항목에는 예산을 지급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타나 있다.

② 의견 제시

문화부장은 첫 번째 발언에서, 축제의 학예적인 면을 보여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학우들이 함께 즐기는 것 또한 축제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③ 대안 제시

학생회장은 총무부장과 문화부장의 발언을 듣고 게임이나 상품 관련 예산을 50%만 지급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⑤ 대안 도출

학생회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토의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안을 선택하고 있다. 토의 참여자들은 동아리들이 신청한 예산을 10% 줄여서 지급하고, 동아리들이 도매 시장을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자는 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04 _ 화법의 성격과 요소 파악 ㉠ ④

④ 자신의 경험

‘내가 네 입장이라도 많이 답답할 것 같아.’라고 하여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과 유사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① 비언어적 표현

‘네 얼굴에 그렇게 씩어 있어.’라고 하여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상대방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는 것을 추리하고 있다.

② 유대감 정도

‘너니까 하는 말인데’는 특별한 사이라서 말을 하겠다는 의미이므로 대화 참여자 간의 유대감 정도가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고 있다.

③ 알고 있는 정보

‘너 요즘 민수랑 한 조가 되어 국어 수행 평가 과제를 하고 있지.’라는 것은 발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 이것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 하고 있다.

⑤ 활용할 매체

‘휴대 전화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면 충분히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활용할 매체를 고려하고 있다.

05 _ 이어질 내용 추론 [답] ⑤

⑤ 잘 이해하지 못했으니

‘내가 어제는 네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으니’라고 하여, 어제 사건에 대한 잘못을 화자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 한 번만 더 네 의도를 설명해 줄 수 없겠냐고 말해 ‘한 번만 더 네 의도를 설명해 줄 수 없겠냐고 말해 봐.’라고 하여, 상대방이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네가 좀 더 조리 있게 설명

상대방에게 좀 더 조리 있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한 발언은, 상대방에게 부담되는 표현을 피한 것이 아니다.

② 서로 흥분한 상태였으니

발화자와 상대방이 서로 흥분한 상태였다는 발언은, 상대방에게 부담되는 표현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③ 네가 알아주지 못한 것이 섭섭

상대방이 발화자의 말을 알아주지 못한 것이 섭섭하다는 발언은, 상대방에게 부담되는 표현을 한 것이다.

④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먼저 서로 이해하는 마음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갖자는 발언은, 발화자가 자신에게 부담을 돌려 상대방에게 부담되는 표현을 피한 것이 아니다.

작문 [06~10]

06 _ 작문 계획의 적절성 [답] ①

㉠ 묻고 답하는 방식

1문단을 보면 ‘블록 타임제란 무엇일까?’라고 묻고 그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글을 전개하고 있다. 2문단에서도 ‘블록 타임제에 대해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라고 묻고 그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인용 자료의 출처

2문단을 보면 블록 타임제의 장점을 언급하기 위해 인용한 연구 보고서가 과학 전문 재단의 자료임을 밝힘으로써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든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유추의 방법을 활용

‘유추’는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다. 이 글은 유추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07 _ 고쳐쓰기의 적절성 [답] ②

㉡ 필요한 성분 생략

㉢에 부사어 ‘수업으로부터’를 추가하면 서술어 ‘느끼고’와는 호응하지만 서술어 ‘참여해’와는 호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느끼고’와 ‘참여해’ 모두 호응하는 ‘수업에’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주어와 호응

㉠의 서술어 ‘진행한다.’는 주어 ‘블록 타임제는’과 호응을 이루지 못하므로 ‘진행하는 방식이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글의 통일성

작문 상황에 따르면 이 글의 목적은 블록 타임제의 장단점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다. 2문단은 블록 타임제의 장점에 대한 단락이므로, ㉢은 2문단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다. 글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

㉢의 앞뒤 문장은 인과 관계가 아니다. 블록 타임제의 단점을 나란히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리고’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문맥에 맞는 단어

‘실천되다’는 ‘생각한 바가 실제로 행해지다.’라는 의미로, 생각이나 결심과 같이 관념적인 것이 행해질 때 주로 쓰는 말이다. 법령이나 제도 등과 같이 구체적인 것이 실제로 행해질 때는 ‘실시되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08 _ 매체 활용 계획 [답] ⑤

⑤ 도서관 이용자와 사서의 의식 전환이 필요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대부분의 이용자가 공공 도서관을 독서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나)를 활용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함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더불어 장서 수를 늘리고 도서관 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사서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할 수는 없다. (다)에서 알 수 있듯이, 사서는 공공 도서관의 정보를 제대로 분류해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① 공공 도서관 현황을 비교

(가)-1을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 도서관이 도서관 수, 1관당 인구 수, 1인당 장서 수 등에서 주요 국가에 뒤처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접근성이 좋아 이용하기 편리한 곳

(가)-2에서 사람들이 공공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집에서 멀다.(30.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③ 사서의 채용을 늘려서 전문성을 확보

(다)에서 사서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없는 계약직 사원이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어, 도서관 서비스의 질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④ 공공 도서관에 어떤 책이 소장되어 있느냐

(가)-2에서 공공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읽을 만한 책이 없다.(19.9%)’를 들고 있고, (나)에서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에 읽을 만한 책이 없어 사실상 정보를 얻으러 오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하고 있다.

09 _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답] ④

㉡ 활동 취지, 대구와 비유

신문 제작 동아리가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은(는) ~지만 ~은 ~습니다’처럼 대구법을 사용했으며, 신문 제작 동아리를 ‘나팔수’에 비유하였다.

① 비유

신문 제작 동아리의 활동 취지를 밝혔고, 대구법을 사용했지만, 비유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② 활동 취지

대구법과 비유법을 사용하였지만, 신문 제작 동아리의 활동 취지는 밝히지 않았다.

③ 대구와 비유

신문 제작 동아리의 활동 취지를 밝혔지만, 대구법과 비유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⑤ 대구

신문 제작 동아리의 활동 취지를 밝혔고, 비유법도 사용했지만, 대구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10 _ 내용 생성의 적절성 ㉔ ③

③ 기억에 남는 일화

이 글에서 글쓰이는 신문 제작 동아리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후,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글쓰이가 했던 동아리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화는 밝히고 있지 않다.

① 동아리에 가입하게 된 동기

작가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신문 제작 동아리에 가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② 활동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제시

신문 제작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을 '기삿거리 조사, 기사 작성, 편집 및 발간'의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④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신문 제작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진을 찍는 기술,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는 능력, 정확한 문장 표현력, 컴퓨터나 사진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⑤ 동아리 가입을 우회적으로 권유

글의 끝에서 의문문과 비유의 방식을 활용하여 신문 제작 동아리에 가입할 것을 간접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문법 [11 ~16]

11 _ 표준 발음법 적용 ㉔ ③

③ 표준 발음법 제26항

'일시적(一時的)'은 한자어로, '일(一)'이라는 한자어의 받침 'ㄹ' 뒤에 'ㅅ'이 연결되므로 표준 발음법 제26항에 따라 [일씨적]으로 발음해야 한다.

① 표준 발음법 제27항

'오를'은 '오르다'의 관형사형으로, 관형사형 '-(으)ㄹ' 뒤에 'ㅈ'이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표준 발음법 제27항에 따라 '오를'과 '적'을 붙여 말할 때에는 [오를쩍]으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끊어서 말할 때에는 '적'을 [적]으로 발음해야 한다.

② 표준 발음법 제24항

'앉거나'는 어간 받침 'ㄴ' 뒤에 어미의 첫소리로 'ㄱ'이 연결되므로 표준 발음법 제24항에 따라 [안꺼나]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표준 발음법 제24항

'감기다'는 '감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말이다. 표준 발음법 제24항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에 근거하여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기는]으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표준 발음법 제23항

'흡수'는 받침 'ㅍ' 뒤에 'ㅅ'이 연결되므로 표준 발음법 제23항에 따라 [흡쑤]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12 _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㉔ ⑤

⑤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 1]

'합격율(合格率)'의 '률(率)'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률'이 아니므로, 한글 맞춤법 제11항의 [붙임 1]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합격률'로 표기해야 한다.

① 한글 맞춤법 제11 항

'양심(良心)'의 '량(良)'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기 때문에 한글맞춤법 제11항에 따라 '양심'으로 표기해야 한다.

② 한글 맞춤법 제11 항

'개량(改良)'의 '량(良)'은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글맞춤법 제11항에 따라 '개량'으로 표기해야 한다.

③ 한글 맞춤법 제11 항 [붙임 1]

'진열(陳列)'의 '열(列)'은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11항의 [붙임 1]에 따라 관용적인 발음을 인정하여 '열'로 표기해야 한다.

④ 한글 맞춤법 제11 항 [붙임 1]

'실패율(失敗率)'의 '률(率)'은 모음 뒤에 이어지는 '률'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11항의 [붙임 1]에 따라 관용적인 발음을 인정하여 '율'로 표기해야 한다.

13 _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㉔ ②

② 주어 이외에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 '뜨다 01'[2]'는 한 자리 서술어로, 주어 이외의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뜨다 04'[2]'는 두 자리 서술어로, 【...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어 이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① 동음이의어

동음이의어란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로, 서로 다른 단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기재할 때에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번호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뜨다 01 [2]' 「2」의 용례

'소풍 생각에 마음이 떠 있었다.'는 마음이 차분하지 못하고 들떠 있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로, '뜨다 01'[2]' 「2」의 용례로 적절하다.

④ '뜨다 04 [1]' 「2」의 뜻풀이

'양어장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떴다.'는 '물속에 있는 것을 건져 내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뜨다 04'[1]' 「2」의 뜻풀이로 적절하다.

⑤ 필수적으로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

'뜨다 04'[1]' 「3」은 세 자리 서술어로, 주어 이외에 부사어와 목적어를 요구한다. '항아리에서 간장을 뜨다.'에서는 부사어에 부사격 조사 '에서'가 쓰이고 있으며, '종지에 간장을 뜨다.'에는 부사어에 부사격 조사 '에'가 쓰이고 있다. 따라서 부사어에 사용되는 조사로 '에서'와 '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4 _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파악 ㉔ ⑤

⑤ 발

'발이 커서'의 '발'은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 맨 끝 부분.'을 의미하고, '발이 빨라서'의 '발'은 "'걸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여 앞선 '발'과 의미적 연관성을 가지므로 동음이의어가 아닌 다의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① 길

첫 번째 문장의 '길'은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하고, 두 번째 문장의 '길'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거나 사회가 발전해 가는 데에 지향하는 방향, 지침, 목적이나 전문 분야.'를 의미하는데, 두 말소리는 모두 어원적으로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확장된 것으로, 다의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② 날

첫 번째 문장의 ‘날’은 ‘새다’와 함께 쓰여 ‘일을 이룰 시기가 이미 지나 가망이 없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는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동안.’의 의미에서 확장된 것이다. 이에 반해 두 번째 문장의 ‘날’은 ‘연장의 가장 얇고 날카로운 부분.’의 의미를 갖는 말소리로, 첫 번째 문장의 ‘날’과 소리와 형태만 같을 뿐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의어이다.

③ 물

첫 번째 문장의 ‘물’은 ‘자연계에 강, 호수, 바다, 지하수 따위의 형태로 널리 분포하는 액체.’를 의미하고, 두 번째 문장의 ‘물’은 ‘그곳에서의 경험이나 영향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그 의미가 어원적으로 첫 번째 문장의 그것에서 확장되어 나와 의미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두 말소리는 다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④ 풀

첫 번째 문장의 ‘풀’은 ‘초본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두 번째 문장의 ‘풀’은 ‘(무엇을 붙이거나 피륙 따위를 뽐뽐하게 만드는 데 쓰는) 싹이나 밀가루 따위의 전분질에서 빼낸 끈끈한 물질.’을 의미하는 말로, 두 말소리는 소리와 형태만 같을 뿐 의미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동음이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15 _ 시제 표현 파악 ㉢ ③

③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선

㉢에서 ‘갸다’는 형태적으로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았-’이 쓰인 과거 시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의미를 보여 주는 것이므로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보았다’의 ‘-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② 관형사형 어미 ‘-ㄹ’

‘할’은 동사 어간 ‘하-’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ㄹ’이 붙어 ‘일’을 하는 시점이 미래임을 나타내고 있다.

④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의 ‘밀린’과 ㉣의 ‘물려주신’의 ‘-ㄹ’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⑤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

㉢의 ‘쓴다’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므로 현재 시제이다.

16 _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 ④

④ 설명 의문문의 어미

‘·ㅅ: 엇·디漢語날·오·미잘·ㅎ·늑·뇨’는 상대방에게 ‘예’, ‘아니요’ 등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따라서 ‘예’, ‘아니요’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 ‘-오’ 계통의 어미가 사용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의 구분

중세 국어에서는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을 구분하였는데, ‘-아’ 계통의 종결 어미는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에, ‘-오’ 계통의 종결 어미는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에 사용되었다. ‘·ㅅ: 엇·디漢語날·오·미잘·ㅎ·늑·뇨’에는 의문사 ‘엇디’가 사용되고 있다.

① 중세 국어의 음운

중세 국어의 ‘너·노, : 막·실’은 현대 국어에서 ‘너는, 매일’로 사용되고 있다. 중세 국어 시기에는 현대 국어에는 없는 ‘·’ (아래아), ‘△’ (반치음)과 같은 음운이 사용되었다.

② 연철 표기

연철 표기란 한 음절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 쓰는 방식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 사·락·미어시·니, 지·빅’와 같이 연철 표기가 사용되고 있다.

분철 표기

분철 표기는 여러 형태소가 연결될 때 그 각각을 음절이나 성분 단위로 밝혀 적는 방식이다. 현대 국어는 한글 맞춤법에서 분철을 채택하여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의 경계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현대 국어에서는 ‘사람이거니와, 집에’와 같이 분철 표기의 사용이 일반적이다.

③ 합용 병서

중세 국어의 ‘·ㅅ’, ‘스승·님·씩’은 현대 국어에서 ‘또’, ‘스승님께’로 사용되고 있다. 현대 국어에는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이 둘 이상 올 수 없으나, 중세 국어에는 단어의 첫 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쓴 표기가 있었다.

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듣·좁·고’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좁-’을 통해 문장의 객체인 ‘스승·님’을 높이고 있다. 중세 국어 시기에는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좁-’, ‘-좁-’, ‘-좁-’이 쓰였다. 반면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12회

01 ③	02 ①	03 ②	04 ⑤	05 ⑤
06 ②	07 ⑤	08 ⑤	09 ④	10 ③
11 ①	12 ⑤	13 ⑤	14 ③	15 ④

[01~05] 화법

01 토론의 적절성, 전략 평가 ㉢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확인** 간략히 정리, 하위 쟁점을 제시

이 토론에서 사회자는 마지막 발언에서 ‘인터넷에서의 글쓰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라고 하며 ‘반대 1’의 발화 내 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있으며, 세 번째 발언에서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네티즌의 글에 있는, 사실과 다른 정보가 공익을 해 치는가의 여부를 하위 쟁점으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양측의 견해를 요구하고 있다. 즉 ㄱ, ㄴ이 사회자의 역할에 해당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ㄷ **확인** 토론 규칙

‘토론 규칙을 알려 토론 참여자가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 다.’는 해당되지 않는다. 토론 규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회자가 양측에 이야기한 적은 없다.

02 말하기 방식 추론 ㉢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확인** 많은 사람의 생각

[나]의 발화에는 ‘여론 조사 전문 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봐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라는 언급이 나타나

있지만, [가]에서는 이와 유사한 발화를 찾을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확인]** 가정의 결과

[가]와 [나]에는 어떤 상황에 대한 가정과 그 가정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는 요소가 있다.

③ **[확인]**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 의문

[가]와 [나]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에게, 찬성 측은 반대 측에게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④ **[확인]** 상대방의 태도가 담긴 어휘

[가]와 [나]에는 말하려는 대상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가 담긴 어휘를 자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공격, 오염’이라는 어휘 대신 다양한 ‘표현’이라고 한 것, ‘위축’이 아닌 ‘책임’임을 강조하는 표현이 그 예이다.

⑤ **[확인]** 선결 조건

[가]와 [나]에서 자신이 바람직하게 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선결 조건([가]: 표현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것, [나]: 네티즌들이 각자 자신이 쓴 글에 책임감을 가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가]와 [나]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에게, 찬성 측은 반대 측에게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03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확인]** 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자기 스스로 검증

반대 측에서는 누군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 때 네티즌들은 그 글에 담긴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는 자기 스스로 검증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기>를 파악하면, 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자기 스스로 검증하는 태도가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현실에서는 아직 미성년자

영희가 미성년자라서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것은 반대 측의 관점이 아니다.

③ **[확인]** 영희가 책임을 온전히 지게 하도록 영희가 책임을 온전히 지도록 하는 것은 찬성 측의 관점이다.

④ **[확인]** 이번 피해는 용서

도움을 받은 일이 있었다면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은 영희가 잘못된 것을 결국 인정한 것이므로 반대 측의 관점으로 보기 어렵다.

⑤ **[확인]** 도의적인 책임

찬성 측의 관점은 자신이 쓴 글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영희의 도의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찬성 측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04 말하기 계획 평가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확인]** 열전도율을 비교

발표에 다양한 자료가 등장하고 있으나 여러 물질의 열전도율을 비교하는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오개념이란 무엇인지 정의

오개념의 정의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첫 번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② **[확인]** 경어법

경어법이란 남을 높여서 말하는 법이다. 공적인 상황에서의 발표에서는 흔히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사용된다.

③ **[확인]** 대상과 인원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설문 조사 대상과 인원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발화는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④ **[확인]** 발표 중간에 질문

발표 중간에 청중에게 질문을 던져 청중이 발표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05 발표의 적절성, 전략 평가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확인]** 담화 표지

‘따라서’, ‘하지만’ 등의 담화 표지를 적절히 사용하면 전후 내용을 좀 더 긴밀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 제시된 발표에서는 담화 표지들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내용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 경우

발표 때 내용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메모를 준비한다면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② **[확인]** 올바른 학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

발표 주제는 ‘열에 관한 학생들의 오개념과 올바른 학습 방법 제안’이다. 그런데 학습 방법에 대한 소개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확인]** 그렇게 생각한 이유

발표에서는 조사에 응한 학생들이 특정 답을 고른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이유까지 제시한다면 발표의 완 성도를 더 높일 수 있다.

④ **[확인]**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

자료를 제시할 때, 통계 정보를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재구성하는 것이 더 적절한 자료 조직 방법이다.

[06~10] 작문

06 작문의 예상 독자 파악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확인]** 웹툰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언급

(나)에는 웹툰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이 언급되지 않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나의 경험을 언급하여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나도 여러분의 나이 때에는 웹툰 작가에 대한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며 글쓴이의 경험을 언급하여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③ **확인** 독자가 미래에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언급

(나)의 세 번째 문단의 ‘만약 여러분이 작가가 되었을 때 작품을 만들어도 독자들에게 작품을 안정적으로 보여줄 기회가 없다면 계속해서 작가로 생활할 수 있겠는가?’와 네 번째 문단의 ‘여러분이 나중에 작가가 되어 활동하려면 창작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를 통해 독자가 미래에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언급하여 웹툰 작가가 되어도 작가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④ **확인** 웹툰 작가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

(나)의 두 번째 문단의 ‘유명 작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작가들은 원고료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다. 현재 많은 작가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일부 인기 작가를 제외하고는 한 달 수입이 최저 임금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를 통해 웹툰 작가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여 독자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⑤ **확인** 웹툰 구독에 대해 갖는 인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시

(나)의 네 번째 문단의 ‘책이나 음원은 구매 대상으로 인식하면서도 누군가의 창작물인 웹툰에 대해서는 무료로 인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를 통해 사람들이 웹툰 구독에 대해 갖는 인식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확장하고 있다.

07 글쓰기 방법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확인** 같은 설문 조사의 결과를 도입부와 결말부에 인용 (나)에서 글쓴이는 같은 설문 조사의 결과를 도입부와 결말부에 인용하지 않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질문을 활용

독자의 호기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나)의 두 번째 문단에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네 번째 문단에서 ‘그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처럼 질문을 활용하고 있다.

② **확인** 구체적 작품을 사례로 제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의 두 번째 문단에서 「치치와 강아지」를 사례로 들고 있다.

③ **확인** 독자들이 해야 할 일을 당부

(나)의 마지막 문단의 ‘그렇다면 웹툰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웹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와 ‘그때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 가기를 바란다.’를 통해 독자들이 해야 할 일

을 당부하고 있다.

④ **확인** 내용을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전달

독자의 내용 파악을 돕기 위해 (나)에서 웹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각각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전달하고 있다.

08 내용 생성의 적절성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확인** 웹툰을 연재할 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므로

민수는 웹툰을 안정적으로 연재할 수 있는 공간이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글쓴이의 문제 제기과 그 해결책에 반대한다고 했으므로, 웹툰 전문 사이트의 수를 늘리기보다 경쟁력이 있는 웹툰 전문 사이트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낫다는 내용이 민수의 의견으로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전문 사이트를 늘리고

민수가 웹툰 전문 사이트를 늘리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확인** 웹툰을 무료로 배포하는 사이트를 차단

웹툰 유료화의 문제는 민수가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확인**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 민수는 웹툰 유료화에 동의한다고 했다. 또한 웹툰 전문 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하자는 글쓴이의 의견에 대해 민수가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확인** 웹툰 전문 사이트를 추가로 개설

민수가 웹툰 전문 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9 제목의 적절성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우리말 어휘 연구를 꿈꾸는 아이

(가)에서는 평가자가 지원자의 특성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진로 희망을 드러내는 소재목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나)는 학생이 우리말 어휘에 흥미를 느끼고 교내 학술제 참가 경험을 바탕으로 국어 국문학과에 진학하여 우리말 어휘집을 내고 의미 있는 논문을 써 보겠다는 학업 계획을 밝힌 것이므로 ④가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언제나 협동을 중시하다

교내 학술제에 참가하기 위해 동아리 회원 4명과 공동 작업을 하였으므로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진로 희망을 드러내지 않았다.

② 최명희의 『혼불』을 읽고

최명희의 『혼불』을 읽고 학술제에 참여하였으므로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진로 희

망을 드러내지 않았다.

③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눈과 귀

교내 학술제에 참가하기 위해 동아리 회원 4명과 소통하면서 공동 작업을 하였으므로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진로 희망을 드러내지 않았다.

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작가가 되고 싶다

진로 희망을 드러내고 있지만,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보여 주지 않았다.

10 내용 조직 전략의 적절성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개선점을 찾으려고 분석하는 모습

<보기>는 교내 학술제에서 동상을 수상한 이후 개선점을 찾기 위해 자신의 어휘집과 대상을 받은 소논문을 비교하고 분석한 내용을 제시한 것이므로 ㉠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② [확인] ㉠에 추가

<보기>는 교내 학술제에서 동상을 받은 후 결과에 대해 분석하는 내용이므로 결과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보기>를 ㉠에 추가했을 때 글의 흐름이 어색해지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자신의 독특한 학습법이 자신의 학업 역량을 키우는 방법

<보기>를 ㉠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보기>를 추가한다고 해서 자신의 독특한 학습법이 자신의 학업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라는 내용을 제시할 수는 없다.

⑤ [확인] ㉠에 추가

<보기>는 교내 학술제 참가 후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분석이므로 결과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보기>를 ㉠에 추가했을 때 글의 흐름이 어색해지므로 적절하지 않다.

[11~15] 문법

11 문장 성분과 서술어의 자릿수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확인] 서술어가 요구하는 부사어인지

(가)의 ㉠에서 쓰인 부사어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가 아니다. 그러므로 "칠판의 글씨가 보인다."와 같이 부사어를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가)의

㉠에서 쓰인 부사어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이다. 그러므로 "그 아이가 보였다."와 같이 부사어를 생략하면 서술어가 다른 의미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가)-㉠의 '보인다'는 한 자리 서술어이고, (가)-㉠의 '보였다'는 두 자리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확인] 서술어가 요구하는 부사어인지

(나)의 ㉠에서 '녹지로'를 생략하면 '황무지를 만들었다'가 되는데 원래의 '황무지를 녹지로 만들었다'와 의미가 전혀 달라 지므로 '녹지로'는 필수 부사어이다. 그러나 (나)의 ㉠에서 '종이로'는 생략되어도 다른 문장 성분의 의미 해석을 바꾸지 않으므로 필수 부사어가 아니다.

③ [확인] 어순을 바꿀 수 있는지

(나)의 ㉠에서 목적어와 부사어의 순서를 바꾸면 '녹지로 황무지를 만들었다'가 되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되지만 (나)의 ㉠에서는 '공룡 모형을 종이로 만들었다'로 바꾸어 써도 의미 변화가 없다.

④ [확인] 어떤 문장 성분이 있는지

(다)의 ㉠은 주어 '우리는', 목적어 '국어와 수학을', 서술어 '공부했다'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다)의 ㉠은 주어 '민호는', 부사어 '수지와(필수 부사어)', '극장에서(비필수 부사어)', 서술어 '만났다'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⑤ [확인] 나타난 부사어가 필수적인지

(다)의 ㉠에서 '수지와'는 '만나다'가 꼭 필요로 하는 필수 부사어이지만 (다)의 ㉠에서 '동생과'는 '놀다'가 꼭 필요로 하는 필수 부사어가 아니다.

12 담화 및 텍스트의 통일성과 응집성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확인] 문장이 전체 글의 주제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보기> 글 전체의 주제는 '풍속화의 특성'이다. 그러나 ㉠에서 조선 후기에 풍속화가 많이 배출되었다는 문장은 글 전체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문장이 아니며 글의 통일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무엇일까'의 기능과 전체 문장의 기능

㉠은 '무엇일까'로 끝나는 의문문 형식으로 주의를 환기하면서 글 전체의 주제인 '풍속화의 특성'이라는 어구를 언급하여 글의 통일성을 높이고 있다.

② [확인] 접속 부사 '또한'의 기능

'또한'은 앞에 나온 내용에 더하여 다른 내용을 언급함을 보여 주는 장치로서 앞 내용과 뒤 내용을 연결하여 글의 응집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③ [확인] 관형어 '이런'의 기능

'이런'은 풍속화가 사실성과 기록성을 지니게 된다는 앞의 내용을 가리키는 대용 표현으로서 글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④ [확인] '다시 말해'의 기능

환언(말 바꾸)의 담화 표지로는 '다시 말해(다시 말하면), 바꿔 말해(바꿔 말하면), 즉, 곧' 등이 있는데, 이들은 앞에 나온 내용을 그와 유사한 내용의 말로 요약하거나 바꾸어 보여 주는 장치로서 글의 응집성을 높여 준다.

13 '맛있다'의 표준 발음과 원리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확인**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맛’의 받침 ‘ㅅ’은 뒤에 오는 형태소의 종류에 따라 발음이 달라진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오면 ‘ㅅ’이 그대로 연음되지만 그 이외의 환경에서는 ‘ㄷ’으로 바뀌어야 한다. ‘맛있다’의 경우 ‘맛’ 뒤에 오는 형태소 ‘있-’은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문법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이다. 따라서 ‘맛’의 ‘ㅅ’은 ‘ㄷ’으로 바뀌어야 한다. ‘맛있다’의 표준 발음인 [마딕따]와 [마싹따] 중 [마딕따]를 원칙으로 삼은 이유는 이 때문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어말에서 제 음가대로

‘맛있다’의 ‘맛’은 어말(단어의 마지막)에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 음가대로 발음되지도 않으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② **확인** 자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맛있다’에서 ‘있-’은 자음이 아닌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③ **확인**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맛있다’에서 ‘있-’은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문법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이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④ **확인** 자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맛있다’에서 ‘있-’은 자음으로 시작하지도 않고 문법 형태소도 아니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14 국어사전의 활용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확인** 자동사로 쓰일 수

‘띄다아’는 목적어가 필요 없으므로 자동사로 쓰이지만 ‘띄다 아’는 언제나 목적어가 필요하므로 자동사로 쓰일 수 없다. 따라서 올바른 설명이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다의어이다

‘띄다아’와 ‘띄다아’는 모두 [1], [2]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므로 다의어가 맞다.

② **확인** 발음이 서로 동일하다

‘띄다아’와 ‘띄다아’는 비록 표기는 다르지만 발음이 [띠 : 다]로 동일하다. 국어사전의 발음 정보를 보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오거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니’가 올 때에도 두 단어는 발음이 일치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④ **확인** 자릿수가 달라진다

‘띄다아’는 [1]에서는 세 자리 서술어로 쓰이고 [2]에서는 두 자리 서술어로 쓰인다. 의미에 따라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지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⑤ **확인** ‘광채를 띠는 물건’

‘광채를 띠는 물건’은 ‘띄다아’ [2]의 「3」에 해당하는 예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설명이다.

15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주격 조사가 생략되어

‘네’는 주격 조사 ‘이’가 생략된 것이 아니고 ‘너’와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여 ‘네’로 실현된 것이다. 주격 조사가 생략되었 으면 ‘너’로 실현되어야 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높임의 대상을 부르는 호격 조사가

‘世尊하’의 ‘하’는 높임의 대상을 부르는 호격 조사이다.

② **확인** ‘를, 를’ 대신 ‘ㄹ’이

‘날’은 ‘나’에 목적격 조사 ‘ㄹ’이 결합된 것이다.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는 ‘를, 를’이 주로 쓰이지만 ‘날’과 같이 ‘ㄹ’이 쓰이는 경우가 있다. 현대 국어에서도 ‘널(너를), 절(저를)’ 등 과 같이 목적격 조사로 ‘를’ 대신 ‘ㄹ’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③ **확인**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니르샤디’는 용언 어간 ‘니르-’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 어말 어미 ‘-오디’가 결합된 활용형이다. ‘니르샤디’가 높이는 주체는 바로 앞에 오는 ‘부테’이다.

⑤ **확인** 이어 적기 방식으로

‘바르래’는 명사 ‘바를’에 부사격 조사 ‘애’가 결합된 말로서 명사의 마지막 자음 ‘ㄹ’이 이어 적기 방식으로 적힌 것이다.

13회

01 ⑤	02 ③	03 ③	04 ④	05 ④
06 ①	07 ③	08 ③	09 ③	10 ①
11 ①	12 ①	13 ④	14 ⑤	15 ③

[01~05] 화법

01 협상 내용 파악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확인** 행사의 취지를 설명

음식 조리반이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제시된 협상문에서는 찾을 수 없다. 다만 패션 사랑반과 행사 진행 장소를 놓고 서로 협상하는 장면만 찾을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홍보 장소를 중요시

연극 천하반은 행사 진행 시간대를 양보하며 ‘홍보 장소가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홍보 장소를 중요시하는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확인** 예상 참여 인원과 응원 학생들의 편의성

정치 경제반은 ‘많은 인원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응원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대강당에서 오

전 시간에 진행'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③ **확인** 다른 협상 참여자들을 설득

패션 사랑반은 '아침부터 분장을 하는 것이 좋고 분장도 조금씩 수정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사용하고 싶습니다. 다른 동아리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④ **확인** 경쟁하면서도 협력

정치 경제반과 연극 천하반은 서로 같은 행사 진행 장소(대강당)와 홍보 장소(정문 진입로)를 원하고 있다. 협상이 진행되며 연극 천하반이 오후 시간대로 옮겼으므로 행사 진행 장소는 연극 천하반이 양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자 정치 경제반이 홍보 장소를 양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사 진행 장소와 홍보 장소를 놓고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2 말하기 방식 추론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확인**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상대방 주장에 대한 근거

㉠에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동아리 활동 공간이 필요한 까닭이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해시키려는 발화라고 볼 수 있다. ㉡에는 연극 천하반이 홍보에 유리한 정문 진입로를 택한 근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상대방에게 정보를 공개,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에는 상대방에게 정보를 구하려고 하는 발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확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 자신이 겸손하다는 인식
㉠에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는 발화는 찾기 어렵다. 또한 ㉡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부분도 찾기 어렵다.

④ **확인** 정보를 더 많이 가졌는지, 공유하는 이익

㉠에는 상대방이 나보다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가졌는지 확인하는 발화가 없다. 또한 ㉡에서 상대방과 공유하는 이익을 제시한 부분도 없다.

⑤ **확인** 실패했을 때의 손해, 성공했을 때의 이익

㉠에 협상 실패 시의 손해, ㉡에 협상 성공 시의 이익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03 협상의 적절성, 전략 평가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확인** 참 재미있게

<보기>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약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협상에서 쟁점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언급하며 목표를 둘러싼 갈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②, ⑤ **확인** 대강당에서, 소강당이면, 우선권 쟁점과 관련하여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약화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

④ **확인** 패션 사랑반이 활동할 수 있게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자신이 양보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약화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

04 말하기 전략 평가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질문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

하우스 콘서트에 대한 시각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대담자가 진행자에게 질문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개인적 경험

하우스 콘서트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자의 집이나 몇몇 연주자들의 자택에서 공연이 열렸'는데, '연주자의 숨소리와 악기의 떨림까지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연'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 경험을 들어 하우스 콘서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확인** 질문의 초점을 달리 제시

진행자는 하우스 콘서트의 특징에 대해 물었는데, 대담자는 특징보다는 취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진행자가 설정한 질문의 초점을 달리 제시하여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확인** 정보를 추가

대담의 중간 부분에서 '하우스 콘서트는 집에서만 열리는' 거냐고 진행자가 묻자 대담자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지요.'라고 말하며 이에 관련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⑤ **확인** 다른 장르와 대비

대담자가 마지막 부분에서 작곡가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대중음악의 모습과 대비되는 클래식 음악계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

05 반응의 적절성 평가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연주와 작곡을 병행

하우스 콘서트 기획자인 대담자가 직접 연주와 작곡을 병행하는지 여부는 대담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연주와 작곡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은 대담을 들은 청취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새로 작곡된 클래식 음악

대담자의 마지막 말을 보면 '작곡가들이 하우스 콘서트를 통해 새로운 음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관객들에게 검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② **확인** 대중음악 가수의 공연

진행자가 ‘클래식뿐만 아니라 국악, 재즈, 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담당자가 ‘네.’라고 응답하고 있다.

③ **확인** 연주자와 관객이 긴밀히 소통

담당의 여러 곳에서 연주자와 청중, 무대와 객석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⑤ **확인** 문화 정책에 변화

진행자의 마지막 말을 보면 ‘하우스 콘서트처럼 새로운 클래식 공연 문화가 활성화되려면 정부의 문화 정책에도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06~10] 작문

06 작문의 목적 추론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확인** 예상 독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독자의 참여를 이끌고 (가)는 예상 독자인 학생들에게 학생 기자 모집과 관련하여 참여 방법과 활동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확인** 알리고자 하는 일의 필요성을 강조

(가)는 예상 독자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알리고자 하는 일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다.

③ **확인** 예상 독자에게 해결 방안을 제안할 것을 요청

(나)에는 현실의 문제점이 드러나 있지만 예상 독자에게 해결 방안을 제안할 것을 요청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확인** 예상 독자의 관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

(나)에는 예상 독자의 관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그것을 수정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확인** 자기주장의 타당성을 부각

(나)에는 자신의 주장과 타인의 의견을 대비하여 예상 독자에게 자기주장의 타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지 않다.

07 자료 활용의 적절성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확인** 꿀벌이 수분을 돕는 농작물의 종류와 관련

[자료 2]와 [자료 3-2]를 통해 꿀벌 개체 수가 감소한 것이 꿀벌이 수분을 돕는 농작물의 종류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없다. [자료 1]에서 꿀벌 개체 수의 감소는 살충제 사용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살충제 사용 증가, 꿀벌의 개체 수 감소

[자료 1]은 살충제 사용과 꿀벌 감소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이므로 적절하다.

② **확인** 꿀벌의 감소가 생태계와 인류에게 큰 위협

[자료 2]의 아인슈타인의 경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④ **확인** 꿀벌의 개체 수 변화, 농산물과 다른 먹을거리 가격의 변동

[자료 3-1]의 꿀벌의 개체 수 변화와 [자료 4]의 꿀벌 없이 생산할 수 없는 아몬드 가격의 상승, 아몬드 가공 식품의 가격 변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확인** 꿀벌에 대한 의존도, 재배 농가의 피해가 증가

[자료 3-2]에서 꿀벌의 공헌도가 가장 높은 아몬드와 [자료 4]의 ‘아몬드 생산량이 감소하여 아몬드 농가가 직격탄을 맞고 아몬드 가격이 급등하였다.’, ‘아몬드 농가의 피해액 다음으로 사과와 블루베리 농가의 피해가 컸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8 내용 조직의 방법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확인** 농산물 가격 상승을 강조

(나)에서 강조하려는 내용을 먼저 언급한다고 했으므로 농산물 가격 상승을 먼저 언급하고 농산물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인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그 원인인 꿀벌 감소 그리고 살충제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려면 ‘계획 2’를 따라야 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농산물 생산량이 꿀벌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적으로 제시 농산물 생산량이 꿀벌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잘못 파악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확인** 꿀벌 개체 수의 감소 전망을 분석적으로 제시 살충제 사용 사실을 강조하려면 그것을 꿀벌 개체 수의 감소 보다 먼저 언급해야 한다. 또한 ‘계획 1’과 ‘계획 2’ 모두 꿀벌 개체 수의 감소 전망을 분석적으로 제시하는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확인** 농산물 생산량 감소를 강조

농산물 생산량 감소를 강조하면서 그 원인이 꿀벌 감소와 살충제 사용에 있다는 점을 순차적으로 밝히려면 ‘계획 2’를 따라야 한다.

⑤ **확인** 살충제 사용 사실을 강조

살충제 사용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로 인한 꿀벌의 감소가 농산물 생산량과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려면 ‘계획 1’을 따라야 한다.

09 작문 계획의 적절성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확인** 지속적인 일기 쓰기의 필요성

글쓰는 글에서 지속적인 일기 쓰기의 필요성을 제시하지 않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디지털화의 장점

‘학생의 글’ 다섯 번째 문단 ‘문화재를 디지털 데이터로 복구하는 작업 등은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

로 꼭 필요한 일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확인** 일상적인 경험

‘학생의 글’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의 친구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확인** 기록 보관에 대한 인식에 문제를 제기

‘학생의 글’ 네 번째 문단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을 뿐 디지털로 남긴 자취는 글쓰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너무나 손쉽게 사라질 수 있다.’와 다섯 번째 문단 ‘정말 소중한 ~ 보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확인** 종이에 쓴 기록과 디지털 도구에 쓴 기록의 차이점

‘학생의 글’ 마지막 문단 ‘손 글씨의 맛이 있는 것은 물론, 눈으로 보며 실제로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와 네 번째 문단 ‘디지털 일기는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 어디에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확인** 글의 핵심 내용

글의 핵심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을 ‘디지털 기록과 종이 기록’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확인** 수식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예쁜’이 꾸며 주는 대상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을 ‘일상의 모습을 담은 예쁜 사진’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③ **확인** 문장 성분의 호응을 고려

㉢의 주어가 ‘디지털 일기가’이므로 ㉢을 ‘유지된다는’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④ **확인** 문장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이 포함된 문장은, 어쩔 수 없이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죽기 전에 다시 한 번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개인의 일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확인** 맞춤법

‘활성화되었어도’의 준말은 ‘활성화됐어도’이므로 ㉤을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1~15] 문법

11 언어의 특징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확인** 화자가 한 행위의 의의를 살피야

언어는 형식(소리)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관계로 묶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물의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다. 이를 언어의 자의성이라 한다. 그러나 이미 붙여진 이름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불리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를 언어의 사회성이라 한다. 그러므로 ‘그’가 새로 지은 사물의 이름으로는 타인과 의사소통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확인** 화자가 한 행위의 의의를 살피야

언어의 역사성은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한 개인이 언어를 인위적으로 바꾼 <보기 1>의 내용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역사성을 간과했다는 서술도 맞지 않는다.

③ **확인** 화자가 한 행위의 의의를 살피야

분절성은 연속적인 물리적 실체를 언어에서 불연속적인 의미나 형식으로 분절하여 표현하는 속성을 가리킨다. 가령, 물리적 소리 [ㄱ]은 혀의 위치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ㄱ]인지 분명 한 경계가 있지 않은 연속적인 실체이지만, 언어에서는 [ㄱ]의 형식(소리)이 분절된 것으로 가정하여 표현한다. 또한 동물에게 ‘가슴’과 ‘배’는 분명한 경계가 없는 연속적인 실체이지만, 언어에서는 ‘배’와 ‘가슴’의 의미가 분명히 분절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표현한다. 분절성은 ‘그’가 활용한 언어의 성질이 아니다.

④ **확인** 화자가 한 행위의 의의를 살피야 분절성과 역사성은 모두 <보기 1>과 관련이 없다.

⑤ **확인** 화자가 한 행위의 의의를 살피야 ‘그’는 자기 마음대로 언어를 바꾸어 사용하였으므로 ‘그’가 ‘사회성’을 활용하였다고 한 것은 틀린 진술이다.

12 품사 통용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확인** 대명사와 부사의 구별

㉠에서 ‘그 사람’과 ‘언제부터’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언제’를 대명사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언제’는 수많은 시간 표현 명사, 예컨대 ‘(중학교) 시절’, ‘(열 시간) 전’, ‘어제’ 등을 대신 가리킬 수 있고 “언제가 좋겠니?”에서처럼 격 조사도 붙을 수 있으므로 대명사이다. 또 ㉡은 “친구가 언제 시험을 보니?”와 같이 어순을 바꾸어 써도 성립하는데, 그 경우에도 ‘언제’는 ‘시험을 보니’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확인** 형용사와 동사의 구별

형용사는 해라체 현재 시제 평서형에서 ‘-다’를 쓰지만 동사는 ‘-는다/-는다’를 쓴다. 이로써 ㉢은 형용사이고 ㉣은 동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미적으로도 ㉢은 밝은 상태를 표현하므로 형용사이지만 ㉣은 밝아지는 움직임을 표현하므로 동사이다.

③ **확인** 관형사와 대명사의 구별

㉤은 ‘일’을 꾸며 주는 지시 관형사인 반면, ㉥은 격 조사가 붙어 있으므로 체언이고 그중에서도 명사를 대신해서 쓰였으므로 대명사이다.

④ **확인** 감탄사와 명사의 구별

㉠은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이고 ㉡은 격 조사가 붙어 목적어로 쓰였는데 사물의 이름을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도 아니고 수량을 가리키는 수사도 아니므로 명사이다. 명사는 어떤 대상(구체적 사물 혹은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낸다.

⑤ **확인** 명사와 부사의 구별

어떤 대상(구체적 사물 혹은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격 조사가 결합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품사는 명사이다.

㉢은 목적격 조사가 붙어 목적어로 쓰였다. ㉣은 동사인 서술어 '바라보았다'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부사이다.

13 문장 성분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필수 부사어와 필수 관형어

이 문장의 '선생님께서 영혜에게 건네주신'은 '것'을 꾸며 주는 관형사절인데, 그 절 속에 서술어 '건네주신'이 요구하는 필수 부사어로 '영혜에게'가 나왔다. 또한 '것'은 의존 명사로서 관형어의 꾸밈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데 관형사절이 관형어로서 '것'을 꾸며 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 관형사절은 필수 관형어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필수 부사어와 필수 관형어

'초등학교 친구들과'는 '만나다'가 요구하는 필수 부사어이다. 그러나 필수 관형어는 없다.

② **확인** 필수 부사어와 필수 관형어

관형사절 '우리가 만나서 결혼한'은 의존 명사 '지'를 꾸며 주는 필수 관형어이고 '15'도 의존 명사 '년'을 꾸며 주는 필수 관형어이다. 그러나 필수 부사어는 없다.

③ **확인** 필수 부사어와 필수 관형어

필수 부사어도 없고 필수 관형어도 없다.

⑤ **확인** 필수 부사어와 필수 관형어

관형사절 '그 사람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은 의존 명사 '데'를 꾸며 주는 필수 관형어이다. 그러나 필수 부사어는 없다.

14 음운 변동의 이해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확인** 7가지로 제한되어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경음화),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경음화), 자음군 단순화,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적용되었다. 따라서 ㉠, ㉡, ㉢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음운 변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이 현상은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7가지로 제한되어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으로 그 유형은 교체에 속한다. 그래서 7가지에 속하지 않는 자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 되어 'ㄱ, ㅋ'은 'ㄱ', 'ㅍ'은 'ㅍ', 'ㅅ, ㅆ, ㅈ, ㅊ, ㅌ, ㄷ, ㄸ'은 'ㄷ'으로 바뀐다.

ㅅ, ㅆ, ㅈ, ㅊ, ㅌ, ㄷ, ㄸ'은 'ㄷ'으로 바뀐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초성에 놓인 자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종성에 놓인 자음에서 일어나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② **확인** 자음의 특성에 동화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자음 동화와는 무관한 음운 변동이다.

③ **확인** 된소리로 바꾸어 주는

답지 ③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은 '된소리되기(경음화)'이다. 이 현상은 ㉠, ㉡에만 나오고 ㉢에는 나오지 않는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된소리로 바꾸는 현상이 아니다.

④ **확인**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에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의 '발과'나 ㉢의 '빛만'에서 보듯 체언 뒤에 조사가 결합할 때에도 적용된다.

15 합성어의 구조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확인** 길마중

'길마중'은 어근 '길'과 '마중'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마중'은 어근 '맞-'과 접미사 '-웅'이 결합된 말로서 활용형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의 조건을 어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비린내

'비린내'는 '비리-, -ㄴ, 내'의 세 형태소가 결합된 말이다. '비린'과 '내'가 어근으로 쓰였으므로 합성어에 속한다. 또한 '비린'이라는 용언의 활용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② **확인** 길짐승

'길짐승'은 '기-, -ㄹ, 짐승'의 세 형태소가 결합된 말이다. '길'과 '짐승'이 어근으로 쓰였으므로 합성어에 속한다. 또한 '길'이라는 용언의 활용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④ **확인** 불거리

'불거리'는 '보-, -ㄹ, 거리'의 세 형태소가 결합된 말이다. '불'과 '거리'가 어근으로 쓰였으므로 합성어에 속한다. 또한 '불'이라는 용언의 활용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⑤ **확인** 디딜방아

'디딜방아'는 '디디-, -ㄹ, 방아'의 세 형태소가 결합된 말이다. '디딜'과 '방아'가 어근으로 쓰였으므로 합성어에 속한다. 또한 '디딜'이라는 용언의 활용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14회

01 ②	02 ③	03 ⑤	04 ④	05 ④
06 ②	07 ④	08 ④	09 ①	10 ⑤
11 ⑤	12 ④	13 ②	14 ⑤	15 ③

[01~05] 화법

01 듣기 전략 평가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확인** 동조, 자신의 견해를 수정

‘학생 2’는 ‘프로그램 배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민수의 말에 동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학생 2’가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동의

‘프로그램 순서가 아쉬웠’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조 저녁 식사는 옆 조에 비해 초라’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민수와 혜선의 말에 동의하며 듣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확인** 비판적으로 평가

공포 체험을 더 늦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혜선의 말을 듣고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혜선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들었다고 볼 수 있다.

④ **확인** 활용한 자료, 점검

학급 회장이 언급한 설문 조사는 ‘참여율이 낮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점검하며 들었다고 볼 수 있다.

⑤ **확인** 예측

‘다음 야영에서는 친구에게 편지 쓰는 시간이 줄어들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예측하며 들었다고 볼 수 있다.

02 토의 내용 파악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확인** 저녁 식사 준비에 과도한 시간이 소모

앞 발화자와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지만 저녁 식사 준비에 과도한 시간이 소모되었음을 문제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별로 차이가 나는 저녁 식사 준비 때문에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야영 만족도가 예상보다 낮은 원인과 그 개선 방안

학급 회장의 첫 번째 발언을 보면 토의 안건으로 ‘야영이 친구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확인** 사회자의 요청으로 발언

학급 회장의 첫 번째 발언을 보면 민수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자 민수는 ‘프로그램의 순서 배치에 실패한 것’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확인** 사회자가 토의 결과를 잘못 정리

학급 회장이 ‘프로그램의 완성도 부족’을 언급하자 민수가 ‘프로그램 배치에 관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⑤ **확인** 다른 참여자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프로그램 배치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은 민수가 발언한 것이지만 개선 방안에 대해 토의할 때는 혜선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언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타인의 발언을 토대로 자신이 생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토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03 말하기 내용 추론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확인** 조리 팀이 생긴다면,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기회 <보기>의 조건은 상대 의견의 타당한 점을 먼저 언급한 뒤 문제점을 지적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어지는 발언 맥락으로 보아 조별로 음식을 만들자는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하다. ⑤는 먼저 ‘조리 팀이 생긴다면 식사 준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을 것’ 같다고 말한 후, ‘조별로 음식을 만들며 친구들 간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조건과 발언 맥락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다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

타당한 점을 언급한 뒤 문제점을 지적하고는 있으나 다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자는 내용은 토의 맥락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② **확인** 친구들의 다양한 음식 취향을 충족

<보기>의 조건을 충족하고는 있으나 ‘친구들의 다양한 음식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으므로 [가] 다음에 이어지는 혜선의 발언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확인** 다양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저녁 식사 시간을 줄이는 효과는 토의 맥락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확인** 부작용이 발생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04 말하기 방식 추론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구체적인 예, 답

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화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을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공포 영화의 예를 들어 맥거핀 효과가 의도적인 장치가 발휘하는 효과를 의미한다는 것을 설명 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질문에 대한 답을 생략, 자신의 견해

강연에 대한 느낌을 묻는 상대의 질문에 대해 자신도 재미 있었다는 답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② [확인] 상대의 생각에 동조

인터넷 뉴스가 사람들의 심리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는 상대의 의견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하여 상대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지 않다.

③ [확인] 인용, 자신의 느낌

강연에서 들었던 용어를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전하고 있지 않다.

⑤ [확인] 요약, 생각이 차이가 있음

상대의 말을 요약하고 있으나 상대와 자신의 생각이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05 말하기 내용 추론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출연하지 않는 사람, 이름을 언급

대화 내용을 토대로 이어질 대화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내용과는 관련이 없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장치를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야 하므로, 출연하지 않는 유명인의 이름을 언급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 드는 것은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비밀스러운 이야기

출연하는 사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구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확인] 자신의 이야기를 부풀려서

출연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과장하여 말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구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확인] 최초로 공개

출연하는 사람이 최초로 공개하는 이야기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구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확인] 물건들에 얽힌 사연

출연하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에 얽힌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구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6~10] 작문

06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확인] 평판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과정

평판이 사회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나)에 제시되지 않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평판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나)의 첫 번째 문단 ‘어느 누구도 그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확인] 평판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나)의 두 번째 문단 ‘개인의 성장을 돕는 디딤돌이기도 하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확인] 평판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나)의 세 번째 문단 ‘평판은 공동체가 잘 유지되도록 이끌어 나가는 데도 기여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확인] 좋은 평판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개인의 노력

(나)의 마지막 문단 ‘이러한 사회에서 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부분이 많다.’와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며 자신에 대한 좋은 평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7 글쓰기 방법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학생이 선택한 방법

㉓는 (나)의 첫 번째 문단 ‘세상 사람들의 비평을 평판이라고 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㉔는 두 번째 문단의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개인에게 족쇄일 뿐인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㉕는 세 번째 문단의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방해하는 돌출 행위를 하는 사람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포용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며 지지하여 왔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㉖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나)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08 자료 활용의 적절성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평판의 견제 기능 약화, 평판에 대해 알고 고민해 봐야 할 이유

<보기>는 현대인들이 공익에 무관심하고 개인의 물질적 이익과 자아실현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타인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를 활용하여 현대 사회가 각박해지는 이유가 평판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고, 평판에 대해 알고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각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현대 사회는 평판이 나빠도 불편함이 없는 (나)에서는 평판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보기>를 추가하여 현대 사회는 평판이 나빠도 불편함이 없는 익명성의 사회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나)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확인** 폭력 행위를 조장, 마녀사냥의 빌미 <보기>는 공익에 무관심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닌 현대인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서 평판을 잘못 이용하면 폭력 행위가 조장되고 마녀사냥의 빌미가 제공되기도 한다는 내용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나)는 평판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으로 (나)를 보완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③ **확인** 평판, 왜곡, 사실, 생생한 이미지 <보기>는 공익에 무관심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닌 현대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서 평판이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면 왜곡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나)는 평판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으로 (나)를 보완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⑤ **확인** 인터넷, 개인에 대한 평판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 <보기>는 공익에 무관심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닌 현대인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에서 개인에 대한 평판이 인터넷에서 확산되면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나)는 평판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으로 (나)를 보완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09 작문의 성격과 기능 파악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확인** 자신의 살아 있는 언어 자료에 나타난 필자의 작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가)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개인 본위의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할 것을, (나)에서는 자신의 삶을 살아 있는 언어로 표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확인** 옛사람들의 문장 (가)에서는 예전에 사용했던 표현을 그대로 답습하여 상투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옛사람들의 문장을 본받으라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확인** 글을 끊임없이 다듬는 것 (가)에서는 개성 있는 언어를, (나)에서는 나 자신의 말을 강조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글을 끊임없이 다듬는 것은 과거의 문장 작법으로 여겨 경계하고 있으며 (나)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확인** 언어와 문화를 새롭게 정립, 전달

(가)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문장 작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지금까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글쓰기가 자신의 삶에 대해 되돌아볼 것을 제시하고 있다. (가), (나) 모두 현재의 문화를 새롭게 정립하여 미래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확인** 관찰, 섬세한 문장 (나)에서는 자신이 겪은 일을 자세하게 쓰는 것을 글쓰기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가)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확인** 나의 사상과 감정, 소통 조건에 따라 글의 내용을 구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언어에 의해서 개인적·개인적인 것을 타인에게 전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학자의 입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나의 글을 통해 나의 사상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과 소통’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여 ㄱ 조건을, ‘~ 아니고, ~ 아니고,’의 표현을 통해 ㉠에 나타난 표현 방식인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는 ㄴ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나 자신에 대한 성찰 글을 쓰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의 의미를 갖는다고 제시하고 있어 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때에, ~ 때에’의 표현이 제시되어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여 ㄴ 조건을 충족하였다.

② **확인** 문제 해결 글을 쓰는 것이 문제 해결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어 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에서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여 ㄴ 조건을 충족하였다.

③ **확인** 공동체 글을 쓰는 것이 공동체와의 소통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어 ㄱ 조건을 충족하였다.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지 않아 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④ **확인** 글을 써야 할 이유, 독자, 소통 글을 쓰는 것이 독자와의 소통의 의미를 갖는다고 제시하고 있어 ㄱ 조건을 충족하였다.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지 않아 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11~15] 문법

11 문장 구조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확인** 한 문장이 다른 문장에 안길 때의 변화 (나)에서 ㉠은 ㉡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안겨 들어갔으나 (다)에서 ㉠은 ㉡에 관형어 역할을 하는 관형사

절로 안겨 들어갔다. (나)의 목적어는 필수 성분이지만 (다)의 관형어는 필수 성분이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한 문장이 다른 문장에 안길 때의 변화

㉠의 주어는 '민희가'인데 ㉡이 ㉢에 관형사절로 안길 때 주어 '민희가'가 생략되었다. (가)의 관형사절에 있는 주어 '마음씨가'는 ㉠의 서술절 속의 주어이지 ㉠의 주어가 아니다.

② **확인** 한 문장이 다른 문장에 안길 때의 변화

(나)에서 명사절 '아빠가 케이크를 사 오시기'에는 ㉢에 있는 주어가 그대로 들어 있다.

③ **확인** 한 문장이 다른 문장에 안길 때의 변화

(다)에서 ㉢이 관형사절 '아빠가 사 오신'으로 안기면서 목적어 '케이크를'이 생략되었다. 관형사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가 '케이크'이기 때문이다.

④ **확인** 관형사절을 만드는 관형사형 어미

(가)의 '마음씨가 착한'은 ㉠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것이고 (다)의 '아빠가 사 오신'은 ㉢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것이다. 두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는 같지만, 앞의 것은 형용사의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이고 뒤의 것은 동사의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이므로 문법적(시제적) 의미가 서로 다르다. (가)의 관형사절에는 주어가, (다)의 관형사절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12 사동문의 특성 ㉠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의 변화

㉠가 타동사인 경우: 주동문 ㉢에서의 주어가 사동문 ㉢에서 '아이에게'로 나타났으므로 부사어로 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런데 목적어 '아이를'도 가능하므로 부사어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의 변화

㉠가 형용사인 경우: ㉢의 주어 '길이'가 ㉢와 ㉢에서 모두 '길을'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확인**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의 변화

㉠가 자동사인 경우: ㉢의 주어 '아기가'가 ㉢에서는 목적어 '아기를'로 나타나지만, ㉢에서는 '아기가'와 '아기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확인**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의 변화

㉠가 타동사인 경우: ㉢의 목적어 '웃을'이 ㉢와 ㉢에서도 모두 '웃을'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확인**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의 변화

㉠가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인 경우: ㉢의 모든 문장과 그에 대응하는 ㉢의 모든 문장을 비교해 볼 때, ㉢의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수가 하나씩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 음운 변동의 유형 ㉠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확인** ㉠+는 → [㉠른]

어간의 겹받침 중 하나인 'ㄹ'이 탈락하는 것은 자음군 단 순화라는 탈락 현상이 적용된 결과이고, 어미의 첫 자음인 'ㄴ'이 'ㄹ'로 바뀐 것은 유음화라는 교체 현상이 적용된 결과이다. 따라서 두 가지 유형이 모두 적용된 예가 맞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고 → [㉠꼬]

'ㄹ'소리되기(경음화)'라는 교체 현상만 적용되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확인** ㉠+고 → [㉠꼬]

어간의 'ㄹ'이 'ㄴ'으로 바뀐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교체 현상이 적용된 결과이고, 어미의 첫 자음 'ㄴ'이 'ㄹ'으로 바뀐 것은 ㄹ'소리되기(경음화)라는 교체 현상이 적용된 결과이다. 비록 음운 변동이 두 개 적용되었지만 둘 다 그 유형은 '교체'에 속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확인** ㉠+다 → [㉠따]

어간의 'ㄴ'이 'ㄹ'으로 바뀐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교체 현상이 적용된 결과이고, 어미의 첫 자음 'ㄷ'이 'ㄸ'으로 바뀐 것은 ㄹ'소리되기(경음화)라는 교체 현상이 적용된 결과이다. 비록 음운 변동이 두 개 적용되었지만 둘 다 그 유형은 '교체'에 속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확인** ㉠+는 → [㉠는]

어간의 'ㄹ'이 교체에 속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아 'ㄷ'으로 바뀌고 이것이 역시 교체에 속하는 비음화의 적용을 받아 'ㄴ'으로 바뀌었다. 비록 음운 변동이 두 개 적용되었지만 둘 다 그 유형은 '교체'에 속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14 다의어의 용례 ㉠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확인** 너무 잘 드는 칼은

'칼이 잘 들다'에서의 '들다'는 '(안에) 들다'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로, 국어사전에 의하면 '날이 날카로워 물건이 잘 베어지다'로 풀이되어 있다. 따라서 '들다01'의 용례로는 부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숲 속에 들고 보니

'숲 속에 들고 보니'에서의 '들다'는 '들다01'의 용법에 해당하며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② **확인** 방 안에 들고 나서도

'방 안에 들고'에서의 '들다'는 '들다01'의 용법에 해당하며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③ **확인** 시간이 들기 마련이다

‘시간이 들기’에서의 ‘들다’는 ‘들다1’의 용법에 해당하며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이다’의 의미를 가진다.

④ **확인** 품이 들었다

‘품이 들었다’에서의 ‘들다’는 ‘들다1’의 용법에 해당하며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이다’의 의미를 가진다.

15 중세 국어의 합성어 유형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확인** 올마가더니라

‘올마가더니라’는 ‘올마’와 ‘가-’가 결합한 합성어 ‘올마가다’의 활용형이다. ‘올마가다’의 ‘올마’는 ‘옴-’에 어미 ‘-아’가 결합된 것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솟나아

‘솟나아’는 ‘솟-’과 ‘나-’가 결합한 합성어 ‘솟나다’의 활용형이다. ‘솟나다’의 ‘솟-’은 어미와 결합하지 않았으므로 ㉠에 해당한다.

② **확인** 옴느니라

‘옴느니라’는 ‘옴-’과 ‘느니-’가 결합한 합성어 ‘옴느니다’의 활용형이다. ‘옴느니다’의 ‘옴-’은 어미와 결합하지 않았으므로 ㉠에 해당한다.

④ **확인** 보슬퍼

‘보슬퍼’는 ‘보-’와 ‘슬피-’가 결합한 합성어 ‘보슬피다’의 활용형이다. ‘보슬피다’의 ‘보-’는 어미와 결합하지 않았으므로 ㉠에 해당한다.

⑤ **확인** 먹얼거

‘먹얼거’는 ‘먹-’과 ‘얼-’이 결합한 합성어 ‘먹얼다’의 활용형이다. ‘먹얼다’의 ‘먹-’는 어미와 결합하지 않았으므로 ㉠에 해당한다.

15회

01 ②	02 ③	03 ⑤	04 ⑤	05 ③
06 ④	07 ②	08 ④	09 ①	10 ①
11 ①	12 ④	13 ④	14 ①	15 ④

[01~05] 화법

01 말하기 계획 평가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확인** 게임에 대한 친구들의 긍정적인 반응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세운 계획이 실제 발표 내용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발표 내용에는 게임이 갖는 놀이로서의 의미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친구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선입견

게임을 하는 것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③ **확인** 사고 계발

게임 분야 권위자의 견해를 들어 게임이 여러 가지 사고 과정을 요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확인** 책을 읽거나 운동, 방해

어른들이 게임에 대해 책 읽거나 운동하기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⑤ **확인** 게임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게임을 하는 것이 책 읽기보다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과 밖에서 뛰놀지 않고 방에서 게임만 하여 몸이 약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게임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02 발표의 전략 평가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확인**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

발표자가 발표의 과정에서 사용한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학술지 나 게임과 교육사 최근호에는 ~ 게임 분야 권위자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를 통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설문 조사 결과

발표의 내용에는 설문 조사 결과가 활용되지 않았다.

② **확인** 시각 자료

발표에는 시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④ **확인** 궁금한 내용, 질문

발표자는 ‘그렇다면 게임이 정말 그렇게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그런데 왜 어른들은 게임을 나쁘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등의 질문을 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이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으로 볼 수 없다.

⑤ **확인** 청중, 반말

청중이 같은 반 학우이나 발표자는 높임말을 사용하여 공식적인 상황에서의 말하기를 수행하고 있다.

03 말하기 내용 추론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확인** 책 읽기, 게임, 차이

청중의 질문에 대해 발표의 내용을 토대로 답변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발표 내용에서 게임이 책 읽거나 운동을 하며 얻는 즐거움과 다른 성격의 즐거움을 준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책 읽기와 게임에서 느끼는 재미가 어떻게 다른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스트레스 해소

게임의 장점이 스트레스 해소에 있음을 설명하며 그것은

게임이 놀이의 측면을 갖기 때문임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책 읽기에서 느끼는 재미와 게임에서 느끼는 재미의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② **확인** 과도하게 몰입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책 읽기에서 느끼는 재미와 게임에서 느끼는 재미의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③ **확인** 지적인 성취감, 정서적 만족감

책을 읽는 것과 게임을 하는 것 둘 다 지적인 성취감과 정서적 만족감을 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책 읽기에서 느끼는 재미와 게임에서 느끼는 재미의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확인** 재미, 놀이

게임과 놀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어 게임이 유희의 일종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책 읽기에서 느끼는 재미와 게임에서 느끼는 재미의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04 면접의 전략 평가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확인** 예상치 못한 상황, 적절히 대응

면접 과정에서 나타난 말하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면접관은 학생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지 평가하고 있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언어 예절

면접관과 학생은 면접이 공적 말하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언어 예절을 지키면서 말하고 있다.

② **확인** 지원하게 된 동기

학생은 초등학교 때 박물관에서 유물을 보았던 경험과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들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해당 업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③ **확인** 지식, 성격

학생은 자신이 지역 생활사를 공부하여 지역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성격이 원만하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해당 봉사 활동에 적합함을 밝히고 있다.

④ **확인** 해당 업무에 적합한 자질

면접관은 학생이 해당 업무에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박물관에 지원한 이유와 우리 박물관에서 학생을 뽑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묻고 있다.

05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확인** 감동을 특히 어린 친구들에게 전하고, 보충 질문
면접에서 사용하는 질문의 유형을 알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면접관은 학생이 자신이 느꼈던

감동을 어린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하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는 말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보충 답변을 요구하는 보충 질문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다른 자원봉사와 구별되는, 폐쇄형 질문

다른 자원봉사와 구별되는 박물관 자원봉사의 장점을 묻는 질문이다. 이는 폐쇄형 질문이 아닌 개방형 질문에 해당한다.

② **확인** 유물 현황, 개방형 질문

□□시 박물관의 유물 현황에 대해 묻는 질문이다. 이는 개방형 질문이 아닌 폐쇄형 질문에 해당한다.

④ **확인** 구체적으로, 개방형 질문

학생이 갖고 있는 □□시 박물관에 대한 애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다. 이는 개방형 질문이 아닌 보충 질문에 해당한다.

⑤ **확인** 우리 박물관의 장점, 보충 질문

학생이 생각하는 □□시 박물관의 장점을 묻는 질문이다. 이는 보충 질문이 아닌 개방형 질문에 해당한다.

[06~10] 작문

06 글쓰기 전략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평년 물 방류량 및 올해 물 방류량

초고에서 사용한 글쓰기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학생이 초고에서 활용한 통계 자료는 올해 전국 평균 강수량과 평년 강수량, 우리 지역 올해 강수량에 관련된 것이다. 우리 지역 댐의 평년 물 방류량과 올해 물 방류량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자문자답의 형식

‘가뭄이 그리 간단하게 해소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자연 현상일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지역의 가뭄 문제는 어떠할까? ~ 다른 지역에 비해 가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라는 진술에서 자문자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② **확인** 관용구

‘물을 물 쓰듯 한다’라는 진술에서 ‘물 쓰듯’이라는 관용구를 활용하고 있다.

③ **확인** 가정, 지역, 생태계의 측면

가뭄의 피해를 가정, 지역, 생태계 등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⑤ **확인** 분류, 초점화

가뭄의 종류를 기상학적 가뭄, 농업적 가뭄, 수문학적 가뭄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문학적 가뭄으로 논의를 초점화하고 있다.

07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확인** 댐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양

섣득하는 글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절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나)는 비가 적게 올수록 댐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적다는 내용으로, ㉞의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물을 댐에 비축

(가)는 빗물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㉞의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확인** 수자원 시설물

(다)는 가뭄의 원인을 분석한 내용으로, ㉞의 내용을 구체화하

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확인** 지하수 자원

(가)는 빗물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는 내용이며 (다)는 가뭄의 원인을 분석한 내용으로, ㉞의 내용을 구체화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확인** 북태평양 고기압

(나)는 비가 적게 올수록 댐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적다는 내용이며 (다)는 가뭄의 원인으로 엘니뇨 현상이 거론된다는 내용으로, ㉞와 ㉞ 모두의 내용을 구체화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08 고쳐쓰기의 적절성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생활용수 수요, 물 자원 종량제

초고의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대책으로 물 절약, 지역에서 마련해야 할 대책으로 물 자원 종량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기술 개발

지역에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확인** 시스템 도입

가뭄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확인** 노후 수도관

각 가정에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이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확인** 가뭄 지표

가뭄 지표를 개발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09 내용 조직의 방법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확인** 경험, 깨달음

글쓰기가 사용한 내용 조직의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글쓰기는 칭찬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한 후 이를 통해 얻은 자신의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확인** 심리 실험

칭찬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리 실험은 근거로 제시되지 않았다.

③ **확인** 유명인의 사례

칭찬과 관련된 유명인의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④ **확인** 행동의 차이

칭찬과 질책에 따른 행동의 차이는 비교되어 제시되지 않았다.

⑤ **확인** 칭찬의 필요성,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칭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으며, 칭찬을 통해 변화한 자신의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10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확인** 유사한 구조의 문장, 행동이 변화했다는 의미
조언에 따라 새로운 문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어머니의 칭찬은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과 유사한 구조의 문장이며 마음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가 포함되므로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확인** 유사한 구조의 문장, 행동이 변화했다는 의미
‘어머니의 칭찬은 내 삶을 여유롭게 만든다.’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과 유사한 구조의 문장이나, 마음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확인** 유사한 구조의 문장, 행동이 변화했다는 의미
‘나의 하루를 여는 어머니의 칭찬은 마르지 않는 샘이다.’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과 유사한 구조의 문장이 아니며 마음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확인** 유사한 구조의 문장, 행동이 변화했다는 의미
‘어머니의 칭찬으로 인해 ‘마음만 먹었던 나’는 ‘행동으로 실천 하는 나’가 되었다.’는 마음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과 유사한 구조의 문장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확인** 유사한 구조의 문장, 행동이 변화했다는 의미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어제와는 다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과 유사한 구조의 문장이 아니며 마음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1~15] 문법

11 형태소의 종류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확인] 실질성, 문법성, 자립성, 의존성

단일어 중 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동사, 형용사)의 어간, 관형사, 부사, 감탄사는 실질 형태소이다. 반면에 조사와 어미는 문법 형태소이다. 용언(동사, 형용사)의 어간과 조사, 어미, 접사 등은 의존 형태소이다. ‘그’는 대명사(3인칭 대명사), ‘의’는 조사(관형격 조사), ‘얼굴’은 명사, ‘이’는 조사(주격 조사), ‘이내’는 부사, ‘밝-’은 형용사의 어간, ‘-은’은 어미(관형사형 어미), ‘빛’은 명사, ‘을’은 조사(목적격 조사), ‘따-’는 동사의 어간, ‘-었-’은 어미(선어말 어미), ‘-다’는 어미(종결 어미)이다.

12 격 조사의 의미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문장에서의 격 조사의 의미 해석

‘나’가 환호한 이유는 대표 팀이 4강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예문의 ‘에’는 원인 혹은 이유를 나타내는 ‘에’이다. 할머니께서 고생하시는 것은 무릎 관절염 때문이다. 따라서 이 예문의 ‘으로’는 원인 혹은 이유를 나타내는 ‘으로’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문장에서의 격 조사의 의미 해석

‘에’는 단위를 나타내고 ‘로’는 원인 혹은 이유의 뜻을 나타낸다.

② [확인] 문장에서의 격 조사의 의미 해석

‘에’는 원인 혹은 이유의 뜻을 나타내지만, ‘로’는 자격이나 신분의 뜻을 나타낸다.

③ [확인] 문장에서의 격 조사의 의미 해석

‘에’는 기준이 되는 지점의 뜻을 나타내고 ‘로’는 변화된 결과의 뜻을 나타낸다.

⑤ [확인] 문장에서의 격 조사의 의미 해석

‘에’는 목표나 목적 대상의 뜻을 나타내고 ‘으로’는 방식 혹은 방법의 뜻을 나타낸다.

13 남한과 북한의 언어적 특징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반모음 ‘ㅣ’ 첨가 시 표기의 차이

남한에서는 어미 ‘-어’에 대해 원칙적으로 [여]로 발음하되, 앞 음절의 모음에 따라 반모음이 첨가된 [여] 발음도 허용한다. 그러나 이를 표기에 반영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반모음이 첨가된 [여]를 표준 발음으로 정하고 표기에도 반영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두음 법칙의 차이

북한에서는 한자어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발음뿐만 아니라 표기에도 해당된다.

② [확인] 외래어보다는 한자어를, 한자어보다는 고유어를 ‘스커트(skirt)’는 외래어인데 북한에서는 한자어와 고유어를 합성한 ‘양복(洋服)치마’를 사용한다. 이로써 외래어보다는 한자어와 고유어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냉수욕(冷水浴)’은 한자어인데 북한에서는 고유어인 ‘찬물미역’을 사용한다. 이로써 한자어보다는 고유어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외래어보다는 한자어를, 한자어보다는 고유어를 선호함을 추론 할 수 있다.

③ [확인] 사이시옷 표기의 차이

북한과 남한에서 모두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사이시옷 현상이 일어나면 그 발음을 인정하지만, 남한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표기하지 않는다.

⑤ [확인] 어문 규정에서의 된소리 글자의 명칭

같은 문자가 나란히 있는 문자의 이름을 남한의 어문 규정인 한글 맞춤법에서는 ‘쌍〇〇’과 같이 두 개가 나란히 있음을 부각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북한의 어문 규정인 조선말 규범집에서는 ‘된〇〇’과 같이 해당 자음이 된소리인 특성을 부각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14 자음 동화의 분류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확인] 달+님 → [달림], 작+년 → [장년]

‘달+님 → [달림]’은 앞에 오는 자음 ‘ㄹ’의 조음 방법에 동화되어 뒤에 오는 자음 ‘ㄴ’이 ‘ㄹ’로 바뀐 동화 현상이므로 ㉠에 속한다. ‘작+년 → [장년]’은 뒤에 오는 자음 ‘ㄴ’의 조음 방법에 동화되어 앞에 오는 자음 ‘ㄱ’이 ‘ㅇ’으로 바뀐 동화 현상이므로 ㉡에 속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확인] 국+물 → [궁물], 칼+날 → [칼랄]

‘국+물 → [궁물]’은 뒤에 오는 자음 ‘ㅁ’의 조음 방법에 동화되어 앞에 오는 자음 ‘ㄱ’이 ‘ㅇ’으로 바뀐 동화 현상이므로 ㉡이 아니라 ㉢에 속한다. ‘칼+날 → [칼랄]’은 앞에 오는 자음 ‘ㄹ’의 조음 방법에 동화되어 뒤에 오는 자음 ‘ㄴ’이 ‘ㄹ’로 바뀐 동화 현상이므로 ㉢이 아니라 ㉠에 속한다.

③ [확인] 달+님 → [달림], 능+력 → [능녁]

‘달+님 → [달림]’은 ㉠에 속한다. ‘능+력 → [능녁]’은 앞에 오는 자음 ‘ㅇ’의 조음 방법에 동화되어 뒤에 오는 자음 ‘ㄹ’이 ‘ㄴ’으로 바뀐 동화 현상이므로 ㉢이 아니라 ㉠에 속한다.

④ 국+물 → [궁물], 능+력 → [능녁]

‘국+물 → [궁물]’은 ㉡이 아니라 ㉢에 속한다. ‘능+력

→ [능낙]'은 ㉠이 아니라 ㉡에 속한다.

⑤ 권+리 → [꺠리], 작+년 → [장년]

'권+리 → [꺠리]'는 뒤에 오는 'ㄹ'의 조음 방법에 동화되어 앞에 오는 'ㄴ'이 'ㄹ'로 바뀐 동화 현상이므로 ㉠이 아니라 ㉡에 속한다. '작+년 → [장년]'은 ㉡에 속한다.

15 로마자 표기법의 원칙 ㉢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거센소리되기를 로마자 표기에 반영했으므로

(나)의 설명에 따르면 '집합'과 같은 체언에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면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는 잘못된 내용이다. 참고로 '집합'의 로마자 표기는 'jiphap'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자음 동화를 로마자 표기에 반영했으므로

'독립'이 [동닙]으로 발음되는 것은 자음 동화가 적용된 결과이며 이것을 로마자 표기에 반영했으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② 'ㄴ' 첨가를 로마자 표기에 반영했으므로

'담요'가 [담뇨]로 발음되는 것은 'ㄴ'이 첨가된 결과이며 이것을 로마자 표기에 반영했으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③ 구개음화를 로마자 표기에 반영했으므로

'굳이'가 [구지]로 발음되는 것은 구개음화가 적용된 결과이며 이것을 로마자 표기에 반영했으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⑤ 된소리되기를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박수'가 [박쑤]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가 적용된 결과이며 (나)에 따르면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16회

01 ⑤	02 ⑤	03 ⑤	04 ②	05 ①
06 ④	07 ①	08 ②	09 ⑤	10 ③
11 ④	12 ③	13 ④	14 ⑤	15 ③

[01~04] 화법,

01 토의의 전략 평가 ㉢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확인** 근거

토의에 나타난 토의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지평하는 문항이다. '박 교수'가 '이 박사님 말처럼 안전을 위해 노후 간판은 우선 철거하되, 철거하는 간판은 도시 환경에 어울리는 것으로 교체하는 데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 박사'가 '박 교수'의 말을 근거로 들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의제

'사회자'는 토의의 의제가 '우리 지역 간판 개선 사업'임을 소개하며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② **확인** 구체적인 사례

'이 박사'는 '지난번 △△시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 노후 간판을 교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확인** 동의

'박 교수'는 '김 사무관'의 말에 '간판 자체가 노후한 것은 물론 문제입니다.'라고 동의를 표하면서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최근 설치된 간판들도 중구난방 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④ **확인** 요청, 상황

'김 사무관'은 '담당 공무원께서 현재 우리 지역의 간판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지금 우리 ○○시에는 간판이 너무 많아 거리 환경 조성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라며 토의 의제와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02 이어질 내용 추론 ㉢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확인** 시의 이미지, 가게의 이미지

토의 내용을 토대로 이어질 말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박 교수'는 간판 교체 사업을 시행할 때에 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의 이미지와 가게의 이미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시의 이미지와 가게의 이미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가게의 이미지

가게의 이미지를 잘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시되었지만, 시의 이미지 또는 도시 환경에 대한 진술이 제시되지 않았다.

② **확인** 별도의 관리 지원

간판 교체의 조건으로 가게에 대한 별도의 관리 지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게의 이미지를 살리는 것에 대한 진술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확인** 시의 이미지

시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간판으로의 교체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나, 가게의 이미지를 살리는 것에 대한 진술은 제시되지 않았다.

④ **확인** 시의 이미지

시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간판으로 교체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가게의 이미지를 살리는 것에 대한 진술은 제시되지 않았다.

03 말하기 계획 평가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확인] 역사적 사건의 의의

강연을 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 내용이 실제 강연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메모에서는 심산 선생의 삶과 당대 사건의 관련성을 드러내기 위해 각 역사적 사건의 의의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할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강연에서는 역사적 사건의 의의가 드러나 있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이해를 제고

강연에서 ‘독립운동가로서의 심산 선생의 면모를 소개’한다고 언급하여 강연의 내용이 독립운동가로 살아간 심산 선생의 삶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② [확인] 시간 순

강연에서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경술국치, 3·1 운동, 1920년대 해외에서의 독립운동, 광복 순으로 심산 선생의 활동을 시간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확인] 기개, 사례

강연에서 을사늑약 당시의 상소, 국권 회복 운동, 해외에서의 독립운동 등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일제의 탄압에도 항일의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고 언급하여 심산 선생의 기개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④ [확인] 심산 선생의 말

강연에서 “성인의 글을 읽고도 성인이 세상을 구제할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가짜 선비이다.”라는 심산 선생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독립운동에 대한 그의 신념을 제시하고 있다.

04 의사소통 전략 평가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확인] 감회

강연자가 청중과 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한 의사소통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강연에 강연자 자신의 개인적인 감회는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초점화

강연에서는 조국 해방을 위한 독립운동과 민족 통일, 그리고 민주주의에 기여한 심산의 업적 중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청중에게 독립운동의 의미를 생각하며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③ [확인] 청중의 이해를 확인

강연에서 ‘김창숙 선생이 어떤 분인지 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 손을 들어 보세요. (손을 든 학생을 확인한 후)’, ‘을사늑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까? 누가 이야기해 볼까요?’ (학생의 대답을 확인한 후)’, ‘여러분, 만

일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학생들을 둘러보면서)’라는 부분을 통해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청중의 이해를 확인하고 있다.

④ [확인] 다양한 질문

강연에서 ‘여러분은 독립운동가 중 어떤 분을 알고 있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 상황 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라는 질문을 통해 청중의 적극적인 사고를 유도하고 있다.

⑤ [확인] 강연의 취지

강연자는 ‘여러분이 이 강연을 통해 자신의 일생을 바쳐 나라를 사랑한 심산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진술을 통해 청중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05 글쓰기 전략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확인] 마음가짐

강연의 내용을 토대로 학생이 작성한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학생은 강연에서 알게 된 내용을 통해 ‘선현들의 삶에 대해 무심했던 나의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으며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되돌아보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확인] 사실에 부합

학생은 강연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따지고 있지 않다.

③ [확인] 반론

학생은 강연의 세부적 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④ [확인] 비교

학생은 강연자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으나, 강연자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⑤ [확인] 알리는

학생은 강연의 내용을 토대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으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06~09] 작문, [10] 화법

06 내용 생성의 적절성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대중문화의 적절한 소비 양상, 시대

쓰기 과제에 따라 구체화한 내용이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는 대중문화의 적절한 소비 양상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초고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우려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우려는 3문단에 나타나 있다.

② **확인** 또래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정서적 만족감
대중문화가 청소년에게 또래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한다는 것은 4문단에 나타나 있다.

③ **확인** 대중문화의 주요 소비자
청소년이 대중문화의 주요 소비자로 성장하는 이유는 2문단에 나타나 있다.

⑤ **확인** 대중문화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
대중문화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5문단에 나타나 있다.

07 자료 활용의 적절성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확인** 모든 채널
섣득하는 글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절한 근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대중문화의 확실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므로, 어떤 특정한 대중 문화 현상이 인기를 끌면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현상이 반복된다는 내용이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확인** 초기 사회화
어린이가 대중 매체를 통해 사회화를 경험한다는 내용으로, 대중 매체의 확실성을 뒷받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③ **확인** 단편적이고 감각적
즉각적으로 채널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리모컨으로 인해 단편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대중 매체의 확실성을 뒷받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④ **확인** 오락적 기능
예전과는 달리 뉴스의 오락적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대중 매체의 확실성을 뒷받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⑤ 시청 시간
TV 시청 시간과 신체 활동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으로, 대중 매체의 확실성을 뒷받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08 고쳐쓰기의 적절성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확인** 응집성
초고를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글의 흐름으로 볼 때 ㉠과 앞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비단
㉠은 많은 돈을 주어도 TV를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비단'을 '아무리'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③ **확인** 삭제
㉠은 TV 프로그램의 폭력성과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의 관련성은 알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대중문화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확인** 재구성
㉠은 청소년에게 또래 집단이 소중한 존재라는 내용이다. 이는 청소년이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이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청소년이 또래 집단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 대중문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확인** 배양
㉠은 대중문화를 밀어내는 것보다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배양'을 '배척'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09 요약하기 실제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확인** 숫자 체계, 0의 발명, 추상적 사고
조건에 따라 요약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0의 등장이 수 체계에 미친 영향을 제시한 후 0의 발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시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셈 계산
0이 셈 계산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 사실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이 수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아, 글의 핵심 내용을 일반화하여 간추려야 한다는 <조건>의 요약 전략을 적용하지 않았다.

② 디오판토스
숫자 체계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디오판토스를 예로 들어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예시나 부연 설명을 삭제해야 한다는 <조건>의 요약 전략을 적용하지 않았다.

③ 화이트헤드
0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화이트헤드를 예로 들어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예시나 부연 설명을 삭제해야 한다는 <조건>의 요약 전략을 적용하지 않았다.

④ 열 개의 숫자, 일상생활
0의 발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글의 핵심 내용을 일반화하여 간추려야 한다는 <조건>의 요약 전략을 적용하지 않았다.

10 발표의 적절성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선호하는 숫자
제시된 글의 내용을 토대로 발표 전략에 따른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제시된 글은 0의 발명에 대한 내용이므로, 사람마다 선호하는 숫자가 다른 이유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0의 발명'

'0의 발명'은 발표의 화제이므로 이를 언급하는 것은 발표의 화제를 명확하게 제시하자는 발표 전략에 따른 실행 계획으로 적절하다.

② 필요, 질문

청중에게 0이 필요한 경우가 언제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고 청중의 반응을 살피는 것은 청중과 상호 작용을 시도하자는 발표 전략에 따른 실행 계획으로 적절하다.

④ 그림 자료, 일상생활

일상생활에서 수의 많고 적음을 헤아릴 때에는 0이 필요하지 않았음을 언급하기 위해 사냥한 동물의 숫자를 옛날 사람들이 표기해 놓은 모습을 그림 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매체를 적절하게 사용하자는 발표 전략에 따른 실행 계획으로 적절하다.

⑤ 수 체계, 시각적

로마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칠판에 써 가면서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매체를 적절하게 사용하자는 발표 전략에 따른 실행 계획으로 적절하다.

[11~15] 문법

11 격 조사와 보조사의 문법적 특성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격 조사와 보조사가 붙은 말의 필수성

㉞의 '부산에는'은 서술어 '가다'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 즉 필수 부사어인데 '는'이 붙지 않아도 필수 성분이 된다. ㉞의 '학교에서는'은 서술어 '공부하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수 부사어가 아니다. 그러므로 '은/는'이 붙는 것이 문장의 필수 성분이 되는 것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격 조사와 보조사가 붙은 말의 문장 성분

㉞에서 '동생은', '동생이'가 모두 주어로 쓰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은/는', '이/가'는 주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다.

② [확인] 격 조사와 보조사의 교체 여부

㉞에서는 '은'과 '이'가 서로 교체되어 쓰일 수 있지만 ㉞에서는 '은'만 쓸 수 있고 '이'는 쓸 수 없다. 즉 '은/는'이 항상 '이/가'와 교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확인] 격 조사와 보조사가 붙은 말의 문장 성분

㉞에서 '동생은'은 주어, ㉞에서 '수박은'은 목적어, ㉞에서 '부산에는'은 부사어, ㉞에서 '학교에서는'은 부사어, ㉞에서 '빨리는'은 부사어이므로 보조사가 다양한 문장 성분에 붙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데 반해, '이/가'가 붙은 말은 ㉞의 주어인 '동생이'만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어진 탐구 자료에서 주격 조사 '이/가'는 주어에만 붙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확인] 보조사가 붙는 대상

보조사 '는'이 ㉞, ㉞에서는 부사격 조사 뒤에 붙었고 ㉞에서는 부사 뒤에 붙었다. 즉 보조사는 체언 이외의 요소 뒤에도 결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㉞~㉞에서 주격 조사 '이/가'가 붙은 예문은 모두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12 다의어의 특성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확인] 공간어와 시간어로 분화된 다의어

'벽면의 갈라진 틈'에서의 '틈'은 공간적 의미로 쓰인 것이고 '문화생활을 할 틈'에서의 '틈'은 '여가' 혹은 '한가한 시간'의 뜻을 지녔으므로 시간적 의미로 쓰인 것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구체어에서 추상어로 확장된 공간어

'현지 뒤'에서의 '뒤'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공간을 의미하지만, '그 사건 뒤'에서의 '뒤'는 보이지 않는 배후라는 추상적 공간을 의미한다. 공통적으로 둘 다 공간어이다.

② [확인] 시간어의 반대 방향적 쓰임

'10년 앞'에서의 '앞'은 미래를 의미하지만 '앞 세대'에서의 '앞'은 과거를 의미한다. 공통적으로 둘 다 시간어이다.

④ [확인] 구체어에서 추상어로 확장된 공간어

'서울과 광주 사이'에서의 '사이'는 '한곳에서 다른 곳까지, 또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까지의 거리나 공간'을 의미하지만 '선후배 사이'에서의 '사이'는 '서로 맺은 관계. 또는 사귀는 정분'을 의미한다. 앞의 것은 구체적 공간을 의미하지만 뒤의 것은 공간적 의미가 추상화된 것이다. 둘 다 시간적 의미는 없다.

⑤ [확인] 구체어에서 추상어로 확장된 공간어

'큰 건물도 지을 여지'에서의 '여지'는 '남는 땅'을 의미하지만, '개선할 여지'에서의 '여지'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희망'을 의미한다. 앞의 것은 구체적 공간을 의미하지만 뒤의 것은 공간적 의미가 추상화된 것이다. 둘 다 시간적 의미는 없다.

13 자음군 단순화의 이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값없이'를 [가법씨]로

'값없이'의 '값'이 [갑]으로 발음되는 것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서 '값'에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㉞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끓고'를 [끈코]로

'끓고'를 [끈코]로 발음하는 것은 'ㅎ'과 'ㄴ'이 [ㄴ]으로 축약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㉞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② [확인] '싫은'을 [시른]으로

'싫은'에서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

고 있다. 설명에 따르면 자음군 단순화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 앞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다. ‘싫은’이 [시른]으로 발음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ㅎ’ 탈락이 적용된 것이다.

③ **확인** ‘안팎’을 [안팍]으로

‘안팍’에는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가 없으므로 자음군 단순화의 적용과 무관하다. 참고로 ‘안팍’의 ‘ㄱ’은 하나의 자음에 불과하므로 ‘ㄱ’이 [ㄱ]으로 발음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것이 아니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것이다.

⑤ **확인** ‘넓히다’를 [널피다]로

‘넓히다’에서는 앞에 오는 ‘ㄴ’과 뒤에 오는 ‘ㅎ’이 축약되어 ‘ㅍ’으로 발음되고 있다. 이것은 자음군 단순화와는 무관한 현상이다.

14 단어 형성 요소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확인** 파생어이다

‘오르막길’은 어근 ‘오르-’에 접사 ‘-막’이 결합된 ‘오르막’이 ‘길’과 결합된 합성어이다. 접사 ‘-막’이 포함되어 있지만 ‘오르막길’은 두 개의 명사 ‘오르막’과 ‘길’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두 개의 접사가, 파생어이다

‘짓밟히다’는 ‘짓밟-’에 접미사 ‘-히-’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또한 ‘짓밟-’은 접두사 ‘짓-’과 어근 ‘밟-’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짓밟히다’는 두 개의 접사가 들어 있는 파생어가 맞다.

② **확인** 어근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버드나무’는 ‘버들’과 ‘나무’가 결합된 합성어이며 ‘버들’과 ‘나무’는 모두 어근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③ **확인** 동일한 접사가, ‘되감다’를

‘되돌리다’에 포함된 접두사 ‘되-’와 ‘되감다’에 포함된 접두사 ‘되-’는 모두 ‘도로’의 뜻을 더해 주는 접두사로 동일하다. 따라서 올바른 설명이다.

④ **확인** 동일한 구조로, ‘웃음꽃’을

‘비빔밥’은 어근 ‘비비-’에 접사 ‘-ㅁ’이 결합한 ‘비빔’이 ‘밥’과 합쳐져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웃음꽃’ 역시 어근 ‘웃-’에 접사 ‘-음’이 결합한 ‘웃음’이 ‘꽃’과 결합하여 합성어가 되었으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15 중세 국어의 특징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확인** 뿌메, 수비

‘뿌메’에는 어두 자음군 ‘ㅂ’이 쓰였다. ‘ㅂ’은 ‘ㅅ’과 ‘ㅍ’의 두 자음을 가리키므로 ‘뿌메’는 ㉠의 예에 속한다. ‘수비’에는 ‘ㅂ’이 들어 있으며 ‘ㅂ’은 현대 국어에는 없는

자음이므로 ‘수비’는 ㉡의 예에 속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링ㄱ노니, 수비

‘링ㄱ노니’는 하나의 자음으로 시작하므로 ㉠의 예가 될 수 없다. ‘수비’는 ㉡의 예에 속한다.

② **확인** 히며, 여둡

‘히며’는 ‘ㅎ’으로 시작하므로 ㉠의 예가 될 수 없다. ‘여둡’에는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자음이 없으므로 ㉡의 예가 될 수 없다.

④ **확인** 링ㄱ노니, 여둡

‘링ㄱ노니’는 ㉠의 예가 될 수 없으며 ‘여둡’은 ㉡의 예가 될 수 없다.

⑤ **확인** 뿌메, 이룰

‘뿌메’는 ㉠의 예가 맞지만 ‘이룰’에는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자음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의 예가 될 수 없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는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